

전의현과 박팽년



전의현과 박팽년



세종문화원

발간사



세종문화원장 임 영 이

예부터 우리고장은 천혜의 관광 자원인 산과 호수가 잘 조화된 지역이며,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혼이 담겨 있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후손으로 그 덕을 기리고 또 우리의 후손에게 그 정신이 교육 되어져야 할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전의현과 박팽년”은 그런 이유로 세종시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전의면 관정리 박동마을은 박팽년 선생이 살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의 조부 이신 박안생 선생의 묘소가 세종시 전동면 송정리 산 4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박팽년 선생님이 세종시 전의면 출신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그분을 연구할 수 있게 되니 더 빨리 연구하지 못함이 부끄럽고 감회가 남다릅니다.

특히, 박팽년 선생이 다시 역사적으로 조명되고, 연구되는 첫 출발을 열 수 있도록 후원해준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 연구를 기점으로 훌륭한 세종시의 인물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조명이 활발해졌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특히 역동적으로 커지고 있는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에 이지역 인물이나 문화재를 발굴해 정신적 구심점을 삼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던 터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봅니다.

축간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장 이춘희입니다.

갑오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의현과 박팽년 선생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자료집 편찬을 위해 애써주신 세종향토사연구소 황우성 소장님과 충남역사문화원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주대학교 윤용혁 대학원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부세종청사의 3단계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전 국민의 성원과 기대를 받고 출범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세종시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지역에 이어져온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내년부터 세종시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시민 수요에 맞는 시민대학 집현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종인문지리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전의현과 박팽년 자료집이 앞으로 운영하게 될 집현전 프로그램에서 세종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여간다면 세종시의 발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민들에게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자료집 발간을 위해서 애써주신 집필자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간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 상 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상전입니다.

취금현 박팽년 선생의 절의정신과 그 소중한 문화유산의 활용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이번 『전의현과 박팽년 자료집』이 출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축사에 앞서, 조선 초기 굴곡진 역사의 모진 세파 속에서 대나무 보다도 모진 절의로 옥중에 절명하신 취금현 박팽년 선생의 충절앞에 숙연함과 함께 마음속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익추구의 산업사회 속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600년 세월의 풍파도 견어내지 못한 박팽년선생의 세한고절의 정신은 오히려 우리에게 삶을 되돌아 볼 새로운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선생의 숭고한 절의가 널리 알려지게되고 더 나아가 우리 세종시에 또 하나의 역사적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뜻깊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임영이 세종문화원장님과 자료집 발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정성과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6만 세종시민과 더불어 전의현과 박팽년 자료집 발간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세종문화원 임직원과 독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간사



충정(忠貞)과 절의(節義)의 고향,
세종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첫 걸음

세종 향토사연구소장 황우성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이후, 우리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군이었던 '세종대왕' 으로부터 '세종시' 라는 명칭을 가져온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세종시는 앞으로 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도시로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종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 주민들의 의식의 흐름이자 자존감이며, 이는 애향심과 향토 문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지역문화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인 만큼 우리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지름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연기·공주 지역은 세종대왕을 보필하며 그 업적을 드높였던 조선 전기의 역사적 위인인 김종서, 박팽년, 성삼문, 김처선 등의 인물과 관련이 깊은 지역입니다. 우리 세종지역을 고향으로 삼았던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이들의 신념과 정신 등을 배우고, 이를 문화유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세종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 중 사육신인 '취금헌 박팽년'은 우리 전 지역에 '전의본가'를 이루고 살았으며, 조부 박안생-부 박중림-박팽년에 이르기까지 3대가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참수당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박팽년의 충절과 절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이를 세종 지역의 유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학술발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임영이 세종문화원장님, 귀중한 연구 내용을 전해주시는 김경수, 오석민, 김문준, 유병덕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간 중에도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윤용혁 교수님과 이재관, 한기범, 최정묵, 이정우, 박대규, 송길룡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취금헌 박팽년의 절의 정신과 문화유산 활용방안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세종 지역의 정신적 문화 유산을 뜻깊게 아로새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간사 | 임영이 (세종문화원장) · 2

축간사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4

임상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 6

황우성 (세종향토사연구소장) · 8

I. 단종복위운동과 정치 세력의 재편

김 경 수 | 청운대학교

1. 머리말 · 17
2. 계유정난과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 · 18
3. 금성대군의 단종복위운동 · 22
4. 정치 세력의 재편 · 26
5. 맺음말 · 38

II. 박팽년 가계의 전의현 입향과정

오 석 민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 들어가는 말 · 45
2. 박팽년 가계의 선대 행적 · 45
3. 박팽년의 외조부 김익생의 행적 · 49
4. 박중림-박팽년 출생지와 거주지에 관한 검토 · 56
5. 박팽년의 회덕 출생설의 허와 실 · 66
6. 나가면서 : 향후의 과제 · 70



III. 조선후기 박팽년의 복권과 추송

김문준 | 건양대학교

1. 머리말 · 75
2. 중종대 사림들의 사육신 복권 노력 · 78
3. 효종대 사림들의 사육신 복권 노력 · 83
4. 숙종대의 사육신의 복권과 추송 · 87
5. 영조대 이후 사육신 추송 과정과 박팽년 유적 현창사업 · 88
6. 맺는말 · 90

IV. 박팽년 가계의 종중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오석민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 들어가는 말 · 95
2. 순천박씨의 종중 조직화 과정과 우암 송시열 · 96
 - 1) 박팽년의 유일한 혈손 박일산 가계의 활동
 - 2) 박팽년 방계 혈족의 동향
3. 충정공파 대종중의 형성과 대동보 발간 · 112
 - 1) 충정공파 종손 박기정의 활동과 대동보 발간사업
 - 2) 합보(合譜)의 전개과정
4. 나가면서 : 향후의 과제와 전망 · 117



V. 박팽년 관련 유적 현황과 활용방안

오 석 민 · 유병덕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 들어가는 글 · 123
2. 관련 문화자원의 현황과 특징 · 124
3. 세종조 세종시의 역사 인물들 : 성삼문과 김종서, 그리고 김처선 · 129
4. 박동 인근 연계 가능한 역사자원 · 134
5. 관련 자원의 잠재력과 정책제언 · 136
6. 나가는 글 · 144

VI. 박팽년의 절의정신과 문화유산 활용방안 : 자료집

오 석 민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별첨 1> 박팽년 가계의 전의 본가(全義本家) 관련 기록 · 149
- <별첨 2> 순천박씨 분파도 · 163
- <별첨 3> 전의 안동김씨 외손 이상의 입향과정 · 164
- <별첨 4> 박일산 출생 관련 기록 · 167
 - 1) 『홍재전서』
 - 2) 『연려실기술』
 - 3) 『청장관전서』
 - 4) 『육선생유고』 「박선생사실」



- 〈별첨 5〉 노량진 전(傳)사육신 묘 관련 자료 · 171
- 1) 김집(金集)의 박승고에게 보낸 답신 (『신독재유고』 1639년 11월 16일)
 - 2) 허목(許穆)이 박승고에게 보낸 답신 (『기언』)
 - 3) 1645년 김상헌이 박승고에게 보낸 답신
 - 4) 이식이 박승고에게 보낸 답신
 - 5) 이경석이 박승고에게 보낸 답신
 - 6) 허목(許穆)의 육신의총비문(六臣疑塚碑文)
 - 7) 남구만(南九萬)의 육신묘비문(六臣墓碑文)
- 〈별첨 6〉 순천박씨 족보 서문 · 191
- 1) 1670년 순천박씨 족보 서문
 - 2) 1677년 순천박씨 『경신보』 서문(『송자대전』)
 - 3) 1713년 순천박씨 『계사보』 발문
- 〈별첨 7〉 고려 진서 박공 묘표(高麗典書朴公墓表)(『송자대전』) · 197
- 〈별첨 8〉 우암 송시열의 성삼문 현양사업 · 199
- 〈별첨 9〉 박팽년의 외숙 김익정과 김종서의 관계(『단종실록』) · 202
- 〈별첨 10〉 전의 초수(全義椒水) 관련 기록 · 206

취금헌 박팽년의 학술발표회 · 207

향토사 위원의 대구 묘골 답사 프로필 · 209

박팽년 연표 · 212



I

단종복위운동과 정치 세력의 재편

1. 머리말 · 17
2. 계유정난과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 · 18
3. 금성대군의 단종복위운동 · 22
4. 정치 세력의 재편 · 26
5. 맺음말 · 38

단종복위운동과 정치 세력의 재편

김 경 수 | 청운대학교

1. 머리말

정치는 권력을 둘러싼 인간의 활동,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전개되는 사회 현상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제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 각 정치인들의 정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조선왕조 건국 이후 60년 만에 발생한 계유정난 당시, 명분(김종서)과 현실(수양대군) 사이에서 드러낸 관료들의 정치적 성향은 그러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 건국이념은 성리학이었고, 실천 윤리는 절의와 명분이었다. 따라서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의리와 명분을 지키는 것은 儒者의 기본 도리였다. 그런데 정국의 변동 과정에서 기본 도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명분을 지키기 위하여 현실 권력과 대립했던 인사가 있는가 하면, 타협하는 인사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한때의 동지가 적이 되고, 적이 동지가 된다.'는 정치 현실을 실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세종의 사후 병약한 문종의 왕위 승계와 곧 이은 사망, 어린 단종의 즉위로 비정상적 정국 운영이 나타났다.¹⁾ 이때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조정 내의 복잡한 갈등 구도를 유리하게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공신 책봉²⁾을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비협조적이었던 일부 집현전 학사들과 종친들까지 녹공함으로써 자파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였다. 그러나 단종의 선위와 수양대군의 즉위가 이루어지자, 조직적인 반발이 나타났다. 세종과 문종에게 남다른 충애를 받았던 인사들은 단종에게 충성하는 것이, 국가(세종과 문종)에 대한 충성이자 선비의 도리라고 여겼다.³⁾

1) 어린 단종의 즉위 이후의 정국 운영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단종의 권위와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 역시 아니었다.

2) 수양대군이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던 단종 원년(1453) 10월의 계유정난부터 성종 2년(1471)까지 18년 동안에 다섯 차례의 공신책봉이 있었다. 짧은 기간에 다섯 차례의 공신 책봉이 있었다는 것은 정치적 격동기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3) 이들은 계유정난 전후의 시기에 대내외적 정세 변화가 급박하지 않았다는 점, 전횡이라고 할 만큼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의 권력 농단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난의 명분이 빈약하다고 판단하였다.

계유정난과 단종복위운동이 진행되던 시기에 세종 직계의 왕자들 간에도 갈등 및 대립 구도가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안평대군과 금성대군, 영빈 강씨 소생의 화의군과 혜빈 양씨 소생의 한남군과 수춘군, 영풍군은 명분에 따라 종통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해 임영대군과 영웅대군, 신빈 김씨 소생의 계양군과 밀성군, 익현군은 왕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협조하였다. 두 세력 모두 자신들의 행위가 명분에 맞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뿐,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다.

단종복위운동과 이에 대한 진압, 논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국은 급변하였다. 종친들 사이에서 정치적 이해가 갈리자,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관료들의 이합집산은 더욱 심하게 요동쳤다. 태조 7년 왕자의 난을 통해 이미 경험한 바 있지만,⁴⁾ 세조의 집권 과정에 나타난 권력 변동은 더욱 극심했던 것이다.

이제까지 계유정난과 세조의 즉위, 세조대의 정국운영과 단종복위운동의 전말 등에 대한 연구⁵⁾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세조정권 등장 시기의 정국운영 상황, 정치세력의 변동, 단종복위운동을 둘러싸고 벌어진 종친 및 관료층의 이합집산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난 단종복위운동의 전말과 이에 연루된 정치인들 사이에 형성된 복잡한 통혼권을 중심으로 권력의 변동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현실 정치를 주도하였던 세 세력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를 통해 세조 집권기 정치 세력의 변화 양상과 긴박하게 전개된 정국 변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계유정난과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

세종과 문종이 승하하고 12세의 단종이 즉위한 이후, 정국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수양대군 대 皇甫仁·金宗瑞 등 종친과 대신 간의 갈등 구도는 물론,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등 종친 간의 대립 구도, 원로 대신과 신진 관료들 간에 정국을 보는 미묘한 견해 차이 등의 갈등구도가 복합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대치정국은 1453년(단종 1)에 발생한 계유정난을 계기로 수양대군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졌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살해하고, 이들과 연결되었다는 미명으로

4) 정도전과 남은, 심효생 등 방석을 옹호하던 세력이 축출되고, 하륜과 조준, 권근, 민제 등 태종의 집권을 도모했던 세력이 새로운 권력층을 형성했다.

5) 참고 문헌 참조.

동생 안평대군을 강화로 유배 보내는 등 대립 세력을 제거하면서⁶⁾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⁷⁾ 이 과정에서 김종서와 더불어 북방 개혁의 영웅이었던 이징옥 등 군권을 행사하던 세력도 제거하면서,⁸⁾ 병권까지 자신의 수중에 넣을 수 있었다. 이후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에 오르고, 우군인 정인지와 한확을 각각 좌의정 및 우의정으로 삼는 조각을 이룬 후 軍國 기밀을 모두 장악하였다.⁹⁾ 그런 뒤 유교 이념과 사상의 체계화에 기여했던 집현전의 학사에게 교서를 작성케 함으로써 자신의 즉위과정을 周公에 비유하고 유교적 명분을 찾고자 하였다.¹⁰⁾ 그러나 그는 주공이 되기보다는 조카를 상왕으로 올리고, 권력을 강탈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1455년 윤6월 11일 스스로 왕위에 올라 주상으로서 첫 조회와 정사를 시작하였던 것이다.¹¹⁾

이와 같이 계유정난 이후 실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단종의 이름으로 공신 책봉을 하면서, 반란의 정당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성삼문 같은 이를 정난 공신(3등)으로 책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진 뒤 단행된 공신들의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 부왕 세종 대부터 집현전에서 국정 운영의 이념과 원리를 제공하였던 집현전 학사들을 위무하기 위한 수양대군 측의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술수일 뿐이었던 것이다.

패권정치를 전개하였던 세조와 공신들이었지만, 자신들이 구축한 정권의 안정적 유지와 집권 이후의 정국 운영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분의 확보가 필요했다. 따라서 계유정난 이후 성삼문을 공신에 책봉하거나, 하위지를 좌사간, 성삼문을 우사간, 이개를 집의,¹²⁾ 박팽년을 우승지¹³⁾로 승진시키는 등 학사들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구했다. 더불어 김종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6) 『단종실록』 권8, 1년 10월 癸巳.

7) 김종서의 죽음은 정상적인 헌정 질서의 붕괴, 군신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8) 수양대군은 세종 때 김종서를 옹해하였던 박호문을 자헌부대로 승진시켜 함길도 도절제사로 제수하여 이징옥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발한 이징옥이 난을 일으켰지만 곧 진압되었고, 이후 수양대군이 병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9) 『단종실록』 권8, 1년 10월 甲午.

10) 당시 집현전 학사들은 모두 피하고 있었는데, 연소한 측에 들어 차마 집현전을 비울 수 없어 혼자 남아 있다가 험박을 통해 정인지의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가 사육신 柳誠源이다.(『연려실기술』 권4, 단종조고사본말) 그런데 유성원이 단종복위운동에 가담한 것을 보면, 교서의 작성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11) 세조 정권의 정국 운영 및 왕권강화정책에 대해서는 최승희의 글(『세조대 왕위의 취약성과 왕권강화책』, 『조선시대사학보』 1, 1997)과 김태영의 글(『조선초기 세조왕권의 전제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 87, 1994)이 많은 참고가 된다.

12) 『단종실록』 권8, 1년 10월 戊戌.

13) 『단종실록』 권9, 1년 11월 庚申.

작업¹⁴⁾과 집현전 학사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공신 책봉, 관직 제수 등의 우대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런데 단종을 따르던 집현전 학사들이 계유정난 당시 반기를 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는 동조 세력을 규합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한계였고, 다른 하나는 당시 정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였다. 계유정난 때까지만 하더라도, 왕은 여전히 단종이었다. 전권을 쥐고 정국을 좌우하는 등 수양대군과 공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 수양대군과 그 우군을 제거하는 일을 도모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단종이 폐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사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의리와 명분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양대군이 단종을 상왕으로 올리고 보위를 차지하자, 박팽년과 성삼문 등 집현전 학사들은 더 이상 현실정치에 침묵하는 것은 명분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1456년(세조 2) 6월 단종복위운동의 발생이 그것이다.¹⁵⁾

박팽년, 성삼문, 하위지, 유성원, 이개, 유응부, 김문기, 성승, 朴靖, 권자신, 宋石同, 尹令孫, 李徽, 박중림 등은 단종복위운동을 적극 도모하였다.¹⁶⁾ 그러나 거사가 미루어지고 김질의 밀고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모두 처형당하고 말았다.¹⁷⁾ 유성원과 허조(이개의 매부)는 사건이 누설된 것을 확인하고 자살하였다.¹⁸⁾ 沈愼, 이유기, 이의영, 이정상, 이지영,¹⁹⁾ 이오,²⁰⁾ 황선보²¹⁾ 등도 사건에 연루되었음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형벌은 가혹하리만큼 심했고, 가족 중 부녀자는 공신들에게 하사되었으며,²²⁾ 전토 일체는 몰수당하였다.²³⁾ 종친에 대한 처벌도 예외가 아니었다.

14)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편찬 책임자를 정인지로 바꾸는 조치를 비롯하여 철저한 응징을 가했다.

15) 종친 중에서는 수양대군의 친동생 금성대군과 서동생 화의군을 비롯한 일부가 동조하였고, 금성대군은 직접 2차 단종 복위운동을 전개하였다.

16) 『세조실록』 권4, 2년 6월 庚子.

17) 1차(유성원·박팽년·허조), 2차(이개·하위지·성삼문·성승·박중림·김문기·유응부·송석동·권자신·윤영손), 3차(이오), 4차(황선보), 5차(무녀), 6차(심신·박기년·이정상·이지영), 7차(최치지·최득지·권저·최사우·박인년·이의영·김감·봉여해·김선지·이호·이유기·박대년·성삼성·성삼고·정관·장귀남·이말생), 8차(최면), 9차(이휘) 등이다. 이에 대한 실록의 전거는 『세조실록』 권4, 2년 6월 乙巳·丙午·戊申·乙酉·丙辰·乙未·甲子·乙卯 등이다.

18) 『세조실록』 권4, 2년 6월 甲辰.

19) 『세조실록』 권4, 2년 6월 丙午.

20) 『세조실록』 권4, 2년 6월 戊申.

21) 『세조실록』 권4, 2년 6월 己酉.

22) 『세조실록』 권5, 2년 9월 甲戌.

23) 『세조실록』 권7, 3년 3월 丙戌.

이유·이영·이어·이전, 정종의 가산을 적몰하고, 고신을 거두고, 먼 지방에 안치하라. 이개 등의 사건에 관련된 최숙손·홍귀동·최명한·최계한과 이유의 당파 고승후·박치·이계성·안조술·박동·박거완·박호선·이석철·고승익 등도 역시 고신을 거두고, 먼 지방에 안치하라. ...²⁴⁾

반대파 인사들의 가산을 몰수하고 먼 지방으로 유배하라는 세조의 명이 내려진 다음날, 금성대군은 순흥에, 화의군은 금산에 이배되었다. 유배지 수령에게 이들이 거처할 곳을 수리하게 하면서, 난간·담장과 문호(門戶)를 될 수 있는 대로 높고 견고하게 하고, 교대로 지키게 하여 외부 사람들과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까지 내렸던 것이다.²⁵⁾

수양대군은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단종복위운동의 주동자들을 극형으로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 무대였던 집현전마저 헐파하였다.²⁶⁾ 피를 나눈 종친일지언정 자신에게 적대적인 인사는 물론, 관청이나 제도(경연 등) 조차도 일체 용납하지 않는 패권정치를 강행했다.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무시무시한 단죄 조치를 내린 것이다.²⁷⁾

단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뒤, 창덕궁으로 이어하였지만, 공신들은 궁 밖으로 내 보내야 한다는 상소를 연이어 올렸다. 네 차례에 걸친 상소가 이어질 정도로 공신들은 상왕의 존재를 부정하였던 것이다.

쿠데타와 즉위 과정에서 정통성을 잃은 세조와 공신들의 입장에서서는 어떠한 도전도 용서하지 않았으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다. 재위 기간 내내 정권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강경하게 처리할 뿐이었다. 명분 없이 세워진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설픈 명분 세우기를 도모한 것이었다.²⁸⁾

집현전 학사를 비롯하여 1차 단종복위운동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해 가혹한 형벌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의 주역들은 상왕의 존재 자체를 불안하게 여겼다. 제2의 단종복위운동을 우려했던 것이고, 그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제2차 단종복위운동, 즉 금성대군의 역모사건이 그것이다.

24) 『세조실록』 권4, 2년 6월 甲子.

25) 『세조실록』 권4, 2년 6월 乙丑.

26) 『세조실록』 권4, 2년 6월 甲辰.

27) 『세조실록』 권4, 2년 6월 癸卯.

28) 최승희는 세조의 집권기간 발생한 각종 사건과 이에 대한 강경한 진압을 왕권 강화책의 일환이라고 보았다(『세조대 왕위의 취약성과 왕권강화책』, 『조선시대사학보』 1, 1997 및 『세조대 국정운영체제』, 『조선시대사학보』 5, 1998).

29) 세종 19년 전주 최사강의 딸과 혼인하였고(『세조실록』 권76, 19년 2월 丙子). 4개월 뒤에 방석의 후사로 출계되었다(『세조실록』 권77, 19년 6월 辛酉).

3. 금성대군의 단종복위운동

금성대군(1426~1457)²⁹⁾은 평소에도 9살 위의 형 수양대군에게 곧은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계유정난 이후에는 불편한 심기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결국 계유정난 이후 왕자 신분을 박탈당했으며, 1455년(단종 3) 윤6월 11일에는 반란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朔寧(현 연천)으로 귀양 갔다가,³⁰⁾ 이후 廣州로 이배되었다.³¹⁾

그런데 무엇보다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했던 세종의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성대군과 수양대군은 무슨 이유로 정치적 대립각을 세웠을까? 그 이유를 추적해 보자. 『세조실록』 권1 ‘총서’를 보면, 금성대군이 조카 단종을 보호하려고 했던 배경 및 형 수양대군과 소원해진 원인의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음 기사를 보자.

세종이 문종에게 명하기를, 가) ‘국가의 안위가 네 한 몸에 달려 있다.’ 하며, 또 세조에게 이르기를, ‘국가에 재난이 많을 때는 너희들이 함께 도와야 한다. 나) 너는 보통 여러 아들의 예가 아니고 나라의 안위에 관계된다.’ 하니, 다) 세조가 이 말에 감격하여 울었다. 이때 세종이 라) 금성 대군의 집으로 옮겨서 거처하고 있었는데, 문종과 세조를 불러 유교를 전하고, 인하여 세조에게 명하여 쓰게 하니, 그 유교에 이르기를, 마)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는 사랑을 위주로 하여 반드시 법도를 엄히 하여 가르칠 것이 그 첫째이다. 齋戒와 祭祀에 근신을 다할 것을 선유가 힘써 말하지 않은 것은 한나라 무제 때 임금을 책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幽明 간에 그 감응이 매우 분명하니,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이 그 둘째이다. 후궁은 마땅히 살아서 들어와 죽어서 나가야 하며, 남자를 대해 보려면 넓은 대청에서 행하여야 할 것이 그 셋째이다. 만약 후궁이 큰 죄가 있어서 반드시 선왕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자는 역시 선왕의 유교에 의거하여 논단할 것이 그 넷째이다. 군사를 쓸 때는 모름지기 신중을 기할 것이 그 다섯째이다.’ 라고 하였다.³²⁾

위 기사의 내용은 라)에서 보듯이, 세종이 금성대군의 집에서 문종과 세조에게 직접 당부한 말이다. 특히 문종(가)과 세조(나)에게 ‘국가의 안위’, ‘국가의 재난’과 같은 표현으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각인시켰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올라야 하는 문종만큼, 수양대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 『세조실록』 권1, 1년 윤6월 乙卯.

31) 『세조실록』 권1, 1년 윤6월 癸亥.

32) 『세조실록』 권1, 총서.

금성대군 역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형(문종과 세조)들을 불러 놓고 부탁한 말이었으므로 직접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라에 재난이 생기면 형제들이 도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수양대군은 다)처럼 감격하여 울고, 마)처럼 다섯 가지 遺教를 직접 받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했다. 이에 비해 금성대군은 수양대군의 행위가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 반대하는 입장과 태도를 실천으로 옮겼던 것이다.

금성대군은 계유정난과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이 전개되는 급박한 정국의 한 복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성과 또 다른 정국 변동의 폭발성을 지니고 있었다. 계유정난으로 안평대군이 제거된 이후 반 세조계로 종친을 대표하였던 금성대군은 결국 1차 단종복위운동의 연루자에서 2차 단종복위운동의 주동자로 바뀌었다. 1457년(세조 3) 순흥 유배지에서 단종의 복위를 주도한 것이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A) “경상도 안동의 관노 李同이 판중추원사 李澄石을 통하여 예궐하여 말하기를, ‘이유가 순흥에 있으면서 몰래 군소배와 결탁하여 불궐한 짓을 도모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유가 준 명주 띠[紉帶]를 증거로 바쳤다. 임금이 사정전에서 인견하고, 계양군 이충·도승지 한명회에게 명하여 증거를 따져서 물어보게 하였다.”³³⁾

B) “이유는 枷鎖와 拷訊을 없애고, 이보흠과 供辭에 연루된 사람들과 빙문하여 사실을 밝혀내되, 만약 실정을 자백하지 않거든 마땅히 선전하여 이르기를, ‘실정을 자백하지 않는다면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추국하게 하라’³⁴⁾

C) “이유의 미혹하고 광패함은 지금 안 것이 아니니, 어찌 사람의 도리로써 그를 대할 수가 있겠는가? 그저 一笑에 붙일 뿐이요, 족히 개의할 것이 없다. 그러나 골육지친인데 이러한 때에 나의 진정을 퍼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부모의 영혼에 보답할 길이 없다. 또 그 죄가 이용과 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구명하지 않을 수 없다. …… 내가 능히 큰 법전대로 받게 바로 잡아서 한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가 없었던 바는 아니었으나, 처음부터 여러 신하들의 의논을 물리치고 너를 극진히 비호하기를 남김없이 하여, 장차 너와 더불어 태평한 즐거움을 같이 누리고자 하였다. 지금 또 은택을 꼭진히 내려서 너와 처자 보호하는데, 만약 사실을 실토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큰 의논이 이와 같은 데 그치겠느냐?”³⁵⁾

33) 『세조실록』 권8, 3년 6월 己未.

34) 『세조실록』 권8, 3년 7월 庚午.

35) 『세조실록』 권8, 3년 7월 辛未.

위 사료는 금성대군 역모사건의 전말과 진상, 결과를 시간 순으로 보여주고 있다.³⁶⁾ A)는 금성대군이 당파를 지어 역모를 도모하였다는 기사이고, B)와 C)는 세조가 동생을 지극하게 생각하고 보호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심지어 ‘골육지친’, ‘하늘에 계신 부모의 영혼’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세조실록』의 편찬을 주도하였던 인사들이 세조의 최측근 공신들이라는 점에서,³⁷⁾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수록되는 것은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³⁸⁾

금성대군이 단종의 복위를 도모했다는 고변이 있는 이후, 금성대군에 대한 치죄요구는 이전보다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사간원에서는 금성대군을 법대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고, 신숙주와 한명회, 정인지 등 공신들 역시 치죄를 요청하였다.³⁹⁾ 이에 대해 세조는 완곡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신숙주 등은 이 사건에 노산군이 연루되었고 반역에 동조했으므로, 편안하게 살면 안 된다고까지 극언하였다. 지속적으로 대신 및 종친들의 집요한 치죄 요구가 잇따르자,⁴⁰⁾ 결국 1457년(세조 3) 10월 동생 금성대군에게 사약을 내렸다.⁴¹⁾

한편 금성대군의 역모 사건이 고변되기 6일 전인 6월 21일, 17세의 단종은 사육신의 복위운동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영월로 가는 중이었다. 단종은 부왕 문종의 뒤를 이은 주상으로서, 삼촌 수양대군의 상왕으로, 냉엄한 정치판의 현실을 직접 체득했다. 그렇지만 단종에게 닥친 현실 정치의 처지와 상황은 자신의 역량으로 풀기 어려운 상황만 계속될 뿐이었다. 서울을 떠난 노산군은 7월 초에야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인 영월의 청령포에 도착하였다.

여름 홍수로 영월의 관풍헌으로 나와서 생활하던 노산군에게 1457년(세조 3) 10월 24일 사약이 내려졌다. 순흥에 유배되었던 금성대군이 노산군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된 직후이고, 영월로 유배된 지 4개월 만이었다. 11월에는 종부시의 요청에 따라 노산군과 금성대군, 화의군과 그 자손들을 종친부에서 삭제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⁴²⁾ 이듬해 7월에는 노산군과 금성대군의 태실이

36) 금성대군의 역모사실을 고변하는 자리에 판중추원사로 이징옥의 형이었던 이징석이 있었다는 사실은, 형제 간에도 정치 성향이 갈라지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징석은 좌익공신 3등에 책봉되는 등 세조 정권에서 권력을 향유했다. 또한 이징옥이 난을 일으켰다는 밀계를 처음 올린 사람이 창녕 成奉祖였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37) 『세조실록』 편찬의 총재관은 세조의 최 측근이었던 신숙주와 한명회였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살피고자 한다.

38) 국정 전반이 가감없이 기록된 실록이지만, 행간의 의미를 살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9) 『세조실록』 권9, 3년 9월 辛未.

40) 『세조실록』 권9, 3년 10월 丙午.

41) 『세조실록』 권9, 3년 10월 辛亥.

42) 『세조실록』 권10, 3년 11월 戊寅.

옮겨지는 조치가 내려지는 등 반대 세력에 대한 흔적 지우기 작업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⁴³⁾ 금성대군을 역적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을 보면, 반대 세력에 대한 세조와 공신 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강경했는지를 알 수 있다. 결국 금성대군의 단종복위운동은 본인뿐만 아니라, 조카 단종까지 사약을 받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⁴⁴⁾

반대 세력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진행하던 세조정권의 공신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하늘의 법’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불법이 아니고 천명에 따른 것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명분 없이 탄생한 정권의 명분 살리기 작업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 수 없다.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이 노산군을 영월로 보내면서 내린 교지⁴⁵⁾에도, ‘상왕 보호’, ‘나라의 인심 안정’ 등과 같은 표현이 있어 그러한 의도를 살필 수 있다.

세조는 자신의 조카이자 상왕이었던 단종의 유배에 대해서 민감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단종의 유배가 결정되고 진행되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초지일관 반대했지만, 다른 사람(대신)들의 요구로 진행된 일이라고 변명하였고, 민심의 안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세조가 민심의 향방을 의식하였다는 것은, 명분 없는 정권을 탄생시킨 군주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1차와 2차 단종복위운동에 대한 세조 정권의 탄압은, 조카와 동생 등 골육지친에게 사약을 내리고, 흔적을 지우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반대 세력을 제거한 이후의 정국은, 복잡한 권력의 변동과 피를 부른 공신들에 의한 패권정치가 전개될 뿐이었다.

43) 『세조실록』 권13, 4년 7월 癸巳.

44) 한편 역모가 발생했던 순흥은 반역항이 되어 1457년(세조 3)에 주민과 토지가 품기 고을로 합쳐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품기·영천·봉화 등지에 편입되어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순흥의 향리들은 역모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사형에 처해졌다(『세조실록』 권8, 3년 8월 癸巳).

45) “작년 6월에 성삼문 등이 상왕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자, ‘상왕도 반역모의에 참여하였다.’고 했다. 이에 종친과 문무백관들이 상왕을 외방으로 유배시키자고 여러 차례 건의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를 모두 거절하고 초지일관 상왕을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지금 인심이 흉흉하고 난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사사로운 은익으로 나라의 법을 어기고 중요사직을 저버리겠는가? 이에 여러 사람들의 건의에 따라 상왕을 노산군으로 강등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거주하게 하노라. 노산군에게는 의식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목숨을 보존하도록 하고 나라의 인심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세조실록』 권8, 3년 6월 癸酉)

4. 정치 세력의 재편

계유정난과 두 차례의 단종복위운동은 건국 이후 60년 만에 정치적 이념과 사상, 이해관계에 따라 집권층의 대립과 갈등을 표면화시켰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드러난 제 세력의 정치 지향점은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드러냈다. 정치세력들 간에 합종연횡이 진행되면서, 급격한 정국의 지각변동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권력을 둘러싸고 새로운 정치적 역학 관계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가문(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형제 간이었던 세종의 직계 자녀들 역시 각기 다른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⁴⁶⁾

세종은 표 1)과 같이, 소헌왕후 심씨(심온의 딸) 사이에 8남 2녀, 영빈 강씨와 1남, 신빈 김씨와 6남, 혜빈 양씨와 3남, 상침 송씨 및 숙원 이씨와 각 1녀 등 모두 18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생산하였다.⁴⁷⁾ 이중 계유정난 이전에 요절했던 광평대군(1425~1444)⁴⁸⁾과 평원대군(1427~1445)⁴⁹⁾은 사건에 연루된 정황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자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46) 계유정난과 세조의 즉위 이후 책봉된 공신에 세종의 적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을 보면, 세종 직계 대군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7) 신빈 김씨가 2녀를 낳았으나, 요절하였다.

48) 광평대군의 아들 영순군이 적개 3등 공신으로 책봉된 것을 볼 때, 친 세조파라고 할 수 있지만, 사건 이전에 돌아갔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9) 비록 요절했지만, 처가인 남양 홍문은 국훈이나 명문가와의 통혼권을 통하여 가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세조의 즉위 과정에도 큰 공을 세워 명문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표1) 세종의 직계 가족

| 비·빈 | 자녀 | 생몰년 | 혼사 | | 기타 |
|------------|----------------|-------------|--------|--------|-----------|
| 소헌왕후 심씨 | 文宗 (+安東 權專) | 1414 ~ 1452 | 단종 | 礪山 宋玘壽 | 1441~1457 |
| | | | 敬惠公主 | 海州 鄭悰 | |
| | | | 敬淑翁主 | 晋州 姜自順 | |
| | 世祖 | 1417 ~ 1468 | 파평 尹璠 | | |
| | 安平大君 | 1418 ~ 1453 | 延日 鄭淵 | | |
| | 臨瀛大君 | 1420 ~ 1469 | 宜寧 南智 | | |
| | | | 全州 崔承寧 | | |
| | 廣平大君 瑁 | 1425 ~ 1444 | 平山 申自守 | | |
| | 錦城大君 瑜 | 1426 ~ 1457 | 全州 崔士康 | | |
| | 平原大君 琳 | 1427 ~ 1445 | 南陽 洪利用 | | |
| | 永膺大君 琰 | 1434 ~ 1467 | 礪山 宋復元 | | |
| | | | 海州 鄭忠敬 | | |
| 貞昭公主 | ? ~ 1424 | | | 요절 | |
| 貞懿公主 | | 竹山 安孟聃 | | | |
| 令嬪 姜씨 | 和義君 瓔 | 1425 ~ 1460 | 密陽 朴仲孫 | | |
| 愼嬪 金씨 | 桂陽君 璿 | 1427 ~ 1464 | 淸州 韓確 | | 좌익공신 |
| | 義昌君 玨 | 1428 ~ 1460 | 延安 金脩 | | |
| | 密城君 琛 | 1430 ~ 1479 | 驩興 閔承序 | | 익대 및 좌리공신 |
| | 翼峴君 觀 | 1431 ~ 1463 | 平壤 趙鐵山 | | 좌익공신 |
| | 寧海君 瑭 | 1435 ~ 1477 | 平山 申允童 | | |
| | 潭陽君 거 | 1439 ~ 1450 | | | 요절 |
| 惠嬪 楊씨 | 漢南君 어 | 1429 ~ 1459 | 安東 權格 | | |
| | 壽春君 玆 | 1431 ~ 1455 | 延日 鄭自濟 | | |
| | 永豐君 璵 | 1434 ~ 1457 | 順天 朴彭年 | | |
| 尙寢 송씨 | 貞顯翁主 | ? ~ 1480 | 파평 尹師路 | | 윤사로(좌익공신) |
| 淑媛 이씨 | 貞安翁主 | | 靑松 沈安義 | | |
| 계 | 18남 4녀 | | | | |

1) 친 세조계

문종과 혜빈 양씨 소생 한남군의 처가인 안동 권씨를 보자. 세조와의 관계가 짊끄러울 수밖에 없는 문종과 혜빈 양씨와 연관되어 있는 안동 권씨는, 세조의

집권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한명회의 청주 한씨와 신숙주의 고려 신씨 등과 혼맥으로 이어지면서 탄탄한 권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나아가 진주 강씨, 파평 윤씨, 의령 남씨 등과도 통혼권을 형성하면서, 세조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家格을 올린 가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고려 말 원 간섭기의 복잡한 정치적 변혁과 갈등 속에서 능동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면서 권력의 핵심세력이 된 이후,⁵⁰⁾ 여말 선초의 격변기에도 가문의 성세를 유지하였다.⁵¹⁾ 조선 왕조 전 시기에 걸쳐 뛰어난 학자와 현관을 다수 배출한 대표적인 양반 거족 가문의 하나로서, 무엇보다 권람이 세조정권의 성립에 큰 공을 세우면서 가격을 더욱 상승시켰다.

권근의 차남 跬는 태종의 부마(경안공주), 세종과 혜빈 양씨 소생의 한남군이 권력의 사위, 권공은 태종의 부마(淑謹翁主)이다. 권근의 3남 躡은 해주 鄭易의 사위이다.⁵²⁾ 손자 攀이 신숙주의 손자인 從濩와 혼인하였는데, 신숙주의 장남 澍가 한명회의 사위였던 것을 보면, 세조의 최 측근이 상호 혼맥으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문의 통혼권을 보면, 반 세조계(문종과 한남군)와 친 세조계(권근의 직계), 친 세조계와 반 세조계가 혼재(사돈인 해주 정씨)된 모습이 확인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친 세조 성향이였다. 다만, 동일한 가문이었지만, 문종의 장인 權專과 그의 아들 權自愼⁵³⁾(?~1456)은 단종의 외숙(현덕왕후 동생) 관계였으므로,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반 세조계로 분류되었다.

세종의 4남 임영대군은 금성대군의 치죄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⁵⁴⁾ 아들(龜城君)이 적개 1등 공신으로 책봉되었던 사실에서 볼 때, 세조와의 관계가 친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임영대군의 처가는 다소 복잡한 정치 성향을 보인다. 초취는 의령 남지의 딸, 재취는 전주 최승녕의 딸이다. 재취인 최승녕의 아버지 사강이 금성대군의 장인이었으므로,⁵⁵⁾ 임영대군은 수양대군과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지만, 큰 무리없이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50) 민현구, 「고려 후기 안동 권씨 가문의 전개」, 『도산학보』 5, 1996.

51) 김영현, 「탄옹 권씨의 가계와 생애」, 『도산학보』 3, 1994.

52) 정역은 효령대군의 장인, 아들 충경은 영응대군의 장인, 손자 攀은 문종의 사위이다. 攀이 단종 복위 사건으로 사사되자, 아들 眉壽와 미수의 어머니 敬惠公主를 세조가 불러 양육하였다. 충경이 친 세조계, 종이 친 단종계로 분류된다.

53) 화산부원군 최씨(현덕왕후 권씨의 친정어머니, 최옹의 딸)는 단종의 외조모로 권자신의 어머니이다.

54) "임영대군이 정창손과 더불어 의논하여 주상께 아뢰기를, 화의군과 한남군, 영풍군과 송현수는 금성대군과 더불어 죄가 동일하니 홀로 살아남길 수 없습니다."(「전주이씨 화의군파세보」)

55) 父子가 세종의 부마였고, 서로 다른 정치적 길을 걸어야 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피기로 한다.

초취인 의령 남씨는 세조 정권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었다. 남재와 남은 형제가 개국공신에 책봉된 이후, 국혼⁵⁶⁾ 및 명문과의 광범한 통혼권 형성⁵⁷⁾을 통해 세조 정권 등장 이후 더욱 가격을 올렸다. 南智는 임영대군과 평양 조영무(大臨⁵⁸⁾)의 아들, 浚의 손자)의 장인이었다. 智의 아들 南倫의 장인은 盧物載⁵⁹⁾인데, 그는 단종복위운동을 밀고한 동래 정창손의 사촌인 鄭潔의 장인이었다. 智와 倫 부자가 단종복위운동 연루자(안평대군) 및 가해자(정창손)와 직접 연관되어 있었으나, 가문 내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은 친 세조계였던 것으로 보인다.⁶⁰⁾

內資寺의 여종 출신인 신빈 김씨는 6남 2녀를 낳는 등⁶¹⁾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세조와도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소헌왕후가 태종 17년과 18년에 연이어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낳자, 이 시기 전후에 입궁하여 수양대군을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세종 16년에는 막내로 태어난 영웅대군의 유모 역할을 하기도 했다.⁶²⁾ 세종은 영웅대군을 매우 사랑하여 세조에게 별도로 부탁할 정도였으며, 세조 역시 다른 동생들보다 영웅대군을 특별히 보호하였다.⁶³⁾ 이러한 관계로 신빈과 영웅대군은 자연스럽게 친 세조계로 분리된다. 영웅대군의 처가를 보자.

영웅대군이 초취로 여산 송복원의 딸⁶⁴⁾을 맞은 것은 세종 27년이었고,⁶⁵⁾ 재취로 해주 鄭忠敬의 딸⁶⁶⁾을 맞은 것은 세종 31년이었다.⁶⁷⁾ 여산 송씨는 단종과 영웅대군, 해주 정씨는 경혜공주와 영웅대군과 국혼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두 가문 모두 단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초취인 여산 송씨는 고려 말 조선 초 琰의 손자 璿이 태종 비 원경왕후 민씨의 외조부⁶⁸⁾가 되면서 명문 집안으로 자리 잡았다.⁶⁹⁾ 복원의 아버지 계성이 정종의 아들 德生君의 장인이었고, 復元은 영웅대군을 사위로 맞았다. 그리고 복원의 아들

56) 南暉가 태종의 사위(貞善公主)이다.

57) 평양 조씨, 진주 강씨, 동래 정씨, 파평 윤씨 등과 광범한 혼맥을 이루었다.

58) 태종의 부마(慶貞公主의 남편)이다.

59) 본관이 交河이고, 아들이 思愼이다. 어머니 민씨가 원경왕후의 동생이고, 부인은 심온의 딸이다.

60) 생육신 남효온은 예외의 경우로 이해된다.

61) 2녀는 요절하였다.

62) 『문종실록』 권1, 즉위년 4월 己卯.

63) 『세조실록』 권41, 13년 2월 戊戌.

64) 단종의 장인인 송현수의 손아래 누이이다.

65) 『세종실록』 권124, 31년 6월 甲戌.

66) 단종의 손위 누이 경혜공주의 남편인 정종의 누님이다.

67) 『세종실록』 권124, 31년 6월 甲戌. 정충경의 아들 棕은 문종의 부마, 즉 단종의 姊兄이다.

68) 원경왕후의 아버지 민제의 부인이 여산 宋璿의 딸이다.

69) 정만조 외, 『조선시대 경기북부지역 집성촌과 사족』, 국민대학교출판부, 2004.

孩壽는 단종의 장인이다. 현수의 아들 琮는 문화 류주의 사위인데, 류주는 생육신 류성원의 조카이다. 세림은 개국공신 한양 趙溫⁷⁰⁾의 사위이다.

송복원이 세조와 친밀했던 영웅대군을 사위로 맞은 것은 세종 27년이다. 그런데 세종 31년 복원의 딸이 병으로 쫓겨나고,⁷¹⁾ 같은 해 6월에 해주 정충경의 딸을 재취로 들이는 일이 발생했다.⁷²⁾ 그러나 영웅대군의 마음에는 송씨에게 있었고, 세종이 돌아간 단종 1년에 초취 여산 송씨를 다시 맞으면서, 재취 정씨의 封爵官敎를 거두었다.⁷³⁾

영웅대군이 송복원의 딸을 다시 들인 것에 대해, 실록에는 영웅대군이 송씨를 잊지 못해서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조 측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영웅대군과 장인 송복원이 자신의 세력인 점을 이용하여,⁷⁴⁾ 송현수의 딸을 단종의 비로 들임으로써, 자파 세력을 확장하려는 정치적 술수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웅대군이 초취 복원의 딸을 다시 들인 두 달 뒤에, 송현수의 딸을 단종의 비로 간택하는 일이 진행되었다. 단종 비의 간택은 수양대군의 주도 하에 단종 2년 1월에 시작되었다. 효령대군과 임영대군, 영웅대군과 화의군, 계양군, 한남군 등 종친과 좌상 정인지, 우상 한확, 이조판서 정창손 및 좌승지 성삼문, 우승지 박팽년 등 관료들과 함께 간택을 주도하여 풍지창 부사 송현수의 딸을 간택한 것이다.⁷⁵⁾ 5일 뒤 납채,⁷⁶⁾ 6일 뒤 納徵,⁷⁷⁾ 다음 날 친영일을 정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단종의 국혼 추진은 계획된 이중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단종의 후사를 원한다고 표명함으로써, 수양대군 자신이 왕위에 야심이 없음을 과시하고, 주공의 길을 걷고 있음을 선전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문종의 국상 중에 상주였던 단종의 혼례가 진행된 일, 영웅대군이 송복원의 딸을 다시 들인 일, 단종의 비로 송복원의 손녀(송현수의 딸)가 결정된

70) 한양 조씨는 고려 말 동북면 지역에서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趙仁覽이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의 사위(태조의 여동생인 貞和公州와 혼인)가 되면서 건국에 동참하게 되었다. 조인벽의 아들인 조운이 개국공신, 온의 동생 洵이 좌리공신에 책봉되는 등 성세를 보였다.

71) 『세종실록』 권123, 31년 3월 戊戌.

72) 『세종실록』 권124, 31년 6월 甲戌.

73) 『단종실록』 권9, 1년 11월 庚辰.

74) 송복원은 정난원종 2등 공신에 책봉되고, (『세조실록』 권2, 1년 12월 戊辰) 사육신 사건 이후 행 첨지돈녕부사에 제수되는 등(『세조실록』 권4, 2년 7월 癸巳) 세조정권에서 상당한 권력을 누렸다.

75) 『단종실록』 권10, 2년 1월 庚申.

76) 『단종실록』 권10, 2년 1월 甲子.

77) 『단종실록』 권10, 2년 1월 庚午.

78) 『단종실록』 권10, 2년 1월 辛未.

일, 수양대군이 송현수를 ‘경은 나의 옛 친구’⁷⁹⁾라고 지칭한 일 등은 수양대군의 정치적 의도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영웅대군의 재취인 해주 정충경의 아버지(易)는 효령대군의 장인이었고, 아들(儆)은 문종의 사위(단종의 자형)였다.⁸⁰⁾ 정역의 사돈이 정난공신 권근⁸¹⁾이었지만, 아들(儆)이 문종의 사위였다는 사실에서, 가문 내 정치 지형이 대단히 복잡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수양대군이 영웅대군의 초취를 다시 들이고, 국상 중에 단종의 비를 간택했던 일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세종의 후궁 중 친 세조계로 분류되는 신빈 김씨 소생 중 요절한 담양군을 비롯하여 의창군과 영해군은 세조 정권과의 연관성을 살피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비해 계양군과 익현군은 좌의 1등 공신, 밀성군은 익대 및 좌리 2등 공신에 책봉되었다. 더불어 이들이 단종복위운동 연루자들의 전토를 하사받은 사실을 볼 때,⁸²⁾ 세조정권 하에서 승승장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양군의 처가인 청주 한씨를 보자. 계유정난부터 세조의 즉위까지 큰 공을 세워 정난 및 좌의 1등 공신에 책봉된 최 측근 인사인 한명회의 청주 한씨는 국혼과 거족 가문과의 통혼관계를 통해 가격을 상당히 높였다. 세조가 자신의 ‘위정’이라고 할 정도로 신뢰하였던 신숙주⁸³⁾와, 자신을 수양대군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권람 등과 혼맥을 형성하였다. 무엇보다 세조가 한명회를 자신의 장자방이라고 부를 정도로 세조 정권 수립의 최고 수훈자였다는 점에서, 가문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한명회의 숙부 惠(성삼문의 조부인 달생의 사위)와 계미의 아들 曄(성준의 사위)이 창녕 성씨 집안⁸⁴⁾과 연결된 것은 주목된다. 이는 현실 정치에서 권력은 나눌 수 없으며, 권력을 잡는 일이라면 같은 가문의 인사라도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다는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79) 『세조실록』 권4, 2년 6월 辛亥.

80) 진주 강자순의 동서.

81) 권근의 세 아들 중 장남 踰의 장인이 한명회, 차남 躋는 태종의 부마, 3남 躋의 장인이 정역이다.

82) 『세조실록』 권3, 2년 3월 丁亥.

83) 『세조실록』 권7, 3년 3월 戊寅.

84) 고려시대 戶長이었던 仁輔를 시조로 하며, 가문의 흥기는 고려 말 조선 초 汝完(1309~1397) 때 이루어졌다. 여원은 조선 건국과정에서 출사하지 않고 은거하였다. 그의 세 아들(石璘·石瑢·石珩)이 급제 후 고위직에 오르면서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세조대까지 다수의 문과 급제자(석용의 후손 중 概·煥·三問·聘年, 석연의 후손 중 揆·念祖·奉祖·任·侃·倪·倣·俊·健 등)가 배출되면서 家格이 높아졌다. 가문 내에서, 석용계가 단종복위 운동 당시 삼문이 사육신, 담수가 생육신에 연루되면서 門閥의 화를 입었다. 이에 비해, 석연계는 가문을 보존하여 세조 이후 정국 운영과정에 깊숙하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유지할 수 있었다. 세조의 즉위와 그 이후의 정국운영과 정에서 석용계는 명분과 의리를 지키다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밀성군의 장인 여흥 閔承序는 정난원종공신 3등에 책봉되었다.⁸⁵⁾ 이는 그가 친 세조계 경향을 보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익현군의 처가인 평양 조씨 인사 중 浚과 狷이 개국공신, 大臨이 태종의 부마, 孝山이 성종의 부마, 英武가 의령 南智의 사위, 英武의 아들 綱은 청송 沈璿의 사위로 상당한 가격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심선은 단종의 선위 후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그의 아들 沈安義는 세종과 淑媛 이씨 소생인 정안옹주의 남편이다.⁸⁶⁾

익현군의 장인 평양 조철산은 단종복위운동에 동참했다가 고신을 환수당하고, 유배 후 아버지(狷)와 함께 처형되었다. 그리고 철산의 조카(石山의 아들 淸老) 역시 안동 권천(문종의 장인)의 사위로서, 사육신과 함께 화를 입었다.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德裕의 4 아들 중 照와 靖, 浚系가 가격을 유지한 것에 비해, 狷系는 단종복위운동에 연루되면서 위축되었다. 비록 장인이 단종복위운동에 연루되었지만, 사위 익현군은 친 세조 성향을 견지하였던 것이다.⁸⁷⁾

상침(내명부 정6품) 송씨는 부모 기록이 나오지 않는 등 출신이 미천하였다. 소생 정현옹주(?~1480)가 파평 윤사로와 혼인하면서 친 세조 성향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⁸⁾

수양대군의 처가인 파평 윤씨를 보자. 파평 윤씨는 15~16세기 이래 국혼 및 당대 명문과의 연혼을 통해서 권력기반을 확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조정권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하였다. 評이 태종의 사위, 師路가 세종의 부마(貞顯翁主), 壕의 딸이 성종의 繼后(貞顯王后), 계동과 암, 愚가 태종의 부마(貞信翁主, 淑慶翁主, 淑寧翁主), 向의 사돈이 세종(廣平大君)의 부마 등으로 다른 가문에 비해 두드러진 국혼관계를 형성하였다.

파평 윤씨의 가격이 세조정권에서 확고해진 계기는, 세종 10년 윤번의 딸이 수양대군의 부인이 되면서부터였다.⁸⁹⁾ 윤번의 아들인 士陶은 정난 및 좌익공신에, 士昕과 계겸이 정난 및 좌리공신에 책봉되었으며, 사분과 사흔은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을 역임하였다. 번의 사위 중 한 명으로 정난 및 좌익공신에 책봉된 한계미는 개국공신 한상경의 손자로, 한명회와는 6촌 형제 간이다. 坤이 청주 한상경의

85) 『세조실록』 권2, 1년 12월 戊辰.

86) 청송 심씨는 세종의 왕비 집안으로 상당한 위상을 올렸고, 安義의 조카 淡의 장인이 세조의 최측근 懷仁 홍윤성으로 세조 정권에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다만, 가문 내 모든 인사들이 세조의 쿠데타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87) 화의군과 장인 박중손이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것과 동일하다.

88) 윤사로는 세조의 최 측근 한명회·신숙주와 사돈관계를 맺고, 좌익공신에 책봉되는 등 권력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89) 『세조실록』 권42, 세종 10년 10월 辛卯.

사위, 礪이 한명회의 사위, 珪의 사위가 안동 權審,⁹⁰⁾ 호의 장인이 의령 남재, 흙의 사위가 전의 李壽穉⁹¹⁾로, 계유정난 이후 가격이 상승된 가문과의 광범한 통혼권을 통하여 위상을 높였다.

신빈 김씨와 상침 송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양대군은 출신이 미천하여 상대적으로 왕실에서 소외된 세력을 규합하는데 힘을 기울였다.⁹²⁾ 그런 뒤 이들을 동원하여 단종옹호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는데 결정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2) 반 세조계

반 세조계의 대표적인 종친이었던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은 계유정난과 순흥부 역모사건 이후 사약을 받았다. 그리고 ‘안평대군파’⁹³⁾로 몰리거나, ‘김중서당’⁹⁴⁾으로 몰려 처형된 인사도 상당히 많았다.

안평대군의 장인은 연일 정연이고, 정연은 신숙주의 형 仲舟의 사위이다. 정연의 형(鎭)의 장인은 개국공신 평양 조준이다. 아들 自濟는 해빈 양씨 소생 수춘군의 장인이다.⁹⁵⁾ 아버지와 아들의 사위로만 본다면, 반 세조계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가문에서도 정치적 행보를 달리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연의 손자(涵)는 정난1등 공신 최항⁹⁶⁾의 사위였다. 그런데 안평대군이 계유정난에 연루되면서 정연의 가문은 풍비박산될 상황이었다. 오히려 세조 정권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안평대군과 부인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세조의 측근이었던 신숙주와 연관되었던 점, 정연의 손자(涵)가 정난1등 공신 최항의 사위였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90) 아들이 節, 손자가 自均이다. 절은 단종의 節臣으로 세조정권에 협조적이지 않았으며, 자균은 정난1등 공신 하동 정인지의 장남(광조)의 사위이다. 따라서 父子(권철과 권자균) 사이에 정치적 노선이 갈라졌음을 볼 수 있다. 정인지의 장남 광조의 장인(竹山 安孟聃)은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 소생의 貞懿公主의 남편이다. 정인지의 차남 顯祖는 세조의 부마(懿淑公主)이고, 3남 崇祖는 좌리공신에 책봉되었다. 4남 尙祖는 죽산 안명당의 아들(溫泉)의 사위로, 정인지와 안명당은 겹사돈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조의 부인 집안(파평 윤씨)과의 연관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91) 백부가 정난 3등공신인 禮長이다.

92) 안평대군이 문신들과 연계한 것에 비해, 수양대군이 무신 등 권력에서 소외된 세력의 규합에 열성을 보인 것과도 유사하다.

93) 조완규, 안원경, 지정, 박하, 조순생, 이현로, 윤처공, 조번, 김승규, 원구 등.

94) 정분, 민신, 조극관, 허후, 박심문, 이명민, 김승규 등.

95) 수춘군과 장인 정자제(정난원종공신)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익현군과 장인 조철산, 화의군과 장인 박중손의 사례와 유사하다.

96) 본관은 삭령으로 대구 徐彌性의 사위이다. 서미성은 권근의 사위이고, 아들은 조선 초기 학자 居正이다.

금성대군의 처가 전주 최씨를 보자, 전주 최씨도 가문 내 인사들 사이에 매우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를 보인다. 崔士康의 장녀는 咸寧君⁹⁷⁾(태종과 신빈 신씨 사이 소생)의 부인, 차녀는 금성대군의 부인으로 태종과 세종의 사돈이었다. 최사강 본인은 진주 姜筮(석덕의 할아버지)의 사위, 아들 承寧은 임영대군(세종의 아들)의 장인이고, 개국공신 평산 申孝昌의 사위이다.⁹⁸⁾ 그리고 손자 道一은 동래 鄭子順(潔의 아버지)의 딸을 재취로 들였다. 堯은 고령 신중주(숙주의 형)의 손자인 承藻의 사위로 고령 신씨와 사돈 관계이며, 命孫의 장인이 한명회의 사위인 파평 尹礪이다.

이와 같이 전주 최씨는 국훈과 명문가와의 혼인을 통하여 가문의 위상을 높였으나, 최사강이 금성대군을 사위로 들이면서 멸문의 화를 입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아들 승녕이 친 세조계였던 임영대군의 장인이었고, 세조의 최 측근 신숙주와 혼맥으로 연결되었던 점, 손자의 조카가 사육신 사건을 밀고한 정창손이라는 복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멸문의 화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⁹⁹⁾

단종의 유모였던 헤빈 양씨¹⁰⁰⁾도 단종의 선위 이후에는 세조와의 사이가 상당히 나빴다. 세종 23년 7월 23일 경복궁 資善堂에서 탄생한 단종은 생모 현덕왕후 권씨가 산통으로 사흘 후 사망하자, 세종의 후궁이었던 헤빈 양씨에게 젖을 먹으면서 양육되었다. 헤빈은 소헌왕후 심씨가 돌아간 세종 28년부터 세종의 특명으로 내전을 총괄하기도 했다. 수양 측에서 볼 때, 헤빈이 어린 단종 곁에 있으면 왕권 탈취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단종의 선위가 이루어진 이후 대립각을 예리하게 세우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 이후, 금성대군은 삭녕으로, 헤빈은 청풍으로 유배되었다.¹⁰¹⁾ 그의 아들 중 한남군은 안동 권격의 사위, 수춘군(1430~1455)은

97) 처음에 恭寧君에 봉했다가 恭定大王의 시호를 피하기 위해 고쳤다(『세종실록』 권60, 15년 6월 戊申).

98) 세종 15년에 친영이 진행되었다(『세종실록』 권62, 15년 12월 丁卯).

99) 단종을 모신 내시는 이귀, 김충, 김인평 등이 있었으며, 단종을 모신 이는 송씨(宋瑄壽 딸), 정씨(정인지 질녀), 장씨, 한씨 등 4명이었다. 이중 정인지의 질녀가 단종을 모셨다는 사실과 정인지의 정치 행적을 볼 때, 서류를 쫓고 권력을 향한 정치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00) 단종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둘째 아들 수춘군을 유모에게 맡길 정도로 정성을 기울였던 헤빈은 세조와의 관계가 오락가락 했다. 계유정난 직전인 단종 1년 5월 안평대군의 움직임을 수양대군에게 밀고하고,(『단종실록』 권6, 1년 5월 乙亥) 계유정난 이후 노비 100구를 하사받은 것을 보면,(『단종실록』 권13, 3년 1월 庚午) 단종의 선위 이전까지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01) 『세조실록』 권1, 1년 윤6월 乙卯.

안평의 둘째 처남 延日 鄭自濟¹⁰²⁾의 사위, 영풍군¹⁰³⁾은 박팽년의 사위였다. 이러한 연관성은 수양대군의 즉위에 해빈과 안평대군, 영풍군, 박팽년 등이 수양의 반대편에 서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남군(권력의 사위)은 금산으로, 영풍군(박팽년의 사위)은 예안으로 유배되는 등 세조 정권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당했다. 그런데 수춘군의 장인 정자제는 정난원종공신 3등에 책봉되었고,¹⁰⁴⁾ 이후 세조 정권에서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는 등 사위와 다른 길을 걸었다.¹⁰⁵⁾

영풍군의 처가(순천 박씨)를 보자, 순천 박씨의 혼맥 중 주목되는 것은 錫命이 王瑀(공양왕 동생)의 사위, 去疎가 청송 심온의 사위인 점 등이다. 그리고 석명이 좌명공신, 중선이 적개 및 좌리공신, 원종이 정국공신이었던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개국 이후 중종조까지 상당한 가격을 유지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박팽년이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문의 위상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박중림은 동지중추원사를 지낸 신창(현재 아산시 신창면)의 명문 안동 金益生(김문기의 9촌 아저씨)의 무남독녀와 혼인하여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이 박팽년이다.¹⁰⁶⁾ 박팽년의 두 아들은 단종복위운동에 연루되어 죽었고, 두 딸이 현령 李公麟¹⁰⁷⁾과 종친 永豐君에게 출가하였다.¹⁰⁸⁾

영빈 강씨¹⁰⁹⁾의 아들 화의군(1425~1460)도 세조 정권에 비판적이었으며, 2차 단종복위를 도모하였던 금성대군과 밀접했다. 따라서 화의군은 계유정난 및 두 차례의 단종복위운동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었다. 화의군의 처가를 보자.

102) 아버지 淵이 안평대군의 장인이자, 우성범(공양왕 부마)의 사위이다. 조카 涵은 최항의 사위, 淵의 형(鎭)은 조준의 사위, 鎭의 아들(孝全)은 태종의 부마이다.

103) 세종과 해빈양씨 소생의 8남이다. 영풍군의 형이 수춘군이었으므로, 해빈 양씨를 중심으로 안평대군과 상삼문, 박팽년 등이 혼맥으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4) 『세조실록』 권2, 1년 12월 戊辰.

105) 정년이 신숙주와 연결되고, 손자가 정난1등 공신인 최항의 사위였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106) 김익생은 박팽년과 함께 순절한 김문기의 3종숙(9촌 아저씨)으로, 박팽년과 김문기는 친척관계이다(『세조실록』 권4, 2년 6월 丙午). 한편 박중림의 큰 외숙 김익정은 김종서의 재종형이었다(『단종실록』 권2, 즉위년 7월 을미). 김종서의 조모가 선산 金右鏐의 딸이고, 김익정의 모친이 선산 김씨였으므로, 김종서의 조모는 김익정 모친의 고모가 되는 것이다. 결국 김종서는 박중림의 외숙인 김익정의 재종 아우이므로 박중림에게는 외가로 재당숙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박팽년 집안을 중심으로 김종서, 김익정, 김익생 집안이 일가친척으로 묶인 것이다(최원수, 『조선왕조 총의열전』, 돌베개, 1998).

107) 본관이 慶州로 고려 말 유학자 李齊賢의 6대손이다. 평안감사를 지낸 尹仁의 아들로, 단종복위운동에 연루되어 廢鎔되었다가 성종조 敍用되어 縣令을 역임하였다.

108) 순천 박인명의 딸이 溫寧君(태종의 아들)인 점도 확인된다(『연려실기술』 태종조고사본말).

109) 영빈 강씨에 대한 실록의 기사는 1번(『단종실록』 권5, 1년 1월 戊辰) 뿐이다. 이는 실록 편찬관에 의해 자행된 의도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해빈 양씨도 3건(『숙종실록』의 2건 제외)에 불과한 것에 비해, 친 세조계였던 신빈 김씨는 31건인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화의군은 집현전 박사와 도승지를 역임하였고, 계유정난 후 공신으로 책봉되었던 밀양 朴仲孫(1412~1466)의 딸과 혼인하였다. 박중손의 고모(할아버지 剛生의 딸)가 세종의 후궁(귀인 박씨)이고,¹¹⁰⁾ 진주 강석덕¹¹¹⁾과 사돈을 맺으면서 가격을 높였다.

박중손은 1435년(세종 17) 문과에 급제한 이후, 집현전과 홍문관, 사헌부 등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계유정난 당시 수양대군을 도와 정난1등 공신에 책봉되어 권력의 핵심에 들어갔다. 화의군이 단종복위운동에 연루되면서 곤경에 빠질 수 있었으나, 철저하게 세조의 편에 서면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위 화의군이 목숨을 담보로 ‘친 세조’가 아닌 ‘반 세조’의 입장, 즉 금성대군의 단종복위운동에 가담한 것에 비해, 사위의 적몰된 재산이 장인(박중손)에게 내려지고,¹¹²⁾ 심지어 사위의 치죄를 요청¹¹³⁾할 정도로 전혀 다른 정치적 선택을 했던 것이다.

가문 내 인사 중에 박중손의 작은 아버지 朴審問(김종서 당으로 몰림)은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했다가 1456년 사육신 사건 후 자살했고, 朴景愼은 낙향했다. 그런데 朴好問은 6진 개척에 공을 세웠던 이징옥의 후임으로 함길도 도절제사에 제수될 정도로 세조에게 신임을 받는 등 양극적인 정치 성향을 보였다.¹¹⁴⁾ 특히 박호문은 세종 재위 시 김종서를 음해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김종서를 상당히 혐오하였으며,¹¹⁵⁾ 계유정난으로 김종서가 제거된 이후 친 세조의 정치 성향을 보였다.

반 세조 정치 노선을 견지하였던 종친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1547년(세조 3) 9월 영의정 정인지 등의 상소를 보자.

110) 『세조실록』 권26, 6년 10월 丁卯.

111) 강희백의 아들 碩德이 靑松 沈濶(소헌왕후의 아버지)의 사위, 석덕의 딸이 밀양 朴楸(중손의 아들)와 혼인하였다. 희맹의 아들 鶴孫은 申澗(신숙주의 아들)의 사위이다. 희안의 이모부는 세조이고, 성삼문의 외손인 務安 朴增의 손자(윤)가 강희안의 손녀와 혼인하였다. 이 결혼은 단순히 진주 강문과 무안 박문의 혼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창녕 성삼문의 절의정신이 진주 강씨 집안으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12) 『세조실록』 권8, 3년 6월 庚寅.

113) 『세조실록』 권9, 3년 10월 庚戌.

114) 밀양 박씨의 이러한 모습은 전주 최사강과 여산 송복원의 사례와 유사하다.

115) 박호문은 변방에 부임해서 과도한 토목공사를 벌였다. 김종서는 박호문의 행위를 비난하면서, 건축물을 헐어버리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원망을 품었던 박호문은 김종서를 음해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오히려 세종으로부터 장형의 처벌과 함께 평안도 여언으로 귀양가기도 했다. 박호문이 김종서를 비난하는 등 친 세조계로 변한 배경의 하나는 세종 때의 악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유(금성대군)는 화심을 품고 불궤를 꾀하였으니 죽어도 남는 죄가 있는데, 전하께서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외방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은사가 많이 무거웠는데도, 오히려 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시도하며 노산군을 끼려고 도모하였으니, 그 죄는 천지 사이에 용납되지 않는 것인데, 전하께서 사사로운 은혜로써 뜻을 굽혀 그 죽음을 용서하시려고 하여 신 등이 여러 날 庭講을 계속하였으나, 兪允을 입지 못하여, 대소 신료가 분통함과 억울함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가) 화의군·한남군·영풍군·정종·송현수 등의 일당이 반역한 죄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전형을 바르게 밝히시어 신민의 여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명하여 나) 금성대군은 사사하고, 화의군·한남군·영풍군·송현수는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다) 화의군 등의 금방을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¹¹⁶⁾

위 자료는 친 세조계 공신들의 요청에 따라 금성대군을 사사에 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와 나) 기사는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에 연루된 종친과 단종의 자형(정종), 장인(송현수)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조 정권을 세운 공신들은 2차 단종복위운동을 금성대군만의 기사로 보지 않고, 정국 운영에 종친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종친들이 지닌 정국 변동의 영향력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양대군에 대한 종친들의 태도가 종통 수호(단종 옹위)를 위한 우국충정에 기반한 것이며, 사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행적이 후대에 숭모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주목된다.¹¹⁷⁾

종친들의 정치적 활동과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찬 실록 및 사찬의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향후 많은 자료가 발굴된다면, 세조의 집권과정에서 보인 종친들의 정치적 행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계유정난과 단종복위운동 등 세조의 집권 과정 시기의 권력 변동은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부록의 표에서 보듯이, 종친과의 복잡한 통혼권을 중심으로 친 세조파와 반 세조파로 대립하는 등 정치권의 급격한 이합집산이 이루어졌다.

116) 『세조실록』 권9, 3년 10월辛亥.

117) 정조는 1791년(정조 15)에 단종을 위하여 절의를 지킨 신하들을 追祭·配食하고자 하였다. 『莊陵配食錄』이 그것인데, 여기에 안평대군, 금성대군,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 河寧君(李穰) 등이 올랐던 것이다(『전주이씨 화의군파세보』 首卷, 복권, 상소문 및 산송).

피를 나누는 세종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관료들도 부자 간, 형제 간, 사돈 간, 丈壻 간 등 가문 내 직계 인사들조차 권력의 대척점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동지도 없다는 격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단종의 복위를 주도하였던 인사들은 유교 이념에 입각한 정치 운영과 종통을 계승한 정상적인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면서, 이에 반하는 현실 정치를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였다. 그러나 현실 권력에 대항한 결과는 참혹함 그 자체였다. 본인은 물론, 가족, 모의에 가담하였던 상당수의 인사들이 수양대군과 그 우익세력에 의해 처형당하면서, 권력 핵심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비해, 청주 한씨와 파평 윤씨, 안동 권씨, 고령 신씨 등 세조의 집권에 공을 세운 가문은 새로운 권력층으로 등장하거나, 기존의 성세를 더욱 다질 수 있었다.

반대세력을 철저히 제거한 이후에 세워진 세조정권은 종친과 공신 우대정책으로 일관했다.¹¹⁸⁾ 공신과 사돈관계¹¹⁹⁾를 맺는 등 훈구파로 굳어진 공신과 이들 자손에 의해 公利的 霸權的 偏黨的 정권 형태를 유지하였다.¹²⁰⁾ 한 마디로 세조의 집권은 누구의 칼이 더 강한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통치 형태는 재위 기간 내내 공신이 권력을 독차지 하는 훈척 중심으로 전개되었을 뿐이다.

5. 맺음말

단종의 즉위(1452)와 계유정난(1453), 단종의 선위(1455)와 제1차 단종 복위운동(1456), 제2차 단종복위운동(1457)은 조선 건국 후 60년 만에 정국의 지각 변동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건국 이후 체제의 안정적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지배층 내 세력 재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기에 나타난 권력 변동의 가장 큰 변화는 수양대군과 적대적이었던 대군 및 대신들이 제거된 반면, 세종 말기부터 권력의 요직에 나가고자 했던 일부 집현전 출신 학사들과 집권에 공을 세운 가문의 인사들이 새로운 권력층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공부했고, 의리와 명분의 실천을 최고 덕목으로 삼았다. 건국 과정에서 혁명파와 온건파로 가려, 이미 의리의 실천

118) 세종은 재위 기간 동안에 협조적인 종친과 외가인 심씨(沈澹), 처가인 윤씨, 최측근 공신계 인사들을 상당히 중용하였다.

119) 세종은 한명회의 딸을 예종비로 성종비로 들어 왕실과 중첩적 사돈관계를 맺었고, 정인지와 사돈관계를 맺는 등 최측근 공신들과 통혼권을 형성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신뢰하는 통치방식을 고집하였다.

120) 김태영, 「조선초기 세조왕권의 전제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 87, 1994.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후 태종과 세종 정권을 거치면서, 체제의 안정과 더불어 성리학적 통치 이데올로기도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양대군에 의한 계유정난과 보위의 찬탈, 왕권 중심 통치가 진행되면서, 성리학자들은 왕조의 근본이 흔들리는 사태라고 인식하고 이에 저항했다.

유교적 의리와 명분을 동요시켰던 상황에서, 계유정난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명분보다 실리를 쫓았다. 그 과정에서 정권의 정당성과 윤리는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정당성을 상실한 수양대군은 명분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형제 등 종친에 대한 배려와 성삼문 등 집현전 학사를 비롯한 유신들을 공신(정난 및 좌익)으로 책봉하면서, 명분의 획득과 지지 세력의 확장을 위한 정치적 술수를 썼다. 더욱이 계유정난 전후 시기에 대내외 정세 변화가 혼란스럽지 않았고, 김종서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정난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쿠데타를 '靖難', 즉 국가의 위태로운 난리를 평정했다는 주장은 억지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명분을 상실하고 등장한 정권에 대한 명분론자들의 대응은 명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수양대군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것은 시대가 용인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조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두 차례에 걸친 단종복위운동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정치의 중간과정이었다. 피를 나누는 종친들이었지만, 수양대군의 형제 중 일부는 잘못된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 단종복위운동을 도모하였다. 이상적인 왕도 정치의 실현과 언론을 중시하는 정치적 신념을 바탕으로, 명분과 도덕성을 잃은 세조정권의 전복과 폐위된 단종의 복위를 도모했던 것이다.

그러나 단종복위운동이 실패하면서, 명분론자들의 명분 세우기는 무위로 그쳤다.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단종과 거사 주동자들의 처형으로 이어졌고, 권력의 급격한 이합집산이 나타났다. 세조 측에서는 안정적인 권력 구축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종친이라고 하더라도 가차없이 제거하였다. 형수이자 단종의 친어머니인 현덕왕후를 폐서인하고, 종묘의 위패를 불사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친 세조파는 공신으로 책봉되어, 새로운 권력층이 되면서 훈구파로 굳어졌다. 한명회의 청주 한씨, 신숙주의 고령 신씨, 권람의 안동 권씨 등이 대표적인 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박팽년의 순천 박씨, 성삼문의 창녕 성씨 등 반 세조파는 처형되거나, 야인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편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父子 간은 물론, 祖孫 간, 형제 간, 친척 간에도 권력의 지향점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가문

의식과 명분 의식보다 권력을 향한 집념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 것이다.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아군도 없다.'는 전형적인 정치 행태가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권력의 지형도가 전면 새롭게 그려진 것이다.

그러나 어제 쓰러뜨린 적이 내일 다시 살아나는 것은 동서고금의 냉혹한 정치 현실이었다. 즉 단종복위운동을 주도하였던 인사들의 정신과 사상은 세조 정권을 이끌어 낸 세력에 의해 처형됨으로써 사라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그대로 이어졌다. 세종→문종→단종으로의 왕위 계승이 국법에 맞는 종통이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현실적인 한계와 안타까움에 항거하였던 정신이 계승된 것이다. 현실 정치는 공신이 장악했지만, 정신은 명분론자들의 것이었다. 단종복위운동이 지니는 역사적 및 현재적 의미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단종 복위의 주동자들을 제거하고 집권에 성공한 공신세력은 자신들의 행위가 옳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정당성 부여 작업을 진행했다. 공신 책봉을 통해 지지자의 확보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많은 신화를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각종 기록의 정리 작업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합리화 작업을 병행하였다.¹²¹⁾ 그러나 어떠한 조치가 되었든, 이들이 전개한 정당성 확보 노력은 명분을 잃은 정권이 도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벌인 술수일 뿐이다.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만남에 대해, 왕위에 목표를 둔 야심가와 권력에 목숨을 건 출세주의자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21)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태종실록』, 『세종실록』, 『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연려실기술』, 『추강집』, 『전주이씨 화의군파세보』

- 유영박, 2003 『김문기연구의 기초』, 푸른사상.
유영박, 1996 『사육신』, 동방도서.
이덕일, 2010 『김종서와 조선의 눈물』, 옥당.
이재호, 2008 『조선사 3대 논쟁』, 역사의 아침.
梨村金鎮佑憲法裁判官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5 『백촌 김문기연구』, 푸른사상.
정두희, 1983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연구』, 일조각.
정두희, 1994 『조선시대의 대간연구』, 일조각.
정만조 외, 『조선시대 경기북부지역 집성촌과 사족』, 국민대학교출판부, 2004.
최완수, 1998 『조선왕조 총의열전』, 돌베개.
최정용, 2000 『조선조 세조의 국정운영』, 신서원.
최정용, 1998 『세조의 집권과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영남대사학과 박사학위논문.
한국인물사연구원, 2011 『계유정난과 사육신』, 타오름.
홍기원, 2001 『육신록』, 민속원.
- 권연웅, 1982 「세종조의 경연과 유학」, 『세종조문화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태영, 1994 「조선초기 세조왕권의 전제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 87.
김경수, 2006 「세조대 단종복위운동과 정치세력의 재편」, 『사학연구』 83.
김경수, 1999 「박팽년의 생애와 현실의식」, 『조선시대사학보』 11.
김 돈, 2006 「세조대 단종복위운동과 왕위 승계문제」, 『역사교육』 98.
김영두, 2013 「실록편찬에 나타난 세조 정권의 정당성 추구」, 『한국사학사학보』 27.
김진우, 2003 「국사편찬위원회의 백촌 김문기 사육신 판정의 이론적 배경—사육신의 선정기준과 사육신」, 『한국사학논총』.
김진우, 2003 「六臣墓史 소고」, 『한국사학논총』, 푸른사상.
김진우, 2003 「국사편찬위원회의 백촌 김문기 사육신 판정의 이론적 배경—사육신의 선정기준과 사육신」, 『한국사학논총』, 푸른사상.
노평규, 1996 「白村 김문기의 충효와 의리사상」, 『유교사상연구』 8, 한국유교학회.
박종관, 1997 「忠正公 박팽년 세거지 연구」, 『향토사연구활성화강좌』,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 서수생, 1997 「사육신의 盡忠取熊과 抒情의 菁華」, 『유교사상연구』 9, 한국유교학회.
- 성주탁, 1993 「박팽년」, 『한발인물지』, 대전시.
- 신지현, 1965 「대의명분의 化身 성삼문」, 『인물한국사』 3, 박우사.
- 심희기, 1999 「사육신 재판과 그 복권-조선시대판 과거청산직업의 사례연구」, 『법제연구』 17, 한국법제연구원.
- 이근호, 2006 「16~18세기 단종복위운동 참여자의 복권과정 연구」, 『사학연구』 83.
- 이재호, 1985 「死六臣訂正論의 허점」, 『한국사의 비정』, 우석.
- 이현희, 1982 「백촌 금문기의 충의연구-신사육신론의 검토」, 『성신여자사범대학 연구논문집』 15.
- 전신재, 2002 「단종의 부활과 세조의 재생」, 『설화와 역사』, 집문당.
- 정재영, 1998 「성삼문의 童子習序와 『童子習(口訣)』에 대하여」, 『규장각』 21.
- 지두환, 2014 「세조 집권과정에서의 내종친의 정치 성향」, 『백산학회학술대회 자료집』.
- 진성규, 1998 「세조의 집권과정과 順興」, 『중앙사론』 10 · 11승.
- 최규성, 2014 「화의군 이영은 어떤 인물인가」, 『백산학회학술대회 자료집』.
- 최승희, 1997 「세조대 王位의 취약성과 왕권강화책」, 『조선시대사학보』 1.
- 최승희, 1998 「세조대 국정운영체제」, 『조선시대사학보』 5.
- 최완수, 1998 「조선왕조 충의열전」, 돌베개.
- 최정용, 1995 「세조조 원종공신의 책정과정과 성격」, 『창원사학』 2.
- 최정용, 1998 「세조의 집권과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영남대박사학위논문.
- 한기범, 1992 「박팽년」, 『대전문화』 1.
- 한영우, 1973 「왕권의 확립과 제도의 완성(세조~성종)」, 『한국사』 9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국사편찬위원회.
- 한충희, 2013, 「조선 세조대(1455~1468) 원종공신-1·2등공신을 중심으로」, 『조선사연구』.

II 박팽년 가계의 전의현 입향과정

1. 들어가는 말 · 45
2. 박팽년 가계의 선대 행적 · 45
3. 박팽년의 외조부 김익생의 행적 · 49
4. 박중립-박팽년 출생지와 거주지에 관한 검토 · 56
5. 박팽년의 회덕 출생설의 허와 실 · 66
6. 나가면서 : 향후의 과제 · 70

박팽년 가계의 전의현 입향과정

오 석 민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지금도 국민들에게 사육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충절의 대명사라는 사실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막상 박안생-박중립-박팽년으로 이어지는 가계가 세거했던 전의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박팽년의 조부 박안생은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후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이곳에 은거하였다고 한다. 후대에 약간의 윤색이 가해진 이야기겠지만, 박안생은 자신의 처가였던 지금의 전의면 관정리로 사는 곳을 옮겼다. 그리고 세종시에는 현재 조부 박안생의 묘역이 남아 있고, 또한 그들이 거주했던 박동(朴洞) 등의 지명이 전한다. 그리고 박팽년의 일부 직계 혈손들도 박팽년의 고향을 박동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대부분 자료에는 박팽년이 지금은 대전에 편입된 옛 회덕현에서 출생하였다고 소개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한 일환이다.

2. 박팽년 가계의 선대 행적

순천박씨는 고려 태조를 도왔던 개국공신(開國功臣) 박영규(朴英規)¹⁾를 시조로 삼는 집안이다. 그 후손 중에서 박난봉(朴蘭鳳)은 평양부원군(平陽府院君: 순천의 옛 지명)에 봉해졌다고 전해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시조로 모셔지는 박영규와 그 후손인 박난봉은 죽은 후에 지역의 성황신, 즉 해룡산신(海龍山神)과 인제산신(麟蹄山神)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박영규에서 박난봉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물론이고, 박난봉 이후의 계보도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관계로 현재 순천박씨 후손들은 고려 충숙왕 때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을 지낸

1) 박영규는 견훤(甄萱)의 사위로 후백제 건설에 많은 공을 세웠다. 그러나 935년 3월 신검(神劍)이 반역하여 그 아우 금강(金剛)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金山寺)에 유폐시켰고, 이어 6월에 견훤이 금산사를 탈출해 고려에 망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박영규가 936년 9월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밀약하였고, 왕건이 후백제를 칠 때 내응하였다. 박영규의 세 딸이 모두 왕실과 혼인하였는데, 왕건의 부인 동산원부인(東山院夫人)과 정종의 비인 문공왕후(文恭王后)와 문성왕후(文成王后)가 그들이다.

죽계(竹溪) 박숙정(朴淑貞)을 1세로 삼고 있다.²⁾

순천박씨의 중시조 박숙정은 여흥 민씨 민시(閔蒔)의 따님과 혼인하여 여러 아들을 두었는데, 1600년 경까지도 아들이 몇이나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선 인조 때에 활동했던 외손 신열도(申悅道, 1589~1659)³⁾가 쓴 족보[譜牒] 발문에서도 박원상의 형제가 기록마다 서로 다름을 괴이하게 여기고 있다. 그의 논의 가운데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나의 외가인 박씨는 신라 때의 왕실의 후예이다. ... 병오년(1606)에 내가 안동 제독관(提督官) 박춘형(朴春亨)을 만나서 그 계파를 물은 즉 그 대강을 적어 보여주었다. 작년에 또한 성균관 유생[上舍] 박익(朴翊)으로부터 성산(星山) 박씨의 족보[家牒]를 얻어서 살펴보니, 성산 박씨는 대학사(大學士) (박)숙정(朴淑貞)의 세 아들을 기록했는데, 첫째는 원룡(元龍)이고 둘째는 원린(元麟), 셋째는 원상(元象)이었으며, 원룡의 아들 천상(天祥, 平陽府院君)이 실려 있었다. 제독관 시절에 본 바에 따르면, 대학사[朴淑貞]에게 아들 넷을 두었고, 큰 아들은 원린, 둘째는 원상, 셋째는 원구(元龜), 넷째는 원봉(元鳳)이라 하고, 원룡은 없었으며, 평양군 천상은 원린의 아들이라 하였다. 두 집안에서 기록한 바가 이렇게 크게 다르니, 괴이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성산의 족보에서는 먼 조상의 일을 조금이나마 기록하였고, 또한 대학사[박숙정] 부인의 성씨와 평양군[박천상] 앞뒤의 부인들의 성씨가 자세하였다. (반면에) 제독(가계에서) 기록한 것은 급하게 선대의 기록을 정리한 듯하여 소홀하고 빠진 것이 많았다. 이제 성산의 족보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슬프다. 이러한 일을 접하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평양군의 아들이 가실(可實, ?~1410)이고, 그 아들이 안명(安命)⁴⁾이니, 내 어머니의 7대조가 된다. ...⁵⁾

2) 박숙정의 생몰년은 미상인데, 1314년(충숙왕 1) 경상도제찰사 등을 역임하였고, 1326년 국자감 채주(國子監祭酒)가 되어 유생들을 가르쳤다. 이후 관동지방의 존무사(存撫使)로 부임하여 고성(存撫使)의 삼일호(三日湖)에 사선정(四仙亭), 강릉 경포대에 경호정(鏡湖亭), 울진에 취운루(翠雲樓)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가깝게 지내던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1287~1367)과 근재(謹齋) 안축(安軸, 1287~1348)에게 기문을 청하여 누정 건립의 내력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한편 순천 김씨 또한 순천박씨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 시조는 김충(金攄)인데, 순천박씨 박난봉(朴蘭鳳)과 함께 큰 공을 세웠다고 전해질 뿐이며, 그 이후의 계보가 확실치 않아서 고려 때의 김윤인(金允仁)을 1세조로 삼고 있다.

3) 본관은 이주(鵝洲)이고, 경상도 의성 출신으로, 여헌 장현광의 문인록에 올라 있다. 1624년(인조 2) 문과(文科)에 급제하였고, 1627년 정묘호란 때 임금을 강화(江華)에 호종하였고 병자호란 때에도 척화를 주장하였다.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을 비봉리에 있다. 신열도의 행장에는 어머니가 현감을 지낸 박희(朴璿)의 증손이고, 전력부위(展力副尉)를 역임한 박륜(朴倫)의 딸로 되어 있다.

4) 『세종실록』 8년(1426) 7월 1일의 기사에 의하면, '박안명(朴安命)의 직관(籍貫)은 전라도 순천부(順天府)이며, 현재 한성부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

5) 吾外門朴氏 實新羅王者之後 ... 粵在丙午 余見安東提督朴斯文春亨 問其派系 朴公錄示大槩 昨歲又因朴上舍翊 得見星山朴氏家牒而參考之 星山譜則大學士淑貞三子 長元龍次元麟元象 而元龍子天祥平陽府院君 提督所錄則大學士四子 長元麟次元象元龜元鳳而無元龍 以平陽君爲元麟之子 兩家所錄 大相抵牾 殊可怪已 然星山譜遠祖事蹟 頗記一二 且大學士夫人姓氏及平陽君前後娶夫人姓氏 記載詳悉 而提督所錄 出於逆旅卒乍之間 固不免疎脫 今當以星山譜歸重可也 噫余因此而竊有所慨焉 平陽之子諱可實 可實之子諱安命 即吾先妣七代祖也.

현재 순천박씨 가문에서는 박숙정을 1세로 삼고, 아들은 원룡(元龍)·원호(元虎)·원구(元龜)·원린(元麟)·원상(元象) 등 다섯 아들을 두었던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둘째 아들 원호(元虎)와 넷째 아들 원린(元麟)의 후손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순천박씨 충정공파 가문에서도 그들의 후손을 제외한 총 19개 지파를 인정하고 있다. (<별첨 2> 순천박씨 분파도 참조)

그런데 현재의 계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듯하다. 어느 집안이나 최초의 족보가 간행 이후 후손들은 끊임없이 검토를 진행하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⁶⁾ 특히 선대의 행적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없지 않다. 앞에서 신열도가 괴이하다고 했듯이, 송시열이 박석명의 10대손 박광후(朴光後, 1637~1678)의 묘갈명을 씌어 있어서 “박 사술(士述, 朴光後의 字)의 본관은 평양(平陽, 順天의 이명)이며, 10대조 박석명(朴錫命)은 본조(本朝)의 훈신(勳臣)인데, 대개 인수(仁叟, 朴鵬년의 字) 선생과 동종(同宗)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듯한 결론으로 매듭지은 것 또한 그러한 때문이다. 각 시대의 족보는 계보가 불분명한 가계를 후대에 이르러 고증을 거치면서 하나의 계보로 묶은 결과물이다.⁷⁾ 그러나 여기서는 더 이상의 상론을 피하고, 다만 17세기 이후 많은 성씨들이 족보를 간행할 때에 조선초의 인물까지는 정확한 혈연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논의를 그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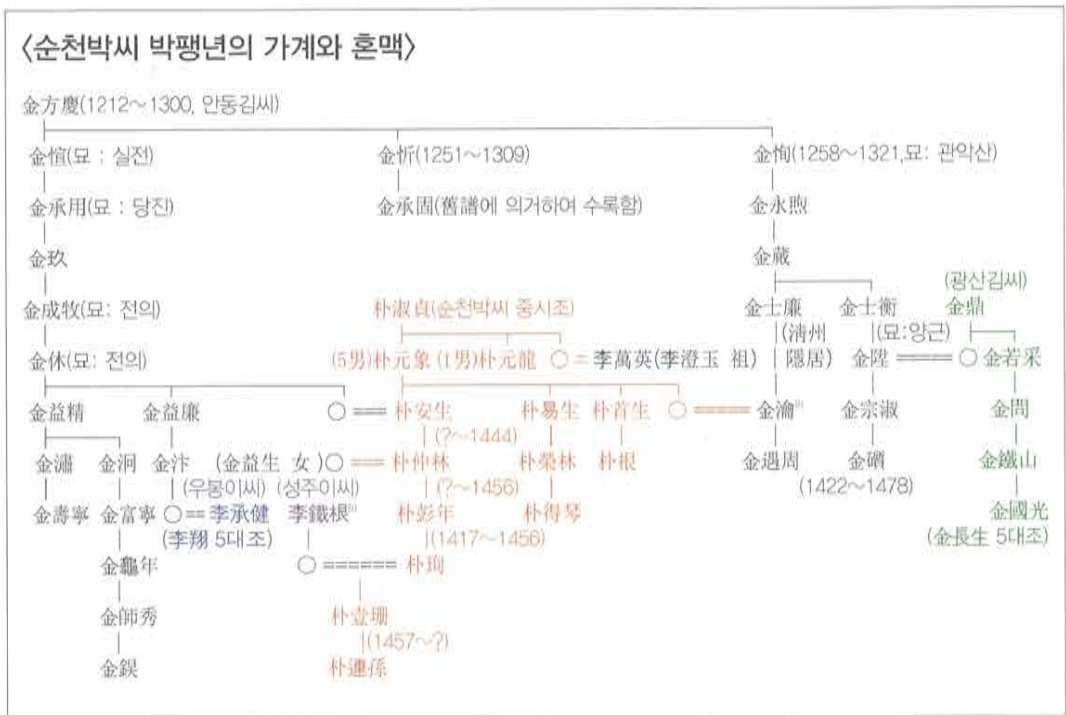
한편 박원룡-박천상-박가홍-박석명에서 박중선(朴仲善, 1435~1481)으로 이어지는 문숙공파와 박원상-박안생-박중립-박팽년으로 이어지는 가계의 정치적 행보는 크게 어긋난다. 『국조인물고』에는 임사홍(任士洪, 1445~1506)이 쓴 박중선의 묘비명이 실려 있는데, ‘순천의 평양(平陽)에 대대로 살았는데, 세조 6년(1460)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상당군 한명회가 서북 양계의 체찰사로 나갈 때마다 보좌관[佐幕]으로 데리고 나가서 논의 때마다 같이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순천을 근거지로 하면서, 한명회의 심복으로 활동했던 것이다.

6) 순천박씨 뫇골의 후손들은 1960년대 후반 순천박씨 집안에서 묘소 1기에 20가마의 쌀을 걸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순천박씨 시조 박영규의 선대의 묘역을 찾으려고 큰 박골과 작은 박골 일원을 샅샅이 뒤졌고, 당시 관정리에 거주하는 이범규(1947년생)는 고등학교 재학할 당시였던 그 상황을 본 바가 있다고 한다. 이범규는 당시 그 이전에도 묘소를 찾기 위하여 동원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한다. ‘묘지석을 확인하려고 묘소 앞을 파보기도 했고, 꼬챙이 같은 것으로 찔러 보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할아버지가 혹시 우봉이씨 선대 묘역을 파헤칠 수도 있으니, 그런 장면을 보면 빨리 일러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하였다.

7) 중국에서는 이러한 일을 회종(會宗) 또는 통보(統譜)라 한다. 정승모, 2010, 『한국의 족보』, 이화여자출판사, 18쪽, 99쪽 참조.

그런데 조선전기에는 가까운 일가가 정치적 행보를 달리하는 경우는 적지 않았다. 그러다가 선조-인조조를 지나면서 성리학적 종법(宗法) 질서가 자리를 잡았고, 이에 따라 장자로 이어지는 상속관행이 보편적으로 자리잡았다. 그 결과 부계혈족의 결속이 강화되면서, 조선후기에 비로소 개인의 정치적 행보가 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일 뿐이다. 그 이전에는 종중이라는 혈연조직이 결성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각 개인은 혈연이나 혼인 등을 망라한 다양한 관계망 가운데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 형제 나아가서 부자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던 것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조선 전기는 부계혈연에 대한 의식이 약했고, 따라서 각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자기 중심의 관계망(ego-centric relationship)에 따라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던 것이다.

한편 박원룡의 아우 박원상은 고려 말에 순천을 떠나 충청도 회덕에 정착했고, 그 아들 박안생은 안동김씨 김방경(金方慶, 1212~1300)의 후손과 혼인하면서 전의로 이거했다. 참고로 이 때만 해도 처가로 거주지역을 옮기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순천박씨 전의 입학조 박안생을 중심으로 하는 개략적인 연혼관계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



위의 계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원상-박안생-박중립-박팽년으로 이어지는 순천박씨 가계는 조선 초 정치 지배세력과 중첩된 혼인을 맺었다. 이징석과 이징옥 형제의 조부 이만영, 전의현의 안동김씨 가계, 그리고 중종반정의 주역인 박원룡의 6대손 박원중 등은 혈연 또는 혼인을 통하여 매우 가까웠던 가계였다. 그러나 각각의 정치적 행보는 달랐고, 또한 그에 따른 정치적 부침도 서로 달랐다. 예를 들면, 순천박씨 박원상의 손자 박중립과 박팽년을 포함한 아들 형제들은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되어 화를 입었으나, 안동김씨 가계에는 복위운동에 참여했다가 변절한 김질(金礪, 1422~1478)이 있었다. 또한 박안생(朴安生, ?~1444)의 고모와 혼인한 이만영의 아들은 이전생(李全生)인데, 그의 3명의 아들 가운데 이징옥(李澄玉, ?~1453)은 계유정난 당시 변을 당한 김종서의 측근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아들 3명과 죽음을 당하였으나, 형 이징석(李澄石, 1395~1461)은 1455년(세조 1)에는 세조가 등극하는 데에 도운 공으로 좌익공신(佐翼功臣) 3등에 책록되고, 양산군(梁山君)에 봉해졌다.

이러한 혼맥의 중심에는 박팽년의 진외가, 즉 조부 박안생의 처가인 안동김씨 가계가 있었다. 안동김씨는 유력 성씨와 중복적인 혼인을 통하여 가문의 사회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치적 격랑을 거치면서도 지금까지도 현 세종시 전의 일대의 유력 성씨로서 굳건하게 세거하고 있다.

3. 박팽년의 외조부 김익생의 행적

조선 선조 무렵까지도 혼인 후에 신랑이 처가살이하는 것은 관행이었다. 박팽년의 가계와 출생지를 살핌에 있어서, 외조부의 행적을 살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박중립의 장인인 김익생(金益生)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세종실록』에 34회에 걸쳐 언급되고, 진하사(進賀使)의

8) 본 계보는 1565년 『문화유씨 가정보』와 만력 8년(1580)의 『安東金氏 姓譜』(대전시 유형문화재 45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김익은 박안생의 여동생과 혼인하였는데, 『안동김씨 성보』에는 후사가 수록되지 않았지만, 『문화유씨 가정보』에는 아들 1인[金遇周, 知州事]을 두었고, 손자 5인[金丸, 金吹, 金沙, 金演, 金洌]을 두는 등 후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7년 발간된 『순천박씨 충정공파보』에는 '안동인으로 소윤(少尹)을 역임했으며, 아버지는 좌사간(左司諫)을 역임한 사람(士濂)이고, 아들은 김우주(金週周)로 군수[郡事]를 역임하였다'고 하였는데, 『문화유씨 가정보』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참고로 최근 발간된 『안동김씨 총렬공파譜』에는 김방경-김전(金俊)-김영기(金永箕)-김익(金湑)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그 후손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9) 2007년에 발간된 『순천박씨 충정공파보』에 "이씨의 아버지 이름이 『星州譜』에는 '鐵柱'로 되어 있으나, 충정공파의 고적(古蹟) 중에 선생이 친히 찍은 문권(文券)에 '鐵根'이라 쓰여 있으므로, 아마도 '根'이 맞을 듯하다." 하였다. (李氏父名 星州譜作鐵柱 而忠正公派古蹟中 有公親押文券 以鐵柱根書之 根字恐是) 참고로 『만성대동보』에도 '鐵柱'로 기록되어 있다.

부사(副使) 등의 직임으로 명나라를 왕래했던 인물이지만, 가계조차도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익생은 세종 때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김익생은 무인(武人)으로, 세종 3년(1421) 남포진 병마절제사(藍浦鎮兵馬節制使)로 처음 『세종실록』에 등장하였고, 그 후 강계 절제사(江界節制使), 동지총제(同知摠制), 우군총제(右軍摠制), 경상도도절제사(慶尙道都節制使), 중군총제(中軍摠制),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충청도 병마도절제사, 한성부윤(漢城府尹), 경상좌도 수군처치사(水軍處置使),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경주 부윤(慶州府尹) 등을 역임하다가, 세종 25년(1443) 2월 6일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성종 21년(1490) 7월 7일 기사에서 직첩을 돌려받은 것으로 미루어, 앞선 어느 시기에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왕조실록 외에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는 1565년 간행된 『문화유씨가정보』(이하 『가정보』)이다. 그에 따르면, 김익생의 아버지는 김린(金蘭)이고, 아우는 김익상(金益祥)이다. 현재 김린의 행적은 확인할 길이 없다.¹⁰⁾ 아우 김익상은 세종 11년(1429) 지울진현사(知蔚珍縣事) 또는 판울진현사(判蔚珍縣事)를 역임하다가 유구국(琉球國) 출신 난파선의 객인(客人)이 무기(武器)가 없음에도 활로 쏘아 죽었다고 하여 탄핵을 받았고, 세종 24년(1442) 선공 판사(繕工判事)로 있으면서 경주로 가서 영전(影殿)을 수증(修葺)하는 명을 받은 것을 마지막이다.

『가정보』에는 김익생의 소생으로 딸이 1명 있는데, 그 사위가 박중림로 되어 있다. 아우 김익상의 소생으로는 아들 김귀통(金貴通)과 딸 3인이 있다. 사위는 홍즙(洪緝, 別侍), 김균(金均), 김억년(金億年)이다. 홍즙은 딸을 두었는데 사위는 안처량(安處良, 承旨)이고, 김균 또한 딸 3인을 두었으며 사위는 김경충(金敬忠, 別侍)·조극기(曹克己, 進士)·안숙희(安叔禧, 進士)이다. 김억년의 두 아들은 김승석(金承錫)과 김중석(金仲錫)이다. 『가정보』에는 이상의 인물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며, 그 이하의 내외손(內外孫)은 등재되지 않았다. 등재된 후손들의 행적은 대부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홍즙의 사위 안처량은 세조 10년(1464) 온양별시(溫陽別試) 병과(丙科) 3등으로 급제하여 이조와 형조 참판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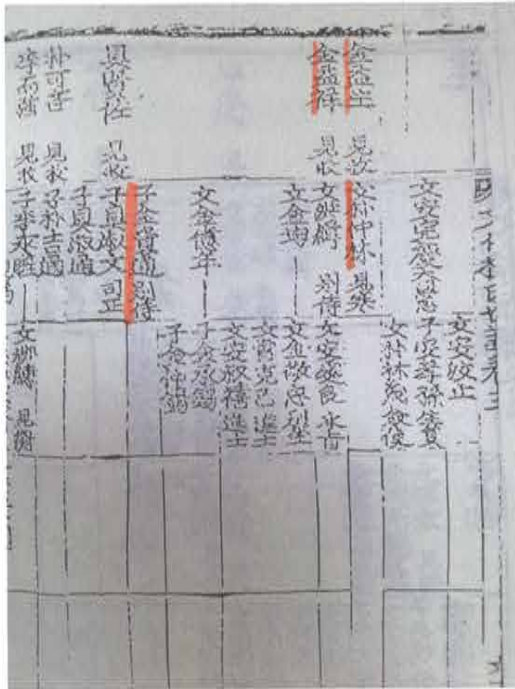
10) 『고려사』에서 확인되는 김린(金蘭, ?~1371)이 김린(金蘭)과 동일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김린은 1362년(공민왕 11)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로 서북면병마사가 되었고, 권신인 신돈(辛旽)에게 두 딸을 바치기도 하였다. 1366년에는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신돈의 실정을 왕에게 고한 이존오(李存吾)를 국문하고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으며, 1368년에 서북면도체찰사(西北面都體察使)가 되었고, 1371년에는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에 이르렀다. 이 후 사헌부가 신돈의 실정을 비난하면서 그의 주살을 주장하였는데, 그는 죽임을 당하였고 가족은 도류인(徒流案)에 올랐다.

역임했고, 『세조실록』 수찬관(修撰官)으로 참여했으며, 정조사(正朝使) 부사로 명나라를 왕래했다.¹¹⁾ 김균의 큰 사위 김경충은 세조 원년(1455) 원종공신으로 녹훈되고, 세조 9년 이후 성종 12년(1481)까지 성균관 생원의 신분으로 불교를 배격하라는 상소를 올릴 때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행적이 확인될 뿐이다. 전체적으로 김익생의 가계는 선대의 활동에 비하여 내외(内外)의 후손들의 활동이 미약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 후기 종중이 형성되던 시기에, 자신들의 선대를 현창하고 핏줄을 나눈 후손들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김익생과 김익상의 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정보』에 의하면 김익생과 김익상 형제의 외조부는 임군보(任君輔)이다.¹²⁾ 임군보는 『고려사』 열전에 수록된 인물인데, 공민왕 때에 신돈의 천거로 밀직부사로 임명되어, 김난(金蘭)·목인길(睦仁吉)과 함께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서 궁중에서 일을 전담하였다. 그러나 신돈의 행동을 비판하였고, 끝내 이존오(李存吾)와 정추(鄭樞)가 신돈을 논핵하다가 쫓겨나자 이를 변호하다가 신돈의 참소로 여흥(驪興)으로 유배당하였다. 임군보는 갑자사화를 일으켰던 임사홍(任士洪, 1445~1506)의 고조부이기도 하다.

11) 인처량의 본관은 제천인데, 일부 자료에는 본관이 순흥 또는 충주로 소개되기도 한다. 참고로 현재 제천 안씨는 100가 구 미만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족세(族勢)가 미약한 집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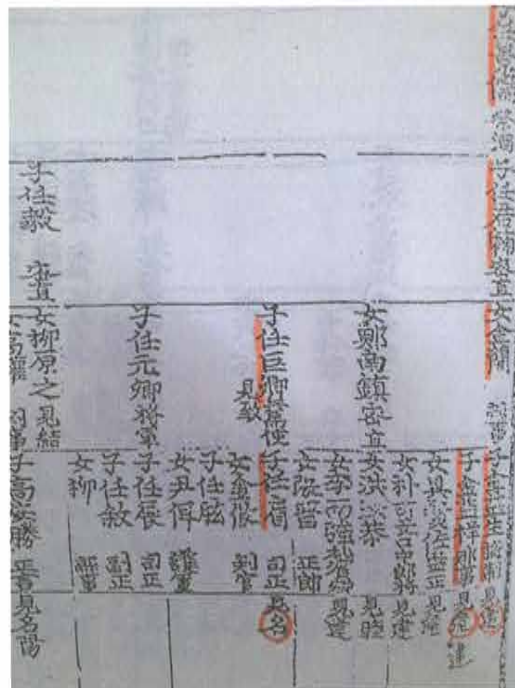
12) 임군보의 아버지는 임경유(任景儒)이며, 할아버지는 현재 풍천 임씨 부원공파(伯派)의 파시조로 지목되는 임자송(任子松)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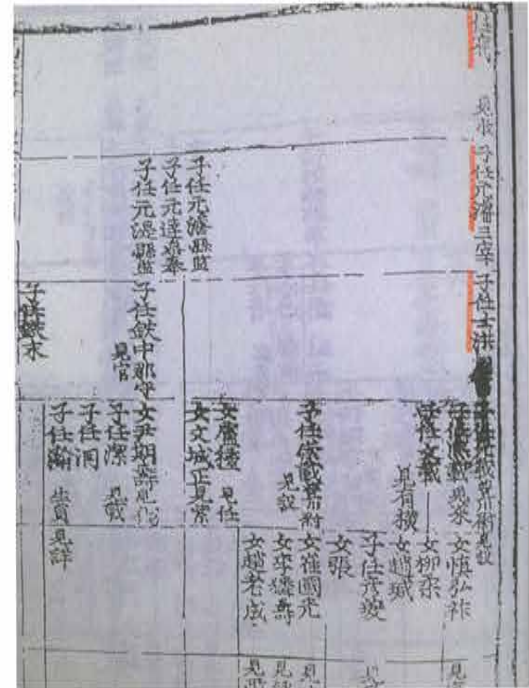
문화유씨 가정보(김익생 가계)



문화유씨 가정보(박중립 가계)



문화유씨 가정보(임근보 가계)



문화유씨 가정보(임사홍 선대)

그런데 최완수는 『조선왕조 충의열전』(1998, 돌베개)에서 조선후기의 여러 충의 신장현 읍지를 검토한 끝에 ‘태종 때에 효행으로 정려를 받은 김익생(1388~1450)’과 동일인으로 보았다. 이어서 박팽년은 당시의 풍속대로 신장현 남면 판방리[현 아산시 도고면 도산리]에 있었을 외조부 김익생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라 하였으며, 박팽년이 세종 26년(1444) 28세의 나이로 올린 ‘결군장(乞郡狀)’의 내용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했다. 최완수가 검토한 ‘결군장’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은 포대기에 싸였을 때부터 외가에서 자라났는데 외조부의 나이 이제 70이고 외조모의 나이는 이제 74이니 벌이 질 때가 가까웠으나 달리 뒤를 이을 자식이 없고, 오직 신의 어미 뿐이라 신으로 자식을 삼아 어루만져 길러내었으니 난 바와 다름이 없습니다. ... 신의 외조부와 외조모는 충청도의 신장현에 살고 있습니다. ...

다만 최완수는 외조부 김익생이 현 족보와는 달리 1375년에 출생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더하여 최완수는 신장현에 있는 김익생의 효자 정문을 직접 답사하였다. 아울러 김녕김씨 족보에서 김익생이 김문기(金文起, 1399~1456)의 3종숙(三從叔)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록은 “(김)문기와 박팽년은 족친(族親)이 되고 또 가깝게 사귀었다.”는 『세조실록』 2년 6월 8일의 기사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김익생 정려 전경(1993, 『아산의 문화유적』)



김익생 정려기(1993, 『아산의 문화유적』)

1993년 아산군과 공주대학교박물관에서 발간한 『아산의 문화유적』에도 김익생을 송암(松庵) 김질(金秩)의 아들이며, 박팽년을 그의 외손으로 소개하고 있다. 즉 ‘고려가 망하자 김질이 도고면 도산리에 은거하였는데, 7살 때 어머니가 병환으로 식음을 전폐하다가 잉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전전궁궁하는데 문득 꿈에

연못을 가르쳐 주었고, 다음 날 연못을 찾았더니 물이 갈라지면서 잉어가 튀어나와서 봉양하였다. 또한 병환이 차도를 보이는 도중에 배가 드시고 싶다고 하자 밤길을 나섰는데 범이 나타나 등에 태우고 배가 있는 절로 안내하여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산의 문화유적』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1739년에 새로 세운[改建] 구형의 효자비와 함께 1980년에 다시 세운 비석이 있다고 하였고, 1741년 임광필(林光弼, 1682~1743)이 쓴 비각기(碑閣記)에는 효자비 건립 유래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다.

자헌대부 예조판서 김공 비각기 : 공은 태종조 효행으로 유명하여 조정에서 정려를 내리고 효자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공이 돌아가신지 300여 년이 흘러 묘는 남아 있는데, 비는 그 세운 곳을 잃어버렸는데, 경종 계묘년(1723) 큰 비가 오고 물이 쏟아질 적에 비석이 개울가에서 드러나니, 농사꾼이 그 후손에게 알렸고, 후손이 훼손되지 않게 힘을 쏟고는 옛 글자를 다른 돌에 새겨서 세우고, 옛 비석은 근처 비각[閣] 옆에 묻고는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전말을 기록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 이 비석으로 보아서 비석을 세운 것은 태종 을유년(1405)이고, 공이 돌아가신 것은 세종 경오년(1450)이니, 을유년으로부터 경오년까지는 45년이 흐른 것이다. 그런 즉 효자비는 공이 어릴 때에 있었던 것이다. ... 신유년 통정대부 전 승정원 동부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임광필 식 (資憲大夫禮曹判書 孝子 金公 碑閣記 公當太宗朝以孝著聞 朝家銘旌閭又立孝子碑 公歿于今三百餘年 遺墓尚存 而碑即失其所立處 逮景廟朝癸卯 天大雨及水落 碑乃露面於湍沙之間 農人告於其後孫 後孫奔走竭力圖所以不朽者 攻他石摹舊字而立之 仍豎其舊碑於其傍閣而覆之 走人於余要誌顛末 ... 以碑考之碑之豎在於太宗乙酉 公之沒在於世宗庚午 自乙酉至庚午 爲四十五年 卽旌孝之碑 蓋在公幼少時也 ... 辛酉 仲春 通政大夫 前承政院同副承旨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林光弼識)

2014년 현재 도고면 도산리 김익생의 정려비의 보존상황은 1993년 조사 때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비각 좌우에 김녕김씨 집안에서 건립한 몇 개의 비석을 추가로 조성하여 세웠을 뿐이다. 어랑촌(漁浪村)이라는 소지명과 함께 김녕김씨 송암공파, 즉 김익생의 아버지 김질을 파시조로 삼는 후손들의 세거지임을 표기한 비석, 최근 조성된 김익생 신도비, 진주목사를 지낸 김정국(金鼎國)의 공덕비 등 3개의 비석이 정려비각과 같은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



김익생 정려비각 전경 1



김익생 정려비각 전경 2



김익생 효자비(1723)



김익생 효자비(1980)

그런데 최완수가 살펴본 『김녕김씨 대동보』(1977, 회상사)에는 김익생이 김질(金秩)의 아들로 수록되어 있다. 『가정보』의 기록과는 다르다. 또한 현 대동보에는 어머니가 밀양박씨이고, 여기에 더하여 아들로 김광구(金光燾)와 김광기(金光耆), 그리고 박중림 외에도 고숙(高瀟)이라는 사위를 둔 것으로 되어 있다. 박중림이 무남독녀와 혼인하였다는 후손들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명정을 받은 시기도 의문의 대상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익생은 세종 때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위의 비각기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김익생이 출사하기도 전인 1405년 어린 나이에 명정을 받은 셈이 된다. 사후에 명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통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효자비를 잃어버렸다가 300년이 지난 1723년 홍수가 났을 때 효자비를 발견했다는 사실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효자비가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기였던 오재순(吳載純, 1727~1792)의 『순암집(醇庵集)』에 실린 「이조판서증좌찬성박공시장(吏曹判書贈左贊成朴公謚狀)」 등의 자료에는 김익생의 본관을 안동이라 한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을 듯하다. 이에 대하여 최완수는 “박중림의 외삼촌들이 김익정과 김익렴이기 때문에 김익생도 이들과 항렬이 같은 (선)안동김씨로 착각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한다.”고 추측하였다. 설령 후대에 집안에서 봉사손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김광구와 김광기 두 형제가 있으며, 나아가서 또한 딸이 있어서 박중림 외에 고숙이라는 또 다른 사위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다. 현재로서는 김익생의 본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듯하다.

그런데 최완수의 주장처럼 박팽년이 ‘신창현의 외조부 김녕김씨 김익생의 집’에서 나고 자랐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박중림과 박팽년이 김익생의 집으로 옮겼는가 하는 점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조선 초에도 모든 남자들이 처가살이를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중림이 부모의 상을 당하여 시모살이를 할 때의 기사를 보면, 여전히 전의현에 본가(本家)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 박중림-박팽년 출생지와 거주지에 관한 검토

순천박씨의 중시조 박숙정의 묘소는 실전되어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 족보에 그의 아들로 실려 있는 5형제 중에서는 박원룡(朴元龍)과 박원상(朴元象) 두 형제의 묘소만이 확인되고 있다. 박원룡의 묘소는 최근에 찾은 듯하다. 2007년 발간된 『순천박씨충정공파보』(이하 2007년 『파보』)에는 1975년 충북 영동에서 발견하여 중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의 아들 박천상(朴天祥)의 묘는 경기도 장단에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에 실전하였고, 손자 박가흥(朴可興)의 묘는 의정부시에 있으며, 박가실(朴可實)의 묘는 실전되었고, 박가권(朴可權)의 묘는 경북 성주에 있다. 대체로 박원상의 묘소가 전하는 대전 회덕이나 박안생(朴安生) 부부의 묘가 있는 세종시 전의 지역과는 먼 곳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박원상은 회덕에 정착하였는데, 그 부부의 묘는 회덕에 있다. 그런데 그의 후손 가운데 회덕에는 큰 아들 박수생(朴首生)과 박근(朴根)의 부인인 전의 이씨의 묘를 제외하고 모두 박이생(朴易生)-박영림(朴榮林)의 직계후손들의 묘가 있을 뿐이다. 입향조는 박원상이지만, 박이생만이 회덕에 정착하였던 것이다. 송시열 또한 박이생의 후손 박세징의 묘지(墓誌)를 쓸 때에

“(박이생의 후손들이) 대대로 회덕 성남리(城南里)에 살았다” 고 하였다.

박원상의 또 다른 아들 박안생 부부의 묘는 조선시대 전의현이었던 세종시 전동면에 있다. 전의현에서 멀지 않은 노성현의 유력 사족인 파평 윤씨 가계의 동토 윤순거가 1660년에 지은 『노릉지』에는 ‘박팽년은 대대로 회덕에 살다가 뒤에 전의로 옮겼는데, 지금도 박동(朴洞)에 옛 터[遺址]가 있다’ 고 하였다. 이궁익(李肯翊, 1736~1806) 또한 『연려실기술』에서 『노릉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앞에서 박팽년의 조부 박안생이 전의현의 안동김씨 사위가 되면서 거주지 자체를 옮겼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1854년 간행된 『전성지(全城誌)』에는 고을 북쪽 7리 지점의 박동(朴洞)은 참판 박팽년이 세거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선생의 아버지 박중림과 형 박맹림(朴孟林), 아우 박계림(朴季林) 등 3형제가 같이 살았는데, 이런 까닭에 상·중·하삼대부리(三大夫里)라는 이름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석정(寒石亭)이란 정자가 있었는데, 박팽년의 할아버지 박안생이 살았던 옛 터라 하였다.¹³⁾

최완수 또한 『조선왕조 충의열전』에서 박중림과 박팽년의 출생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는 박중림이 전의 학당리에서 태어나서 박동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박안생은 전의의 명족인 선안동김씨 한성좌운 학당(學堂) 김휴의 둘째 따님에게 장가들어 처가 근처로 이사하니 그가 살던 전의 읍치 북쪽의 상·중·하대부리 일대를 박동(朴洞)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다. 현재의 전의면 관정리 일대이다. 상대부리는 전의 읍치에서 7리, 하대부리는 5리 떨어진 곳이다. 『전의읍지』에 의하면 집 부근에 한석정(寒石亭)이라는 정자를 지어 놓고 있었다 한다. 따라서 박중림은 외가가 있는 학당리에서 탄생하여 박동에서 성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외조부의 집에서 태어났다는 최완수의 추론은 당시 풍속을 염두에 둔 추론이며, 박동에 살았다는 근거는 읍지의 기록에 기댄 것이다. 『노릉지』의 기록이나 한석정과 관련된 기록 등을 염두에 둘 때, 박중림이 외조부 김휴의 집에서 태어나서 가까운 박동에 거주지를 잡은 사실은 설득력이 있는 추론이다. 최완수는 실제로 박중림이 전의에 살았던 사실을 『세종실록』의 기사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세종 21년(1439) 9월 27일과 28년(1446) 12월 18일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13)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재난고』의 1786년 일기에는 박중림이 한석정을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자 표기는 비록 다르지만, 박중림의 호가 한석당(閑碩堂)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난고』의 기록이 옳을 듯하다.

- ① 박중림이 어머니 안동김씨 장례 후 시묘살이 : 집현전 부수찬(副修撰) 박팽년(朴彭年)이 상언(上言)하기를, “... 지금 아버지가 상(喪)을 당하여 전의현(全義縣)에 여막을 짓고 있고, 신의 어미도 따라가 있는데 또 병이 있사오니, 멀리 떠나서 벼슬하는 것이 어찌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하여 가서 여막 옆에 있으면서 자는 것과 먹는 것을 살펴 묻고, 또 어미의 탕약(湯藥)을 받들어서 조석(朝夕)을 함께 하고 다행히余力(餘力)이 있으면 대강 학업을 연구하려 하오니, 옆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신의 조그마한 정성을 양찰하시와 신의 직책을 면하게 하여 구구(區區)한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하였으나, 운허하지 아니하였다. (集賢殿副修撰朴彭年上言曰 … 今父遭喪 處于全義縣 臣母隨居 且有疾 遠離從仕 何以爲心 茲欲往從 廬側候問眠食 且奉母湯藥 以共朝夕 幸有餘力 粗究學業 伏望殿下 諒臣微衷 令免臣職 以遂區區之願 不允)
- ② 박중림이 아버지 박안생 장례 후 시묘살이 : 신의 아버지는 갑자년(1444)에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여 전의현(全義縣) 남촌(南村)에서 여묘(廬墓)를 살았는데, 그해 여름에 목천(木川)의 접노(接奴) 김삼(金三)이 그 아들 김산(金山)을 데리고 전의(全義) 본가(本家)에 이르러 그 아들을 두고, 신의 부자(父子)를 여차(廬次)에서 보고 그대로 수일(數日)을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臣父於甲子年丁父憂 處于全義縣之南村 其年夏 木川接奴金三率其子金山到全義本家置其子 見臣父于廬次 仍留數日)

위의 기록을 통하여 박안생의 몰년이 1444년이며, 그 처인 안동김씨 김휴의 따님은 1439년에 타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 주목되는 점은 박중림이 부친상을 당했을 당시, 즉 박팽년(1417~1456)의 나이 28세였던 당시까지 ‘전의의 본가’가 있었다는 점이다. ‘박팽년이 신창현의 외조부 김익생의 집에서 출생하였다’는 최완수의 추론에 덧붙여,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박중림은 여전히 전의현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즉 박중림은 처가살이를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전의현 관정리를 박중림과 박팽년으로 이어지는 가계의 세거지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박중림이 시묘살이를 했던 순천박씨 전의 입향조 박안생의 묘소는 박동에서 약 8km 떨어진 세종시 전동면 송정리에 위치한다. 이 묘역은 봉분의 하단에 장방형의 호석을 두른 형태로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던 고려시대의 묘제양식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¹⁴⁾

14) 개유정난으로 박팽년이 화를 당한 때문인지, 현재 풍수지리 동호인들은 명당으로 지목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런데 고려-조선 초기까지의 풍수설은 조선후기와는 매우 달랐다. 그러한 점에서 풍수지리설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19세기 제작된 전의현 지도



박안생 묘소 위치도(Daum)



박안생 묘소



박안생 묘비



부인 안동김씨 묘비



박안생 묘소 원경

전의현감을 역임했던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이 남긴 일기 『이재난고(頤齋亂藁)』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황윤석은 김원행(金元行, 1702~1772)¹⁵⁾의 문인으로 아래 인용문에서 언급되는 도암 이재의 손제자(孫弟子)가 되므로 결코 소홀하게 다루지는 않았을 것이다.

- ① 1786년 7월 1일 : 유태(兪台)가 말하기를 “전의에 도암 (이재) 선생의 선대 묘소가 있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함께 돌보는 바이다. 근래에 작은 논란이 일어서 전임 수령 이보연(李普衍)¹⁶⁾이 사창(司倉)을 수선한다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간악한 향리 황씨로 하여금 공적인 용도로 그 묘소에서 벌목하도록 하였다. 그런 즉 일자(孽子)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의) 후손 이휴(李休)가 허락할 수 없다고 하여 서로 다투게 되면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 그런 고로 충청도 관찰사 김광묵(金光默)이 향리를 연산으로 옮겨서 가두었다. 그런데 연산 현감이 가까운 친척이라, 간악한 향리를 풀어주고 또한 이휴를 깎아내려서 관에서 다루게 하였으니 마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일찍이 타우(이상) 선생이 머물렀던 곳이 그곳에 있다고 들었는데, 선대의 묘소가 함께 있어서 공용으로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또한 그곳에는 충정공 박팽년의 선대 묘소가 많이 있는 곳이다.” 하였다.¹⁷⁾
- ② 1786년 7월 4일 : 창동(倉洞)에 사는 교리(校理) 박기정(朴基正)이 명함 하나를 보내어 왔는데, 의영고사(義盈庫使)를 지낸 박팽년의 조부 박안생의 묘지기[墓直]라 하였다.¹⁸⁾
- ③ 1786년 8월 4일 : … 중송평(中松坪)을 시찰하고 북쪽으로 참판(樞) 박(박)팽년의 조부 묘소를 바라 보았다. 또 상송평(上松坪)을 시찰하고 북쪽으로 판서 조계원(趙啓遠)의 재실[墓閣]을 지났다.¹⁹⁾
- ④ 1787년 11월 30일 : 류씨 성을 가진 생도가 말하기를 석실(서원)에 있을 때, 순천 겸천사(謙川祠) 가까운 곳에 정승을 지낸 절재 김<細註 : 종서>와 판서를 지낸 한석당(閑碩堂)<細註 : 仲林 ○ 전의읍지(全義邑志)에는 본래 한석정(寒石亭)을 세웠는데, 박팽년의 아버지이다>이 관향(이 순천이므로) 배향하자는 의견이 있었다.²⁰⁾

15) 『전성지』 선생안에 의하면, 병오년(1786) 7월에 부임하여 정미년(1787) 4월에 파직되었다.

16) 『전성지』 선생안에 갑진년(1784) 11월에 부임하였고, 사창(司倉) 남고(南庫)를 개건(改建)하였으며, 병오년(1786) 6월 체임된 것으로 되어 있다.

17) 丙午 七月 一日 … 倉台言 全義有陶庵先世丘墓 士林宜所共護 而近來少論一邊大有氣 前倅李普衍 托修司倉爲姦吏黃姓者 所慫恿公 然伐木于其墓 則後孫李休 雖曰孽裔 而不肯許給 故相爭之際 亂被周牢 故錦伯金光默 亟移囚其吏于連山 連山倅 卽李普衍之異姓至親也 其餘姦吏 亦方次第錮治 而李亦貶下 執事赴官 當自知之 余曰 曾聞打愚杖屨之所 固在其地 而不知先墓之并在到官 敢不留念 又如朴忠正公彭年先墓 亦多在本地耳.

18) 四日 … 倉洞朴校理基正 一名銜來見同托 其先義盈庫使安生 「彭年祖」墓直.

19) 八月 … 四日 … 又視中松坪 北望朴參判彭年祖墓 又視上松坪 北過趙判書啓遠墓閣 … 현재 전동면 송정리에 '상소골', 송곡리에는 '중소골'이라는 지명이 전한다. 상소골에는 조계원의 묘소가 있고, 박안생의 묘소는 상소골과 중소골 사이의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다. 최완수가 인용한 기록의 금곡(金谷)은 송성리가 아니라, 송정리의 상·중·하의 '소골'을 지목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위의 인용문에서 박팽년의 조부 박안생의 묘지기로 자처한 박기정(朴基正, 1748~1801)은 박팽년의 유일한 혈손 가계인 충정공파의 종손이다. 이 당시부터 충정공파 후손들이 전의현의 박안생 묘역을 관리했던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의를 요하는 또 다른 부분은 “그곳에는 충정공 박팽년의 선대 묘소가 많이 있는 곳이다(又如朴忠正公彭年先墓 亦多在其地耳)”라고 한 내용이다. 순천박씨 족보에도 박안생의 후손들이 세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상주초보(尙州草譜)』에는 ‘박안생으로 인하여 자손이 대부박동(大夫朴洞)에 살게 되었으며, 박동(朴洞)은 고을 북쪽 7리에 있는데, 참판 박팽년이 이 곳[此洞]에 세거하였으므로 박동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2007년의 『과보』에는 1785년 『을사보』와 1862년 박문현(朴文鉉, 1798~1875) 등이 주도하여 발간한 『임술보(壬戌譜)』의 내용을 싣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을사보에 말하기를 ‘전의(현) 북면 대부동(大夫洞)에 무덤 1기가 있는데, 전하는 말에 박팽년 집안의 묘라 한다.’ 하였다. 공의 두 분 배위 중의 한 분의 묘일 듯하지만, 증빙할 바가 없으며, 아직 찾지 못하였다. (乙譜曰 全義北面大夫洞有一塚 俗傳朴彭年家墓云 似是公前後配中一墓 而無所徵信 尙未推尋)
- * 임술보에 말하기를 ‘상주보(尙州譜)를 살펴보니 김씨의 묘가 전의(현) 고동산(古東山) 아래 대부동에 있다. 또한 주민이 말하기를 예전에 비석이 있었는데, 가까이 있는 무덤의 주인이 (비석을) 몰래 파묻었다.’ 하였다. (壬譜曰 按尙譜 金氏墓在全義古東山下大夫洞云 且聞居人言 則舊有碑石 爲其近塚主潛埋云)

이와 관련한 주민의 증언도 확인할 수 있다. 우봉이씨 후손으로 사관정과 문목사를 관리하는 이범규(1947년생)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당시 큰 박골은 양반인 박씨들이 15가구 정도가 거주했던 곳이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본인이 직접 본 바가 없으므로, 최소한 일제강점기에 박씨들은 이 마을 떠난 셈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윤순거가 박팽년의 옛 터[遺址]가 있다고 지목한 박동(朴洞)은 세종시 전의면 관정리 하대부 마을의 ‘큰 박골’ 또는 ‘작은 박골’ 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큰 박골과 작은 박골 일원에는 순천박씨의 뒤를 이어서 우봉이씨 가계가 입향하였다. (<별첨 3> 전의 안동김씨 외손 이상의 입향과정 참조) 따라서 관정리 박동 일원에는 순천박씨의 묘소들, 박중림이 건립하였다고 전해지는

20) 丁未 … 十一月 … 三十日 … 柳生言 在石室 聞順天鎌川祠近有金相國節齋『宗瑞』朴判書閑碩堂『仲林』
○全義邑志本立作寒石亭 彭年父』俱以貫卿近口之論.

한석정(寒石亭)을 비롯한 순천박씨의 유적들이 우봉이씨의 묘역이나 다른 유적들과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유적은 『상주초보』에서 언급된 박중림의 부인인 김익생(金益生)의 따님의 묘소이다. 그 외에도 박중림의 형제인 박맹림(朴孟林)과 박계림(朴季林) 또는 그 부인의 묘소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²¹⁾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은 송시열이 관정리 박동의 박팽년 유허지를 알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송시열은 『노릉지』를 쓴 윤순거와 11년의 나이 차이가 있지만, 자신과 동문수학했던 사이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송시열은 1665년 순천박씨 회덕 입향조 박원상의 묘표를 썼고, 그 3년 후에는 회덕에 박팽년 선생의 유허비를 건립하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사육신에 대한 선양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송자대전』에 실린 강원도 영월군의 육신사(六臣祠)의 기문을 보면, 박팽년의 후손이 사는 대구에는 하빈사, 성삼문의 옛 집[遺宅]이 있는 홍주에는 노은사, 사육신의 무덤으로 생각되는 과천에는 노량사가 있고, 또한 박팽년의 유허가 있었던 회덕의 흥룡(興龍)과 성삼문의 별서가 있었던 연산 한양말[漢陽]에는 사당[祠]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²⁾ 그리고 박팽년 후손의 세거지였던 대구 못골에 박팽년과 더불어 사육신을 함께 모신 사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²³⁾ 사육신에 대한 현창사업에 병적일 정도로 골몰하였다는 점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박팽년의 선대로부터 세거했고, 조부 박안생 묘역 등이 있었던 전의현 박동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사육신에 대한 선양사업은 해당 지역의 친손과 외손 또는 유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대구의 박팽년 혈손은 노량진의 사육신의 묘역 보수사업에 전념하면서, 결국 사육신의 글을 모아서 이경억(李慶億, 1620~1673)이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자 그 도움을 받아서

21) 박중림 가계가 세거했던 관정리 일대에는 최근 전의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머지 않은 시기에 훼손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인데, 향후 역사학자의 자문을 받는 고고학적 지표조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발굴조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하대부 주민들은 큰 박골과 작은 박골 일원의 폐종을 어렵지 않게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별도의 논고로 대신하고자 한다.

22) 『송자대전』 권144 영월군(寧越郡) 육신사 기(六臣祠記). "이제 대구(大丘)의 하빈사(河濱祠)는 평양(平陽, 평양 박씨 박팽년의 자손이 있기 때문에 세워졌고, 홍주(洪州)의 노은사(魯隱祠)는 창녕[창녕 성씨 성삼문]의 유택(遺宅)이 있기 때문에 세워졌고, 과천(果川)의 노량사(露梁祠)는 여섯 분의 의총(疑塚)이 있기 때문에 세워졌다. 회덕의 흥룡(興龍)과 연산(連山)의 한양(漢陽)에도 모두 유허(遺墟)의 사당이 있으니, 그만한 명의(名義)가 없지 않다. 그러나 어느 것도 이 묘우(廟宇) 곁에다 사당을 세워 신주(神主)를 봉안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다. … 송정 기원 후 을축년(1685, 속종 11) 7월 하순에 은진 송시열은 쓴다." (今大丘之河濱祠 以有平陽子孫也 洪州之魯隱祠 以有昌寧遺宅也 果川之露梁祠 以有六氏之疑塚也 至於懷德之興龍 連山之漢陽 皆有遺墟之祠 皆不無名義矣 … 崇禎紀元後旃蒙赤奮若否之下游 恩津宋時烈記)

『육선생유고』²⁴⁾를 편찬하였다. 현재의 대전 가양동 일원에는 박팽년의 방계 혈족인 박이생의 후손들이 세거하면서 송시열의 문인이 되었고, 송시열의 지원을 받으면서 박원상의 묘역과 박팽년의 유택비를 건립하였다. 또한 박팽년의 방계친인 광주의 박이공 후손들은 송시열의 문인으로 활동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박팽년에 기대면서 족보 간행을 추진한 듯하다. 그렇지만 전의현에는 박팽년 일가의 사후 순천박씨 후손들이 거주하지 않았다. 다만 송시열은 자신의 문인인 우봉이씨 이상을 보기 위하여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했을 뿐이다.²⁵⁾ 그러나 전의현에서 박팽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단종 복위운동의 중요했던 텃밭 가운데 한 곳이었던 전의현은 이제 사육신과는 무관한 지역처럼 인식되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송시열이 사육신의 옛 흔적을 더듬었던 시기는 예제(禮制), 즉 정통을 정하는 기준을 두고 서인과 남인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시기이다. 그리고 '예송'이라 불리는 일련의 정국 속에서 송시열은 1659년 기해예송에서 승리하였으나, 1674년 6월 4일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승하하면서 촉발된 갑인예송에서는 남인계 허적에게 밀려났다. 그리고 송시열은 이후 경신대출척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1675년 1월부터 1680년 5월까지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러한

23) 『송자대전』 어록(語錄) 3 박광일(朴光一)의 기록, … 을축년(1685, 숙종11) 2월에 화양정사(華陽精舍)에 가서 선생을 뵈고 가친의 서신을 올렸다. [선생] 논성설(論性說)은 지난번 편지에 자세히 말했다고 생각된다. 이어 선생이 광주(光州) 유생(儒生)의 문목(問目)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저 지방의 제현(諸賢)들이 전 귀성[全龜城, 귀성부사를 지낸 全尙毅]을 김 안주(金安州, 안주목사를 金浚)의 사당에 동향(同享)하려는 것은 고금에 이미 행하여온 규례에 상고해 보면 근거가 없지 않다. … 우리나라에서는 대구 박 참판(朴彭年)의 낙빈서원(洛濱書院)에 사육신을 병향했다. 육신이 어찌 대구 사람이겠느냐마는 그 절의(節義)가 같기 때문에 병향한 것이니, 이는 증거가 될 만하다. 그러나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과 귀성은 함께 광주(光州) 사람으로 충절(忠節)을 위하여 죽은 것은 비록 선후(先後)의 차이가 있으나, 귀성을 제봉에 배향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느냐? …”

24) 사육신의 유고를 모아 간행한 책이다. 박팽년의 7대손 박송고가 남겨진 글을 모아 3책으로 엮고 당시 충청도관찰사 이경역의 도움을 받아 1658년(효종 9)에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경역은 효종 사후 예송(禮訟)에서 송시열의 설을 반대한 윤선도를 공격하여 남인과 대립하였으며, 1670년(현종 11)에는 전라감사 김정(金澄)을 두둔하다가 허적(許積)의 공격을 받아 관직에서 일시 축출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25) '타우'라는 지명 또한 송시열이 지었다고 한다. 『타우유고(打愚遺稿)』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선생이 전의현 북쪽 대부촌(大夫村)에 사관정(四觀亭)을 짓고 거주하였다. 우암(송시열) 선생이 타우(打愚)라고 그 마을[村] 이름을 고쳤는데, 이로 인하여 선생의 호로 삼았으면, 언제나 우장(愚丈)이라 높여 불렀다. 선생은 또한 벼락바위[雷巖] 인근에 서재를 열었는데, 배우고자 하는 우리들이 줄을 이어서 강회가 있을 때마다 이곳을 찾았고, 신독재 선생과 우암·동춘 양 선생과 더불어 당시의 여러 선생들이 언제나 찾아서 모였다. 선생이 돌아가신 10년 후 기묘년(1699)에 원근의 많은 선비들이 제향을 올리는 곳으로 삼았다.” (先生構四觀亭於全義縣北大夫村而居焉 尤菴先生以打愚改其村名 而仍以爲先生之號 每稱之以愚丈 先生又於雷巖之傍構書齋 與踵門諸生 每講道于此 而愼齋先生 尤·春兩先生及當時諸賢 常常來會 先生沒後十年己卯 遠近多士 以爲謁亭之所) “선생이 사는 마을의 처음 이름은 대부촌(大夫村)인데, 우암 선생이 이름을 바꾸어 명하기를 타우(打愚)라 하였다. 학자들이 선생을 타우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에서 시작되었다.” (先生所居之里 始名大夫村 尤菴先生改命曰打愚 學者之稱先生爲打愚先生者始此)

상황에서 1668년에는 박팽년 선생의 옛 터에 유허비를 건립할 때에도 비문을 써 주었고, 1672년에는 성삼문의 신주가 인왕산에서 발견되면서 선생의 노은동 옛 집에 대한 일련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별첨 8> 우암 송시열의 성삼문 현양사업 참조) 이후 송시열은 1675년부터 유배생활을 하였고,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풀려났으나, 1689년 기사환국으로 다시 유배당하다가 사사당하였다. 어떻게 보면, 중앙 정국에서의 격렬한 갈등 속에서도 사육신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주목할 정도이다. 그만큼 송시열이 바라보는 조선시대의 정신사에서 사육신이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²⁶⁾

박팽년을 배출한 순천박씨에 대한 송시열의 관심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덧붙인다면, 송시열과 같은 거물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역에서 이에 호응하는 세력이 있어야 사업의 추진이 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족보의 간행을 비롯한 종사(宗事)는 기본적으로 해당 집안에서 가통을 정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의현에 순천박씨 가계의 후손들이 살지 않았고, 따라서 다른 곳에 거주하는 후손이 관리하게 되면서, 전의현에서는 다만 박팽년 가계의 옛 자취에 대해서는 다만 입으로 회자되는 선에 그쳤던 것이다.

26) 사실 송시열은 정통론의 관점에 과도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왕위의 계승과 관계된 왕통(王統)의 문제, 학문적 연원과 관련된 도통(道統)이 문제에 몰두하였는데, 위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통(家統)의 문제까지 깊이 개입했던 셈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정통론을 일관되게 실현시키려는 의지로 읽히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집착에 가까운 태도가 엿보이는 셈이다. 실제로 송시열은 가통의 확립을 위한 족보 간행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동성동본불혼을 넘어서는 동성불혼(同姓不婚)의 풍속이나 또는 형제가 분가별산(分家別産)하는 우리의 상속방식과 다른 중국의 동거공재(同居共財)의 방식을 살피기도 하였다.

27) 참고로 박원상의 장인 홍언유(洪彦猷)는 고려 공민왕 10년(1361) 홍건적이 침입하였을 때 왕을 모신 공으로 안동도호부사에 임명되었고, 그 공으로 뒤에 1등 공신에 봉해졌으며, 또한 충숙왕의 왕비 5명 중에서 충혜왕을 낳은 명덕태후(明德太后)의 생질 즉 오라비의 아들로서, 왕실과는 인척이었던 집안이다. 홍언유의 증손 홍계방(洪桂芳)은 세종 때 청백리로 선정되기도 하였던 인물인데, 그 아들 홍오행(洪五行)이 처가를 따라서 경기도 이천으로 옮긴 관계로 지금은 충청도에 후손들이 거주하지는 않는다.

5. 박팽년의 회덕 출생설의 허와 실

현재까지 박팽년은 회덕현에서 출생하였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순천박씨 중시조 박숙정의 아들인 박원상이 회덕에 살았기 때문이다. 박원상의 묘소는 회덕(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산 18-1)에 있는데, 당시의 풍속을 고려할 때, 회덕은 박원상의 외가 또는 처가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자세한 연유는 알려진 바가 없다.²⁷⁾

현재 구체적으로 박팽년이 회덕에서 태어났다는 통설은 1998년 대전동구 문화원에서 발간한 『박팽년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근거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기범 교수의 논고인 「박팽년의 절의정신과 후대인의 평가」에서는 대전을 출생지로 지목하지도 않았고, 박안생이 전의현으로 사는 곳을 옮겼다고 했다.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원상에게는 수생, 장생, 안생(安生, 박팽년의 祖), 이생 등 네 아들이 있었으나, 앞 3인의 묘소는 각각 청주, 음성, 전의 등지에 분산되어 있다. (각주 : 『순천박씨 충정공파 세보』 2권 참조) 이로써 보면 원상의 후손들이 모두 대전에 세거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특히 박팽년의 직계혈족은 지금의 충남 연기군 전의면에 세거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온당할 듯하다. 그것은 『전의지(全義志)』 인물조에 박안생, 박맹림, 박중림, 박계림, 박팽년, 박인년, 박기년, 박대년, 박영년 등 박팽년의 조부로부터 부, 숙부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특히 그의 조부인 박안생에 대한 설명에서 ‘자손들이 이곳에 세거하게 된 것은 그의 조부 안생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다.’ 라 한데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회덕에 유허가 남게 된 연유를 추론하였다. 선조 즉 박원상이 살았고, 방계 혈족 즉 이생의 후손들이 세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토 운순거가 『노릉지』에서 “대대로 회덕에 살다가 뒤에 전의로 옮겼는데 지금도 朴洞에 遺址가 있다. ‘고 한 내용은) 박팽년의 가계는 원래 회덕에서 세거해 온 집안이었는데, 그의 조부 안생으로부터 전의로 이거하여 이후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세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덕은 그들 가문의 추원지지(追遠之地)이고, 또 일족이 세거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박팽년은 다시 회덕에서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회덕 흥농은 비록 박팽년의 직계 선조의 세거지는 아니었으나, 대전은 그의 증조의 추원지지이고, 또한 그의 종조 이생의 후손들의 세거지이며, 특히 자신이 못을 만들고 정자를 세워 거주했던 곳인 바, 이곳은 박팽년의 유지(遺地) 및 유상지(遺賞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유희비를 통해서 볼 때, 그가 연못을 만들고 정자를 짓고 살았던 구체적인 장소가 지금의 동구 가양동 더퍼리 지역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또한 그가 당시 회덕의 은진송씨 송유(宋愉, 1389~1446)의 별당인 쌍청당의 당기를 썼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송유의 향촌생활을 소상히 적고 있다는 사실 등도 그가 이곳에 상당 기간 거주했을 것을 시사해 주는 바를 하겠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자료에서는 박팽년 선생이 ‘회덕현 흥농촌(興農村) 왕대벌[王竹丘]에서 태어났으며, 유희비 북쪽에 박팽년 선생이 지은 연못 정자가 있었다는 위치에 주춧돌이 몇 개 남아 있고, 유희비문에 연못가에 정자를 짓고 살았던 장소가 지금의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더퍼리 지역이었다’ 등으로 설명되면서 재생산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동구 가양동 161-1번지, 현 도로명 주소로는 동구 우암로 326번길 28번지에는 송시열이 짓고 송준길이 쓴 박팽년 선생 유희비가 있다.²⁸⁾ 그렇다면 이 유적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유희비는 현재 대전시에서 우암사적공원으로 정비한 곳에서 불과 600m 떨어진 도심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28)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의 박팽년선생유희비(朴彭年先生遺墟碑)는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종 9년(1668)에 세웠으며, 송시열이 짓고, 송준길의 글을 썼다. 현종 13년(1672)에 비각을 세우고 장절정(壯節亭)이라 하여 비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대를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호 박팽년선생유희로 지정하였으며, 최근에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 비각을 증수하여 작은 공원으로 정화하였다.



박팽년 유허비 위치도(Daum)



박팽년 유허비



박팽년 유허 전경

유허비와 관련하여 우선 살펴보아야 자료는 『송자대전』에 실려 있는 「회덕박선생유허비」이다. 그런데 그 기록에는 박팽년 선생이 회덕에서 출생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다만 박팽년 선생의 ‘옛 터(遺址)’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박원상의 4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던 박이생의 가게만이 그곳을 세거지로 삼았다. 유허비문에 “선생[박팽년]의 종부(從父)인 전농(典農) 근(根)의 처묘(妻墓)이며, 그 묘에서부터 서쪽으로 2리쯤인 석남촌(石南村)에 가면 박씨의 종족(宗族)들이 많이 사는데, 바로 박

선생의 종조부(從祖父)인 판관(判官) 이생(易生)의 자손(子孫)이다.”라고 한 기록이 그것이다. 석남촌은 지금의 대전시 동구 성남동 일원으로 우암사적공원에서 약 2km 거리의 지역이다.



석남촌이 있었던 현 성남동 위치도(Daum)

현재 족보에도 박원상의 아들 가운데 박수생의 묘소는 청주에 있으며, 박장생의 묘소는 음성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박안생은 다시 처가인 전의로 거주지를 옮겼다. 누차 강조하였듯이, 박원상이 거주했던 회덕현에 그대로 세거했던 가계는 박이생의 후손들이다. 현재 박이생의 묘소는 실전되었지만, 그 아들 박영림(朴榮林)과 두 손자 박득금(朴得琴)과 박성금(朴成琴) 형제의 묘소 또한 회덕에 전한다. 정황의 증거이기는 하나, 『세조실록』 3년(1457) 3월 23일 기사에서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된 인물들의 전지(田地)를 공신들에게 내려줄 때에도, 박중림과 그 아들들의 경우 ‘박중림·박기년(朴耆年)·박영년(朴永年)의 전의 전지’ 등이 거론되었으나, 회덕에 대한 언급은 없다.²⁹⁾ 다만 박이생의 후손인 박세정의 묘지(墓誌)에 “참판[박팽년]이 순절하고 멸족하였으며, 군의 선조(先祖)가 그 가까운 족속이므로 또한 연좌로 폐고(廢錮)되어 떨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을 뿐이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박이생의 후손 또한 벼슬길로 나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전에 남아 있는 박팽년의 집 터는 다만 선대에 거주했던 연고로 건립한 별서(別墅)로 보아야 할 듯하다.³⁰⁾ 그리고 수시로 회덕을 왕래하는 가운데 인근에 살았던 은진 송씨 송유의 당기를 써 주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6. 나가면서 : 향후의 과제

지금의 세종시 전의면 관정리 박골은 박안생-박중림-박팽년 가계가 세거했던 고장이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유적은 박팽년의 조부 박안생의 묘소 뿐이다. 다만 박중림과 박팽년이 살았다는 골짜기 ‘박골’이 있고, 그곳에 박중림이 건립했다는 한석정(寒石亭 또는 閑碩堂)이 있었으며, 집안에서 간행한 족보 『상주보』에 박팽년의 어머니인 김익생의 따님의 묘소가 있었으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훼손되고 묘비도 땅에 묻혔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의현에 세거했던 박안생-박중림-박팽년 가계’라는 옛 역사적 사실 자체는 이제부터 풀어야 할 과제인 셈이다. 우선적인 관심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큰 박골’과 ‘작은 박골’이라고 불리는 ‘박동(朴洞)’ 일원이다. 그런데 박동 일원은 개발압력이 높은 곳이다. 단순히 세종시에 편입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전의일반산업단지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발굴조사를 포함한 연구와 더불어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관심사는 박동에서 약 8km 떨어진 세종시 전동면 송정리에 위치한 박안생 묘소에 대한 정비사업이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예컨대 진입로는 승용차조차 출입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셈이다.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고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9) 그 외에도 충청도에는 박중림·박팽년·박기년·박인년(朴引年)·박대년(朴大年)·박영년의 신창(新昌) 전지, 박중림의 아산 전지, 박중림의 석성(石城) 전지, 박팽년(朴彭年)의 온양 전지, 박팽년의 천안 전지, 박중림의 연기(燕岐)와 천안 전지와 가사(家舍)까지 적목되었다.

30) 『세조실록』 3년(1457) 3월 23일 사육신과 연루된 신하들의 전지(田地)를 나눠주는 기사에서도 박중림과 박팽년·박기년·박인년·박대년·박영년 등 5형제의 ‘회덕 전지’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단언할 수는 없으나, 박중림 가계에서 회덕의 전답은 소유하지 않았던 듯하다.

〈참고문헌〉

왕조실록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국조인물고』

『육선생유고』

『송자대전』

『타우유고(打愚遺稿)』

『순암집(醇庵集)』

『연려실기술』

『이재난고』

『전성지(全城誌)』 (1854)

『노릉지』

『문화유씨 가정보』

『安東金氏 姓譜』 (1580)

『순천박씨 충정공파보』 (2007)

『안동김씨 충렬공파보』

『김녕김씨 대동보』 (1977)

『만성대동보』

대전동구문화원, 1998, 『박팽년의 생애와 사상』

아산군·공주대학교박물관, 1993, 『아산의 문화유적』

정승모, 2010, 『한국의 족보』, 이화여대출판사

최완수, 1998, 『조선왕조 충의열전』, 돌베개

III 조선 후기 박팽년의 복권과 추송

1. 머리말 · 75
2. 중종대 사림들의 사육신 복권 노력 · 78
3. 효종대 사림들의 사육신 복권 노력 · 83
4. 숙종대의 사육신의 복권과 추송 · 87
5. 영조대 이후 사육신 추송 과정과 박팽년 유적 현창사업 · 88
6. 맺는말 · 90

조선후기 박팽년의 복권과 추숭

김문준 | 건양대학교

1. 머리말

한국은 굴곡진 역사의 매 시기마다 ‘절의지사(節義志士)’를 대거 배출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 등 ‘절의지사’가 출현하여 한국사를 대표하는 절의(節義)의 표상이 되었고, 태종·세종·문종 대를 지나 수양대군(세조)의 왕위 찬탈이 일어나자 단종 복위를 도모한 사육신(死六臣)이 또한 그들과 짝하는 절의의 표상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부조리한 상황을 당하여 선비가 목숨을 바쳐 절의를 지키고 불의에 대항하는 절의지사로서 충신(忠臣)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조선 선비들은 자신이 옳다고 여긴 신념과 의리를 ‘견위수명(見危授命)’하는 삶을 보여 주었다. 취금헌(醉琴軒)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의 곧고 맑은 지조는 조선 선비들의 의리 정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다. 박팽년(당시 형조참판)은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성삼문(成三問; 당시 승지)·하위지(河緯地; 당시 예조참판)·이개(李埜; 당시 직제학)·유응부(兪應孚; 당시 중추원동지사)·유성원(柳誠源; 당시 사예) 등과 함께 사육신 중의 한 사람이다.¹⁾ 이들은 무인(武人)인 유응부 외에는 모두 집현전 학사들로서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문종으로부터는 나이 어린 세자(단종)를 잘 보필하여 달라는 고명(顧命: 임금이 신하에게 뒷일을 부탁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1) 1791년(정조 15)에 단종의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編定)할 때, 성삼문·박팽년·이개·유성원·유응부·하위지 등 6인은 『추강집』의 『육신전』대로 ‘사육신’에 선정되었고, 민신(閔伸)·조극관(趙克寬)·김문기(金文起)는 삼중신(三重臣)으로 선정되었다. <어정배식록>은 정조가 내각과 홍문관에 명령해 『세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적을 고증해 결정한 국가 의전(儀典)이다. 김문기는 1453년 계유옥사 때 사절(死節)한 이조판서 민신과 병조판서 조극관과 같은 판서급의 중신이라는 이유로 삼중신이란 칭호를 내렸다. 1977년 7월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사육신 문제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문기를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현칭(顯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에 따라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역에 그의 가묘가 설치되었다. 이 문제로 찬반 양론이 벌어져 여러 신문 논설이 게재되기도 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만세의 충신으로 추송(追崇)되고 있는 박팽년·성삼문 등 사육신은 1455년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하자 그 이듬해에 단종 복위를 계획하다가 실현하지 못하고 같이 거사를 도모하던 김질(金礪)의 밀고로 발각되어 참혹하게 희생되었다. 박팽년·성삼문 등은 1456년(세조 2) 대역죄인으로 처형을 당했으며 오랫동안 그들의 행적과 평가는 실록에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박팽년 일가는 아버지 박중림(朴仲林)과 아들 박팽년이 모두 주동자로서 가문이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하였다.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은 세조 당대는 물론 그 후로도 200여년간 공식적으로 역적(逆賊)이었으나, 시대가 흐를수록 매시대마다 선비들이 그들을 현창(顯彰)하는 노력이 지속되었고 결국 복권(復權)되어 한국의 절의(節義) 정신을 대표하는 한국 선비의 전형으로서 추송되었다.

후세의 선비들은 그들의 절의를 칭송하고 그들을 현창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조선 후기에 그들의 충절을 기리는 움직임은 사림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조선 전기에는 김종직(金宗直)·홍섬(洪暹)·이이(李珥) 등이 그들의 충절을 논했으며, 특히 김종직의 문인이었던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은²⁾ 『추강집』(秋江集)에서 박팽년과 성삼문·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 등 6명의 행적을 자세히 적은 『육신전(六臣傳)』을 후세에 남겼다.³⁾ 사육신 전기(傳記)는 정사(正史)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육신의 행적이 민멸되지 않도록 후세에 전한 것이다. 사육신(死六臣)에 대칭하여 생육신(生六臣)이라 칭한 김시습(金時習)·원호(元昊)·이맹전(李孟專)·조려(趙旅)·성담수(成聃壽)·남효온(南孝溫) 등도 세조 즉위 후 관직을 그만두거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판하며 세상과 단절하고 은거하여 살면서 절의를 지켰다. 재야의 사림(士林)들은 수양 대군의 불의에 맞선 이들을 세대를 이어 추송하였고, 많은 선비들이 그들의 신원(伸冤)을 위해 노력했다.

성종(成宗) 때 박팽년의 유복 손자가 숨어 살다가 경상도 감사로 부임한 박순의 동서 이극균(李克均)이 권유하여 자수하자 성종이 특별히 용서하였고, 그 후 세상에 나와 이름을 박일산(朴壹珊)으로 고치고 후손을 이어갔다.⁴⁾

2)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으로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백공(伯恭), 호는 추강(秋江)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김광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김시습(金時習)·안응세(安應世) 등과 친교했다. 1478년(성종 9)에 단종의 생모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인 소릉(昭陵)의 복위를 상소하였으나, 도승지 임사홍(任士洪), 영의정 정창손(鄭昌孫)이 저지하자, 유랑생활로 생애를 마쳤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김종직의 문인이며 소릉 복위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부관참시(剖棺斬屍) 당했다.

3) 『秋江先生文集』 권8.

그러나 1498년(연산군 4)에 일어난 무오사화(戊午士禍; 戊午史禍)는 아직 조정에서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림파의 대표자인 김종직(金宗直)이 항우(項羽)에게 죽은 초나라 회왕(懷王; 義帝)을 조상하는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었는데,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金駟孫)이 사관(史官)으로 있을 때 이를 사초(史草)에 적어 넣었고, 그 후 『성종실록(成宗實錄)』을 편찬할 때 편찬책임자인 훈구파(勳舊派) 이극돈(李克墩)이 이 글이 세조에게 죽음을 당한 단종(端宗)을 의제에 비유하여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난한 글이라고 빌미삼아 사화(史禍)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화를 당했다. 그 후 다시 조정에서 사육신의 복권 추송 문제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다가 중종반정(1506) 후 사림파가 조정에 재진입하면서 사육신의 절의를 공식적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하였고, 도학 이념인 충절과 의리가 한층 강화된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림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비로소 국가적인 공인을 받게 되었다. 박팽년 등 사육신은 목숨을 희생한지, 2백여년이 지난 뒤인 1691년(숙종 17)에 비로소 역모(逆謀)의 죄를 벗어나 복권(復權)되어 삭탈된 관직을 회복하였고 신원되었다. 그 후 이들은 역신(逆臣)이라는 오명(汚名)을 벗었고 재야(在野)의 선비들 뿐만 아니라 조정(朝廷)에서 공식적으로 이들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충신으로 받들었으며, 사육신의 무덤을 보수하고 묘지 옆에 사당을 세웠다.

박팽년은 1758년(영조 34)에 이조 판서로 추증되었고, 1791년(정조 15)에는 단종충신어정배식록(端宗忠臣御定配食錄)에 올랐다. 이러한 복권과 현창 과정은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었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많은 도학(道學) 선비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며, 이러한 과정은 정도(正道)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신사를 수립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추강 남효온의 『사육신전』, 윤순거의

4) 『六先生遺稿』, 『朴先生事實』. 박팽년의 후손이 사육신 후손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그는 박팽년의 유복손(遺腹孫)인 박일산(壹珊)이다. 박팽년은 이조판서를 지내던 아버지 박중림을 비롯한 동생 인년, 대년, 연년 4형제와 아들 헌(憲), 순(珣), 분(奮) 3형제 등 남자 9명은 극형에 처해지고 부인들은 공신들의 노비로 끌려가거나 관비가 되었다. 이때 둘째 며느리 성주 이씨는 친정아버지 이철근이 달성 현감으로 있었는데 마침 경북 달성군 하빈면 모리의 친정집과 인접해 있는 대구 관비로 가게 되었다. 그녀는 이때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으며, 이후 태어난 아이는 노비로 위장하여 이름을 박비(朴婢)라고 하여 묘골의 외조부가 키웠다. 박비가 17세 되는 해인 성종 3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모부 이극군(갑자사화 때 사사)이 묘골 처가에 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권유로 박비는 자수했다. 세조의 손자인 성종은 박비(朴婢)를 용서하고 옥구슬이란 뜻을 담은 '일산(壹珊)'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으며, 사복시정(정3품 당하관)이란 벼슬까지 내려주었다. 뒤에 박일산은 후손이 없던 외가의 재산을 물려받아 99간 집을 3품 당하관이란 벼슬까지 내려주었다. 뒤에 박일산은 후손이 없던 외가의 재산을 물려받아 99간 집을 짓고 묘골(대구 달성군)에 정착하여 묘골 순친박씨 충정공파 입향조(入鄉祖)가 되었다.

『노릉지』, 우암 송시열의 성삼문·박팽년 관련 각종 비문, 송준길·조정 등의 상소문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의 복권 추승과정을 살펴본다.

2. 중종대 사람들의 사육신 복권 노력

사림(士林)들은 재야(在野)에서는 사육신과 생육신을 기억하면서도 조정에서는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중종대에 이르러 사림들은 사육신 문제를 공개적으로 조정에서 거론하기 시작했다. 중종(中宗: 재위 1506~1544)은 연산군의 폭정을 물리치는 반정(反正)을 통해 왕위에 올랐으며 조광조 등 사림을 대거 등용하여 본격적으로 사림정치를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중종이 왕위에 오른 뒤 12년이나 지난 후에야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육신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중종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육신 복권을 거론하기 전에는 사육신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부정적이었다. 그 일례로 1517년(중종 12) 조정에서 사육신에 관한 논의가 있기 4년 전인 1513년(중종 8)에 성삼문의 외손이었던 박호(朴壕, 1466~1533; 박중의 동생)가 질정관(質正官)이 되었는데, 당시 왕조실록 기사에 기술하기를, “사신은 논한다. 박호는 성삼문의 외손이다. 이때, 서장관(書狀官)이 부경(赴京)하면, 기탄없이 보화(寶貨)를 무역하여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으므로, 조정에서 박호를 뽑아 보냈다고 했다.”⁵⁾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박호의 능력과 청렴함은 높이 평가되는 바였다. 그러나 다음 해에 대간의 요청으로 중종은 장령으로 재직하던 박호의 체직을 명했다.⁶⁾ 대간이 체직을 요청한 이유는 박호가 ‘난신’(亂臣) 성삼문의 외손이라는 이유였다. 이처럼 중종이 즉위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성삼문 등 사육신은 ‘난신’(亂臣)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공식적으로 추송되기에 요원한 일이었다.

중종 12년(1517)에 조정에서 처음으로 정순붕(鄭順朋)·민수원(閔壽元)·신용개(申用溉)·김전(金詮)·이청(李清)·기준(奇遵)·김극핍(金克愾) 등이 중종에게 정몽주·길재 등과 더불어 성삼문·박팽년 등의 사육신을 추송할 것을 건의하는 일이 있었다.⁷⁾ 이들이 건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사육신의 복권은 나라가 절의(節義)를 숭상(崇獎)하여 후세에 권하여 사기(士氣)를 진작하는 일로서, 이렇게 절의를 숭상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國家)와 사직(社稷)이 화(禍)를

5) 『중종실록』, 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6월 14일(신해) 1번째기사

6) 『중종실록』, 중종 20권,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6월 23일(갑인) 3번째기사

7)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정축, 명 정덕(正德) 12년 8월 5일(무신)

당하더라도 어진 선비가 많이 나와서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둘째, 조선 건국에 반대하고 고려에 절의를 행하여 절의의 대표자가 된 정몽주·길재 등과 더불어 같은 차원에서 성삼문·박팽년 등의 사육신을 추송할 것을 건의했다는 점이다. 이날의 건의 3일 후에 조강에서 조광조 역시 중종에게 김굉필 등의 문묘종사에 관해 건의하는 과정에서 성삼문·박팽년 등의 일에 관한 논의는 공변된 일이라고 말했다.⁸⁾ 이러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정충량 등이 성삼문의 외손인 집의(執義) 박호를 파직하지 않도록 아뢰었다.⁹⁾

이러한 점에서 그 다음해인 중종 13년에 김정(金淨, 1486~1521)도 중종에게 아뢰기를, “세종(世宗) 때로부터 사습(士習)이 떨치기 시작한 이래 성삼문과 같은 이들은 국가의 위태로운 것을 보고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그 절의는 후세의 추복(推服)이 되었거니와, 학문과 의기가 배양된 것은 모두가 세종 때에 이룩되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일세(一世)의 추향(趨向)을 좌우하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¹⁰⁾라고 하면서 이러한 절의를 추송해야 한다고 진언했다. 또한 김굉필의 문인인 김정국(金正國, 1485~1541) 등의 끈질긴 요청으로 단종(端宗)의 생모였지만 폐위되었던 문종비(文宗妃) 현덕왕후(顯德王后) 권씨(權氏)¹¹⁾를 복위(復位)하고 안산(安山)에 있던 묘를 양주(楊州)에 있는 문종의 현릉(顯陵)으로 이장(移葬)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중종 대에도 사육신 복권에 명쾌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27년간이나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인종 대에 이르러 시강관(侍講官) 한주(韓澍: ?~?)가 다시 거론하였는데, 인종 2년의 한 조강(朝講)에서 사육신의 절의를 거론했다. 한주는 인조에게 아뢰기를, “...노산군(魯山君)이 어둡고 나이 어려 종사(宗社)가 위태로우므로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다 세조(世祖)께 돌아가서 즉위하셨으니, 이것은 종사의 대계(大計)를 위하여 마지못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뒤에 성삼문·하위지·박팽년·유응부·이개·유성원 등이 난(亂)을 피하다가 주살(誅殺)되었습니다. 대개 충의(忠義)의 인사는 이러한 때에 많이 나오거니와, 저 육신(六臣)은 그대에 있어서 대죄(大罪)를 입어 마땅하나, 그 본심을 논하면 옛 임금을 위한 것입니다.”¹²⁾라고 사육신을 옹호했다.

8)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정축, 명 정덕(正德) 12년) 8월 8일(신해) 1번째기사

9)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정축, 명 정덕(正德) 12년) 11월 25일(정유) 2번째기사

10) 『중종실록』, 중종 13년(1518 무인, 명 정덕(正德) 13년) 5월 20일(무오) 4번째기사

11) 현덕왕후는 문종이 즉위하기 전 단종을 낳고 죽었는데 처음 안산(安山)에 능이 있었다(昭陵). 안동권씨로, 문종이 즉위한 후 왕후에 추봉되었으며, 단종 2년 인효순혜(仁孝順惠)의 휘호(徽號)를 추상(追上)받았다. 친정 오라비인 권자신(權自慎)이 성삼문 등과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피살되자, 현덕왕후마저 죄인의 일가라 하여 폐위되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후, 선조 대에 이르러 조정에서 다시 사육신에 관한 건의가 나왔다. 그러나 선조 역시 이전의 임금과 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전의 임금들 보다 더욱 사육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1576년(선조 9) 한 경연에서 판서 박계현(朴啓賢, 1524~1580)이 입시하여 『육신전』에 관해 논하였으나, 선조는 성삼문 등을 역적으로 매도했다. 당시 경연에서 박계현은 성삼문은 충신이라고 말하면서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육신전』을 읽기를 권했다. 선조는 즉시 『육신전』을 가져오게 하여 읽어 보았는데, 뜻밖에 크게 놀라면서 “엉터리같은 말을 많이 써서 선조(先祖)를 모욕하였으니, 나는 앞으로 모두 찾아내어 불태우겠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해 말하는 자의 죄도 다스리겠다.” 고 하교(下教)했다. 뒷날 영의정 홍섬(洪暹)이 입시하여 육신(六臣)의 충정(忠貞)을 간절하게 말하여 상도 노여움을 거두고 중지하였던 일이 있다.¹³⁾ 그러나 선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조정에서 『육신전』을 토론에 부치기까지 했다. 그날 선조의 다음과 같은 논평은 당시 왕과 왕실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상이, 경연관이 아뢰 바에 따라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육신전(六臣傳)』을 가져다 보고 나서 삼공을 불러 전교하기를, “이제 이른바 『육신전』을 보니 매우 놀랍다. 내가 처음에는 이와 같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아랫사람이 잘못된 것이려니 여겼었는데, 직접 그 글을 보니出乎意料의 태도 떨린다. …남효온이란 자는 아조(我朝)의 죄인이다. 그 왜곡되고 허탄함은 진실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의 심술(心術)을 해치기에 적당한 것이 될 것이다. 또 저 육신(六臣)이 충신인가? 충신이라면 어째서 수선(受禪: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음)하는 날 쾌히 죽지 않았으며, 또 어째서 신발을 신고 떠나가서 서산(西山)에서 고사리를 캐먹지 않았단 말인가? 이미 몸을 맡겨 임금으로 섬기고서 또 시해(弑害)하려 했으니 이는 예양(豫讓)이 매우 부끄럽게 여긴 것이다. 그런데도 저 육신은 무릎을 꿇고 아조를 섬기다가 필부(匹夫)의 피를 도모하여 자객(刺客)의 술책을 부림으로써 만에 하나 요행을 바랐고, 그 일이 실패한 뒤에는 이에 의사(義士)로 자처하였으니, 마음과 행동이 어긋난 것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열장부(烈丈夫)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떤이는 ‘헛되이 죽는 것이 공을 세우는 것만 못하고 목숨을 끊는 것이 덕을 갚는 것만 못하다. 성삼문 등은 그 마음에 잠시도 옛 임금을 잊지 않고 있었으므로 아조(我朝)를 섬긴 것은 뒷날의 공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도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진실로 공을 이루는 것만을 귀히 여기고 몸을 맡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백이(伯夷)·숙제(叔齊)와 삼인(三仁)도 반드시 서로 모의하여 머리를 굽히고 주(周)나라를 섬기면서 흥복(興復)을 도모했을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이들은 자기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후세에도 모범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드러내서 아울러 논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람은 각기 군주를

12) 『인종실록』, 인종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4월 9일(신축) 1번째기사

13) 『선조수정실록』, 선조 9년 병자(1576, 만력 4) 6월 1일 (임술)

위하는 것인데 이들은 아조(我朝)의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역적이니 이들은 오늘날 신하로서는 차마 볼 것이 아니다. 내가 이 글을 모두 거두어 불태우고 누구든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자가 있으면 그도 중하게 죄를 다스리려 하는데 어떠한가?¹⁴⁾

이처럼 박팽년 등 사육신을 복권하려던 인물들은 조광조 등 정몽주를 높이고 정도전을 낮추며, 신숙주를 낮추고 성삼문·박팽년 등 사육신을 높이려 한 사림(士林)들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사림들이 도학(道學)을 세우고 사림들의 원기(元氣)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기대승(奇大升)도 선조에게 사육신의 일을 다음과 같이 거론했다.

문종을 체천(遞遷)한 일은 주상께서 필시 상세히 아시지 못할 것인데, 이것은 신하들이 차마 말씀드릴 일은 아니나 상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할 일입니다. 문종이 승하하시자 노산군(魯山君)이 왕통을 이어 즉위하셨는데, 세조는 정란(靖亂)의 공로가 있어서 수상(首相)이 되어 어린 군주를 보좌하면서 주공(周公)으로 자처하였습니다. 노산군이 세조에게 공신 교서를 내리면서 '나는 성왕(成王)이 주공을 대하던 예로써 숙부를 대하겠으니, 숙부도 주공이 성왕을 보필하던 마음으로 과인을 보좌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노산군이 세조에게 주공같이 하기를 기대한 것이었고 세조 역시 주공으로 자임한 것인데, 뜻밖에도 천명과 인심이 세조에게 돌아갔으므로 을해년(1455, 세조1)에 노산군이 세조에게 선위(禪位)하고 상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사를 상세히 알지 못하니 《무정보감(武定寶鑑)》¹⁵⁾을 보니 세조가 수선(受禪: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음)한 일과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이 죄를 받은 일이 소상하게 실려 있었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대개는 《무정보감》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문을 그대로 기록한 것도 있고, 또 당시 사람들이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위에서 자세히 알지 못하니 한번 자세히 말해 주면 좋겠다."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병자년(1456, 세조2)에 성삼문의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상왕(上王: 노산군)을 복위하려는 것이었으나 세조는 난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일이 발각된 뒤에 상왕이 이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 하여 상왕을 영월(寧越)로 옮긴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상시에는 대궐 안에 계셨는가?"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경복궁에 계셨다 합니다. 영월로 옮기시서는 당시 정인지(鄭麟趾)가 영의정이 되어 백관을 거느리고 처치(處置)할 것을 청하자, 세조가 물정(物情)에 구애되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금부도사(禁府都事)를 보내 영월에서 사약(賜藥)하였는데, 그 공사(公事)가 금부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영월 사람이 그 일을 기록하여 간직해 둔 것이 있는데, 김취문(金就文)이 관찰사로 있을 때 또한 그것을 보았다고

14) 『선조실록』, 병자(1576, 만력 4) 6월 24일 (을유)

15) 조선 건국 초부터 예종 때까지 발생한 국내외 정변과 전쟁, 외침의 전말을 기록한 책으로,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예종 1년(1469)에 완성했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으며 명종 때 그 후편으로 편찬한 《속무정보감》이 전한다.

합니다. 성삼문의 난에 상왕이 그 모의에 참여하였는데 변고가 종사(宗社)에 관계되어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일이라 이것으로 죄목(罪目)을 삼았다고 합니다. 상왕을 처치하자고 청한 것은 이전의 역사에 없는 일인데, 정인지가 감히 이 일을 청하였습니다. 정인지를 당시에는 명재상이라고 칭찬하였으나,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상서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의 의논을 인용하려고 하니, 이것이 공론이 격발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기대승은 여전히 ‘성삼문의 난’ 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성삼문 등이 상왕(上王: 노산군)을 복위하려는 것이었으나 세조는 난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상왕(上王) 복위 노력을 세조 폐위 노력과 별개의 문제로 보기를 청했다. 바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신응시(辛應時, 1532~1585)¹⁶⁾도 기대승의 건의에 동조하여 다음과 같이 진언했다.

…조종조의 일 중에 좋은 것은 마땅히 만세토록 고치지 말아야 하겠으나, 미진한 일로 말하면 고쳐도 무방합니다. 태조(太祖)가 정몽주(鄭夢周)를 죽였으나 태종은 그를 표창하여 증직하였고, 태조가 전조(前朝)의 왕씨(王氏)들을 모두 죽였으나 문종은 숭의전(崇義殿)을 세웠으며, 세조는 소릉(昭陵: 文宗의 妃 顯德王后의 능)을 내다 버렸으나 중종은 능을 복구하였습니다.”하였다. … 중종께서 소릉을 복구하신 것은 실로 조종에 빛나는 일입니다.¹⁷⁾

이처럼 선조 때 사림들은 중종 때 사림들의 주장을 이어 조정에서 성삼문·박팽년 등의 복권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갔다. 광해군 때인 1612년에 김시양(金時讓, 1581~1643)이 지은 『부계기문』(涪溪記聞)의 기록에 따르면, 『실록』에 실려 있지 않은 내용이 실려 있다. 『부계기문』에는 명종 초년에 윤근수(尹根壽, 1537~1616)가 임금에게 『육신전』을 인쇄하여 반포하기를 청하니 상이 매우 성내어 끌어내라고 명하였다는 일, 울곡(栗谷) 이이(李珣, 1636~1682)가 선조 때에 또 이 일을 청하니 선조가 성내면서 “집에 『육신전』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반역으로 논죄하겠다.”라고 하였다는 일,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이 “국가가 불행하여 어려운 일이 있다면 신 등을 신속주(申叔舟)가 되게 하고자 하십니까? 성삼문이 되게 하고자 하십니까?” 하니, 비로소 선조의 노여움이 풀렸다는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16) 자는 군망(君望), 호는 백록(白麓), 시호는 문장(文莊), 본관은 영월(寧越)이다. 백인걸(白仁傑)의 문인으로, 1559년 문과에 급제, 사기독서하고, 1566년 문과 중시(重試)에 급제. 예조·병조의 좌랑·교리 등을 거쳐 선조 즉위 초에 경연관이 되었다.

17) 『高峯集』, 論思錄 하권, 5월 21일

선조 때의 신흘(申欽; 1566~1628)은 <서육신전후(書六臣傳後)>를 지어 “우리나라의 육신(六臣)은 실로 무왕의 백이(伯夷)와 같은 자들인데도 끝내 살육되고 자손까지 함께 처형되었다. 그 일이 있는 지 백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이 감히 입을 열어 그 일을 논하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남 처사(南處士: 남효온)의 초라한 몇 치의 붓이 육신전을 지었다. 겨우 하나의 터럭 같은 의기(義氣)를 부축하였을 뿐이다.”¹⁸⁾ 라고 남효온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

이처럼 조정에서는 선조(宣祖), 광해군(光海君)을 지나 인조(仁祖) 대에 이르러서도 사육신 문제 해결에 명쾌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 광해군을 ‘폐모살제(廢母殺弟)’ 하였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내걸고 반정(反正)하여 왕위에 오른 인조 역시 선조의 견해와 다르지 않았다. 조선 조정에서 종종 때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여 사육신의 사후 200여년의 지난 후, 효종 때에 와서 사람들은 비로소 조정에서 정몽주에 준하는 포장을 본격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3. 효종대 사람들의 사육신 복권 노력

17세기에 이르러 임진(壬辰)·병자(丙子) 양란(兩亂) 이후에는 사림(士林)들이 박팽년 등 사육신을 복권하고 추송하는데 당파를 초월하여 한 목소리로 요청하였으며, 특히 김장생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충청 지역 선비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경주했다.

사육신이 사망한지 196년이 지난 1652년(효종 3)에 당시 판서를 지냈던 조경(趙綱)이 상소를 올렸다. 조경은 사육신의 대절(大節)을 받들어 정려(旌閭)를 내리는 은전(恩典)을 내리기를 요청하는 상소를 다음과 같이 올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충신·열사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포장(褒獎)하고 뛰어난 것을 정표하는 은전(恩典)을 거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전조(前朝)에 사절(死節)한 신하 정몽주 등에게도 다 아름다운 시호를 주고 자손을 거두어 썼으니, 이것이 어찌 천지의 사(私)가 없는 도량으로 본조나 다른 왕조를 차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신의 어리석은 마음에 간절한 것은, 박팽년·성삼문·이개·하위지·유성원·유용부 여섯 신하들이 천명(天命)이 돌아간 것을 모르기는 하였으나 그 섬기는 바를 위하여 죽은 대절(大節)은 뚜렷이 빛나는데 정려하는 은전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니, 어찌 겨를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¹⁹⁾

18) 『象村集』, 제37권, 題跋 19수, 書六臣傳後.

이를 이어 송준길(宋浚吉, 1606~1672)과 이후원(李厚源, 1598~1660)이 효종에게 성삼문 등에 대한 배향(配享)을 청했다. 송준길은 김장생의 문인으로 송시열과 함께 북벌을 추진한 대표적인 인물이며, 이후원 역시 김장생의 문인으로 인조반정 공신으로서 과거 급제 후 김상헌의 추천을 받았으며 병자호란 때 척화파이며 효종의 북벌정책을 보필하였던 인물이다. 1657년(효종 8)에 송준길이 성삼문에 대한 배향 등을 청하여 효종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이 삼가 명나라 조정의 방효유(方孝孺)라는 사람을 보건대, 이 사람은 실로 한 시대의 죄인이지만 만세의 충신입니다. 그의 종당(宗黨)이 참혹하게 형륙을 당한 일은 참으로 역사 이래로 아직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몇 십년이 지나지 않아 그의 문집을 간행하도록 허락하였고, 사당을 따로 세워 신위를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큰 조정의 규모와 기상이 관대하고 심원하여 참으로 인심을 복종시키고 후사를 가르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조정의 성삼문·박팽년 등이 실로 효유(孝孺) 같은 무리들입니다. 삼문은 일찍이 연산(連山)에 살았고, 팽년은 일찍이 회덕(懷德)에 살았습니다. 연산과 회덕은 모두 앞시대의 훌륭한 유학자들의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학자와 자손들이 두 사람을 배향해 달라고 원하고 있는데, 이는 또한 사당을 별도로 세워 신위를 모시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히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 한 지방의 여론이 매우 우울해 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 명나라 조정의 관대한 법전에 따라 특별히 윤허를 내리시어 한 지방의 소원에 부응해 주시면 풍화에 보탬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²⁰⁾

그러나 송준길 등의 요청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3년 후, 1660년(효종 1)에 영월군수(寧越郡守)로 재직하던 윤순거(尹舜舉, 1596~1668)가 <노릉지(魯陵誌: 단종릉의 지식문)>를 편찬하여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을 기렸다. <노릉지>는 윤순거가 노릉제(魯陵祭)를 지내고 군아(郡衙)에 소장되어 있던 노릉록(魯陵錄)을 기본으로 하여 저술한 능기(陵記)이다. 윤순거는 성문준(成文濬)에게 학문을 배우고, 김장생(金長生)에게서 예학을 배웠던 인물로, 의령현감으로 재직할 때 이황(李滉)과 남효온(南孝溫)의 사우를 건립하기도 했다. <노릉지>를 읽은 송시열은 성삼문 선생의 사실(事實)에 관한 전말(顛末)을 상세히 갖추었다고 평가했다.²¹⁾ 그는 아울러 단종의 사묘인 지덕암(旨德庵)을 중건하기도 했다.

윤순거가 <노릉지>를 쓴 4년 후인 1664년(현종 5)에 남인(南人: 淸南)으로 당시 정언(正言)을 지내던 김덕원(金德遠, 1634~1704)이 상소하여,

19) 『효종실록』,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11월 13일(신사) 2번째기사

20) 『효종실록』,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10월 25일(갑오) 1번째기사

노산(魯山)·연산(燕山)·광해(光海) 세 폐군(廢君)의 입후(立後) 및 성삼문·박팽년 등 6신을 정표하고 사당을 세우는 일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육신의 포상(褒賞)은 공식화 되지 못하고 소를 올린지 몇 달이 지났으나 상이 비답을 내리지 않다가, 도리어 그를 특명으로 파직시키는 일도 있었다. 『실록』에 당시의 사관(史官)조차 평가하기를, “성삼문 등의 일은 성사시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였으니, 그 충절이 지극하고 뜻이 비장하니 사육신의 관작을 회복시켜 주면 충분하며, 정표하고 사당을 세우는 일은 본조에서 거론할 수 없는 것인데 김덕원이 함부로 말하였으니, 그르다”고 기록할 정도였다.²²⁾

이처럼 중종·선조 등 역대 임금은 물론 현종대에 이르러서도 남인·서인을 가리지 않고 사육신의 복권과 제향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사관들조차 사육신의 문제를 전폭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꺾끄러운 난제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론(老論)의 대표자인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은 누구보다도 성삼문·박팽년의 절의를 현창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들의 복권과 추숭사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송시열은 절의(節義) 인물 추존(追尊)과 그 후손(後孫)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대(厚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지속적으로 충절(忠節)·충의(忠義)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관련된 인물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대의(大義)와 도덕(道德)에 순절(殉節)한 인물들을 기리는 일에 대단히 열성을 보였다. 송시열은 정몽주(鄭夢周)의 신도비(神道碑)와 조광조(趙光祖)·박팽년·성삼문의 유허비(遺墟碑)를 지었고, 임진왜란 때의 순절을 기리기 위해 조헌(趙憲)의 행장(行狀), 이순신(李舜臣)의 묘비(墓碑), 송상현(宋象賢)의 신도비명(神道碑銘), 신립(申瑴)의 묘갈명(墓碣銘), 권율(權慄)의 묘표음기(墓表陰記)를 지었다. 그리고 『삼학사전(三學士傳)』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그 시대마다 무엇이 옳은 일이고 옳은 행동인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일을 통하여 정의로운 도덕국가를 건설하려는 도학정신 실천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신념에서 송시열은 성삼문·박팽년을 현창하는 일에 적극 관여하여 일을 추진하면서, 그들의 자취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들을 기리는 유허비를 세웠다.

21) 이 능기는 1663년(현종 4)에 간행되었는데, 권1에는 1698년(숙종 24)에 단종이 복위될 때까지의 사실을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후에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분묘(墳墓)의 관리, 남효온(南孝溫)의 단종 복호상소(復號上疏), 사묘(祠墓)·제축(祭祝)의 사실 등을 실었다. 권2에는 노름을 소재로 한 시문(詩文)을 수록하고, 그 뒤에 부록으로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허후(許翹)·사육신(死六臣)·정보(鄭保)·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瑤)·생육신(生六臣) 등의 전기와 무오사화(戊午士禍) 관련 기록을 실었다.

22) 『현종실록』, 10년, 8월 18일(무인) 4번째기사

다음은 1668년(현종 9)에 송시열이 쓴 ‘회덕박선생유허비(懷德朴先生遺墟碑)’의 비문이다. 이 비문의 글씨는 송준길이 썼다.

오직 이 흥농촌(興農村: 대전 가양동) 옥죽구(玉竹丘: 대나무 언덕)는 회덕현(懷德縣: 대전 대덕구)의 남쪽 경계인데 옛날부터 서로 전하기를, 고(故) 평양(平陽) 박 선생 평년(朴先生彭年)의 유지(遺址: 역사적 자취가 남아 있는 터)라고 한다. 거기서 조금 북쪽으로 몇 걸음 가면 벼밭 가운데 주춧돌이 있는데, 이것은 선생의 연정(蓮亭: 연꽃 정자)이라 하며, 또 그 북쪽으로 몇백 보를 가면 바로 선생의 종부(從父)인 전농(典農) 근(根)의 처묘(妻墓)이며, 그 묘에서부터 서쪽으로 2리쯤인 석남촌(石南村)에 가면 박씨의 종족(宗族)들이 많이 사는데, 바로 박 선생의 종조부(從祖父)인 판관(判官) 이생(易生)의 자손이다. 그리고 석남촌(石南村)에서부터 남쪽으로 15리쯤인 공주(公州) 돈이동(遯頤洞)은 바로 선생의 증조인 전서(典書) 원상(元象)의 묘이다. 효종조의 연신(筵臣) 송준길이 사당을 회덕에 짓고 제향하라고 명하기를 청하니, 상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상신(相臣) 충정공 이후원에게 내렸다. 이후원이 세조대왕(世祖大王)의 ‘만세충신(萬歲忠臣)’이란 교서를 인용하고 또 황조(皇朝: 명나라)의 우소보(于少保)의 고사(故事)²³⁾를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다만 조정의 의논이 한결같지 않아서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식자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이 유지(遺址)가 황폐되고 파문혀서 거의 식별할 수 없게 되었으니, 주 부자(朱夫子: 주자)의 ‘소(沼)가 메워지고 대(臺)가 기울어져서 잡목(雜木)이 무성하니 나무하는 아이와 소치는 아이들이 그 위에서 휘파람 불고 노래하며 뛰는다.’는 탄식이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골 사람들이 슬프게 여기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으니,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그리하여 고을의 기로(耆老: 어른)와 장보(章甫: 선비)들이, 더욱 오래되어 그곳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조그마한 돌을 세워 표지(標識)를 해 놓았다. 혹 다행스럽게도 훗날에 성고(聖考)의 뜻이 과단성 있게 행해지고 막힘이 없다면, 어찌 꾸지나무와 산뽕나무를 베어 버리고 문정(門亭)을 일으켜 세워서 그 옛터를 회복하는 일이 없겠는가. 선생의 사적(事蹟)은 대략 남추강(南秋江: 남효온)의 기록에 나타나 있으니, 선생을 알고자 하는 자는 여기에서 상고할 수 있다.

송정(崇禎) 무신년(1668, 현종9) 4월 22일에 쓴다.

23) 우소보는 명 영종(明 英宗) 때의 태자 소보(少保) 우겸(于謙)이다. 명나라 영종 14년에 오랑캐가 침입하여 영종이 북쪽으로 도망가고, 그 뒤에 다시 오랑캐가 대거 침입하자, 우겸이 경제(景帝)를 황제로 옹립하고 오랑캐를 물리쳤다. 그후 영종이 북경으로 돌아와 복위하자, 우겸에게 반역죄를 물어 처형했다. 후에 우겸의 아들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영종이 우겸의 관작을 복구시키고 국가가 난을 당할 때 사직을 편안히 보호한 충성을 기린다고 하였다.

4. 숙종대의 사육신 복권과 추송

17세기에 이르러 사림들의 노력으로 사육신에 대한 복권 및 현창사업의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였고, 특히 숙종 대에 이르면 절의론이 우세한 가운데 사육신에 대한 현창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숙종은 조선의 역대 왕 가운데 사육신 현창사업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시행하기 시작한 임금이었다.

사육신은 중종때 사림들에 의해 재평가되고 인조 대를 지나 『인조실록』에까지 그 내용이 수록되었으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추모 현창한 시기는 숙종 때이다. 사육신 묘는 민간에서만 인정되어 오다가 1679년(숙종 5)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숙종은 1679년(숙종 5) 9월 11일에 노량에서 대규모 열무(閱武)를 행하였는데, 당시 남인의 대표자인 허적(許積, 1610~1680)이 숙종에게 “성삼문 등의 묘(墓)를 특별히 봉식(封殖: 흙을 북돋음)해 주기를 청하였고, 주위의 사람들이 반대하자 명 태종(明太宗)이 방효유(方孝孺)의 벼슬을 복직시키고 그의 묘를 세워 주듯이 군주로서 마땅히 절의를 포창해야 할 바라고 재차 요청하여, 숙종이 육신묘에 흙을 북돋아 묘봉을 봉식하게 하였다.”²⁴⁾

그 다음해인 1680년(숙종 6)에 송시열의 문인으로 당시 강화유수를 지내던 이선(李選, 1632~1692)이 나섰다. 이선은 세조조차 “성삼문 등은 근세의 난신(亂臣)이나 후세의 충신(忠臣)이다”라고 칭하였다면서 사면(赦免)의 은전을 요청했다. 이에 숙종은 여전히 분묘를 봉한다든지 사림들이 존모(尊慕)하는 등의 일은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도 은전을 베풀기 어렵다고 거절했다.²⁵⁾

그로부터 11년 후인 1691년(숙종 17)에 드디어 숙종은 성삼문 등 사육신의 작위(爵位)를 회복시키고, 관원을 보내어 사육신 묘와 노산대군[단종]의 묘에 치제(致祭)하라는 명을 내렸다. 또한 숙종이 친필로 민절(愍節: 가없는 절개)이라는 사당의 편액(扁額)을 하사하고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었다. 서원의 액호는 민절사라고 했다가 서원이라고 고쳐 민절서원이라고 했다. 육신들의 관작을 복구하는 고신(告身)은 그 자손들에게 주게 하고 자손이 없는 사람들은 서원에게 주어 후세에 전하도록 했다. 이때에 다음과 같은 비망기(備忘記)를 내렸다.

24) 『숙종실록』, 숙종 5년, 9월 11일

25) 『숙종실록』, 숙종 6년, 12월 22일(정미)

나라에서 먼저 힘쓸 것은 본디 절의(節義)를 숭장(崇獎)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신하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것도 절의에 죽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저 육신(六臣)이 어찌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거스를 수 없는 것인 줄 몰랐겠는가마는, 그 마음이 섬기는 바에는 죽어도 뉘우침이 없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사람이 능히 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충절(忠節)이 수백 년 뒤에도 늠름(凜凜)하여 방효유(方孝孺)·경청(景淸)과 견주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선왕의 능(陵)에 일이 있어서 연(輦)이 그 무덤 옆을 지남에 따라 내 마음에 더욱 느낀 것이 있었다. 아! 아버이를 위하는 것은 숨기는 법인데, 어찌 이 의리를 모르랴마는, 당세에는 난신(亂臣)이나 후세에는 충신이라는 분부에 성의(聖意)가 있었으니, 오늘의 이 일은 실로 세조(世祖)의 유의(遺意)를 잇고 세조의 성덕(盛德)을 빛내는 것이다.²⁶⁾

다음 해인 1692년(숙종 18)에 연산 유림들이 육신서원(六臣書院: 현재 충곡서원)을 신축하였다. 이밖에도 성삼문·박팽년 등 사육신과 관련된 명문(銘文)으로 허목(許穆, 1595~1682)이 지은 <육신의충비(六臣義冢碑)>와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이 지은 <육신묘비(六臣墓碑)>, 조관빈(趙觀彬, 1691~1757)이 지은 <육신묘비(六臣墓碑)> 등이 있다.

5. 영조대 이후 사육신 추송 과정과 박팽년 유적 현창사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팽년 등 사육신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충신으로 추송되는 과정이 간단치 않았으며, 그들의 신원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였다. 이후에도 추송 노력은 계속 이어졌으며, 자손들에게 벼슬을 내리는 등 은전(恩典)이 이어졌다.

1727년(영조 3) 4월에 영조는 성삼문·박팽년의 후손을 찾아서 임용하게 하였는데, 후손이 없으면 방손(傍孫)이나 외손이라도 탐문하여 녹용(錄用)하게 하였다. 또한 부친인 박중림은 1739년(영조 15)년에 복관되었다. 1743년(영조 19)에는 경상 감사 김상성(金尙星)의 요청으로 선정신 김굉필(金宏弼)·이언적(李彦迪)과 충신 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의 봉사손(奉祀孫)을 녹용하도록 명하였다.²⁷⁾ 1757년(영조 33)에는 지의금(知義禁) 김한철(金漢喆)의 건의로 홍주(洪州)의 육신사(六臣祠)에 치제(致祭)하고 박팽년의 봉사손(奉祀孫)을 녹용(錄用)하라고 명하였다.²⁸⁾ 그 다음해인 1758년(영조 34)에도 박팽년의 혈손(血孫)인 감찰 박성협(朴聖浹)을 특별히 승진시키도록

26) 『숙종실록』, 숙종 17년, 신미(1691, 강희 30) 12월 6일 (병술)

27) 『숙종실록』, 영조 19년 계해(1743, 건륭 8) 7월 17일 (정유)

28) 『숙종실록』, 영조 33년 정축(1757, 건륭 22) 11월 23일 (신해)

명하였다.²⁹⁾ 이후에도 1758년(영조 34)에 사육신에게 특별히 증직하여 박팽년에게는 이조판서로 추증했고, 충정(忠正)이라는 시호(諡號)가 주어졌다.

숙종, 영조 대를 이어 정조 대에도 지속적인 사육신 현창 과정이 계속되었다. 1782년(정조 6)에 정조는 신도비(神道碑)를 세우고, 9년 뒤인 1791년에 단종에 대한 충신들을 기리기 위해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만들어 표창하였다.³⁰⁾

1798년(정조 22)에는 정조가 경상도 관찰사에 명하여 영남에 거주하는 고가(故家)의 후예들을 찾아 그들을 관직에 임명토록 하였는데, 이때 충정공 박팽년의 12세손으로 대구(大邱)에 살던 유학(幼學) 박광구(朴光久)도 62세의 나이에 감역관(監役官)이라는 관직에 임명되었다.³¹⁾ 철종 때에는 순천부사(順天府使) 박문현(朴文鉉)이 횡령죄를 짓자 철종은 그의 선조(先祖: 박팽년)를 생각하며 10세(世)까지 용서하여 준다는 의리로써 참작하여 감형하였다.³²⁾

박팽년의 묘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사육신 묘역에 있다. 그의 묘에는 그저 '박씨지묘(朴氏之墓)'라고 새겨진 표석이 있다. 민절서원은 1871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시 훼손되었으며, 현재 1957년에 서울시가 세운 오석 6각의 '사육신지묘비'가 그 자리에 세워져 있다. 이 묘역은 1978년에 사육신 공원으로 단장되었다. 공원 내 의절사에서는 매년 10월 9일에 추모제향을 올린다. 2010년 말 사육신역사관도 개관하여 사육신 후손이 기증한 유품과 사육신 관련 고(古)서적 등을 전시하고 있다. 본래 이 묘역에는 박팽년, 성삼문, 유응부, 이개의 묘만 있었으나 1978년에 서울시가 성역화 하면서 하위지, 유성원, 김문기의 가묘(假墓)도 함께 추봉하여, 현재 사당내에는 7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이때 다시 세운 '의절사(義節祠)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이 쓴 휘호이다.

박팽년을 제향하는 사우(祠宇)로는 지금 사육신 묘가 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민절서원(愍節書院; 현재의 의절사), 강원도 영월의 창절서원(彰節書院)이 있다. 또한 충청도 홍주(洪州; 홍성)의 녹운서원(綠雲書院)이 있었는데, 노운서원(魯雲書院)이라고 개명했다가 대원군의 서원 철폐 후 현재는 노운단이 남아 있다. 충남 논산[연산]에도 사육신을 모신 사당을 건립하였는데, 육신서원(六臣書院)이라고 하였다가 1702년(숙종 28)에 계백장군을 주벽으로 하고 김익겸(金益兼)을 추배하여 팔현서원(八賢書院)이라 하였다가 현재는

29) 『숙종실록』, 영조 34년 무인(1758.건륭 23), 10월4일 (정사)

30) 『숙종실록』, 정조 15년, 2월21일 (병인)

31) 『숙종실록』, 정조 22년 무오(1798, 가경 3) 10월12일 (임인)

32) 『숙종실록』, 철종 10년 기미(1859.함평 9), 6월12일 (경술)

충곡서원(忠谷書院)이라고 개명했다. 대구의 낙빈서원(洛濱書院: 현재의 六臣祠)도 6신(臣)을 모두 제향한 서원이다. 경북 의성의 학산서원(鶴山書院)도 1730년에 건립되어 6신을 모셨으나 대원군의 서원 훼철 후 복설되지 못하였다. 장릉(莊陵: 단종의 능)의 충신단(忠臣壇)과 공주 동학사(東鶴寺)의 숙모전(肅慕殿)에도 사육신이 모두 배향되어 있다.

충청북도 충주시[신니면]에도 박팽년 사우(충청북도 기념물 제27호)가 있는데, 1775년(영조 51)에 명정(銘旌)된 박팽년의 충신문은 중앙에, 둘째 아들 박순(朴珣)의 충신문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박순(朴珣)의 유복자 박일산(朴一珊)의 충신문 편액이 걸려 있다.

대전시[동구 가양동]에 박팽년 선생이 살던 집터가 있으며(박팽년유허는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호), 1668년(현종 9)에 지역 유림들이 이곳에 송시열이 짓고 송준길이 글씨를 쓴 ‘회덕박선생유허비’(懷德朴先生遺墟碑: 대전시문화재자료 제8호)를 세웠다. 1672년(현종 13)에 비각을 지어 장절정(壯節亭)이라 하였다가, 한국전쟁 때 파괴되었고, 16대손 박상동(朴尙東)이 다시 중건했다.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박팽년 등 여러 분의 위패를 모신 정절서원(靖節書院)³³⁾을 1684년(숙종 10)에 건립하였으나 1871년(고종 8)에 서원이 헐리고, 1923년 대전 중구 안영동에 숭절사(崇節祠)를 건립하였다가 다시 1977년 중건한 이후 “창계숭절사(滄溪崇節祠: 대전시문화재자료 제2호)”라 칭하고 있다.³⁴⁾

6. 맺는말

한국은 굴곡진 역사의 매 시기마다 ‘절의지사’를 배출했는데, 언제나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현창되고 추송되었다. 당시에 절의지사들은 엄청난 고초를 당하였고 오랫동안 대역죄인으로 칭해지다가 많은 세월이 흐르고서야 복권되고 추송되었다.

성삼문·박팽년 등 사육신은 정몽주·길재 등과 함께 한국 역사를 대표하는 절의(節義)의 표상이 되었고, 부조리한 상황을 당하여 선비가 목숨을 바쳐 절의를 지키고 불의에 대항하는 절의지사로서 충신의 전형이 되었다.

33) 송유(宋榆)·박팽년(朴彭年)·송갑조(宋甲祚)의 위패를 모시다가, 1701년(숙종 27)에 김경여(金慶餘)와 송상민(宋尙敏), 1822년(순조 22)에 송국택(宋國澤)을 추가배향하였다.

34) 현재는 사육신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육신과 그를 합해 사칠신(死七臣)이라고 일컬어졌던 박심문(?~1456)을 모신 곳이다.

사육신은 세조(재위; 1455~1468) 당시는 물론이고 제8대 예종(재위; 1468~1469), 제9대 성종(재위; 1470~1494) 대를 지나 제10대 연산군(재위; 1495~1506) 때에 이르기까지도 조정에서 그 일이 거론되지도 못하였으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득세하던 제11대 중종(재위; 1506~1544) 대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복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12대 인종(재위; 1544~1545), 제13대 명종(재위; 1545~1567) 대를 지나면서 수 차례의 사화(士禍)를 거친 후 사람들이 정계에 다시 등장하던 시기의 임금이었던 제14대 선조(재위; 1567~1608)도 사육신을 여전히 역적이라고 칭하고 그 일을 아뢴 이들에게 벌을 주기까지 했다. 그 후 제15대 광해군(재위; 1608~1623), 제16대 인조(재위; 1623~1649), 제17대 효종(재위; 1649~1659), 제18대 현종(재위; 1659~1674) 시기를 지나 제19대 숙종(재위; 1674~1720) 대에 이르러 비로소 공식적으로 복권되고 추송되었다. 이후 제20대 경종(재위; 1720~1724), 제21대 영조(재위; 1724~1776), 제22대 정조(재위; 1776~1800) 대에 이르러 그 복권과 추송이 확립되었으니 그 분들이 돌아가신지 220년이 흐른 뒤였고, 현재로부터는 210여년 전의 일이다. 정몽주가 복권 추송되는 과정이 그러했듯이 사육신 또한 그 복권 추송의 길은 멀고 험했다. 그러한 노력의 주역들은 바로 도학을 숭상하고 왕도를 실현하려는 사림(士林)들이었고 도학군자(道學君子)들이었다. 사육신의 복권 과정은 사림들의 정계 진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사육신을 추송하고자 했던 노력은 도학정신에 근거한 한국인의 의기(義氣)와 지성(知性)의 회복이며 한국인의 긍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인물사연구원, 『계유년의 역신들 : 계유정난과 사육신』, 타오름, 2011.
- 김진우, 『節義와 顯彰을 통한 四六臣의 眞實』, 통천문화사, 2011.
- 『死六臣 : 正史의 死六臣 · 野史(私撰)의 死六臣』, 柳永博, 東方圖書, 1996.
- 金東吉, 『사육신의 꿈』, 풀빛, 1979.
- 김문준, 「대전중기의 유교사상」, 『대전문화』.
- 沈羲基, 「死六臣 裁判과 그 復權 : 조선시대판 과거청산작업의 사례연구」, 『법제연구』17, 1999.
- 鄭萬祚, 「숙종조의 사육신 추숭과 서원제향」, 『韓國學論叢』, 제33집, 2010.
- 成元慶, 「成三問과 義氣論」,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2.
- 김경수, 「세조대 단종복위운동과 정치세력의 재편」, 한국사학회, 2006.
- 민족문화사학회 · 민족문화사연구소 신성환, 「死六臣 담론의 轉變과 조선후기 詩歌의 수용 양상」, 『민족문화사연구』, 46권, 2011.
- 민족문화사학회 · 민족문화사연구소, 「근대 이후 사육신에 대한 斷續적 기억과 詩歌에서의 수용 양상」, 『민족문화사연구』, 51권, 2013.
- 徐首生, 「死六臣의 盡忠取熊과 抒情의 菁華」, 『儒敎思想研究 第9집』, 儒敎學會, 1997.
- 梁在燮, 「死六臣의 時調 文學 研究」, 『敎育論叢』, 창간호 (상), 1981.
- 오항녕, 『조선의 힘, 제8장 역사바로 세우기-단종과 사육신』, 역사비평사, 2010.
- [이정우의 Story in세종], 박팽년은 왜 단종을 선택했을까?
-박팽년의 단종 복위 운동 실패<하>, 세종의 소리, [칼럼] 2014.07.03
- [이정우의 Story in세종], 박팽년 가문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땅은...
-박팽년의 단종 복위 운동 실패<중>세종의 소리, [칼럼] 2014.05.23
- [이정우의 Story in세종], 실패한 쿠데타, 그리고 잔인한 응징,
-박팽년의 단종 복위 운동 실패<상>, 세종의 소리, [칼럼] 2014.05.09,
- [이정우의 Story in 세종], 박팽년 할아버지, 전의에 묻혔다.
-세종시에 숨결이 살아있는 사육신 박팽년, 세종의 소리, [칼럼] 2014.04.08

IV

박팽년 가계의 종중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1. 들어가는 말 · 95
2. 순천박씨의 종중 조직화 과정과 우암 송시열 · 96
 - 1) 박팽년의 유일한 혈손 박일산 가계의 활동
 - 2) 박팽년 방계 혈족의 동향
3. 충정공파 대중중의 형성과 대동보 발간 · 112
 - 1) 충정공파 종손 박기정의 활동과 대동보 발간사업
 - 2) 합보(合譜)의 전개과정
4. 나가면서 : 향후의 과제와 전망 · 117

박팽년 가계의 종종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오 석 민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박팽년과 조선시대 전의현과의 관계에 관한 발표를 제안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사실에 부딪혔다. 주지하다시피 현조(顯祖)에 대한 재평가는 기본적으로 해당 가문의 일이다. 실제로 각 가문에서는 현조에 대한 일련의 현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박팽년을 배출한 순천박씨 가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사육신에 대한 재평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실제로 최소한 숙종 때까지 거의 200여 년 동안 왕조실록을 비롯한 관찬기록에는 사육신에 대한 부정적 기록, 최소한 유보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숙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긍정적인 평가가 대세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살펴보아야 할 과제는 사육신에 대한 평가를 반전시킨 숙종 때의 정치세력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육신의 정치사'는 또한 조선후기 정치사인 셈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까닭에, 순천박씨 가문의 현조 선양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여타 가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거유(巨儒)들이 간여하였고, 그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향도 확인된다. 덧붙인다면 상대적으로 관련 기록과 유적이 풍부한 편이다.

대전에는 박팽년 선생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옛 집터에 송시열 선생이 짓고, 송준길 선생이 쓴 유허비가 있다. 박안생-박중림-박팽년 가계의 방계 후손들이 살았던 연고가 있기 때문이다. 박팽년 선생의 유일한 혈족인 박일산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집성촌인 대구 못골 마을에도 이런 인물들이 간여한 유물들이 전해지고 있다. 박팽년의 부인 천안 전씨 묘소가 있다는 이유로 충주로 옮긴 종가에도 일부 유물이 전한다. 박팽년의 가계와는 다른 지파인 전라도 광주에서도 족보 편찬을 주도하였고, 송시열이 자신의 문인임을 밝히면서 기꺼이 족보의 서문을 써 주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육신에 대한 현창사업은, 한편으로는 그 의의를 재평가하는 조선후기 특정 정치세력,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박팽년의 순천박씨 가문 내지는 사육신을 배출한 여러 가문이 합동으로 추진했던 일종의 정치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전자는 조선후기 성리학적 정통론에 충실했던 인물들의 문집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는 가계를 종법적 질서에 맞추어 정리했던 혈족의 명부라고 할 수 있는 족보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후기 종중의 조직화 과정에서 선대의 충절은 선대의 학문적 명성 못지 않게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에 후손들도 기꺼이 그러한 사업에 동조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작업은 박팽년에 대한 신원 및 복권 나아가 현창사업이라는 명분론에 입각한 조선후기 정치사의 한 단면을 더불어 살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순천박씨의 종중 조직화 과정과 우암 송시열

조선후기 종중의 조직화는 다양한 조건을 갖추면서 진행된다.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현조(顯祖)를 드러내는 일이다. 조상을 드러낸다는 종중에서의 숭조(崇祖)라는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그 후손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손들은 적극적으로 현조에 대한 사실들을 밝혀내고, 그 사실들을 정리하여 책자 등으로 간행하는 사업을 벌인다. 문집이나 실기류 등이 그러한 결과물이다. 묘비와 신도비, 때로는 유허비를 건립하는 일 또한 빠질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다소의 윤색이 가해진다. 발굴된 새로운 사실들은 옛 사실을 보완해 주는데, 이렇게 윤색이 가해진 사실 또한 그 당대의 또 다른 차원의 역사적 사실로 편입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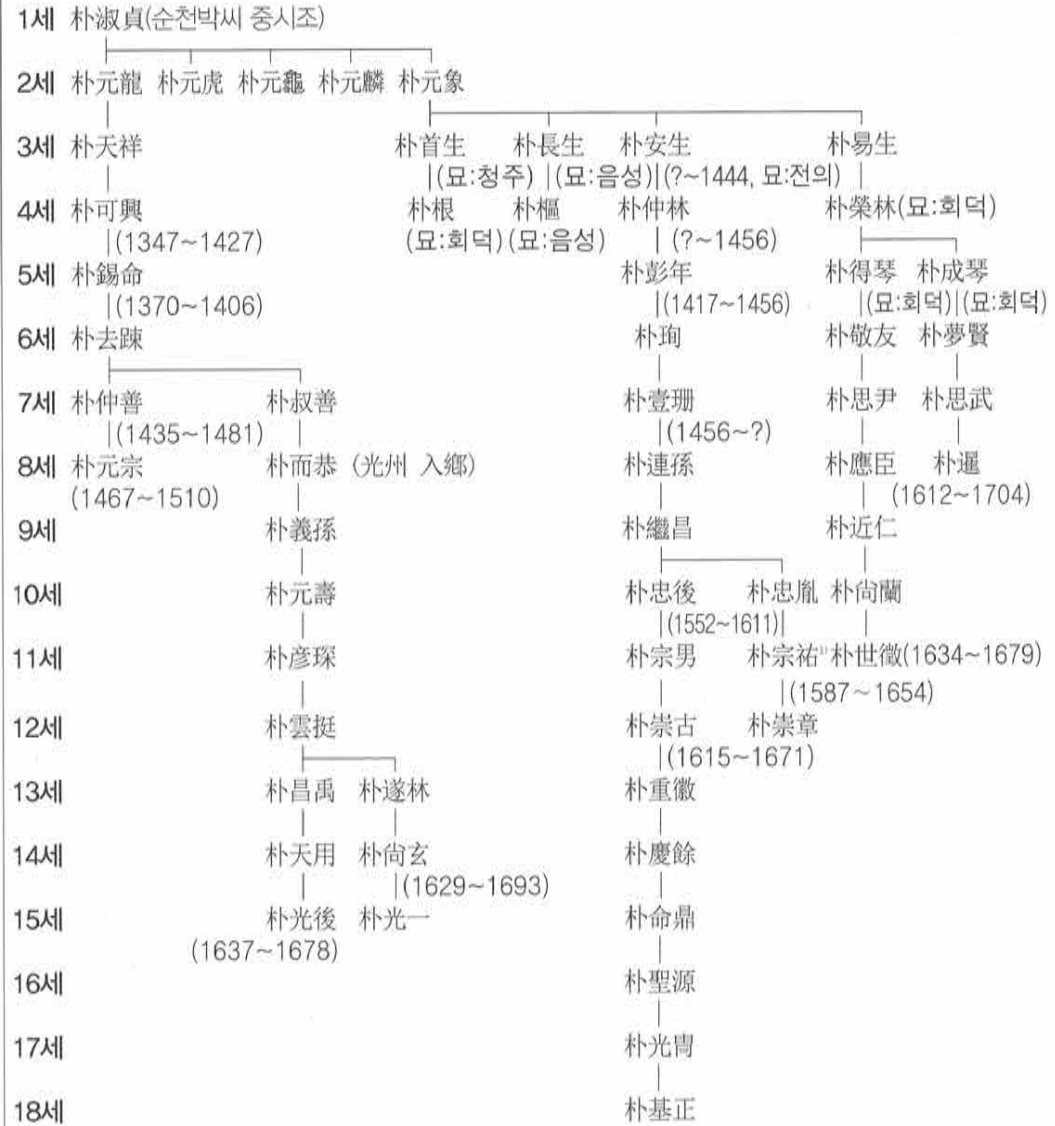
족보의 간행도 그러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족보 간행이라는 종중 조직화의 또 다른 사업은 후손들을 거두는 일, 즉 수족(收族)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종중의 입장에서는 종중원을 결집하여 힘을 키우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후손으로 인정받는 일종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인 것이다. 시조로 꼽히는 과거의 현조(顯祖)와 자신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일종의 명부인 것이다. 그런데 후손의 사망과 출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까닭에, 세대가 바뀔 때마다 족보는 다시 간행되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누락되었다고 인정되는 지파가 새롭게 덧붙여지고, 기왕에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도 새롭게 확인되었다고 하여 수정이 가해진다.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서술방식도 바뀐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1476년 『안동 권씨 성화보』, 1565년 『문화유씨 가정보』(이하 『가정보』) 등이 비교적 이른 시기의 족보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내외손(内外孫)을 모두 수록한 까닭에, 우리에게 익숙한 부계혈족

중심의 족보와는 성격이 매우 달랐다. 실제로 이들 족보는 거의 당시 지배층의 여러 성씨를 망라하는 만성보(萬姓譜)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사실상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족보를 꾸미는 일은 종법이 일반적으로 수용된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지파별로 각자 자신들의 계보를 꾸미는 파보가 먼저 발간되었고, 조선후기에 이르면 대동보가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순천박씨 지파 가운데에서는 박팽년의 유일한 혈손이었던 박일산(朴一珊)의 가계, 회덕에 세거했던 박이생(朴易生)의 가계, 전라도 광주로 이거했던 박원룡(朴元龍)의 가계에서 이러한 사업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육신의 신원을 주도했던 송시열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 순천박씨 족보 편찬과 종중의 조직화는 이러한 제 세력들이 상호 접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간 결과물이다. 아래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박중림-박팽년 가계를 중심으로 본 순천박씨 계보도〉



1) 2007년 발간된 『순천박씨 충정공파보』에는 朴宗佑로 되어 있으나, 후손들에게 확인 결과 오자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朴宗祐로 표기하였다.

1) 박팽년의 유일한 혈손 박일산 가계의 활동

가) 못골 정착과정과 관련 유적

박팽년은 사육신 가운데 유일하게 혈손을 남긴 인물이다. 그런데 그의 출생 비화는 계속적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그의 유일한 혈육 박일산(朴壹珊, 1456~?)의 출생과 관련한 기록은 조선 후기 여러 문집에 전한다. 우선 정조(1752~1800)가 남긴 글인 『홍재전서』를 살펴보자.

(박팽년의) 아들 생원 헌(憲)·순(珣)·분(奮) 등도 함께 죽었다. 순의 아내 이씨(李氏)는 막 임신을 하였는데, 아들을 낳을 경우 연좌되게 되어 있었다. 여중역시 임신을 하였는데, 여중이 이씨에게 말하기를, “마담께서 딸을 낳으시면 다행이겠으나, 아들이라면 친네가 낳은 아기로 죽음을 대신하겠습니다.” 하였다. 출산을 하니 과연 아들이어서 여중이 맞바꿔 기르며, 이름을 박비(朴婢)라 하였는데, 성장한 뒤 자수하자 성종이 특별히 용서하고 일산(壹珊)으로 이름을 고쳤다.

『홍재전서』의 내용보다 더 상세한 기록들도 많다. 이극익(李肯翊, 1736~1806)의 『연려실기술』에는 아들 순(珣)의 아내 이씨(李氏)가 대구(大邱)에 사는 교동(喬桐) 현감 이철근(李鐵根)의 딸인데, 자칭하여 대구로 갔다고 되어 있으며,²⁾ 성종 때에 아버지 박순과 동서 사이인 이극균(李克均)이 경상도 감사로 와서 자수시켰다고 하면서, 지금 동지(同知) 박충후(朴忠後)가 그 자손이며, 부인 이씨는 관비가 되어 수절하며 평생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늦은 시기인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청장관전서』에는 아내 이씨가 사내아이를 낳고 비녀는 계집아이를 낳았고, 이에 서로 바꾸어 화를 피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박일산의 5대손 박송고(朴崇古, 1615~1671)가 편찬한 『육선생유고』의 「박선생사실」에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정리되었다. (<별첨 4> 「육선생유고」 「박선생사실」 중 박일산 출생 부분 참조)

박일산이 거주지로 택한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리(妙里)에는 조선 성종 10년(1479)에 박일산이 건립한 별당 건물 태고정(太古亭, 보물 554호)이 남아 있다. 현재의 건물은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불타서 일부만 남았던 것을

2) 대구의 관비로 갔다는 사실은 왕조실록과 다소 차이가 있다. 『세조실록』 2년(1456) 9월 7일의 기사에서 박팽년 가계의 부녀자들을 공신들에게 내린 기사는 아래와 같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부녀(婦女) 내에 … 박기년(朴耆年)의 아내 무작지(無作只) …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璉)에게 주고, 박팽년(朴彭年)의 아내 옥금(玉今) …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에게 주고, … 박인년(朴引年)의 아내 내은비(內隱非) … 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에게 주고, … 박순(朴詢)의 아내 옥덕(玉德), 박헌(朴憲)의 아내 경비(敬非)는 이조참판(吏曹參判) 구치관(具致寬)에게 주고, … 박대년(朴大年)의 아내 정수(貞守) …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봉석주(奉石柱)에게 주고, …” 하였다. 임신한 부녀의 경우 조치가 반복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다.

광해군 6년(1614)에 다시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발간된 『순천박씨 충정파보』에는 후손 박승동(朴昇東, 1847~1922)³⁾이 지은 「태고정기」가 실려 있어서 그 연혁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일산이 지은 옛 정자[舊亭]는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하여 소실되었고, 총관공[박충후]의 동생 판관공[朴忠緒]이 사돈인 창녕 조씨 조계원(曹繼元)과 함께 힘을 모아 왜군을 물리쳐서 사당(祠堂)을 구하였다. 뒤에 체찰사 윤두수(尹斗壽, 1533~1601)가 이곳을 찾았다가 시를 남겼다. 한편 윤두수의 『오봉본집(五峯本集)』에는 1598년 중국의 장수들이 이곳을 방문했는데, 박충후가 장졸들을 3일 동안 공궤(供饋)하므로, 이에 감복받은 명나라 장수들이 그 보답으로, 시를 짓고 정자 뒤편의 들판을 개간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그 밭을 독전(蠶田)이라 한다. 그 후 3세(世)가 흘러 금산공[박승고] 때에 정자 이름을 지었다. 익찬공[朴崇古]-익위공(翊衛公)-청안공[朴慶餘]-도사공[朴光胄]-관찰사공[朴基正]-현감공[朴海昇]에 이르기까지 벼슬살이 때문에 서울에 살거나 (박팽년 부인의 묘소가 있는) 충주에 우거(寓居)하여,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아서 황폐하게 된 채로 거의 100년이 지나는 동안 중수하지 못하였는데, 1890년 중종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중수하기에 앞서 기문을 쓴다'고 하였다.⁴⁾ 창건 당시부터 태고정은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박팽년 가계, 즉 충정공파 종손은 충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무렵부터 박팽년 부인의 묘소가 있는 충주에 종손이 거주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충주에는 청안현감을 지낸 박경여(朴慶餘, 1651~1715)가 처음으로 묘소를 정하고 있다.

현재 '太古亭'이라는 글씨는 석봉 한호(1543~1605)가 쓴 것이라 전해진다. 그러나 정자 이름을 지은 박승고(1615~1671)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후대에 집자(集字)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태고정에는 '일시루(一是樓)'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연유로 '일명 일시루라고도 한다'고

3) 1862년의 임술보(壬戌譜)의 간행을 주도한 박문현(1798~1875)의 손자이다.

4) 당시에 이곳을 찾은 명나라 장수는 서관란(徐觀瀾), 진효(陳効), 정응태(丁應泰), 양조령(梁祖齡) 등이며, 조선 조정에서는 신점(申點, 1530~?), 이호민(李好閔, 1553~1634), 윤국형(尹國馨, 1543~1611), 백유함(白惟咸, 1546~1618), 소광진(蘇光震, 1566~1611) 등이 함께 하였다. 참고로 『순천박씨 충정파보』에는 백유함을 백유성(白惟成)으로 오기하고 있다. 『연려실기술』 권17 「선조조 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에 의하면, '무술년(1598) 9월에 정응태와 서관란(徐觀瀾)과 진효(陳効) 등이 여러 명장의 공과 죄를 감정하고, 아울러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 길을 순시하면서 싸움을 독려하였다'는 기사가 확인된다. 『오봉집(五峯集)』 권3에는 이곳을 방문했던 이호민이 지은 시와 더불어 그 연유를 세주(細註)로 기록하고 있다. 萬曆二十六年十二月十七日 欽差東征徐給事觀瀾 陳御史効 梁按察祖齡 丁主事應泰 給事接伴申點 御史接伴李某 布政接伴尹國馨 王事接伴白惟咸 御史接伴從事蘇光震 相從過大丘河濱朴忠後莊 朴君迎勞甚勤 相與題名如右. 朴氏忠賢後 河濱舜所陶 今朝繡衣過 是處里門高 水繞開林館 山回隱節旄 從今天下士 談勝數江阜.

알려져 있으며, 안평대군(1418~1453)이 쓴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박팽년 생전에 안평대군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도 될 듯하다. 한편 태고정의 대청에는 임진왜란 후 체찰사로 온 윤두수의 한시를 새긴 현판⁵⁾과 당시 명나라 장수들이 지은 시문을 새긴 현판이 걸려 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유적은 위와 같으나, 종종 차원의 활동은 전하는 바가 없다. 그 움직임은 박일산의 증손자 박충후 때에 비로소 가시화되었다.



대구 못골 태고정



대구 못골 태고정 현판

나) 박팽년의 5대손 박충후의 행적과 현양사업

『연려실기술』 등의 기록에 언급되는 박팽년의 5대손 박충후(朴忠後)는 대구에 살면서 천역(賤役)을 담당하다가 대구부사(府使)로 재직하던 반남 박씨 박응천(朴應川, ?~1581)⁶⁾에 의하여 천역을 면하고, 선조 때 관직을 제수받았던 인물이다.⁷⁾ 그리고 『선조실록』 36년(1603) 4월 21일과 40년(1607)

5) 후술하게 되겠지만, 태고정에 전하는 윤두수의 시문은 하빈사를 침범한 왜군들이 사우를 범하려 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실을 읊은 것이다. 『莊陵史補』(규장각, 古 4250-55). 龍蛇之變 倭奴欲毀河濱祠以火以斧 終不能毀 火迹斧痕尚今宛然 體察使尹斗壽詩曰 亂後人家百不存 數間祠宇倚山根 神明自是蒼天佑 虜火何能震廟魂[舊誌]. 이 시는 또한 『오음유고』에 실려 있는데, 대구의 박 참판(參判 즉 박팽년)의 사당에 들려 지은 것이라 하였다.

6) 본관은 반남(潘南). 이정형(李廷馨, 1549~1607)의 『동각잡기(東閣雜記)』에는 박응천(朴應天),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에는 박응주(朴應周)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부사를 역임한朴應天 또는 朴應周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구에 있었던 연경서원(研經書院) 또한 1564년 대구 부사로 재임하는 박응천의 도움을 받아서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응천은 1543년(중종 38) 성균시에 합격하여 봉산군수(鳳山郡守)로 재직할 당시 도적떼인 임격정(林巨正)의 무리까지도 꺼릴 정도로 군민을 잘 보살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우 응순(應順)의 딸이 선조의 비(妃) 의인왕후(懿仁王后)이다. 『국조인물고』에는 그의 아들 박동현(朴東賢)은 우계 성혼과 율곡 이이에게서 배웠다고 하였다.

7) 조선 후기 천역(賤役)은 군역(軍役)을 지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연려실기술』에는 “공[박팽년]의 현손(玄孫) 계창(繼昌)이 선조 신미년(1571)에 처음으로 녹용의 은전(恩典)을 입어서 소격서(昭格署) 참봉을 제수 받았으며, 일찍이 계창이 공의 기제사날 꿈에 여섯 사람이 사당 문 밖에 와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깨어나서 곧 여섯 분의 제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박충후의 아버지가 이미 벼슬을 받은 셈이고, 그럼에도 그 아들 박충후에게 군역을 지웠다든 뜻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관한 사료에서 박계창의 더 이상의 행적은 확인하기 어렵다.

윤6월 19일 기사에도 박팽년의 후손 박충후가 태안군수와 함안군수를 역임한 사실이 실려 있다. 그런데 모두 탄핵을 당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과는 다르게, 박충후는 임진왜란 당시 대구 팔공산에서 서사원(徐思遠, 1550~1615)⁸⁾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곽재우와 함께 창녕의 화왕산성을 방어할 때 참여했던 의병장이다. 아우 박충윤(朴忠胤)도 의병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1607년 박충후가 함안군수로 재임할 당시, 한강 정구(鄭述, 1543~1620), 망우당 곽재우(郭再祐, 1552~1617), 여헌 장현광(張顯光, 1554~1637) 등이 함께 박충후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용화산하동범록(龍華山下同泛錄)」에 전하는데, 그 안에 35인의 명단이 수록되었고, 앞 부분에는 4인을 별도로 언급하였다. 박충후는 그 앞 부분에 장현광보다 앞에 3번째로 실려 있어서 박충후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⁹⁾

박종남 또한 임진왜란 당시 군공을 세웠고, 특히 광해군이 이끄는 소조(小朝)를 시위한 공으로 1613년(광해군 5) 위성공신(衛聖功臣)으로 녹훈되었다.¹⁰⁾ 아버지 형제가 의병장으로 명성을 높였고, 아들은 군공을 세워 공신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대구에 정착한 박일산 가계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실제로 박충후의 아들 박종남이 사망하였을 때, 청음

8) 본관은 달성(達城) 정구(鄭述)의 문인으로, 선조 때 학행으로 김억·찰방을 지내고, 1595년(선조 28)에는 청안현감(淸安縣監)에 부임하여 학문의 진흥과 후진양성에 힘썼으나, 그뒤 옥과현감(玉果縣監), 연기현감, 형조·호조 정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모두 응하지 않았다. 대구의 이강서원(伊江書院), 청안(靑安)의 구계서원(龜溪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약재집」이 있다.

9) 「망우당집」은 3차에 걸쳐 간간되었다.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된 '망우당선생문집책판(부)칭의록책판'(忘憂堂先生文集冊板(附)倡義錄冊板)은 제3차로 후손 곽진남(郭鎭南) 등에 의해 기간본(既刊本)과 부록을 합쳐 5권 4책으로 증보(增補)하여 영조 47년(1771)에 간행한 것이다. 부 칭의록 책판(附 倡義錄 冊板)에는 임진왜란때 곽재우가 의령에서 칭의할 때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인 용미응모록과 정유재란 때인 1597년 7월 21일 곽재우와 함께 창녕 화왕산입성(火旺山入城)을 방어했던 경상도 열읍의사(列邑義士)들의 명단인 화왕산성동고록(火旺山城同苦錄) 및 화왕수성각(火旺守城閣)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임자생으로 대구 하빈(河濱)에 사는 박충후(朴忠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1757년 박상질(朴尙節)이 편찬한 「기락편방(沂洛編芳)」(奎 12657)에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정구, 장현광, 곽재우 등이 낙동강과 풍영대(風詠臺)에서 놀던 일을 엮은 책이다. 그 가운데 「용화산하동범록(龍華山下同泛錄)」과 「용화제현행적(龍華諸賢行蹟)」이 실려 있는데, 「용화산하동범록」에는 정구를 비롯한 35인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정구, 곽재우, 박충후, 장현광의 순으로, 4명은 휘(諱)·자(字)·호(號)·시(諡)의 순으로 작서(爵序)에 따라 첫머리에 적고, 이하는 나이 순서로 적고 있다. 끝에는 모임[會集]의 시기가 1607년(宣祖 40) 3월 28일임을 밝혔다. 「용화제현행적」에는 35인 중에서 34인의 행적을 행상이나 묘갈명 또는 「해동명신록」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서사원(徐思遠)이 지은 묘갈명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박충후는 무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은 부총관(副總管)으로 나와 있다. 한편 1586년부터 1588년까지 함안군수를 지냈던 정구가 지은 「함주지」에는 박충후가 1605~1607년 사이에 함안군수로 재임했던 당시 정구가 내려와 장현광과 함께 곽재우의 침입지에서 하루 밤을 자고 배를 타고 도홍나루로 오는데 당시 함안 군수였던 박충후가 마중을 나왔다는 기록이 있다. 참고로 「용화산하동범록」에 실려 있는 인물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10) 위성공신의 훈적은 인조반정 후에 일괄 삭제되었다.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만사를 지었고, 또한 그 만사가 『청음집』에 실린 것도 그러한 사회적 지명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후손들이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이 당시까지 박팽년이나 사육신을 직접 거론하는 일은 쉽게 용인되지 않는 듯하다. 『인조실록』 9년(1631) 10월 12일 이미 사망한 박종남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익령군(益寧君) 홍서봉(洪瑞鳳, 1572~1645)이 ‘박종남은 박팽년의 후손으로 그 아버지와 숙부가 선조(先朝) 때에 전교를 받아서 관직을 제수받았는데, 자신은 아무리 충신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재주가 없으면 의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하여, 인조가 ‘박팽년이 충신이라는 이야기는 더욱 놀랍고 괴이하니, 우선 추고하라’는 지시를 내린다.¹¹⁾ 결국 홍서봉은 이 일로 인하여 체직되기까지 하였다.¹²⁾ 그럼에도 김상헌이 박종남의 만사를 지은 일이나 홍서봉이 박팽년을 충신으로 언급한 일로 짐작할 수 있듯이, 일부 정치세력은 이미 사육신에 평가를 달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조 박팽년을 위한 직계 후손의 노력은 박충후의 아우 박충윤(朴忠胤)으로 이어진다. 그의 아들 박종우(朴宗祐, 1587~1654)가 지은 「취금현선생사적세손 문견록(醉琴軒先生事蹟世孫聞見錄)」에 의하면, ‘자신의 아버지 박충윤이 70세가 넘게 장수하면서 선조의 옛 일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자신은 한강 정구와 낙재 서사원으로부터 배우면서, 두 선생에게 문의한 결과 불천위로 모실 수 있다는 응답을 들었고, 이에 박팽년을 불천위로 모시게 되었다’고 하였다.¹³⁾ 박종남과 박종우는 박팽년의 6대손이었으니, 일부 5대손에 해당하는 방계 혈족이 생존해 있었겠지만, 본손은 이미 5대를 넘어서 신주를 매안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기제가

11) 원문은 다음과 같다. … 朴宗男云者 是朴彭年之後 其父·其叔 皆以先朝錄用之教 除職 臣以爲雖是忠臣之後 別無著稱之才 終不擬望 … 其中朴彭年忠臣之說 尤極駭異 姑先推考 …

12) 『국조인물고』에 의하면, 홍서봉이 비록 병자호란 때에 화의파에 섰으나, 어릴 때부터 북저(北渚) 김류(金瑬, 1571~1648)와 청음 김상헌과 교유하면서 세 사람이 모두 정승 자리에 오르면서 번갈아서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13) 『연려실기술』에도 박송장(朴崇章)이 남긴 “한강(寒崗) 정구(鄭逵)가 말하기를 ‘사대부 집에 훈공이 있어서 군을 봉한 조상은 오래 시조가 되어서 조천(桃遷)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선생의 사업은 어찌 봉군 뿐이겠는가’ 하며, ‘영원히 조천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정식(定式)삼았다.” 내용을 수록하였다. 박송장은 박종우의 아들이다. 한편 정구(鄭逵, 1543~1620)는 퇴계와 남명 두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며 학문을 익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변암 채제공을 비롯한 후대 퇴계학파에서는 그를 퇴계의 수제자로서 학통을 전수받은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그의 제자 미수 허목(許穆)을 통하여 퇴계학맥이 근기(近畿)지방으로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퇴계학파·남명학파와는 구별되는 강안학파(江岸學派)로 따로 분류될 만큼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박종우는 달성10현(達城十賢)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참고로 송시열은 뒤에 정구의 문인 허목(許穆, 1595~1682)과 다소 반목하기는 했으나, 정구와는 직접적 정치적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구가 41세가 되던 1583년에 후진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회연초당(檜淵草堂)은 뒤에 회연서원이 되었는데, 그 강당 왼쪽 협실의 문 위에는 1680년(숙종 6년)에 송시열이 서원을 방문하여 사당에 참배한 후 남긴 한시가 걸려 있다.

중단될 때가 된 것이고, 이에 선대 현양사업의 차원에서 스승인 한강 정구의 권위를 빌어서 불천위로 기제를 지내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¹⁴⁾

다) 박충후의 손자 박송고의 현양사업

박팽년에 대한 현양사업은 박충후의 손자 박송고에 의하여 다시 주도되었다. 그의 가장 큰 공은 지금까지도 노량진에 전해지는 사육신묘(死六臣墓,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8호)의 보수사업이다. 그는 조부 박충후 등이 쌓은 인맥을 통하여 우선 노량진에 있는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의 묘역에 대한 문의를 한다. 박송고가 처음 문의를 한 인물은 신독재 김집(金集, 1574~1656)인 듯하다. 박송고가 보낸 질문에 대한 김집의 답신의 요체는, '사육신의 묘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대로 방치한다면 후대에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터이니, 방치되고 있는 묘역을 보수하여야 하며, 이미 쓰러져서 글자를 판독하기 힘든 묘비와는 별도로 묘비를 새로 세워서 뒷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혹여 지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 묘소를 보수할 때에는 각 묘 남쪽 한 걸음 되는 지점을 파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별첨 5〉 노량진 전(傳)사육신 묘 관련 자료 참조)

김집이 답신을 보낸 때는 1639년였다. 당시 김집은 동부승지 겸 경연참찬관이 되어 경연에서 『시경』을 강하다가 체직되어 산직인 호군(護軍)에 단부되면서 연산으로 돌아와서 머물던 시기였다. 1631년에 이미 아버지 김장생은 별세하였고, 아버지를 이어서 66세의 나이로 율곡 학통을 대변하던 시기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김집의 이런 위상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박송고는 거의 전적으로 김집의 의견을 따라서 노량진의 묘역을 보수하였다.

물론 박송고의 처신은 신중하였다. 1639년에 김집에게 물은 후에도, 다시 1645년 청음 김상헌에게도 물었고, 택당 이식(李植, 1584~1647)과 백헌 이경석(李景奭, 1595~1671)에게도 질의를 하여 묘소를 보수하는 일만은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미수 허목의 답신은 더욱 구체적이다. 사육신의 묘역이 위치한 곳이 선대부터 집안의 정자[二憂亭]가 있었던 곳이고,¹⁵⁾ 자신의 아버지[許喬]가 묘소를 돌본 인연도 있었다고 하였다. (〈별첨 5〉 노량진

14) 현재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육신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사람은 일산의 손자인 계창(1523~1571)이다. 고조부인 박팽년의 제사를 지낸 뒤 잡이 들었는데, 꿈속에 사육신 중 나머지 5분이 초채한 모습으로 나타나 사당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고, 이에 박팽년을 제외한 나머지 5분의 제사를 함께 지내기로 했다고 한다.

15) 『기언(記言)』 제41권에 실려 있는 찬성공(贊成公) 묘비에는 선대에 허자(許磁)가 서호(西湖)에 있는 이우정(二憂亭)에 온거한 사실이 실려 있다.

전(傳)사육신 묘 관련 자료 참조) 더욱이 박승고의 조부 박충후는 허목과 함께 한강 정구의 문인이었다.¹⁶⁾ 이러한 인연 때문인지, 박승고는 1651년 허목으로부터 묘비문[六臣疑塚碑]을 청하여 받기도 하였다. (<별첨 5> 노량진 전(傳)사육신 묘 관련 자료 참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박승고는 다만 묘소를 보수하고 묘비를 새로 세우는 일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허목으로부터 받은 묘비문은 건립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단종이 추송된 이후인 1708년 송준길의 문인인 약천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이 쓴 육신묘비(六臣墓碑)에 자세하다. (<별첨 5> 노량진 전(傳)사육신 묘 관련 자료 참조)

라) 순천박씨 충정공파의 족보 간행 및 사우 건립

1651년 미수 허목으로부터 육신의충비문을 받은 박승고는 사망하기 1년 전인 1670년 세보(世譜)를 편찬한 후에 송시열에게 서문을 청하여 받는다. 그 내용은 송시열의 『송자대전』에 실려 있다. 그 내용 가운데 순천박씨를 대표하는 두 인물, 즉 박팽년과 더불어 중종반정의 주역이었던 박원종을 비교한 내용이 있어서 주목을 끈다.

평양박씨가 세상에서 이름을 떨친 것은,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원종(元宗)과 참판공(參判公) 휘(諱) 팽년(彭年) 때문이다. 평성부원군은 혼주(昏主 즉 燕山君)를 폐하고 중종을 보필해서 기묘년간(己卯年間)의 문명(文明) 시대를 열었으니 그 공로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어찌 문장(文章)과 절의(節義)가 우주(宇宙)에서 빛나서 조선(祖先)과 종척(宗戚)들이 모두가 그 광휘(光輝)를 입게 한 참판공만이야 하겠는가? 그러므로 평양 박씨는 관작(官爵)의 융성함과 자손(子孫)의 번창함은 비록 타족(他族)만 못할지라도 남들이 사모하고 존송하는 것은 도리어 타족들이 미칠 바가 아닌 것이다.

중종반정의 주역인 박원종의 공보다 절의를 지키기 위하여 단종 복위운동을 벌이다가 죽음을 당한 박팽년을 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다. 송시열이 견지했던 가치관으로서의 정통론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¹⁷⁾

16) 20세기 접어들 무렵까지도 박일산의 가계는 정구의 학맥을 이은 것으로 자부했던 듯하다. 1903년 경상도 상주에서 정구의 학통을 이었음에도 퇴계학파의 정통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한주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의 문집을 불사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 순천박씨 충정공파의 박해령(朴海齡)이다.

17) 박팽년에 대한 송시열의 관심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2007년 발간된 『순천박씨 충정공파보』에는 “선생의 호가 취금현(醉琴軒)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암집』에서 말하기를 ‘취금(醉琴)은 선생의 별호(別號)가 아니고, 선생의 사위인 영풍군(永豊君)의 호이다. 영풍군이 선생이 쓰신 천자문 책에 취금이란 인장을 찍어서 세상에 간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선생의 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하였다. (公號世稱醉琴軒 而尤庵集曰 醉琴非先生別號 先生婿永豊君之號也 永豊於先生所寫千字書 標以其醉琴印章 而行於世 故世人誤認爲先生號)

십지어는 1677년 박팽년 방계 지파인 전라도 광주에 세거하는 문숙공파 후손이 주도한 파보(『경신보』)의 서문에서도 “내가 회덕(懷德)에 있으면서 매양 참판(參判) 박 선생(朴先生, 朴彭年)의 유허(遺墟)를 지날 때마다 반드시 그 당시의 자취를 더듬으며 감회에 젖곤 하였다.”고 글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문숙공파의 선대에 대한 언급을 한 후에 다시 “내가 남의 집안 족보를 많이 살펴보았는데, 현달(顯達)하고 번성한 집안이 진실로 적지 않았지만, 참판 선생(박팽년)만큼 훌륭한 어른이 계신 집안은 대개 몇 집 안 되었다.”고 강조를 하였다.

당시 박승고의 세보(世譜) 간행은 박팽년을 파시조로 삼는 충정공파와 더불어 회덕에 세거하는 박이생의 후손[인의공파와 부위공파]이 함께 추진하였다. 그러나 서문을 받은 이듬해 박승고의 죽음으로 세보 발행은 중단되면서 초보(草譜) 형태로 전해진 듯하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그의 손자 박경여(朴慶餘)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성사되지 못했고,¹⁸⁾ 결국 115년이 경과한 1785년에 이르러서 박승고의 6대손 박기정(朴基正, 1748~1801)이 주도로 비로소 발간되었다.¹⁹⁾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박원상 가계의 족보 간행은 뒤로 미루어졌고, 순천박씨의 첫 족보는 박원룡 후손 중에서 전라도 광주로 이거한 박이공(朴而恭)의 7대손 박광후이 주도한 간본이 되었다. 참고로 박광후 또한 송시열의 문인으로, 그는 송시열이 유배되었던 장기까지 찾아가서 제자의 예를 올린 후에 서문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론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박팽년과 더불어 사육신을 함께 모시는 제향은 박일산의 손자인 박계창(1523~1571)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손자인 박종우의 노력에 의하여 박팽년에 대한 불천위 기제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사우의 건립으로 이어진다. 육신사의 연혁과 관련해서, 박승고가 간행한 『단계유고(丹溪遺稿)』의 「원향록(院享錄)」에는 낙빈서원(洛濱書院)이

18) 박경여는 권화(權和)와 더불어 『장릉지(莊陵誌)』 간행을 주도하였다. 1711년(숙종 37) 당시 영월부사 윤순거(尹舜擧)가 편찬한 『노릉지(魯陵誌)』 2권을 구지(舊誌)라 하였는데, 구지인 『노릉지』에는 1441년(세종 23)부터 1653년(효종 4)까지의 사실은, 새로이 추가된 속지에는 1662년(현종 3)부터 1740년(영조 16)까지의 사실을 수록하였다. 그 필법은 세조에 아부하던 당시 사관들의 곡필기록(曲筆記錄)과는 엄연히 다른데, 예를 들면, 『세조실록』에는 “임금이 금성대군(錦城大君)을 사사(賜死)하자, 노산군이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예절을 갖추어 장사지냈다.”고 하였으나, 『장릉지』에는 “세조 3년(丁丑年) 10월 24일 유시(酉時)에 공생(貢生)이 활끈으로 노산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였다. 노산군의 옥체는 청령포(淸冷浦)의 강물에 던져 버린 것을 영월호장 엄흥도(嚴興道)가 몰래 거두어 영월군 북쪽 5리쯤의 동을지(冬乙旨)에 매장했다.”고 하였다.

19) 2007년 발간된 『순천박씨 충정공파보』에는 박승고가 송시열에게 받은 서문을 「구초보원서(舊草譜原序)」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숙종 기미년, 즉 1679년에 창건하고 갑술년(1694)에 사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²⁰⁾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임진왜란 이후 ‘하빈사(河濱祠)’를 방문한 윤두수(尹斗壽, 1533~1601)가 지은 시문을 고려할 때, 불천위로 모시는 박팽년을 제향하는 하빈사라는 사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2007년의 『순천박씨 충정공파보』에 의하면, 낙빈서원(洛濱書院)은 1679년 정구가 박팽년을 제외한 5분의 제향은 일반 사가에서 향사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별묘(別廟)를 세우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따라서 박팽년을 제향하는 사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낙빈사(洛濱祠)를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694년에 이르러 그 별묘에 ‘낙빈’이라는 이름이 사액되었다.²¹⁾ 참고로 『송자대전』에는 낙빈사를 포함하여 사육신을 모시는 여러 곳의 사우 또는 서원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박팽년 방계 혈족의 동향

대구 못골 박팽년의 직계 후손들이 박팽년에 대한 신원, 사우의 건립, 그리고 파보의 간행 등에 심혈을 기울이는 동안에, 여러 지역에 세거하는 다른 지파에서도 종종 형성과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배후에도 공교롭게도 노론의 거두 송시열이 있었다. 충청도 회덕의 박이생의 가계, 박원룡의 후손으로 전라도 광주에 세거하던 박이공의 가계의 몇 후손들은 모두 송시열의 문인으로 스승에게 선대의 비문(碑文)이나 족보의 서문을 청하면서, 후손들의 결집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갔다.

가) 회덕현에 세거했던 박이생 가계와 송시열의 문인 박세징의 죽음

1665년 송시열은 회덕에 있는 순천박씨의 중시조 박숙정(朴淑貞)의 큰 아들 박원상(朴元象)의 묘표(墓表)를 지었다. (동구 대별동 산12-26, 시 문화재자료

20) 『연려실기술』 「사전전고(祀典典故)」에는 ‘낙빈서원(洛濱書院)이 을미년에 세워졌고 갑술년에 사액하였다’고 하였다. 참고로 현재 인터넷에는 1691년 또는 1692년(숙종 임신년) 낙빈서원(洛濱書院)으로 사액받았다는 기록도 다수 확인 되는데, 본고에서는 「단계유고」와 『연려실기술』의 기록을 따르고자 한다.

21) 낙빈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9년(고종 6)에 훼철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복원되었고, 1974년부터 1975년 사이에 ‘충효위인 유적정화사업’에 의하여 육신사로 개명되면서 정비사업이 추진되었고, 1979년에는 사육신 기념비가 건립되었다. 현재의 경내에는 5칸의 송절당(崇節堂)과 태고정(太古亭) 등이 있는데, 묘우(廟宇)인 송절당에는 사육신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태고정은 강당 겸 재사(齋舍)로 사용되고 있다. 충효당(忠孝堂) 또한 1644년(인조 22) 박송고가 건립한 별당인데, 1995년 현재 위치로 이건하였고,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충효와 법도를 가르치는 교육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42호, <별첨 7> 고려 전서 박공 묘표 참조) 그런데 송시열은 박원상의 묘표에서 그의 후손들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송시열이 지목한 박원상의 아들은 4형제[首生, 長生, 安生, 易生]이고, 손자는 5명[根, 樞, 楫, 仲林, 榮林]이며, 증손자는 6명[彭年, 引年, 耆年, 大年, 得琴, 成琴]이다. 순천박씨 종중이 형성되기 이전으로 추정되지만, 각 가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파들을 거론하는 셈이어서 주목을 끄는 것이다.

그런데 송시열이 거론한 아들과 손자 그리고 증손자는 『문화유씨 가정보』는 물론이고, 순천박씨 집안에서 발행한 여러 족보, 즉 1785년 박기정이 정리한 『을사보』 또는 2007년 간행된 『순천박씨 충정공파보』 와도 그 내용이 일부 다르다. 어느 종중과 마찬가지로, 소식이 끊기거나 또는 지파 사이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족보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반대로 후대에 새롭게 확인된 지파를 포함시키기도 하는 등 족보 편찬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상술하게 될 것이다.²²⁾

이후에도 송시열은 순천박씨 가문의 일에 계속 간여한다. 인용문에 등장하는 박세징(朴世徵, 1634~1679)이 자신의 문인으로, 자신으로 인하여 죽었던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²³⁾ 그리고 송시열은 박원상의 묘표의 글을 지은 3년 후인 1668년에는 박팽년 선생의 유허비문을 지었다. 『송자대전』에 실린 비문을 보면, 당시 회덕에 사는 순천박씨의 지파는 박안생의 아우 박이생의 후손들이다.

오직 이 흥농촌(興農村) 옥죽구(玉竹丘)는 회덕현의 남쪽 경계인데 옛날부터 서로 전하기를, 고(故) 평양(平陽) 박팽년 선생의 유지(遺址)라고 한다. 거기서 조금 북쪽으로 몇 걸음 가면 벼밭 가운데 주춧돌이 있는데, 이것은 선생의 연정(蓮亭)이라 하며, 또 그 북쪽으로 몇백 보를 가면 바로 선생의 종부(從父)인 전농(典農) 근(根)의 처묘(妻墓)이며, 그 묘에서부터 서쪽으로 2리쯤인 석남촌(石南村)에 가면 박씨의 종족(宗族)들이 많이 사는데, 바로 박 선생의 종조부(從祖父)인 판관(判官) 이생(易生)의 자손(子孫)이다. 그리고 석남촌(石南村)에서부터 남쪽으로 15리쯤인

22) 한편 박원상의 묘표를 보면, 1665년에 송시열이 박원상의 묘표의 글을 짓기 전에도, 박이생 가계의 인의공파의 박원상의 6대손인 생원 박응신과 부위공파의 감목관 박섬(1612~1704)이 주도하는 종사(宗事)가 있었던 일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가 순천박씨 가계에서 종중을 조직화하는 일을 시작한 때로 보아도 될 듯하다. 정확한 시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박섬의 생몰년도로 판단컨대, 그 시기는 앞에서 언급한 외손 신열도(申悅道, 1589~1659)가 족보의 발문을 쓸 때인 1600년대 초반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23) 1679년 송상민(宋尙敏, 1626~1679)이 송시열 선생의 예론(禮論)을 동조하는 상소를 올린 일이 있었다. 1674년 효종의 비 인선대비가 죽은 후에 복제 문제가 불거졌고, 그로 인하여 송시열은 덕원으로 유배당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문인인 송상민이 송시열 선생의 예론을 변호하는 책을 올렸던 것이다. 이에 당시 영의정이었던 남인의 영수 허적(許積, 1610~1689)의 탄핵을 하였고, 마침내 궁중에서 매를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송상민이 올린 책을 옮겨 적은 인물이 박세징이었고, 박세징 또한 동조하였다는 죄명으로 갇혔다가 옥사하였던 것이다.

공주(公州) 돈이동(遯頤洞)은 바로 선생의 증조인 전서(典書) 원상(元象)의 묘인데, 효종조의 연신(筵臣) 송준길(宋浚吉)이 사당을 회덕에 짓고 제향하라고 명하기를 청하니, 상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상신(相臣) 충정공(忠貞公) 이후원(李厚源)에게 내리니, 이후원이 세조대왕의 '만세충신(萬歲忠臣)'이란 교서를 인용하고 또 황조(皇朝)의 우 소보(于少保)의 고사(故事)를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나, 다만 조정의 의논이 한결같지 않아서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식자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이 유지(遺址)가 황폐되고 파묻혀서 거의 식별할 수 없게 되었다. … 고을의 기로(耆老)와 장보(章甫)들이, 더욱 오래되매 더욱 그곳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조그마한 돌을 세워 표지(標識)를 해 놓았으니, 후다행스럽게도 훗날에 성고(聖考)의 뜻이 과단성 있게 행해지고 막힘이 없다면, 어찌 꾸지나루와 산뿡나무를 베어 버리고 문정(門亭)을 일으켜 세워서 그 옛터를 회복하는 일이 없겠는가? … 송정(崇禎) 무신년(1668, 현종9) 4월 22일에 쓴다.²⁴⁾

송시열은 또한 박세징의 사후에 그의 묘지(墓誌)를 썼는데, 그 내용에 선대의 연원과 거주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묘지도 『송자대전』에 실려 있다.²⁵⁾

… 송정 기미년(己未年, 1679) 3월에 윤휴(尹鑄)·권대운(權大運) 등이 상소한 사람 송상민(宋尙敏)을 죽였는데, 이때 그 죄의 관련이 군[박세징]에게 미쳤다. … 그해 4월 초하룻날에 마침내 옥중에서 죽었다. … 고려 때 박원상(朴元象)은 공조전서(工曹典書)이었는데, 본조의 참판 박팽년이 그 증손이다. 참판이 순절하고 멸족하였으며, 군의 선조(先祖)가 그 가까운 족속이므로 또한 연좌로 폐고(廢錮)되어 떨치지 못하였다. 증조 박응신(朴應臣)은 생원이고 할아버지는 박근인(朴近仁)이고 아버지는 박상란(朴尙蘭)이며 어머니 윤씨(尹氏)는 정랑(正郎) 윤승현(尹承賢)의 딸이다. 군은 대대로 회덕 성남리(城南里)에 살았는데, 전서(典書)의 묘소를 수선하고 참판의 비석을 세운 것은 군이 모두 그 성심을 다한 것이며, 군의 무덤은 그 묘소의 북쪽, 비석의 동쪽 설랑리(雪朗里)의 선대 묘역에 있다. … 송정 기미년(1679) 10월에 쓰다.²⁶⁾

24) 懷德朴先生遺墟碑：惟此興農村玉竹丘者 懷德縣治之南境也 自昔相傳以爲故平陽朴先生彭年之遺址也 其少北若干步 有石礎在稻田中 謂是先生蓮亭也 又其北幾百步 卽先生從父典農根之妻墓也 自其墓西去二里許石南村 朴宗多居之 卽先生從祖判官易生子孫也 自村而南十五里許公州遯頤洞 卽先生曾祖典書元象墓也 孝考朝 筵臣宋浚吉請命祠享于懷 上不以爲不可 下其事相臣李忠貞公厚源 引世祖大王萬世忠臣之教 … 識者恨之 顧茲遺址荒蕪埋廢 殆不可辨識 朱夫子所歎沼平臺傾 鞠爲灌莽 而樵兒牧子嘯歌躑躅於其上者 正謂是爾以故鄉人惻愴 行路咨嗟 至有泣血者 夫使人心如此者 不知其何故也 縣之耆老章甫 懼彌久而彌失其處 立小石以識之 倘幸後日聖考之意 果行無闕 則豈無攘剔壓柘 起立門亭 以復其舊者乎 先生事蹟 略見於南秋江所記 欲知先生者 斯可考焉 時崇禎戊申四月二十二日。

25) 『송자대전』에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또 다른 글이 수록되어 있다. 『宋子大全』 卷148 書興龍碑閣事實後. 此事實一冊 朴君世振與其弟世輝 世徵哀稔而成之者也 此兄弟乃先生旁親 而居在石南村 石南之東距王竹僅一喚也 朴宗多居焉 石南之南數十里 有遯頤洞 卽先生曾祖元象之藏 而世振等亦其出也 與諸宗歲修一祭 且豎石以識之 先生而有知 亦必嘉悅而蔭覆之矣 然而世徵乃罹刑禍而死 豈亦氣類之相符而然歟 此事始終 此兄弟殫盡十分心力 而今乃不幸如此 此事恐遂衰怠 仍至於廢弛也 然秉彝好德之心 無間於戚疏 今後則愚之所過慮 終必不然矣 時屠維協洽冬短 華陽洞主書.

현 대전시 성남동은 박이생-박영립으로 이어지는 가계의 세거지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가계에서는 대구 못골로 이거한 박중림-박팽년 가계의 박승고와 함께 세보의 간행을 추진하였으나, 송시열로부터 서문을 받은 이듬해 박승고의 사망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현재 박영립의 아들 박득금(朴得琴)의 후손들은 인의공파(引儀公派)이고, 아우 박성금(朴成琴)의 후손들은 부위공파(副尉公派)를 이룬다.²⁷⁾ 현재 박원상의 장남 수생(首生)과 차남 장생(長生) 및 그 후손들의 묘는 청주, 음성, 회인(懷人) 등지에 산재하고 있고, 다만 수생의 아들 근(根)의 부인의 묘만 회덕에 전한다.

나) 전라도 광주 문숙공파와 청주 교리공파가 함께 한 합보(合譜) 간행

순천박씨 선대 계보에 대한 정리는 또한 16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전라도 광주에 사는 박원룡 가계의 후손 박광후²⁸⁾에 주도되었다. 박광후는 회덕의 박세징과 마찬가지로 송시열의 문인이었는데, 1675년 스승이 유배를 당했을 때 광주·나주·장성의 세 고을 유생들과 연대하여 구명운동을 펼치다가 옥고(獄苦)를 치렀고, 1677년에는 동문수학했던 족제(族弟) 박광일(朴光一, 1655~1723)과 함께 장기에 유배당하고 있던 송시열을 방문하여 문인이 되는 예를 갖추고, 또한 순천박씨 족보 서문을 청하여 받고 돌아왔다.²⁹⁾ (<별첨 6> 순천박씨 족보 서문 참조) 그러나 경신보 간행은 박광후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무산되었다. 그리고 36년이 경과한 1713년 청주에 거주하는 박팽년의 아우 박인년의 후손인 박민창(朴敏昌)³⁰⁾이 계사보의 간행을 주도하였는데, 그가 쓴 발문이 순천박씨 송국재공파[교리공파의 지파] 문중의 홈페이지³¹⁾에 전재되어 있다. (<별첨 6>

26) 『宋子大全』 卷186 學生朴君墓誌：朴君世徵字子久 … 崇禎己未三月 讞·運等殺上疏人宋尙敏 時株連及君 … 有下賤梁宗健義而憐之 收視而周旋裹尸 其兄弟載以歸 改斂納棺而葬之 年四十六 配邊氏 二兒名正命·經 … 高麗時 有元象工曹典書 本朝 參判彭年 其曾孫也 參判殉節族夷 君之先以其近屬 亦坐廢不振 曾祖應臣生員 祖近仁 考尙蘭 母尹氏 正郎承賢女 君世居懷德城南里 修典書墓 立參判碑 君皆極其誠心 君之葬在墓之北碑之東 雪朗里之先塋也 … 崇禎己未十月日書.

27) 후술하겠지만 『상주초보』에는 '귀림의 아들은 성금, 영림의 아들은 득금'으로 되어 있다.

28) 박광후(朴光後, 1637~1678), 자는 사술(士述), 호는 안촌(安村), 병자호란때에 의병을 일으켰던 진사 칠줄재(七拙齋) 박창우(朴昌禹)의 손자이며, 박천용(朴天用)의 아들이다.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였으며, 1666년(현종 7) 사마시 생원 3등으로 입격하였다. 『안촌집(安村集)』이 전해진다.

29) 『송자대전』 어록(語錄)에는 박광일(朴光一)과 관련하여, '정사년(1677, 숙종3) 9월 27일에 내[박광일]가 족형(族兄) 광후(光後)와 함께 선생을 장기(長鬮)의 유배지로 찾아가 가친(家親, 즉朴尙玄)의 편지를 드리고 나서 속수(束脩)의 예(禮), 즉 예물을 올리고 문인(門人)이 되는 의식을 행하였다'고 하였다.

30) 박민창(朴敏昌, 1660~1719), 박인년의 후손으로 교리공파(校理公派)에 속한다. 임진왜란에 창의(倡義)한 박춘번(朴春蕃)의 현손으로 호는 송국재(松菊齋)이다.

31) cafe.daum.net/songgukje/Reer/4.

순천박씨 족보 서문 참조)

이처럼 박팽년의 직제인 충청공파의 박기정이 주도한 1785년 『을사보』를 간행 이전에 전라도 광주에 세거하는 박원룡의 후손, 그리고 박팽년의 아우인 박인년의 가계를 중심으로 일종의 합보(合譜)가 간행된 것이다. 물론 1713년 『계사보』가 발간되기 이전인 1691년 박팽년의 관작이 회복되었으므로, 큰 걸림돌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타 족보의 발간 양상

17~18세기에 파보가 붓물을 이루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추세는 여러 지파의 파보를 종합하는 합보(合譜) 나아가서 모든 지파의 파보를 망라하는 대동보의 발간으로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불명확한 선대와 후대로 이어지는 계보의 혼란상과 관련한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순천박씨의 경우, 1862년 『임술보』의 범례에는 당시까지 간행 또는 초본 형태의 순천박씨 여러 가계의 족보들이 망라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그러한 논란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언급이 있다.

우리 종중[吾宗]의 전후보(前後譜)에 ①첫째, 『구초보(舊草譜)』는 현종 경술(1670)에 비롯된 것이니 군수공(郡守公) 휘(諱) 숭고(崇古)가 닦은 초보(草譜)인데, 간행(刊行)을 하지 못하였고, ②둘째로 『광주파보(光州派譜)』라는 것은 안촌공(安村公) 휘 광후(光後)가 창시(創始)한 것을 참봉공(參奉公) 휘 광원(光元)이 보수(補修)해서 숙종 계사(1713)에 간행한 것이고, ③셋째로는 노성파보(魯城派譜)니 즉 도사공(都事公) 휘 성일(誠一)이 수보(修譜)하여 영조 을유(1765)에 간행한 것이며, ④넷째로는 『을사보』니 즉 참판공(參判公) 휘 기정(基正)이 생원공(生員公) 휘 하진(夏鎭)으로 더불어 『구초보』 및 『광주파보』에 의거해서 정조 을사(1785)에 간행한 것이니 교정(校正)이 정백(精白)하기가 제보중(諸譜中)에서 가장 근엄(謹嚴)한 것이다. ⑤다섯째로는 신사보초(辛巳譜草)니 통선랑공(通善郎公) 휘 응현(應鉉)이 증지평공(贈持平公) 휘 기영(基英) 및 휘 성보(聖補) 등으로 더불어 순조 신사(1821)에 수정(修整)하였으나 졸지에 하세(下世)하였으므로 성책(成冊)이 못되었으며, 다만 생원공과 검열공(檢閱公) 두 파중(派中)의 초본(草本)만 있고 여(餘)는 산일(散逸)되었다. ⑥여섯째로는 신묘파보(辛卯派譜)니 참판공(參判公) 휘 기굉(基宏)이 순조 신묘(辛卯)에 간행한 것이고, ⑦일곱째로는 『상주초보(尙州草譜)』니 금번(今番) 수보시(修譜時)에 상주종인(尙州宗人) 규화(圭和)가 연구(年久)한 초보(草譜)가 있다 하기에 사람을 보내서 가져와 보니 누구가 부집(裒集)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약(大約) 『구초보』와 『광주초보』로 대동소이(大同小異)한지라 2보(二譜)로 더불어 동시(同時)에 소수(所修)한 것으로서 『노성보(魯城譜)』 보다는 더 징빙(徵憑)되나 그 책양(冊樣)이 초술(草率)하고 선사(繕寫)가 미정(未精)하기에 남상(濫觴)된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일일이 취신(取信)할 수는 없고 그 외에 ⑧호남(湖南)에 문숙공파의

『신묘보』와 ㉠음성(陰城)에 또 제주목사공파의 『신묘보』가 동시에 간행된 것이 있으나 징신(徵信)하기는 미족(未足)하고 ㉡근년(近年) 양주(楊州)에서 간인(刊印)한 보첩(譜牒)이 있으나 계통(系統)을 바로 대지 못했기에 자손(子孫)을 잘못 갖다 붙이는 등 용잡(冗雜)이 태심(太甚)하기에 더욱 거론할 수 없다.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족보 가운데 『구초보』와 『광주파보』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거니와, 그 이후에도 여러 지파에서 파보를 간행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여러 지파의 계보를 종합하려는 노력, 즉 후대에 대동보(大同譜)라고 일컫는 족보의 발간사업으로 진전되는 양상이다. 그 노력의 중심에 충청공파 즉 박팽년의 혈손 가계가 있었다.

3. 충청공파 대중중의 형성과 대동보 발간

1) 충청공파 종손 박기정의 활동과 대동보 발간사업

박팽년은 숙종 17년(1691) 관작이 회복되었고, 영조 34년(1758)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박승고의 6대손 박기정(朴基正, 1748~1801)이 활동했던 시기는 이미 사육신이 신원 복권된 이후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박팽년이라는 선대를 현창함에 있어서 막강한 추진동력이 되었고, 나아가 국가적 지원까지 기대할 수가 있었다. 이 시기가 되면 순천박씨의 종사(宗事)는 거의 국사(國事)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기정은 박팽년의 직손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그는 음보로 현감을 지내다가, 정조 8년(1784)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는데, 정조로부터 사육신의 후예라는 총애를 받아 영월부사 등에 특별히 제수받는 영광을 누렸다. 1796년에는 왕명으로 이의준(李義駿)·이서구(李書九) 등과 함께 『장릉지(莊陵志)』를 교정하여 『장릉사보(莊陵史補)』를 편찬하였다. 글씨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장릉영천비(莊陵靈泉碑)의 글씨를 남겼고, 송시열이 쓴 영월의 「육신사기(六臣祠記)」가 퇴락하자 개판(改板)하기도 했다. 숙종 때 송시열이 강원도 영월에 있는 육신사(六臣祠)의 사기(祠記)를 모아서 엮은 『육신사기첩(六臣祠記帖)』(奎 10279)은 정조 15년(1791)에 박기정에 의하여 간행되었으며, 또한 강원도 관찰사 윤사국(尹師國, 1728~1809)과 더불어 『육선생묵묘첩(六先生墨妙帖)』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더 나아가 단종 복위운동과 관련하여 사육신과 함께 죽은 인물에 대한 실기류의 간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748년 호장 엄홍도의 후손 엄석헌(嚴碩憲)이 편간한 『증참판엄공실기(贈參判嚴公實紀)』(奎 1497)에도 박기정의

「개건후환안고유문(改建後還安告由文)」이 실려 있으며, 1805년 김문기의 후손 김치하(金致廈)가 『백촌충의김공유사(白村忠毅金公遺事)』(奎12648)를 중간할 때에도 발문을 썼다.

박기정은 선대를 현창하는 사업에도 힘을 쏟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팽년의 부인인 천안 전씨 전미(全彌, 생물 미상)의 따님(1417~1499)의 묘표를 세운 일이다. 2007년 발간된 『순천박씨 충정공파보』에는 천안 전씨가 1499년 충주의 관노비로 사망하였는데, 외손의 사위인 이양손(李襄孫)이 자신의 선산에 장례를 지내고 작은 비석을 세웠고, 세월이 오래되어 깨어졌으므로, 1784년 박기정이 다시 묘표를 세웠다고 하였다.³²⁾ 새로 세운 묘표는 우의정 이휘지(李徽之, 1715~1785)³³⁾가 짓고 박기정이 쓴 것이라 하였다.

박기정의 가장 두드러진 행적은 순천박씨 대동보를 간행한 일이다. 그 사업은 단순히 자신의 6대조 박승고가 못다 이룬 세보[庚戌譜]를 간행하는 일이 아니었다. 각 지파에서 발간된 파보들을 상호 비교하여 종합하는 작업이었다. 2007년 『순천박씨 충정공파보』에 실려 있는 옛 족보의 범례에는 “우리 종중은 예전에는 보첩(譜牒)이 없었고, 충정공파는 다만 현종 경술(1670) 연간에 만든 초보(草譜)와 문숙공파에서 또한 숙종 계사년(1713)에 간행한 파보가 있다. 그런 까닭에 이번 규모(規模)는 양보(兩譜)에 일준(一遵)하되, 충정공파 초보는 『구초보(舊草譜)』라 하고, 문숙공파의 간보(刊譜)는 『광주파보(光州派譜)』라고 칭하며, 서로 상세하고 소략함을 살피고, 그릇된 곳을 바로잡아서 책을 만들었다. 영조 을유년(1756)의 『니성간보(尼城刊譜)』는 선세(先世)의 계보를 잘못 파악하여 그릇되게 후손을 이었으므로 일체 거론치 않는다.” 하였다.³⁴⁾

32) 같은 내용이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의 문집 『청성집(靑城集)』 권9에 「영풍군부인박씨묘비(永豐君夫人朴氏墓碑)」에 실려 있다. 故永豐君諱瑒夫人順天朴氏葬在忠州德防枕突之原 夫人考刑曹參判贈吏曹判書諡忠正公彭年 祖吏曹判書贈左贊成諡文愍公仲林 曾祖牧使贈吏曹判書安生 妣天安全氏 都巡察使彌女 … 全夫人就學忠州 夫人無所歸 挈一女往依之 女嫁萬戶李襄孫 仍依其家 全夫人年八十三 沒於弘治己酉 李氏爲之葬 夫人以弘治八年乙卯卒 葬邇其母 李氏世護其塋 … 성대중의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호는 청성(靑城)이다. 아버지는 칠방을 지낸 성효기(成孝基, 1701~?)이다. 1756년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가 있었으나, 영조의 서얼통칭운동(庶孽通淸運動)에 힘입어 1765년 청직(淸職)에 임명되었다. 부분적으로 북학사상(北學思想)에 경도하여 홍대용(洪大容)·박지원(朴趾源)·이덕무(李德懋)·유득공(柳得恭)·박제가(朴齊家) 등과 교류하였다. 연경재(硯經齋)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은 그의 손자이다.

33) 노론의 핵심가문인 이경여의 증손으로, 1721~1722년의 신임사화 때 노론 4대신으로 극형을 받았던 이건명의 형 이관명(李觀命)의 아들이다. 이관명 또한 신임사화에 연좌되어 덕천으로 유배당한 바가 있다.

34) 吾宗舊無譜牒 而忠正公派 只有顯宗庚戌年間所修草譜 文肅公派又有肅宗癸巳年刊行派譜 故今此規模一遵兩譜 而忠正公派草譜 則稱以舊草譜 文肅公派刊譜 則稱以光州派譜 參互詳略 正其訛誤 以爲成書 至於英祖乙酉尼城刊譜 則誤系先世 錯附後孫 故一舉論云 박승고가 편찬한 파보를 '舊草譜', 문숙공파의 파보를 '光州派譜'로 이름하였는데, 이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듯하다.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발간된 1785년 『을사보』에는 박원룡 계열의 3개 지파와 박원상 계열의 9개 지파 등 12지파를 수록하고 있다. 지금 순천박씨 대종중에서 인정하는 총 19개 지파보다 7개 지파가 적은 수이다. 박원상 계열에서는 박장생-박즙 계열[감사공파], 박안생-박기년 계열[수찬공파], 박안생-박종립-(박사제) 계열[전직공파], 박이생-박영림-박성금 계열[부위공파] 등 4개 지파가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말미에 3개 지파가 합보 간행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즉 “이번 수보(修譜) 때에 수삼(數三)의 불원파(不願派)가 있으나, 이미 완료된 대보(大譜)이므로 돈목(敦睦)의 의(誼)로서 전궐(全闕)할 수 없으므로 구초보(舊草譜) 및 광주파보(光州派譜)에 의해서 입록(入錄)하고 서파 불원자(庶派不願者)는 강요할 까닭이 없으나 그 소생(所生)은 밝히지 않을 수 없으므로 외손례(外孫例)에 의하나 2대(代)를 재록(載錄)해서 후일 모범(冒犯)할 우려를 금계(禁戒)함”³⁵⁾ 이라 한 것이다. 불완전하나마 일종의 대동보가 발간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듯하다.

2) 합보(合譜)의 전개과정

앞서 1862년 『임술보』 범례에 당시까지 발간된 족보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했거니와, 박기정이 『을사보』를 간행할 때 배제시켰던 여러 파보들이 『임술보』에는 포함되었다. 앞의 인용문에 이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제 제보(諸譜)를 상고(詳考)하여 입록(入錄)함에 『구초보』는 『구보(舊譜)』, 『광주파보』는 『광보(光譜)』, 『노성간보』는 『노보(魯譜)』 <『을사보』를 인용한 곳은 그 시(時)에 소칭(所稱)하던 일에 따라 『니보(尼譜)』라 함>, 『을사보』는 『전보(前譜)』, 『신사보초(辛巳譜草)』는 『신초(辛草)』, 『신묘파보(辛卯派譜)』는 『신보(辛譜)』, 『상주초보(尙州草譜)』는 『상초(尙草)』라 이름.

1756년 박기정이 충정공파에서 초보(草譜) 형태로 남긴 『구초보』와 문숙공파에서 발간한 『광주파보』만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100여 년이 흐른 1862년 임술보를 발간함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총 10개의 족보 가운데 7개의 파보 또는 합보를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조선후기 종중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지파의 기록이 서로 다를 때, 부단한 옛

35) 今此修譜時 有數三不願派 而既成大譜 則其在敦睦之誼 不可全闕 故第依舊草譜 及光州派譜入錄 而庶派不願者 則不必強錄 亦不可不明其所生 故略依外孫例 書以二代 以誌日後冒犯之患.

기록의 확인작업과 더불어, 일정한 절충점을 찾아서 계보를 잇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임술보』의 기록은 그러한 고심의 결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사실 현재 순천박씨 대종중의 19개 지파 가운데 박원상 계열의 13개 지파는 이러한 논란이 정리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실 박원상의 가계가 수록된 가장 오래된 기록인 『가정보』 이후의 기록을 보면, 순천박씨 대종중은 부단한 확인작업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순천박씨 朴元象 가계도 시기별 비교표〉³⁶⁾

| 1565년 『문화유씨가정보』 | 1665년 朴元象 묘표 | 1785년 『을사보』 | 2007년 『충정공파보』 | 비고 |
|--------------------|-----------------|----------------|------------------|--------------|
| ③守生-近 | ①首生-根 | 經歷公派 | ①首生-根-義蕃 | 經歷公派 |
| ②長生-樞 | ②長生-樞 | 生員公派 | ②長生-樞-培源 | 生員公派 |
| | | 濟州牧使公派 | -增源 | 濟州牧使公派 |
| | | 判官公派 | -堅源 | 判官公派 |
| | | | -墩源 | (墩源 无后→판관공파) |
| -楫 | -楫 | | -楫-誠 | 監司公派 |
| | | | -楨 | (无后) |
| -(金陟) | | | -(金涉) | |
| -(尹達成) | | | -(尹達成) | |
| -(尹惇) | | | -(尹惇) | |
| ①安生-(崔福海) | ③安生 | | ③安生-(崔福海) | |
| | | | -孟林 | 舊譜 文科直講 未詳 |
| -①仲林-④彭年 | -仲林-彭年 | 忠正公派 | -仲林-彭年 | 忠正公派 |
| | -引年 | 校理公派 | -引年 | 校理公派 |

36) 본 도표는 현재 필자가 확인한 족보에 한하며, 향후 주자로 족보를 확인한 후 보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 | | | |
|-------|--------|------|-----------|--|
| -③耆年 | -耆年 | | -耆年 | 修撰公派 |
| -①大年 | -大年 | 博士公派 | -大年 | 博士公派 |
| -②永年 | | 檢閱公派 | -永年 | 檢閱公派 |
| | | | -(奉汝譜) | |
| -③季林 | | | -季林 | |
| -②從林 | | | -終林-成年 | 壬戌譜에서 추가 수록: 莊陵膳錄 實錄別單에 仲林의 三寸姪 8人이 長鬢와 機張에 관노로 유배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碧珍 李氏와 문화유씨의 舊譜에 朴斯悌가 殿直을 역임한 사실이 수록된 것 등을 비교하여 乙巳譜를 간행할 당시에 누락되었으므로 제보를 이음 → 斯悌 = 殿直公派 |
| | | | -(楊有河) | |
| | | | -龍伊 | |
| | | | -斯桴 | |
| | | | -斯悌 | |
| | | | -斯杠 | |
| | | | -斯楨 | |
| | | | -哲守 | |
| | | | -龔同 | |
| ④易生-? | ④易生 | | ④易生-貴林-孟達 | 乙巳譜에 누락: 壬戌譜에서는 '尙州(草)譜에 全林·貴林·榮林 3형제가 있고, 全林의 두 아들 맹달과 중달은 无后이며, 貴林의 아들은 성금, 榮林의 아들은 득금이다' 고 하였으나 오류이므로 바로잡음 得琴→引儀公派 成琴→副衛公派 |
| | | | -仲達 | |
| -? | -榮林-得琴 | 引儀公派 | -榮林-得琴 | |
| | -成琴 | | -成琴 | |
| | | | -(金克男) | |
| ⑤(金澣) | | | (金澣) | |

* ①②③④ : 출생 순서

* (金陟, 尹達成, 尹惇) : 사위

* ? : 이름 不明

시조를 포함한 선대의 계보를 확인하고 또한 그들의 행적을 살피면서 현창사업을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분기되어서 혈연관계를 알지도 못했던 후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하여 그 계보를 확인하고 일정한 절충점을 택하여 여러 지파를 통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리된 역사적 산물이다. 선대에 대한 확인 작업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후손들을 통합하는 이중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그 과정은 지금까지도 중단되지 않았다.

4. 나가면서 : 향후의 과제와 전망

박팽년을 위시한 사육신의 단종 복위운동의 실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듯하다. 우선적인 관심사는 ①사건이 발생한 당대의 정세와 사건의 실상이다. 사육신의 죽음을 불러온 사건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실제로 수많은 창작물들이 제작된 소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역적인 차원, 특히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또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측면의 기대효과는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②해당 가계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지역에 남아 있는 유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유적의 소재지나 전해지는 유품은 탐방객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③해당 인물의 후손들의 동향도 무시할 수 없다. 어떤 사건이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때로는 반대 해석까지 도출되는 것이 역사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역사적 영웅담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 또한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사육신처럼 조선시대 이후 폭발력을 가진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고, 그러한 사실들을 정리한 사료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 남효온의 『육신록』과 같은 자료는 지금도 많이 언급된다.

본고의 논의는 ③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다. 사실 당대의 정세와 사건의 실상에 대한 연구는 기왕에 어느 정도 진척된 바가 있다. 오히려 필요한 부분은 ③과 같은 후대의 재해석 과정에 대한 검토라 할 것이다. 누차 강조했듯이, ③의 양상은 그 자체가 조선후기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③의 접근방식이 특정 가문의 동향이기 때문에 일종의 편협한 문중사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역사학계의 인식에 동조하지 않는다. 특히 지역사의 경우에는 최소한 문중사가 큰 부분을 점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선후기 정치사를 장식했던 우암 송시열이 '문중의 일' 까지 깊이 개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분론에 투철했던 인물의 한 면모를 확인한 셈이다. 다른 학파에서, 예컨대 정구-장현광으로 이어지는 한강학파(寒岡學派)의

경우, 장현광이 스스로 하위지의 유희비를 건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율곡학파의 여러 선현들의 문집에 단계 하위지의 유희비를 여현 장현광에 건립하였다고 언급할 정도였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막연하게 사림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앞선 시기에 절의를 지켰던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뒤바뀌었다’는 식의 인식이 안일한 결론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은 셈이다. 선조-인조대를 거치면서 확립된 사림정치 확립기에도 그 관심의 폭 또는 편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컸을 가능성을 짐작케 해 주는 부분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박팽년의 복권과 추송과정에서 확인되는 특정 가계의 동향,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의 움직임은 조선후기 정치사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아도 될 듯하다.

사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팽년의 신원과정은 김집-송시열로 이어지는 학파가 주도했다. 그런 때문인지, 대구 등지의 박팽년 후손들 또한 영남 지역에서는 드물게 ‘송 우암께서’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입에 올린다. 여기에 덧붙여 ‘얼마 전까지도 대구 유림들의 행사에서 못골 박씨들은 거의 초대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후손들의 입을 통하여 재확인한 셈이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사육신의 복권과 추송사업은 그대로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직계 혈손들만이 아니라, 방계의 후손들까지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찌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특히 조선후기 문중사가 결코 집안과 관계된 사안이 아니며, 지역 정치사 나아가서 중앙의 정치사와 긴밀하게 연결된, 따라서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의를 매듭짓고자 한다.

〈참고문헌〉

왕조실록

『홍재전서』

『연려실기술』

『청장관전서』

『육선생유고』

『오봉집(五峯集)』

『오음유고』

『동각잡기(東閣雜記)』

『임하필기』

『국조인물고』

『기락편방(沂洛編芳)』 (奎 12657)

『함주지』

『청음집』

『기언(記言)』

『송자대전』

『청성집(靑城集)』

『노릉지(魯陵誌)』

『장릉지』

『장릉사보(莊陵史補)』 (규장각, 古 4250-55)

『문화유씨 가정보』

『순천박씨 충정공파보』 (2007년)

V

박팽년 관련 유적 현황과 활용방안

1. 들어가는 글 · 123
2. 관련 문화자원의 현황과 특징 · 124
3. 세종조 세종시의 역사 인물들 :
성삼문과 김종서, 그리고 김처선 · 129
4. 박동(朴洞) 인근 연계 가능한 역사자원 · 134
5. 관련 자원의 잠재력과 정책제언 · 136
6. 나가는 글 · 144

박팽년 관련 유적 현황과 활용방안

오 석 민 · 유병덕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 들어가는 글

사육신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역사적 아이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사육신의 대부분이 세종 때 활동했으며, 특히 한글 창제에 공을 세웠다. 그런데 박팽년과 성삼문은 세종시와 깊은 연고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팽년과 성삼문을 ‘세종시’라는 명칭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로 부각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런데 막상 세종시민은 물론 충남과 대전의 주민들도 박팽년과 성삼문이 세종시와 연고가 깊다는 사실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한다. 기본적인 조사연구조차도 진행되지 못한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였던 연기군 시절, 충청남도의 주된 관심사가 백제에 맞추어진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조선시대 유학자 또는 호국인물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기만 했다. 실제로 옛 연기군에서는 백제 유민들이 건립한 비암사와 천불상(千佛像)에 대한 관심이 더 컸고, 운주산성을 주류성에 비정하려는 관심이 압도적이었다. 충청남도 차원의 역사적 재조명 작업에 ‘동참’ 하려는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일변하였다. 세종시의 출범과 함께, 그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한 셈이다. ‘세종시만의 차별성’을 부각하여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세종시는 백제의 고도인 공주와 부여가 있는 고장이라는 충청남도의 시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백제의 변방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아이탬을 만들어 가야 한다. 사실 본 학술대회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다.

필자의 관심은 두 인물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와 깊은 연고가 있다는 점이다. 박팽년은 조부 때에 전의현으로 입향하였는데,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된 혐의로 아버지 박중립과 함께 형제 및 아들들이 모두 처형당하는 비운을 겪었다. 성삼문은 후대에 금남면 달전리에 세거하는 방계 후손이 봉사손으로 결정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김종서와 환관 김처선 또한 세종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박팽년과 관련한 역사자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문화자원의 현황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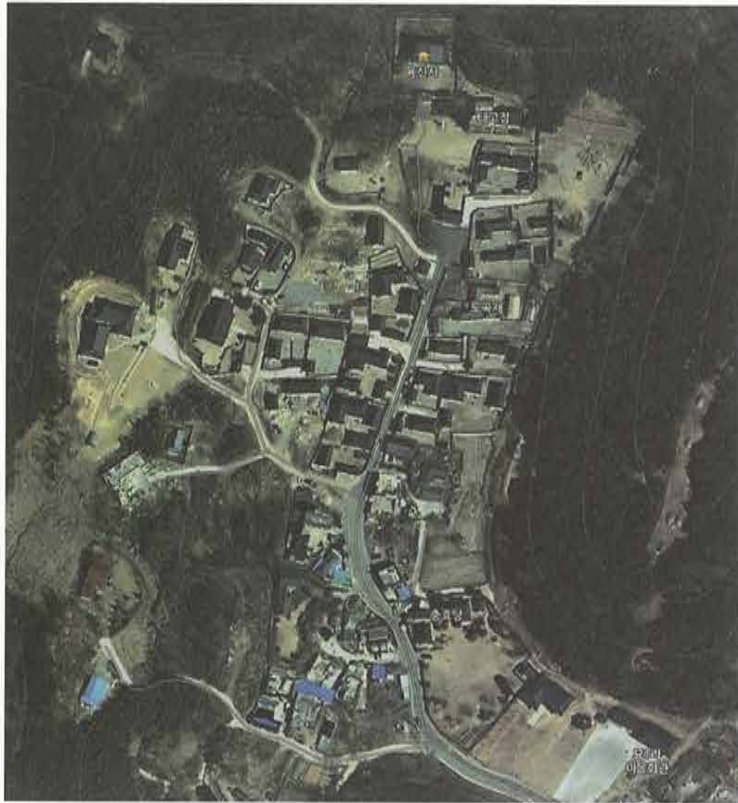
： 박중립-박팽년 가계의 세거지 전의 고을 박동(朴洞)

사육신과 같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춘 역사자원의 경우, 지역적 연고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세종시 전의면 관정리 속칭 '큰 박골'과 '작은 박골'이라고 불리는 박동(朴洞)에는 순천 박씨 입향조 박안생이 안동김씨 김휴의 따님과 혼인하면서 살기 시작하였고, 최소한 박중립이 부모상을 당하여 시묘살이를 하던 때, 즉 박팽년이 나이 28세였던 세종 26년(1444)까지 이 가계의 '전의 본가(全義本家)'가 있었다. 당시 결혼 후에 남편이 처가로 사는 곳을 옮기는 일이 많았으나, 박중립이 김익생의 따님과 혼인하면서 거주지를 완전히 옮기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만 박팽년이 28세의 나이로 올린 '결군장(乞郡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박팽년은 외조부 김익생의 집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중립이 처가로 사는 곳을 옮기지 않았던 까닭에, 박팽년이 28세에 이르기까지 전의현의 본가(本家)가 있었던 것이다.

관정리 박동이 주목되는 것은, 이처럼 박중립-박팽년 가계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세거지였기 때문이다. 현재 아쉽게도 박동에는 박팽년 가계와 관련된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지역이 상징하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으며, 향후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박팽년이 올린 상소문에 지목한 '전의 본가'가 박동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석당(閑碩堂)이라는 박중립의 호는 사실 당호(堂號)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상소문에서 지목한 '전의 본가'를 한석당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는 아닐 듯하다. 그가 건립했다는 한석정(寒石亭)이라는 정자도 박동 인근 어디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다른 사례를 볼 때, 후대에 건립하는 누정은 이전 시기에 누정이 있었던 터일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에서 후대 타우 이상이 건립했던 사관정의 옛 터를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옛 한석정 자리에 후대 사관정을 건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순천 박씨 『상주보』에는 박팽년의 어머니인 김익생의 따님의 묘가 박동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황윤석의 『이재난고』에는 '타우 이상이 머물렀던 곳에 박팽년의 선대 묘소가 또한 많은 곳'이라는 기록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박중립의 형제 가운데서도 일부 묘소가 박동 인근에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사실 이러한 장소가 현재까지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하기 곤란할 정도이다. 사육신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는 전국적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일반인의 관심을 유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는 취해진 적이 없다. 박팽년의 혈손(血孫)이 거주하는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마을이 문화재로 지정된 태고정(太古亭, 보물 554호)과 도곡재(陶谷齋,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32호)를 중심으로 정비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해당 지역의 관심도의 차이가 낳은 대조적인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리

현재 못골 마을에는 문화재만 보수 또는 정비된 것이 아니다. 1971년 육선생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협심한 결과 1974~1975년 ‘충효위인 유적 정비사업’에 따라 입향조 박일산이 건립한 태고정 주변에 국비를 포함한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육신을 제향하는 육신사를 건립하였다. 2003년부터는 총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육신기념관과 더불어 20여 채의 한옥을 복원하는 유적지 정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마을 입구에는 충절문을 세웠으며, 2010년 완공된 사육신기념관이 위치하고 있다. 육신사 옆 동산에는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림을 제향하는 충의사와 더불어 그 유적비가 세워져 있다. 특히 2013년 7월 (사)육신사보존회 이사회에서 육신사 주변 임야 3필지, 21만4888㎡를 대구시에 기부하기도 했다.



대구 못골 박종림 유적비



대구 못골 박종림을 모신 총의사



대구 못골 육신사의 외삼문



대구 못골 육신사



대구 못골 도곡재



대구 못골 사육신기념관 내부



대구 못골 마을입구 충절문



대구 못골 복원 가옥

송시열의 주도로 유허비가 건립된 대전시에도 유허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보존하고 있다. 일종의 근린역사공원인 셈이다.



대전 회덕 박팽년 유허비각



대전 회덕 박팽년 유허비 공원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전의현 지역 박팽년의 옛 자취가 방치된 것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었다. 조선후기 사족세력, 특히 송시열은 사육신의 충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곳곳에 그 자취를 남겼다. 명분을 중시하고 정통을 확립하는 일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박팽년과 관련해서는 회덕의 박팽년 선생의 유허비, 박 선생의 증조부 박원상의 묘표를 남겼고, 대구 못골에 세거했던 박팽년의 혈손을 위해서 족보의 서문을 지었으며, 전라도 광주에 세거하는 박팽년의 방계 후손들의 족보를 간행할 때에도 박팽년의 절개를 칭송하였다. 그러나 막상 박안생-박중립-박팽년 가계가 세거했던 전의 고을에는 송시열이 남긴 자취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에게 도움을 청했던 후손들도 전의에

살지 않았고, 그곳의 주민들도 요청하지 않았던 때문이라 판단된다.

현 전의면 관정리의 박동(朴洞) 만 박팽년 가계와 관련이 있는 곳은 아니다. 박팽년의 조부 박안생의 묘소가 박동에서 약 8km 떨어진 세종시 전동면 송정리에 전해지고 있다. 세거지와는 다소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결코 소홀할 수는 없는 대상이다. 현재 확인된 유일한 유적이기도 하거니와, 박중림과 그 부인이 함께 시묘살이를 했던 곳이고, 또한 이곳에서 시묘살이를 하는 부모를 위하여 박팽년이 사직을 청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전의면이-박중림-박팽년 가계의 세거지가 된 것은, 이곳이 박중림의 아버지 박안생의 처가였기 때문이다. 안동김씨 김휴의 사위로 박안생이 처가살이를 했던 것이다. 김휴는 박중림의 외조부이며, 그의 아들인 김익정과 김익렴 형제는 박중림의 외사촌이 된다. 지금까지 전의에 세거하는 안동김문은 박팽년의 진외가인 셈이다. 그런데 현재 김휴의 묘소와 유희비는 전동면 미곡리 학당 마을에 전해진다. 김익정의 묘소는 경기도 양주에 있었다가 실전된 상태이지만, 그 후손들의 묘는 전의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김익정과 김익렴이 모두 3년 간 여묘를 살았다고 되어 있으며, 김익정과 그의 현손 김사준(金師俊, 1439~1520)의 정려는 세종시 향토유적 16호로 지정되어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에 전해진다. 더욱이 김익정과 김익렴 형제는 김중서와 재종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의 일원은 '박팽년 집안의 옛 고향'이라는 주제로, 안동김씨 외가까지 포함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후손들의 세거지인 대구 달성군 하빈면 못골마을이나, 또는 방계 혈족의 세거지인 회덕과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다.



김휴 유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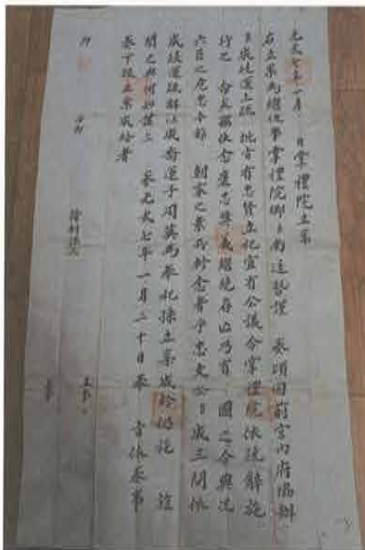
김휴 묘소

3. 세종조 세종시의 역사 인물들 : 성삼문과 김종서, 그리고 김처선

연기군은 대체로 1914년 조선시대 전의현과 연기현, 그리고 공주목의 일부가 병합되어 탄생한 행정단위이다. 그리고 2012년 7월 1일 연기군과 충북 청원군과 충남 공주시 일부를 병합하여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세종시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조선시대 전의현은 박팽년과 김처선의 연고지이고, 남쪽에 해당되는 조선시대 공주목 땅인 금남면 달전리는 성삼문 선생의 봉사손이 세거하는 마을이며, 최근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장군면에는 김종서와 그 선대 묘역이 자리잡고 있다. 모두 조선시대 세종 때부터 연산군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충절로 후대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과 관련된 역사자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성삼문과 관련 유적들

성삼문은 박팽년과 더불어 사육신을 대표하는 쌍두마차격인 인물이다. 그런데 성삼문을 받드는 사우가 ‘금남 문절사(文節祠)’라는 이름으로 세종시 문화재자료 1호로 지정되어 있다.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은 홍주 노은동 외가에서 태어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1903년 성삼문의 당숙인 성희(成熺, ?~1463) 가계의 후손인 성주영(成周英)이 봉사손으로 정해지면서, 성삼문의 외손인 무안박씨 집안에서 모시던 선생의 신주를 성희 가계가 세거하던 금남면 달전리로 옮겨오면서 달전사라는 이름으로 사우가 건립된 때문이다.



성삼문 봉사손 입후 입안(문절사 소장)



성삼문 봉사손 관련 관보(문절사 소장)

성삼문의 신원에도 송시열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성삼문의 신주는 선생의 부인이 직접 만들어서 노비 신분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선 현종 때 인왕산에 묻혔던 신주가 발견되면서, 송시열의 주도로 그 신주가 홍주 노은동으로 옮겨져 봉안되었다. 그러나 홍선대원군에 의하여 노은서원은 훼손되었고, 그 신주는 무안박씨 가문으로 옮겨졌다가 1903년 봉사손이 거주하는 달전리로 옮겨졌던 것이다. 이 당시에는 간재 전우(田愚, 1841~1922)가 깊이 간여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전쟁 이후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문절사에는 충신 명정현판 등 일부 유물이 소장되어 있는데, 성삼문의 제사를 받들던 무안박씨의 세전 유물 대부분은 충남역사박물관에 기탁된 상황이다.



문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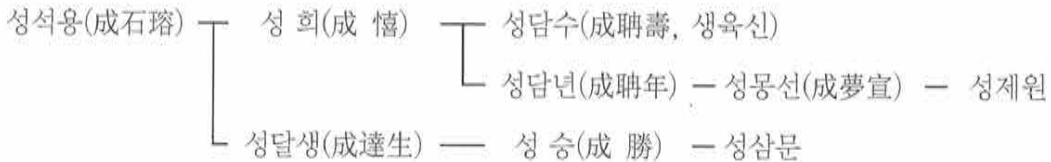
문절사 명정 현판

성희는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사촌지간이다. 1456년 성삼문 등이 처형당할 때 이에 연루되어 10여 차례나 극심한 고문을 받고 김해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1461년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오던 중, 한양 300리 밖에서 살라는 세조의 명을 듣고 공주 달전(현 세종시 금남면 달전리)에 터를 잡았으나, 비분한 마음에 곧 병들어 죽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임종에 다다랐을 때는 유언으로 자손들은 정사에 참여하지 말도록 권했으며, “서울은 보기도 싫으니 상여도 지나가지 말라.”고 유언하여 후손들이 시신을 옮길 때 아산에서 배편으로 고향인 파주로 운구하였다고 한다. 현재 금남면 달전리에는 그의 유허비가 있다.

성희 아들 중 성담수(成聃壽, ?~1456)는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아버지 성희의 장례를 치룬 뒤에는 선영이 있는 파주 문두리에 은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782년(정조 6)에 김시습(金時習)·원호(元昊)·남효온(南孝溫) 등과 함께 이조판서로 추증되었고, 2년 후인 1784년에 정숙(靖肅)이란 시호를 받았다. 성담수의 아우 성담년(成聃年, 1441~1483)은 세종시 창녕성씨 입향조로 꼽히는 인물이다. 성담년은 아버지 성희가 김해로 유배당했을 때 15세의 나이로

김해까지 걸어가서 발이 부르터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움에도 밥을 얻어다가 아버지를 공양하였다고 전해진다. 1470년(성종 1)에 문과에 급제한 후, 사간원 정언·공조정랑·이조정랑 등을 역임하였고, 뒤에 부친이 말년을 보낸 달전리에 은거하였다. 이후 달전리가 창녕성씨의 세거지가 된 것이다. 그의 묘소는 금남면 달전리 원당에 있다. 그의 아들 성몽정(成夢井)은 증중반정에 참가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에 녹훈되었고, 창녕군에 봉해졌다. 성담년의 손자 동주(東洲) 성제원(成悌元, 1506~1559)은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제자인 서봉유우(柳藕, 1473~1537)의 문인으로, 정몽주-김종직-김굉필을 잇는 우리나라 정통 도학의 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성제원은 달전리에서 태어났으며, 묘는 달전리 망동에 전한다. 달전리 뒷산에 있는 망묘대(望墓臺)는 성제원이 아침 저녁으로 올라 부모의 묘소를 바라보며 그리워했다고 전하는 곳이다.

〈달전리 창녕성씨 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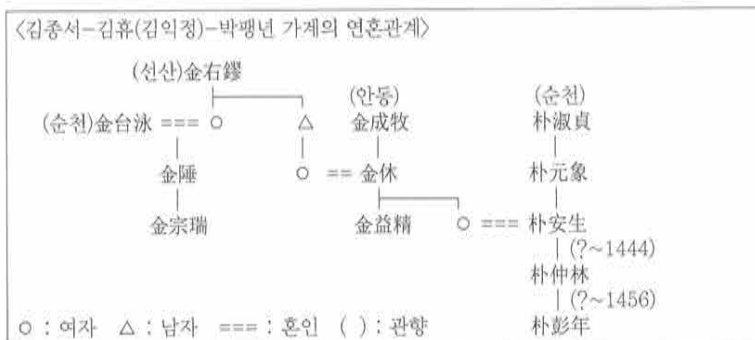


2) 김종서와 선대 묘역

절재(節齋) 김종서(1383~1453)는 공주 의당면 월곡리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천 김씨가 공주 지역에 세거하게 된 시기는 김종서의 조부 김태영 때로 알려져 있으며, 순천과 서울을 왕래하기 힘들어 공주의 요당에 거처를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묘소와 직선거리 약 6km 떨어진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138-2번지에는 김종서유허지(생가지)가 있으며, 김종서, 정분, 황보인 등을 제향하던 요당서사가 있었다. 『세종실록』에는 “김종서의 아내가 공주에 살면서”라고 되어 있고, 『단종실록』에 “김종서가 장차 충청도 공주에 가서 성묘하고자 대궐에 나아가 하직하니”라는 기사가 있다. 그런데 박중립의 외삼촌인 안동김씨 김익정(金益精, 1375~1436)이 김종서의 재종형이다.¹⁾ 상호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큰 셈이다.

장군의 묘소는 ‘김종서 장군 묘’라는 이름으로 세종시 기념물 2호로 지정되어 있다. 소재지는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산45번지이다. ‘김종서가 평소 아끼던 말이 한 쪽 다리를 물고 공주까지 와서 죽었다’는 소위 ‘한다리’ 전설과 아들 김승벽이 김종서의 시신을 말에 싣고 고향 공주로 와 장사지낸 후 도주했다는 전설이 전해지지만, 묘비에는 막상 장군의 의관(衣冠)을 묻은 것으로 되어 있다. 장군은 1746년(영조 22)에 원래의 관직을 회복하였고 명정을 받았다. 묘역에는 3기의 묘비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묘비는 복관 2년 후인 1748년(영조 24)에 공주판관이익진(李翼鎭)과 지방유생들에 의하여 세워진 호패형 비석인데, 그 비문에 ‘이곳이 원래 공의 세장지이지고 그 당시까지 현지 주민들에 의해 공의 묘소라는 사실이 전해 내려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1963년에는 후손들에 의하여 새로

1) 최완수는 『조선왕조 총의열전』(1998, 돌베개)에서 『단종실록』 즉위년(1452) 7월 4일 기사에 “김익정은 바로 나의 재종형이라 내가 사람됨을 상세히 안다.”는 기사에 주목하여 그 계보와 혼인관계를 밝혔는데, 그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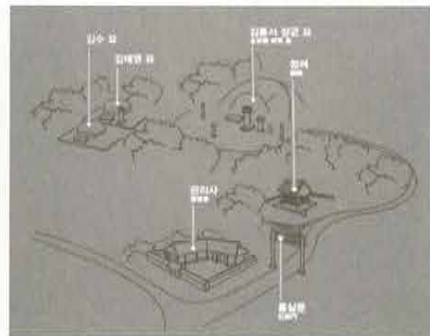


묘비가 건립되었고, 2003년 중중의 헌금으로 다시 묘비를 세웠다. 묘소 남쪽 약 100m 위치에는 1987년 신도비를 건립하였다. 묘소 입구에는 1804년과 1747년 각각 명정을 받은 김종서와 김승규(金承珪) 부자의 충효 정려가 위치하고 있다.

한편 김종서의 묘에서 서북쪽으로 작은 골짜기 건너에 김종서의 부모와 조부모의 묘가 자리잡고 있다. 조부 김태영(金台泳)은 순천 김씨의 공주 입향조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아들 김수의 묘와 마찬가지로 방형 형태의 봉분을 유지하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묘제 양식이 특징적이다.



김종서 집안 묘역



김종서 집안 묘역 안내도



김종서 선친 김수의 묘소



김종서 조부 김태영 묘소

3) 환관 김처선과 전의현

김처선(金處善, ?~1505)은 연산군 때 임금의 음행을 비판하다가 임금에게 직접 죽임을 당한 환관이다. 왕조실록에는 그의 본관과 고향이 모두 전의현으로 되어 있다.²⁾ 그런데 현재 김처선과 관련한 흔적은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김처선이 전의현에 부처되고 관노로 신분이 격하되면서 단종 3년(1455) 2월 27일부터 세조 3년(1457) 8월 18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고향 전의에 머문 적이 있다고 전할 뿐이다.

그러나 김처선은 영조가 어릴 적 궁중 살면서 들었다고 할 정도로 조선후기 까지 널리 회자되었던 인물이다. 그런 까닭에 범에게 시신을 주어도 먹지 않았다는 등의 윤색이 가해졌으며, 환관으로서는 드물게 선비들과 함께 '갑자사화에 화를 입은 인물들의 명부[甲子禍籍]'에 수록되었다. 더욱이 최근에 방영된 「왕과 나」라는 드라마를 통하여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전의 지역의 어느 곳인지 하는 구체적인 출생지와 거주지 등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으나, 사육신에 버금가는 충절인이라는 점에 덧붙여, 박종립-박팽년 가계와 관련한 유적지와 거리가 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상이다.

4. 박동 인근 연계 가능한 역사자원

박안생-박종립-박팽년의 세거지 박동은 세종시 전의면 관정리의 지명이다. 그런데 관정리에 속하면서 박동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세종이 안질을 치료했던 초수(椒水)가 있다. 박동에는 안동김씨와 혼인을 하면서 입향한 우봉이씨 타우 이상과 관련한 몇 유적이 전한다. 우봉이씨 이상은 사육신을 선양하는 일에 매진하였던 송시열의 문인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 상대부리와 전의 초수(椒水), 소위 '왕의 물'

세종이 안질 치료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초정 약수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일반에게도 널리 회자되는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의 광천수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광천수는 곳곳에 분포하며, 세종의 안질과 관련하여 거론된 광천수[椒水]도 여러 곳이다. 그런데 세종의 한글 창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박팽년 가계의 세거지, 구체적으로 지목하면 상대부리에서 불과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초수 또한 그런 곳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해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므로 상론을 피하고자 한다.

전의 초수와 관련된 첫 기록은 『세종실록』 26년(1444) 1월 27일의 기사이다.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전의현의 초수를 가져오자 임금의 이를 듣고 관리를 보내어 행궁을 세우게 하고 이 물을 얻어와 아뢰는 자에게 목면 10필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이후 병에 효험이 있는지를 시험하게 하고, 초수에 다른 물이 섞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런 연후에 행궁 짓는 일을 지시했다가 포기하고, 다만 초수를 말에 실어서 올려보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세종실록』 26년(1444) 4월 15일의 기사에 의하면 전의(全義) 초수(椒水)는 모두 네 곳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민들이 지목하는 곳은 관정리의 '관정약수'와 북쪽으로 태호고개 너머의 '대정약수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약수로 49번지) 등 2곳 뿐이다. 한편 관정약수 주변 토지는 현재 사유지이며, 또한 주변에 공장이 입지하고 있어서 유적지로서의 면모를 엿보기 힘들다. 이러한 사정은 대정약수터 또한 비슷한 듯하다. 당면한 과제로서 '전의 초수 네 곳'을 확인하는 작업과 더불어,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2) 우봉이씨 타우 이상과 사관정, 뇌암서원, 그리고 문목사

박안생의 장인 안동김씨 김휴 가계와 혼인을 했던 가계 중에서 주목되는 집안은 지금까지도 전의 일원에 세거하는 우봉이씨다. 이승건(李承健, 1452~1502)이 김휴의 증손녀와 혼인하였고, 이후 그의 5대손 타우 이상(李翔, 1620~1690)이 1654년 35세의 나이에 전의로 거처를 옮긴 것이다. 선대에 안동김씨의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다만 상속받은 토지에 선대 묘역을 정하여 수시로 출입하는 상황이 반복되다가, 거의 10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상이 스승 송시열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전의 관정리를 우거지로 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이 우거지로 택한 마을은 공교롭게도 박안생-박중립-박팽년 가계의 세거지였던 곳이다. 이상은 박동이 있는 하대부리에 사관정(四觀亭)을 건립하였고, 뇌암서재(雷巖書齋)를 세워 후학을 양성하다가 1690년 무고를 받아서 옥사하였다. 사후 벼락바위[雷巖]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서재는 1699년 뇌암사로 변신하였고,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뇌암서원으로 바뀌었으나, 1865년 서원 훼철령으로 훼철되게 된다. 다만 1886년 영의정 심순택의 상소로 이상은 부조지전을 명 받아서 제향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니, 현재의 문목사(文穆祠)가 그곳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관정의 원 위치는 남쪽으로 약 130m 지점이었다고 하며,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규모도 1/4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박동이 위치한 하대부리는 조선 전기의 유적과 후기의 유적이 한 곳에서 혼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대부리의 사관정



하대부리의 문목사

5. 관련 자원의 잠재력과 정책제언

1) 관련 문화자원의 잠재력과 활용의 기본방향

호국과 충절을 중시하고, 또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관심은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을 수도 있다. 사육신 관련 역사자원 또한 이러한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춘향전이 반복적으로 리메이크되면서도 인기를 끌듯이, 일반의 관심을 끄는가의 여부는 오히려 기획과 연출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사육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우리 문화의 아이콘이다. 사육신의 충절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일반에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이 고장만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자원이 될 것이다. 첨언한다면, 단순히 충절을 지킨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에 굳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을 듯하다. 충절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 특히 박중림-박팽년 가계와 관련해서도 대구 못골과 서울 노량진 등이 이미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세종시 전의만의 고유한 주제에 입각하면서 관련 유적의 정비와 활용사업을 전개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의 다른 유적지와의 연계 활용을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의 일원은 박중림-박팽년 가계의 고향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박팽년 집안의 옛 고향'이라는 주제는 다른 지역에서는 흉내를 낼 수 없는 방안인 듯하다. 입향의 동기가 되었던 안동김씨와의 혼인관계, 안동김씨를 매개로 한 순천김씨 김종서 집안과의 관계, 그리고 후대 우봉이씨의 입향 등은 전의라는 지역사의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 합단적의 침입 당시, 세종시 정좌산과 원수산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던 김흔(金忻, 1251~1309)이 박중림의 외조부 김휴의 방조(傍祖)라는 점도 충분히 연계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외부의 유적지와 연계하는 것은 두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듯하다. 한편으로는 광역에 걸친 박팽년 관련 유적을 연계하는 방안이고, 또 다른 방향은 세종시 일원에 산재하는 사육신 유적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그만큼 박팽년 또는 사육신과 관련한 유적지가 곳곳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팽년과 관련한 유적으로는, 세종시 전의 지역 외에도 그 후손들이 세거했던 대구 못골, 대전의 옛 회덕 지역, 종손이 살고 있는 충주 등을 들 수 있다. 사육신 관련 유적도 서울 노량진, 홍성 노은동, 강원도 영월 등 그 수가 적지 않은 편이다.

전국 각지의 사육신 관련 유적 전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대규모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세종시 내 또는 인접 지역의 사육신 유적 또는 사육신과 관계가 긴밀한 유적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그만큼 세종시 일원에 관련 유적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연계 활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사업을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 권역 내에서는 박팽년 관련 유적 외에도 성삼문을 모시고 있는 금남면의 문절사, 동시대에 활동했던 장군면의 김종서와 선대 묘역이 분포하고 있다. 여기에다 관련 유적은 전해지지 않지만, 전의 출신의 환관 김처선도 충절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계 가능하다. 박중림-박팽년 가계와 혼인으로 엮인 안동김씨 등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정책제언 : 단계별 추진전략

사육신은 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로서는 손색이 없는 역사 인물이다. 그리고 여러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조선시대 전의 고을은 순천 박씨 박안생-박중림-박팽년 형제의 세거지였음은 분명한 사실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은 박중림의 아버지 박안생 부부의 묘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유형의 유적이 전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와 더불어 무형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듯하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단기 및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들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단기에 걸쳐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

○ 박안생 묘역의 정비사업 : 박안생 묘는 현재까지 확인된 유일한 관련 유적이다. 그러나 묘역 주변의 정비는 물론이고, 묘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승용차조차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비는 최소한 조치로 판단된다.

진입로의 확장과 묘역으로 오르는 계단 정비, 주차시설 및 표석 형태의 안내판 등 최소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듯하다. 현재 이에 대한 후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므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안내판에는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립 부부가 이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 2번에 걸쳐 시묘살이를 하였고, 당시 박팽년이 사직상소를 올렸다는 역사적 사실 등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박안생 묘소 진입로 원경



박안생 묘역



박안생 묘역 위치도(Daum)

* 관정리 박동 일원에 대한 조치 및 본격적인 조사연구의 필요성 : 박중림-박팽년 가계와 관련하여 우선적인 조사연구의 대상지는 관정리 박동 일원이다. 그리고 확인하여야 할 대상은 박팽년의 어머니인 김익생의 따님을 비롯한 일부 선대의 묘소와 박중림이 건립하였다고 하는 한석정의 옛 터다. 선대의 묘소는 박골 인근에 산재하고 있는 무연고의 고총(古塚)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석정 터의 경우,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사관정이 있었던 터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박동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큰박골에서 본 전의산업단지



작은박골에서 본 전의산업단지

그런데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유적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실망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충절의 집안 ‘박중림과 박팽년 부자가 살았던 고향’이라는 상징성은 누구라도 주목할 만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박동, 즉 ‘큰 박골’과 ‘작은 박골’ 일원은 장기적으로 세종시를 대표하는 인물을 위한 근린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념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대상지로 판단된다. 박중림과 박팽년 부자의 유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태우 이상의 우거지로 그가 건립하였던 사관정과 그를 배향했던 뇌암서원의 옛 터, 현재 이상의 제향을 받들고 있는 문목사, 그리고 서원 이름의 유래가 되는 벼락바위[雷巖] 등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대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이다. 정기적으로는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 당장 착수하기는 곤란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박안생-박중림-박팽년 가계의 세거지였다는 사실을 기록한 일종의 유허비를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 연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 근린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근린역사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과 같이 예시해 볼 수 있을 듯하다.

- 단기 검토 : 지표조사 및 발굴(박동, 사관정 옛 터 등)
박동 입구 : 박팽년의 세거지임을 알리는 표지석 건립
전의 초수에서 사관정에 이르는 옛 길 복원
→ 이동로 상에 박팽년의 글씨와 시문(詩文)을 새긴 시비 건립
박동(朴洞) 생태공원 조성
→ 생태공원 내 기초 편의시설 설치(관리사, 주차장, 화장실 등)
- 중장기 검토 : 기념관 및 전시시설 건립
세종시의 역사인물 연구소 건립 등
→ (지표조사 및 발굴 실시 후) 별도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

○ 관정리 인근 역사자원 연계방안 : 관정리에는 박팽년 가계의 유적지에 그치지 않는다. 우봉이씨 이상이 우거했던 유적이 남아 있고, 그 외에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했던 '전의 초수(全義椒水)'가 상대부 마을에 있다. 또한 지금은 691번 지방도가 개설되어 자동차가 통행하고 있으나, 예전에 도보로 통행할 때에는 가까운 지름길을 이용하였고, 지금도 그 옛 길, 즉 상대부 마을에서부터 낮은 고개를 넘어서 하대부 마을 큰 박골을 경유한 후에 다시 낮은 고개를 넘어서 작은 박골-벼락바위-문목사-사관정-사관정 옛 터로 이어지는 옛 길이 남아 있다. 따라서 전의 초수로부터 사관정 옛 터에 이르는 옛 길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그 경로는 전의 초수-상대부 마을-하대부 옛 길-큰 박골-작은 박골-뇌암서원 터 및 이상 묘역-현 사관정-문목사-사관정의 옛 터를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지도 상의 직선거리 약 2km 정도인데, 최근 공장이 입지한 곳을 피하더라도(경로 B), 전체 거리는 약 3km 정도로 초등학생들의 걸음으로도 40분 정도가 소요될 듯하다. 대부분 평지보다 10~20m 정도가 높을 정도로 완만한 높낮이를 보이는 울창한 숲길을 관통하는 구간이므로, 역사자원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옛 길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장기적으로는 이 경로 상의 특정 지점, 예컨대 큰 박골 상대부에 기념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의 초수(전경)



전의 초수



작은박골에서 큰박골로 가는 옛길



전의 초수-사관정 사이 옛길

○ 박중림의 진외가 안동김씨 유적과의 연계방안 : 관정리 박동이 노량진이나 못골과 다른 점은 박중림과 박팽년이 살았던 고향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화에 남긴 흔적과 혼인 등으로 연결된 인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자는 『세종실록』에 언급된 ‘전의 본가’ 또는 박중림이 건립했던 ‘한석정’ 등이 그에 속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흔적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놓치면 안되는 사실은 박중림의 외가인 안동김씨 집안의 유적이다. 박팽년 가계가 전의에 살게 된 입항의 배경이 되었거니와,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림은 외조부인 김휴의 집에서 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김휴와 그 아버지 김성목의 묘는 운주산 자락인 전동면 미곡리에 남아 있고, 후대에 건립한 유허비도 전한다.

현재 전의 일원에는 김휴의 장자 김익정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팽년의 외삼촌인 김익정과 김익렴 형제는 김종서와 재종간으로 세종 때에 많은 활약을 했던 인물이며,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형제가 모두 시묘살이를 하였다는 사실이 수록되어 있으며, 김익정은 세조 때에 명정을 받았다. 다만 그의 묘는 경기도 양주에 있다는 기록만 전하고 현재는 실전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전의면 양곡리에는 명종 때에 정려를 받은 현손 김사준과 함께 같은 정려각에 모셔져 있다. 이들 유적 또한 박중림-박팽년 가계의 구체적인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유적들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비와 함께 연계하여 활용할 여지가 적지 않다.

○ 다른 지역의 박팽년 관련 유적과의 연계방안 : 박팽년과 관련한 자원은 전의현 외의 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대전 동구, 대구 달성군, 충주 신니면 지역이다. 필자는 이들 지역과의 연계는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정기적인 교류와 방문을 통하여 상호 연계망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공동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2015년, 늦어도 2016년에는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경우 2017년 박팽년의 탄신 600주년 행사를 목표로 하여,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충청권의 사육신 관련 유적과의 연계방안 : 박중림-박팽년 가계는 사육신 전체와 연계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세종시와 그 인근에는 그러한 역사자원이 적지 않다.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성삼문이다. 지금의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에서 출생하였고, 논산 부적면 감곡리 ‘한양말’ 별서(別墅)가 있었던 곳에 송시열이 세운 유허비가 선생을 배향하고

있는 이웃한 충곡서원으로 옮겨져 전해지고 있으며, 논산 가야곡면에는 일지묘와 함께 선생을 모신 행림서원이 있다. 특히 최근 홍성군에서는 2018년 성삼문의 탄신 600주년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세종시와 홍성군이 서로 연합하여 순차적인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기대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듯하다.

나) 중장기 검토 대상

○ 사육신 관련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 현재 전국에서는 사육신과 관련한 다양한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전 사회적인 관심을 얻지는 못하는 듯하다. 박팽년의 경우만 해도 후손들이 세거하는 대구 못골, 유허비가 있는 대전, 그리고 박팽년가 선대의 세거지였던 세종시 간에 상호 교류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현실적으로 사육신과 관련한 모든 단체를 망라한 조직을 구성하는 일이 어려울지는 모르겠으나, 일정한 사업을 목표로 삼는 협의체 수준의 조직은 어렵지 않을 듯하다.

그런데 생년을 알 수 없는 유성원과 유응부, 그리고 1412년에 출생한 하위지 등 3인을 제외하고, 박팽년과 이개는 1417년에 출생하였고, 성삼문은 그 이듬해에 출생하였다. 그런 점에서 2017년 또는 2018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가능할 듯하다. 탄신 600주년 행사로는 추모제 또는 추모음악회, 유품 전시회, 관련 학술대회, 그리고 유적답사 등의 행사를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추모제 또는 추모음악회는 대표성을 가진 관련 유적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세종시의 박동와 대구 못골 외에도 서울 노량진과 대전 가양동 유허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사육신 관련 유물의 집대성 사업, 관련 지자체들이 연합하는 순회 특별전 개최, 사육신 관련 창작물의 제작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국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제안서를 작성 후 중앙 부처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유형의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사육신 관련 유물의 집대성 사업 : 사육신 관련 유물 가운데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도 드물지 않지만, 개별 집안에서 소장하는 유물도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선 필요한 사업은 그러한 유물들을 목록화하는 작업이다. 그 목표년도는 2017년 또는 2018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육신 관련 순회 특별전 : 위와 같은 집대성 사업의 결과는 책자를 간행하는 선에 그치지 말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듯하다.

유품 전시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서울역사박물관을 비롯한 해당 지역의 국공립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순회 전시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 사육신 관련 창작물 제작 지원 : 사육신과 관련한 예술작품은 적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방법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듯하다. 다만 민간에서 창작하는 작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청소년을 겨냥하여 지역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용 창작물 제작을 공모전 형식으로 제작하는 방법은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개별 지자체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공동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 사육신 관련 유적의 단계적인 정비사업 추진 : 사육신과 관련한 유적은 그 사회적인 관심에 비하여 방치된 사례가 적지 않으며, 또한 지역적인 편차 또한 큰 편이다. 종합적인 안목이 부족하고 통합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시각은 일종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박팽년 관련 유적을 답사하려는 사람에게 노량진과 못골 만을 방문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련 유물의 집대성과 더불어 유적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의 추진은 무리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선 진입로 확보와 안내 표지 등의 최소한의 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기타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듯하다.

6. 나가는 글

민족적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지역적 관심사에 머물고, 때로는 개별 가문의 관심사로 치부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육신 관련 유적과 유물의 경우에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하다. 각자 주어진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서로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에 소홀했던 탓인 때문일 것이다. 최근 세종시에서는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하면서 역사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때로는 다른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을 살펴보고, 또한 세종시 내부의 다른 사실들과의 연관성을 살피는 노력과 함께 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이재난고』

최완수, 1998, 『조선왕조 충의열전』, 돌베개

VI

박팽년의 절의정신과 문화유산 활용방안 : 자료집

- 〈별첨 1〉 박팽년 가계의 전의 본가(全義本家) 관련 기록 · 149
- 〈별첨 2〉 순천박씨 분파도 · 163
- 〈별첨 3〉 전의 안동김씨 외손 이상의 입향과정 · 164
- 〈별첨 4〉 박일산 출생 관련 기록 · 167
- 1) 『홍재전서』 2) 『연려실기술』 3) 『청장관전서』
 - 4) 『육선생유고』 『박선생사실』
- 〈별첨 5〉 노량진 전(傳)사육신 묘 관련 자료 · 171
- 1) 김집(金集)의 박승고에게 보낸 답신 (『신독재유고』 1639년 11월 16일)
 - 2) 허목(許穆)이 박승고에게 보낸 답신 (『기언』)
 - 3) 1645년 김상헌이 박승고에게 보낸 답신
 - 4) 이식이 박승고에게 보낸 답신
 - 5) 이경석이 박승고에게 보낸 답신
 - 6) 허목(許穆)의 육신의총비문(六臣疑塚碑文)
 - 7) 남구만(南九萬)의 육신묘비문(六臣墓碑文)
- 〈별첨 6〉 순천박씨 족보 서문 · 191
- 1) 1670년 순천박씨 족보 서문
 - 2) 1677년 순천박씨 『경신보』 서문(『송자대전』)
 - 3) 1713년 순천박씨 『계사보』 발문
- 〈별첨 7〉 고려 전서 박공 묘표(高麗典書朴公墓表)(『송자대전』) · 197
- 〈별첨 8〉 우암 송시열의 성삼문 현양사업 · 199
- 〈별첨 9〉 박팽년의 외숙 김익정과 김종서의 관계(『단종실록』) · 202
- 〈별첨 10〉 전의 초수(全義椒水) 관련 기록 · 206

박팽년의 절의정신과 문화유산 활용방안 : 자료집

오 석 민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별첨 1〉 박팽년 가계의 전의 본가(全義本家) 관련 기록

1) 『세종실록』 권86, 21년(1439) 9월 27일

집현전 부수찬(副修撰) 박팽년이 상언(上言)하기를, “신이 학술이 거칠고 소루하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어, 한가한 데에 있어 글을 읽을 뜻이 있으나, 말씀을 하려다가 못한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가 상(喪)을 당하여 전의현(全義縣)에 여막을 짓고 있고, 신의 어머니도 따라가 있는데 또 병이 있사오니, 멀리 떠나서 베풀하는 것이 어찌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하여 가서 여막 옆에 있으면서 자는 것과 먹는 것을 살펴 묻고, 또 어머니의 탕약(湯藥)을 받들어서 조식(朝夕)을 함께 하고 다행히 여력(餘力)이 있으면 대강 학업을 연구하려 하오니, 엿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신의 조그마한 정성을 양찰하시와 신의 직책을 면하게 하여 구구(區區)한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集賢殿副修撰朴彭年上言曰 臣學術荒疎 私自愧恥 遂有居閑讀書之志 囁嚅未言 于茲有年 今父遭喪 廬于全義縣 臣母隨居 且有疾 違離從仕 何以爲心 茲欲往從廬側 候問眠食 且奉母湯藥 以共朝夕 幸有餘力 粗究學業 伏望殿下 諒臣微衷 令免臣職 以遂區區之願 不允



2) 『세종실록』 권86, 28년(1446) 12월 18일

수 집현전 교리(守集賢殿校理) 박팽년이 상서하기를, “신의 부자(父子)가 모두 용렬하고 우매한 사람으로서 외람히 성은을 입어 복이 지나쳐서 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의 아버지가 옥(獄)에 있는 지 이미 20일이나 되어 원통함을 품고 억울해 하고 있사오니, 신도 또한 마음을 견잡을 수가 없어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오니 삼가 불쌍히 여기시어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신이 듣자옵건대, 천하의 일은 시비(是非)가 양립할 수 없으며, 곡직(曲直)이 서로 같지 않으니, 만약 옳은 것을 그르게 여기고, 굽은 것을 곧게 여긴다면, 이것은 변고의 큰 것입니다. 부자의 천륜에 이르러서는 본시 천성(天性)의 친(親)에 속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인간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하는 일이 비록 한 때에는 암매(暗昧)하더라도, 시비와 곡직은 마침내 그 천성(天性)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진(秦)나라의 영씨(嬴氏)가 여씨(呂氏)¹⁾인 것과, 진(晉)나라 사마씨(司馬氏)가 우씨(牛氏)²⁾인 변고와, 우 왕조(禡王朝)의 반야(般若)의 옥사(獄事)는 사책(史冊)에 있어 사람들의 청문(聽聞)을 놀라게 한 일이지마는, 지금 김산(金山)의 일은 그 아버지의 종 김삼(金三)이 송중손(宋重孫)의 비부(婢夫)인 천장명(千長命)과 처음에 형조에서 송사하여 시비가 본디부터 명백하고, 곡직이 저절로 나타났으며, 신의 아버지는 관여함이 없었는데, 의금부로 옮겨서 국문한 이후로 신의 아버지가 종의 주인이 된 이유로써 체포되어 추문(推問)하매, 의금부에서 시비에 현혹되어 굽은 것을 변경하여 곧은 것으로 삼으려 하니, 신은 그욕이 상심하고 있습니다.

신의 아버지는 이 일에 있어서 본디부터 아부(阿附)하여 굽힌 것이 없으며, 전혀 남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송중손이 스스로 그 그른 점을 알고서 온갖 방법으로 거짓을 꾸며 여러 사람의 청문(聽聞)을 현혹하게 하였으니, 스스로 지극히 공평하여 사심(私心)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는 잘 지껄이는 사람에게 오도(誤導)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송중손은 응당 말하기를, ‘나는 관위(官位)가 낮고 세력이 가벼우며, 저 사람은 관위가 높고 세력이 무거우니, 내 일이 본시 옳은데도 관청에 굴(屈)함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습속은 논의(論議)에 있어서, 반드시 높은 이를 억제하고 낮은 이를 올려 주어서 자기의 정대(正大)함을 보이게 되니,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세 번 들고는

1) 진(秦)나라의 성(姓)은 영씨(嬴氏)인데, 시황(始皇) 정(政)이 여불위(呂不韋)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음. (국역 왕조실록 원주)

2) 진(晉)나라의 성(姓)은 사마씨(司馬氏)인데, 진 원제(晉元帝)가 우금(牛金)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음. (국역 왕조실록 원주)

비로소 짜던 베들의 북을 던지는 의심³⁾과 아무 근거도 없이 이웃 사람의 도끼를 훔쳐 갔으리라는 견해⁴⁾가 없겠습니까. 하물며,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의논하여 그 시비를 결정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를 의논하게 한다면 앞의 소견에 반대하게 되는 것은 고금의 공통되는 법도인데, 지금 이미 먼저 들은 말로써 주견(主見)을 삼고 형조의 의논한 것을 그렇게 여겨, 모든 입론(立論)을 다 반대하게 되니, 어찌 그리 치우치는 것입니까. 형조의 의논이 옳다면 오늘날의 의논이 반드시 그르게 될 것이며, 오늘날의 의논이 옳다면 형조의 의논이 반드시 그르게 될 것이니, 곡직의 변고가 반드시 귀착(歸着)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대저 옥사(獄事)를 국문하는 사람은 마땅히 공평 무사한 마음으로 청찰(聽察)하여 그 실정을 알아내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의심나는 옥사(獄事)를 판결하고자 하면서 먼저 자기가 의심을 내어, 의심나는 단서를 풀지 않고서 곧장 죄안(罪案)을 교묘하게 꾸며서 만들려고 하니, 다만 어리석고 약한 아이가 옛 마을과 산천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써 증거로 삼아, 먼저 그 아버지에게 곤장을 치고, 다음에 증인에게 곤장을 쳐서, 3일 안에 연달아 두 차례나 곤장을 쳐서 무복(誣服)을 꼭 받도록 하고, 송중손 등은 의심나는 말을 임시 변통으로 진술하였는데도 모두 덮어두고 추문(推問)하지도 않으니, 이것이 불공평함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신은 간절히 마음이 상하고 간절히 마음이 상합니다. 청하옵건대 날날이 조목별로 뒤에 진술하겠사오니, 만약 신의 부자(父子)가 과실을 꾸미고 그른 것을 꾸며서 성충(聖聰)을 모독한다면, 천지 귀신이 위에서 굽어보고 옆에서 대질하게 되는데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다른 대신(大臣)에게 명해서 공평 무사하게 청단(聽斷)하여 형조와 의금부의 시비(是非)를 판결하여 원왕(冤枉)을 펴 주고 천륜(天倫)을 바로 잡는다면, 공도(公道)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의 아버지는 갑자년에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여 전의현(全義縣) 남촌(南村)에서 여묘(廬墓)를 살았는데, 그해 여름에 목천(木川)의 접노(接奴) 김삼(金三)이 그 아들 김산(金山)을 데리고 전의(全義)의 본가(本家)에 이르러 그 아들을 두고, 신의 부자(父子)를 여차(廬次)에서 보고 그대로 수일(數日)을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아들이 도망하여 간 곳을 알 수가 없었으나, 그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마침내 뒤를 밟아 쫓아가지 아니했는데, 그

3) 노(魯)나라 증자(曾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세 번 듣고서야 비로소 의심이 나서 짜던 베들의 북을 던지고 일어났다는 고사(故事)가 있음. (국역 왕조실록 원주)

4) 아무 근거도 없이 이웃 사람의 아들이 자기집 도끼를 훔쳐 갔으리라고 의심했다는 고사(故事)가 있음. (국역 왕조실록 원주)

아버지가 그 집에 돌아가 보니 있지 않았습니니다. 사방으로 찾아보았으나 찾아내지 못한 지가 지금 2년이나 되었습니다. 금년 4월 27일에 해가 저물었는데 한 조그만 아이가 신의 아버지 집에서 구걸하므로, 비(婢)가 처음에 그 아이를 보니 바로 그전에 잃었던 김산이었습니다. 그의 형 김녹(金祿)이 이를 보고는 또한 말하기를, '김산이다.' 하니, 아이도 또한 그렇게 여기고 머물러 있으면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의 아버지는 이날 인정종(人定鐘)이 울린 뒤에 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듣고서, 그 얼굴을 증거 삼고자 하였는데, 신의 아버지는 본디 그 아이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지내온 내력을 물어 보니 모두 맞았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감히 그 아이가 그러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보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사람을 시켜 데리고 그 집으로 가게 했는데, 아이가 고의로 그 집을 바로 가리키지 않으므로, 마을의 관령(管領)과 함께 가도록 했으나, 관령을 보지 못한 까닭으로 3일 만에야 가게 되었던 것인데, 그 문자(文字)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의 아버지가 만약 조금이라도 그 사이에 사의(私意)가 있었다면 어찌 명백정대(明白正大)하게 관령과 더불어 그 집에 찾아주도록 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사리(事理)와 인정(人情)의 매우 명백한 것입니다.

1. 무릇 다른 사람의 노비(奴婢)를 속여 자기의 사역(使役)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유인하여 숨기고는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려워하여, 혹은 구류(拘留)하기도 하고, 혹은 방매(放賣)하기도 하는데, 이같이 무상(無狀)한 소인(小人)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서울 도성(都城) 밑에서 다른 아이를 차지하여 그 집에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이 아이는 진실로 우리 집 종이고 너희 아들은 아니다.' 한다 하니,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교활한 도적이니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신의 아버지는 비록 불초(不肖)하지마는 태평한 세상에功名(功名)을 기록하고 성명(聖明)을 만났으니, 그가 감히 이런 등류의 일을 하고서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처음부터 속여 차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마땅히 먼 지방에 두고 길러서 장성하기를 기다린다면 사람들이 저절로 알지 못하게 될 것인데, 어찌 먼저 그 집을 찾아가게 한 뒤에 그 아버지를 불러서 시비(是非)를 분변하고 목천(木川)의 여러 사람들을 끌어내어 증거로 삼게 하겠습니까. 그 계획을 세움이 또한 수고롭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사리(事理)와 인정(人情)의 매우 명백한 것입니다.

1. 신의 아버지가 김삼을 불러서 왕복(往復)한 사이가 몇 10여 일이 된 뒤에야 오게 되었는데, 그에게 그 집에 가서 시비(是非)를 증험해 보게 하니 조금도 의심나는 말이 없었으므로, 이에 형조에 정소(呈訴)하여 이를 변명하게 하였습니다. 대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비록 복종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먼저 굴복하게 되는 것인데, 이 아이가 만약 천장명(千長命)의 아들이라면 그 집에서 어찌 먼저 관청에 정소(呈訴)하여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서 앉아서 김삼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김삼이 만약 의심을 품고 보았다면 또한 먼저 스스로 물러갈 것이지, 어찌 감히 형조에 정소(呈訴)하여 변명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정리(情理)의 명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1. 무엇 사람의 상모(狀貌)와 일의 허실(虛實)이란 것은 언어(言語)로써 형용할 수는 없으니, 비록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게 하더라도, 만약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이 실제 행하지 않았다면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 드문 법인데, 어리석은 아이를 잠시 동안에 달래어 가르치고서 후일(後日)의 증거를 삼고자 한다면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달래어 가르치려고 한다면 진실로 마땅히 세월(歲月)을 두고 그로 하여금 익히고 들도록 해야 할 것인데, 어찌 급급히 그 집에 돌려보내어 맡기겠습니까. 지금 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지는 겨우 3일 뿐이고, 장명(長命)의 집에 있는 지는 이미 수년(數年)이나 되었으니, 그를 달래어 가르치기를 누가 하였겠습니까. 형조에 있을 적에 그 아버지가 이웃에 사는 황보공(皇甫恭)으로써 이를 증명하게 하므로, 형조에서 황보공을 불러서 물으니, 황보공이 아이가 김삼(金三)의 자식인 것을 알고 있었고, 아이도 또한 황보공이 개동(介同)의 아버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령 황보공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이가 무슨 이유로 황보공이 아무의 아버지인 줄 알겠습니까. 하물며, 이 아이는 목천(木川) 사람을 보고 아는 사람이 자못 많았는데, 가령 명호(名號)를 달래어 가르쳤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이 사람들을 미리 모아서 아이로 하여금 친히 면목(面目)을 보고서 이를 기억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형조에서 공공연히 아이로 하여금 먼저 이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고서 의금부로 옮겨 국문(鞫問)한 후에, 이 아이도 또한 목천 사람을 알고서 '이는 아무이고, 이는 아무이다.' 한다면, 이 아이는 상시 부내(府內)에 있었고, 목천 사람은 외부에서 왔는데, 아이가 무슨 이유로 이를 알겠습니까. 사실 증거의 명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1. 형조에서 김삼의 아내 삼가(三加)를 전의(全義)에서 불러 오고, 또 장명(長命)의 아내 분이(粉伊)를 죽산(竹山)에서 불러 왔는데, 두 어머니가 이르러서 아이들을 한데 모아 앞에 죽 늘어세우고는, 두 어머니로 하여금 이를 분변하게 하였더니, 분이가 형조의 아이를 점치면서 자기 아들이라 하니, 형조에서 재삼(再三) 힐문(詰問)하기를, '이 아이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내가 내 아이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삼가는 말하기를, '여러 아이들 중에서 내 아들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재삼(再三) 힘써 분변하게

하였으나, 이 아이는 과연 그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몸에 흉터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니, 삼가는 '배꼽 위에 한 작은 흉터가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형조에서는 그 흉터를 보지 못하였는데 이 여인이 가리켜 보이니, 그 말이 과연 맞았습니다. 분이는 그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 흉터도 기억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거짓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만약 '삼가는 배워서 능히 말하게 되었다.' 고 한다면, 가령 삼가가 배워서 말했다면 분이는 어찌 그 아들의 얼굴과 흉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서로 떨어진 것이 비록 어린아이였을 시기일지라도 그 어머니는 그래도 비슷한 모습을 알 것인데, 하물며, 이 아이는 나이 7세가 넘어 두각(頭角)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비록 먼 지방에 서로 떨어져서 수십년(數十年)이 지났더라도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굵고 곧은 것을 가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1. 김삼과 그 아내가 세상 사람들을 우롱(愚弄)하고 의혹(疑惑)한 것이 매우 심한 편이며, 장명과 그 아내는 간사하고 교활한 것이 우심(尤甚)한 자입니다. 그 말을 들어 보고 그 안색을 살펴본다면 그의 굵고 곧은 것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물며, 장명이란 사람은 그 마음이 정직하였다면 진실로 마땅히 스스로 나타나서 먼저 시비(是非)를 변명해야 될 것인데, 형조의 계하(階下)에 잠복(潛伏)해 있다가 사변(事變)을 환히 알고서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었으니, 그가 굵은 것을 또한 가히 알 수 있겠습니다.

1. 분이는 말하기를, '이 아이의 일은 우리 주인이 능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므로, 이에 형조에서 천보(千甫)의 사유를 죽산(竹山)의 중손(重孫)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유년 부임(赴任)할 때에 천보를 그 아버지 장명(長命)에게 맡겨 두고 왔습니다.' 하니, 그 말이 장명의 말한 바와 합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물으니 말을 변경하기를, '신유년 8월에 데리고 부임(赴任)했는데, 임술년 2월에 그 아버지가 데리고 갔습니다.' 하였으니, 그 앞뒤의 말한 바가 각기 달랐습니다. 형조에서 중손을 불러 아이의 형모(刑貌)를 물으니, 중손은 말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끝까지 힐문(詰問)하니 그제야 말하기를, '이 아이는 우리 집 종이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장명의 말한 바도 매우 어긋남이 많았습니다. 그 가까운 이웃의 공사(供辭)에도 천보를 본 연월(年月)이 또한 같지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의금부로 옮겨서 국문한 이래로 중손은 말하기를, '내가 집에 있을 때에 이 아이가 행랑(行廊)에 있었는데, 아침저녁으로 인하여 그 모양을 보지 못하고, 죽산에 있을 때는, 일이 바빠 또한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 얼굴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을 때에 아이의 나이가 6세이므로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을 것인데, 비록 행랑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볼

수 있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죽산에 있을 때는 아내(衙內)의 방사(房舍)가 눈앞에 빙 둘러 있었으니, 사무가 비록 바쁘더라도 관아(官衙)에 물러와서 밥 먹은 것은 수령들의 상례(常例)인데, 어찌 한번 보고 한번 말한 때가 없으므로 전혀 그 얼굴도 알지 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의 간사하고 거짓이 이보다 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마을의 관령(管領)과 가까운 이웃 사람들이 모두 공모(共謀)하여 말을 모으기를, ‘이 아이를 본 지가 지금 벌써 5년이 되었다.’ 고 하니, 그들의 굽은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1. 장명이 천보를 죽산에 데리고 온 연월(年月)이 혹은 봄이라 하고, 혹은 가을이라 하여, 앞뒤에 말한 것이 같지 않으니, 그 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그 아들이라면 그 어머니를 따라 고을 관아(官衙)에 편안히 앉아서 음식을 먹고 의복을 입는 데에 근심이 없기를 보장할 것인데, 어찌 가난한 집에 데리고 와서 해진 옷을 입고 남에게 붙여 생계(生計)를 이어가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그의 속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1. 중손의 앞뒤에 말한 바가 스스로 서로 어긋나서 맞지 않으니, 그런 까닭으로 되풀이하면서 끝까지 힐문(詰問)할 때에, 사리(事理)가 굴(屈)하고 말이 궁해져서 능히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여 밤을 틈타 옥문(獄門)을 열고 나와서 도망하였으니, 실정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뒤쫓아 체포하여 도로 가두매, 술을 가져온다고 핑계하였으니, 그 말을 믿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양동(陽東)의 일을 교묘하게 꾸며서 이를 어지럽게 하였으니, 이것이 더욱 신이 매우 민망히 여기는 바입니다. 양동의 집은 비록 신의 아버지의 집과 가까이 있지만, 실제로는 중손(重孫)과 사이가 좋으며, 양동은 강리(康履)의 처남(妻舅)이요, 중손은 강리의 매부(妹夫)이니, 그들의 정리가 범연(泛然)한 사이가 아닙니다. 하물며, 양동이 말한 전득수(全得水)란 사람은 장명과 근친(近親) 관계이므로, 이 사실을 주장하고 꾸며내어 그 옥사(獄事)를 만들었으니, 비록 달콤한 말을 하고 후하게 물건을 주어서 온갖 방법으로 되풀이하더라도 능히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의 아버지가 비록 어리석지만은 어찌 감히 양동으로 인하여 득수에게 뇌물을 써서 스스로 도움을 얻었겠습니까. 비록 삼척 동자(三尺童子)일지라도 또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아버지가 양동과 더불어 말한 것은 천보의 있고 없음과 이 아이를 본 연월(年月)을 알고자 한 데 불과(不過)할 뿐이었으니, 진실로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차 관청에 알려져 상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양동에게만 이를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일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 반드시 이에 미쳤던 까닭으로, 양동도 또한 이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의 집에서 또한 득수(得水)에게 옷을 주지 못하였는데도 양동이 먼저 그 옷을

주려고 한 것은 신도 또한 그 의도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장차 저 사람에게 사이 좋게 지내어서 그 사이를 어지럽히려고 한 것입니까, 장차 이웃집의 일로써 그 실정을 알려고 한 것입니까. 그러나, 신의 아버지의 사정(事情)이 바른 것은 또한 가리울 수 없는 것입니다.

1. 이 아이가 목천(木川)을 알지 못하는 것은 신이 그옥이 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이 아이가 목천(木川)과 전의(全義)의 사이에서 말을 타고 갔던 일은 절대로 없었으며, 다만 사람을 따라 걸어갔을 뿐이었는데, 지금 말 위에 올라 태우고 빨리 달려서 갑자기 예전의 놀던 땅에 갔는데, 참으로 꿈속에 찾아간 듯하여 앞일도 아득하고 뒷일도 불명하여 능히 기억하지 못하니,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데리고 간 관원은 비록 공정(公正)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종자(從者)가 뇌물을 받고 가만히 저주하여 고의로 미혹(迷惑)하게 했는가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전의(全義)에서 머문 지가 겨우 7, 8일인데도 말한 바의 산천의 형세와 나무의 있고 없는 것도 또한 맞는 것도 있으니, 또한 전연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천(木川)에서도 또한 그러했으니, 비록 신자경(申自敬)의 집을 가리켜서 목천(木川)의 관원이라 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따라가서 환상(還上)을 받은 일이 사실이라면, 어찌 장명(長命)의 아들이 김삼(金三)을 따라가서 목천(木川)에서 환상을 받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의심할 만한 일입니다.

1. 신하가 명령을 받고 밖으로 나가면 마땅히 이른 밤에 길을 떠나야 될 것인데, 알 수 없는 일은, 이중(李重)의 무리는 무슨 이유로 용인(龍仁)으로 돌아와서 1일을 머물고는, 그래도 부족하여 또 그 이튿날 해가 진 뒤에야 복명(復命)하는 것입니까. 만약 계본(啓本)을 만들기 위해서라 말한다면, 지금 겨울 밤이 지극히 기니 수일(數日) 밤이면 능히 계본(啓本)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개(金概)는 중손(重孫)의 예전 매부(妹夫)이요, 이중(李重)은 김개 아내의 숙모부(叔母夫)이니, 신이 의심이 없을 수 없는 것은 또한 이 때문입니다.

1. 지금 이 아이가 목천(木川)과 전의(全義)를 명백히 알지 못한 일로써 근거를 삼아, 중손이 도망해 나온 본디 사정과 여러가지로 꾸며낸 말에 대해서는 다시 신문(訊問)하지 아니하고, 장명과 그리고 가까운 이웃의 어긋난 단서(端緒)에 대해서는 처음에 알지 못한 듯하고는, 작은 아이를 위협하여 장차 매를 치려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물으니, 또한 김삼을 일러서 아버지라고 하니, 그 진정(眞情)은 그래도 알 수 있는데 도리어 김삼을 매질하고, 또 목천(木川)의 여러 사람들을 매질하여 무복(誣服)을 꼭 받아서, 신의 아버지의 죄를 얹어서 법망(法網)에 끌어넣으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지극히 공평하고 치우치지 않는 의논이겠습니까.

만약 이 아이가 목천을 알지 못하는 일로써 증거를 삼는다면, 어찌 죽산(竹山)을 알지 못하는 일로써 핑계를 삼아서 중손을 국문(鞫問)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김삼을 일러 아버지라 한 일로써 도리어 그 아버지를 곤장을 친다면, 어찌 장명을 일러 그 아버지라 하지 않는 일로써 장명을 곤장을 치지 않습니까. 옥사(獄辭)의 판결은 한마디 말의 사이에 있는데도 지금까지 판결이 나지 않는 것은, 다만 이 아이가 어리석어 밝지 못하고 사건이 애매한 데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천과 전의의 행차는 명백한 증거라 말할 수 있는데, 중손의 어긋난 단서(端緒)는 끝내 신문(訊問)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 아이가 부모라 말할 줄 아는 것은 믿지 않으며 예전 마을을 보지 못했다는 것만을 증거로 삼아서 도리어 그 아버지를 곤장을 치게 되니, 아이가 만약 죽지 않고 장성한다면 마침내 그 아버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천도(天道)가 만약 얕이 없지 않다면 어찌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라 하였으나, 회답하지 않았다.

守集賢殿校理朴彭年上書曰 臣父子俱以庸愚 叨蒙聖恩 福過災生 臣父在獄 已逾二旬 抱冤鬱抑 臣亦無以爲心 敢昧死以聞 伏惟憐察焉 臣聞天下之事 是非不兩立 曲直不相侔 若以是爲非 以曲爲直 則是變之大者也 至於父子之倫 本是天屬之親 此豈人之所可變易也 人事雖暗昧於一時 而是非曲直 終不得欺其天 嬴呂馬牛之變 僞朝般若之獄 播在史冊 駭人聽聞 今金山之事 其父奴金三 與宋重孫婢夫千長命初訟於刑曹 是非本明 曲直自現 而臣父無與焉 自移鞠義禁府後 以臣父爲奴主 逮繫問之 義禁府眩於是非 將變曲爲直 臣竊痛心 臣父於此事 本無阿曲 專不說與於人 重孫自知其非 飾詐萬端 眩惑衆聽 自非至公無我者 未免爲饒舌所誤 重孫應曰 吾位卑勢輕 彼位高勢重 吾事本是 而將受屈於官 今之習俗於論議 必抑尊而揚卑 以示己之正大 聞是說者 孰無投杼之疑 竊鐵之見歟 而況一人議一事 定其是非 又一人議之 則反前所見 古今通患 今已先入之言爲主 刑曹所議爲非 凡諸立論 悉皆反之 一何偏也 刑曹之議是 則今日之論必非 今日之論是 則刑曹之議必非也 曲直之變 將必有所歸矣 大抵鞠獄者 當虛心聽察 以得其情 今欲決疑獄而先自生疑 不解疑端而經欲鍛鍊成之 徒以癡弱之童不記故里山川爲證 先杖其父 次及證人 三日之內 連杖二次 期取誣服 重孫等疑辭曲設 皆蔽不問 是何不公之甚也 臣切痛心 臣切痛心 請一一條陳于後 如臣父子 文過飾非 以瀆聖聰 則天地鬼神臨之在上 質之在旁 焉敢誣哉 伏望殿下命他大臣 虛心聽斷 以決刑曹義禁府之是非 以伸冤枉 以正天倫 公道幸甚

一 臣父於甲子年丁父憂 廬于全義縣之南村 其年夏 木川接奴金三率其子金山到全義本家置其子 見臣父于廬次 仍留數日 一日 其子亡去 不知所之 謂還其家

終不追躡之 其父還其家 則無有也 旁搜未得者 于今三年矣 今年四月二十七日 日且暮 有一小童行乞于臣父之家 婢初見之 乃前所失金山也 其兄金祿見之 亦曰金山也 童亦然之 留而不去 臣父於是日 人定鍾後還家得聞之 欲徵其面 則臣父本不見之 問其所從來 則皆是也 雖然未敢保其然否也 翌日 令人率付其家 童故不直指其家 且須與里之管領同付之 以未見管領之故 三日乃赴之 其文字猶在焉 臣父若有一毫私意於其間 則何必明白正大 與管領保授其家乎 此事理人情之明甚者也

一 凡冒認他人奴婢 以爲己使者 必先引誘掩匿 猶恐人知 或拘留之 或放賣之 如此無狀小人 容或有之 至於京都輩[輦]轂之下 占他童子 執付其家 謂曰 此真吾家奴也 非爾之子也 爲此舉者 是天下猾賊 自古及今有幾人哉 臣父雖無似 策名清時 遭遇聖明 其肯爲如此等事而不言乎 若初有冒認之心 當置諸遠方 以待長養 則人自不知之 何必先付其家 然後招其父辨其是非 引木川諸人以爲證乎 其爲設計 不亦勞乎 此亦事理人情之明甚者也

一 臣父招金三 往復之間 幾十餘日 然後乃來 令往其家 驗其是非 則略無疑辭 於是呈刑曹辨之 大抵爲惡者 外雖不服 而心自先屈 此童若干長命之子 則其家何不先呈於官 自以爲是 而坐待金三之來乎 金三若疑見 則亦先自退 何敢呈于刑曹 以待辨明乎 情理之明白者此也

一 凡人之狀貌 事之虛實者 未可以言語形容 雖使耳聞而舌話 若不目覩身履 則鮮有不相齟齬者 教誘癡童於立談之間 而欲爲他日之證 容可保乎 如欲教誘 則固當期以歲月 使之習聞 何急急還付其家乎 今在臣父之家纔三日 而在長命之家已數年矣 其教誘也 孰得而爲之乎 在刑曹 其父以鄉隣皇甫恭證之 刑曹招恭問之 恭能識童之爲金三子也 童亦識恭之爲介同父也 假使恭爲不可信也 童子何緣知恭之爲某父也 況此童見知木川人頗多 假使能教誘名號 安能預集此人 使童子親見面目而記之耶 若曰刑曹不公 使童子先見此人 則移鞠義禁府後 此童亦知木川人曰 此某也 此某也 此童常在府內 木川人自外至 童子何緣知之歟 事證之明日[白]者此也

一 刑曹徵金三之妻三加于全義 又徵長命之妻粉伊于竹山 兩母至 群聚兒童列於前 使兩母辨之 粉伊占刑曹兒爲己子 刑曹再三詰之曰 非是則何如 答曰 吾不知吾兒乎 三加則 群兒中 吾子無有也 再三力辨之 此童果不在其中矣 且問身癩有無 三加曰 臍上有一小癩 刑曹未見其癩 此女指視之 其言果驗 粉伊不知其面不記其癩 其詐立見矣 說者若曰三加學而能言之 假使三加學而言之 粉伊何不知其子之面與癩乎 相離雖在孩提之時 其母猶可髣髴也 況此童年逾七歲 頭角已成矣 雖分離胡越 以隔數十年 何不知之有哉 其曲直可知也

一 金三與其妻之愚惑 天下莫甚 長命與其妻 姦猾之尤者也 聽言觀色 其曲直不難知也 況長命者 其心若直 則固當自見 先卜是非 乃潛伏刑曹階下 洞知事變 而見獲於人 其曲亦可知也

一 粉伊云 此童之事 吾主能言之 於是刑曹問千甫事由於竹山重孫 答曰 辛酉年赴任時 付千甫於其父長命來 其言不與長命所言合 又問之 則變辭曰 辛酉八月率以赴任 壬戌二月 其父還率去 其前後所言各異 刑曹招重孫問童之形貌 重孫曰 不知也 至於窮詰 則乃曰 此非吾家奴也 長命所言 甚多違忤 其切隣供詞所見千甫年月 亦多不齊 自移鞠義禁府以來 重孫曰 吾在家時 此童在行廊 因早暮不見其貌 在竹山時 因務劇亦不見之 以故不識其面 然在家時童年六歲 無處不到 雖在行廊 豈無可見之時 在竹山時則衙內房舍周匝 眼前務雖劇矣 退食於衙守令常例也 豈無一見一語之時 而謂專不識其面乎 其姦回詐諛 莫此爲甚 於是里之管領與切隣人等悉與同謀合辭曰 此童之見 今已五年矣 其曲亦可知也

一 長命率來千甫於竹山年月 或春或秋 前後所說不同 其詐可知也 且如其子也 則隨其母安坐縣官 飲食衣服 保無憂也 何必率來貧家 衣懸鶉之衣而糊口於人乎 此其詐 亦可知也

一 重孫前後所言 自相矛盾 故反復窮詰之際 理屈辭窮 不能自明 犯夜開出獄門而逃 其情已露矣 追捕還囚 則托以致酒 此其說 可信聽歟 又巧飾陽東之事以亂之 此尤臣之所深憫也 陽東之家 雖近臣父之家 實與重孫有好 陽東 康履之妻甥 重孫 康履之妹夫也 其情非泛然比也 況陽東所語全得水者與長命近親 此事實主張造飾 以成其獄 雖甘言厚施 反復百端 其不能回心也 可知已 臣父雖愚 豈敢因陽東行賂得水以自助乎 雖三尺之童 亦所不爲也 臣父與陽東所言 不過欲知千甫有無及見此童之年月 苟有直言者 則將告官行賞耳 非但與陽東言之 人有問此事者 言必及之 故陽東亦得聞之也 臣家亦不與衣於得水 而陽東先欲與其衣者 臣亦未料其意也 將以親好於彼而欲亂於其間耶 將以隣家之事而欲知其情耶 然臣父事情之直 亦不可掩也

一 此童之不知木川 臣竊疑之 前此此童於木川全義之間 絕無騎馬之行 但隨人徒步耳 今擁置馬上 驅馳之忽遽之 舊遊之地 真若夢尋 迷前恍後 不能記憶 未可知也 率去之官 雖曰公正 從者受賂陰詛 故使迷惑 亦未可知也 若於全義所留才七八日 而所言山川形勢樹木有無 亦有合者 亦不可謂全然不知者也 於木川亦然 雖指申自敬之家爲木川官也 其隨父受還上之事 是其實也 何有長命之子隨金三受還上於木川乎 是可疑也

一 人臣受命出外 當夙夜而行 不知李重輩何緣還到龍仁 留一日猶不足 又明日日沒後復命乎 若曰修啓本云耳 則如今冬夜至永 可於數夜能修之也 金漑 重孫

之故妹夫也 李重 溉妻之叔母夫也 臣不能無疑者 亦以此也

一 今以此童不明曉木川全義爲據 於重孫逃出元情及多般飾辭 更不問訊 長命及切隣違端 初若不知 然恐嚇小童 將欲撻之而問其父 則亦謂金三爲父 其真情猶可知也 而反杖金三 又榜掠木川諸人 期取誣服 羅織臣父之罪 此豈至公不偏之論也 若以此童不知木川爲據 則何不以不知竹山爲辭 以鞫重孫乎 以童之謂金三爲父 而反杖其父 則何不以謂長命非其父也 而杖長命乎 獄辭之決 在片言之間 而至今未決者 只以此童癡騷不明 而事關曖昧耳 今木川全義之行 其可謂明證 而重孫之違端 終不得訊歟 一童也而知言父母則不信 未見故里則取以爲證而反杖其父 童若不死以長 則終可定其親也 天道若不無知也 豈不深可畏也 不報

曰臣父子俱以庸愚叨蒙 聖恩福過父生臣父在獄已逾二旬抱冤
望抑臣亦無以爲心敢昧死以聞伏惟 惟察焉臣聞天下之事是非不
兩立曲直不相侔若以是爲非以曲爲直則是非之大者也至於父子
之倫本是天屬之親比豈人之所可變易也人亦雖階級於一時而是非
曲直終不可欺其交亂呂馬牛之變僞朝赦若之微播在史冊厥入聽聞
今金山之事其父奴金三與宋重孫輝夫子長命初訟於刑曹是非本
明曲直自現而臣父在獄爲自矜執禁府後以臣父爲奴主逮繫問
之義禁府駭於是非將變曲爲直臣竊痛心臣父於此事本無阿曲事
不說與其人重孫自知其非飾詐萬端眩惑衆聽自非至公無我者未
免爲說者所誤重孫應曰吾性卑勢輕彼位高勢重吾事本是而將受
屈於官今之習俗按論議必抑卑而揚卑以示己之正大聞是說者孰
無投杼之疑竊鐵之見歟而况一人議一事定其是非又一人議之則
及前所見古今通患今已先入之言爲主刑曹所議爲非允諸立論悉
皆反之一何偏也刑曹之議是則今日之論必非今日之論是則刑曹
之議必非也曲直之變將必有所歸矣夫托鞠獄者當虛心聽察以得
其情今欲決疑獄而先自生疑不解疑端而經欲鍛鍊成之徒以乘弱
之童不記故里山川爲證先杖其父次及證人三日之內連杖二次期
取誣服重孫等疑辭曲說皆蔽不問是何不公之甚也臣切痛心臣切
痛心請一條陳于後如臣父子文飾飾非以瀆 聖聽則天地鬼神
臨之在上質之在旁焉敢託伏望 殿下命他大臣虛心聽斷以決
刑曹義禁府之是非以伸冤枉以正天倫公道幸甚一臣父求甲子年
丁父憂廬于全義縣之南村其年夏木川接奴金三率其子金山到全
義本家遺其子見臣父子廬次仍留數日一日其子亡去不知所之謂
遷其家終不追躡之其父還其家則無有也旁搜未得者于今二年矣
今年四月二十七日且暮有一小童行乞于臣父之家婢初見之乃
前所失金山也其兄金極見之亦曰金山也愛亦然之留而不去臣父
於是日人定鍾後還家得聞之欲微其面則臣父本不見之間其所發

宋則皆是也雖然未敢保其然若也至日令人率付其家童故不直指其家且須與里之管領同付之以未見管領之故三日乃赴之其文字約在馬臣父若有一毫教養其間則何必明白正大與管領保授其家乎此事理人情之明甚者也一凡冒認他人奴婢以為已使者必先引誘搗匿猶恐人知或拘留之或放賣之如此無狀小人容或有之至於京都董敷之下占他童子執付其家謂曰此真吾家奴也非爾之子也為此舉若是天下猶賊自古及今有幾人哉臣父雖無似策名清時遭遇聖明其責為如此等事而不言乎殆初有冒認之心當置諸法方以待其養則人自不知之何必先行其家然後招其父辨其是非引木川諸人以為證乎其為設計不亦勞乎此亦事理人情之明甚者也一臣父招金三往復之間幾十餘日然後為來令往其家聽其是非則略無疑辭於是皇刑曹辨之大抵為惡者外雖不服而心自先屈此董若千長命之子則其家何不先呈於官自以為是而坐待金三之來乎金三若獲見則亦先自退何暇呈于刑曹以待辨明乎情理之明白者比也一凡人之狀貌事之虛實者未可以言語形容難使耳聞而舌語若不自親身履則鮮有不相翻覆者教誘乘重於立談之間而欲為他日之證安可得乎如欲教誘則周常明以歲月使之習聞何忌登還付其家乎今在臣父之家纔三日而在長命之家已數年矣其教誘也孰得而高之乎在刑曹其父以鄉隣皇而恭謹之刑曹招故問之恭能識童之高金三子也董亦識童之高介同交也假使恭為不可信也童子何疑和恭之高其父也况此童初知未川人頗多假使能教誘名耶安能預矣此人使童子親見面而記之耶若曰刑曹不公使童子先見此人則移物與禁府後童亦知未川人曰此某也此某也此童常在府內未川人自外至童子則疑知之數事證之明日者此也一刑曹徵金三之妻三加于公義又徵長命之妻粉伊子竹山西母至群飛兒童列於前使兩母辨之粉伊占刑曹兒為己子刑曹再三詰之曰非是則何如答曰吾女知吾兒子三加則群兒中吾子雖有一小麻刑曹未見其麻異乎在其中矣且何身麻而無三加曰膺上有一小麻刑曹未見其麻此女指視之其言果驗粉伊不知其面不識其面其言立見交誼者若向三加學而能言之假使三加坐而不言之粉伊何不知其子之面與手相驗雖在狡捷之時其母猶可矚也况此童年逾七歲頭角已成矣離分離胡越以隔數十年何不知之有哉其曲盡可知也一金三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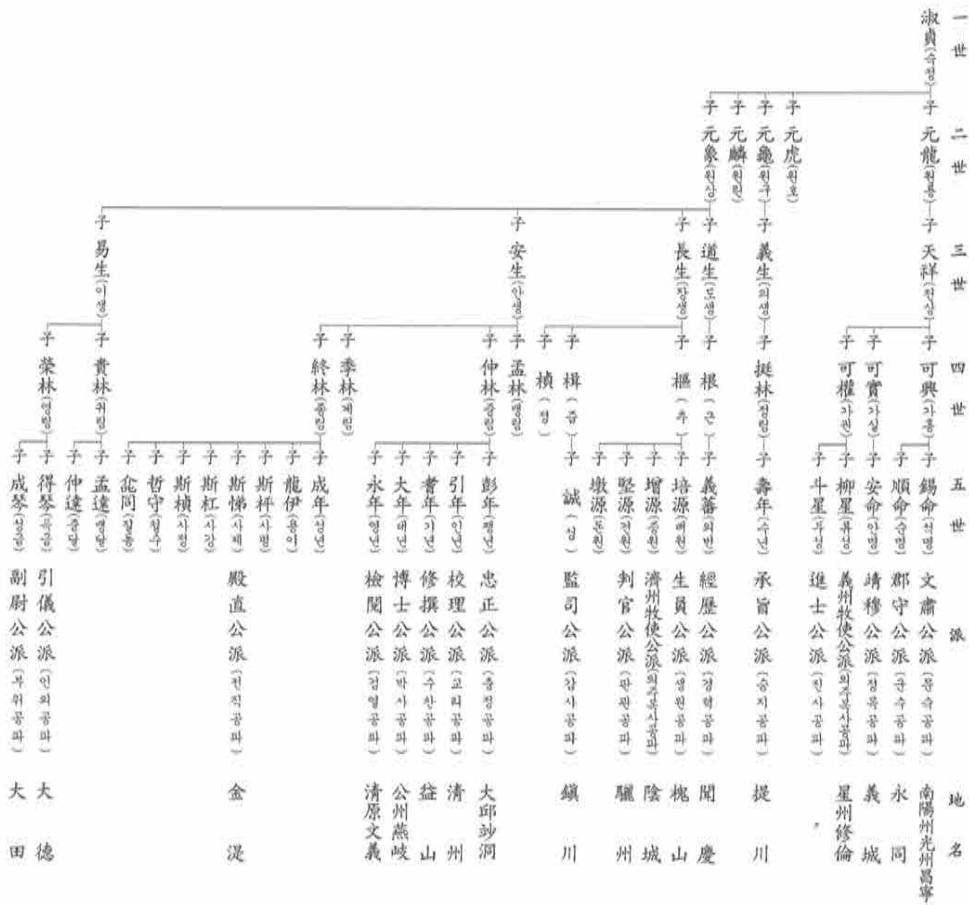
若之也或天下豈甚長命與其妻非居之尤者也聽言觀色其曲直不難和也况長命者其心若直則兩當自見先下是非潛伏刑曹階下洞知事變而見獲於人其曲亦可知也一粉伊云此童之事吾主能言之於是刑曹問于甫甫由於竹山重孫答曰辛酉年赴任時付于甫於其父長命來其言又與長命所言合又問之則變辭曰辛酉八月奉以赴任在成二月其父還鄉去其前後所言各異刑曹招重孫問童之形貌重孫曰不知也至於窮詰則曰此非吾家奴也長命所言甚多違忤其詞據供詞所見于甫年月亦多不齊有移測其禁府以去重孫曰吾在家時此童在行旅因早暮不見其數在竹山時與粉伊亦不見之及故不識其面然在家時年六歲委妻不到難在行旅豈無可見之時在竹山時則則房舍周匝眼前粉伊與妻不至於衙守令常例也查悉一見一語之時而謂忠不識其面乎其後回詳護其此如甚於董里之管領與切傳人等與同謀合辭曰此童之見今已五年矣其曲亦可知也一長命年來于甫於竹山平月或春或秋前後所說不同其詳可知也且其子也則隨其母安坐縣官飲食衣服保無差也何必爭求食家本懸為之衣而擲口於人手此其詳亦可知也一重孫前後所言自相矛盾故及復窮詰之際理屈辭窮不能自明犯夜間出獄門兩逃其情已露矣進捕獲則托以飲酒比其說可信聽敵又巧飾粉伊之言以亂之此尤臣之所深測也陽東之室則近臣父之家實與重孫有奸陽東所稱全得水者與故命近視此事實主張造飾以成其獄雖甘言厚施以積百端其不能回心也可知也臣父雖愚豈敢周陽東行賄得水以有物乎雖三入之實亦所不為也臣父與陽東所言不為欲知于甫有無及見此童之年月於其自言者則皆言其嘗耳非但與陽東言之入有問此事者言及之故粉伊亦得聞之也臣父亦不表於得水而陽東生欲與其衣者臣亦未料其意也將以親好若然則粉伊則耶耶以障家之事而欲知其情耶然臣父重情之直亦不可掩也此童之不知未川臣所竊疑之前此童於未川金三之問能無購焉之行但隨人反叛耳今檢置馬上驅馳之想遠之而置之地豈容其遠前此物不能記憶未可知也馬去之官雖曰公正從者受賂賄阻故更恐亦未可知也若夫全義所留才七八月而所言山川形勢樹木有無亦合者亦不可謂全德不知者也按未川亦然雖樹木有敬之家為未川官也其隨父受賄上之毒是其實也可有長命之子隨金三受賄上之毒

川乎是可殺也一人臣受命出外當夙夜而行不知孝重輩何緣運到
前仁留一日猶不覺又明日日沒後復命乎若曰修故本云耳則如今
冬夜至水可於彼夜能修之也金既重錄之故妹夫也幸重既非之叔
母夫也臣不能無對者亦以此也一本以此童子明曉木川金賤爲據
不重孫逃出元情及多般論議更不問訊長命及切賸邊端勿若不知
然恐嚇小童將欲殺之而問其父則亦謂金三爲父其真情猶可知也
而反杖金三又持掠木川請入期取經服罪職臣父之罪此豈至公不
偏之論也若以此童不知木川爲據則何不以其竹山爲辭以勒重
孫乎以童之謂金三公父而反杖其父則何不以其童棄其父也而
杖長命乎獄辭之又在片言之間而至今未決者其以此童棄其父而
爾職味耳今木川金三之行其可謂明詳而重孫之惡固然不得訊較一童
也而可知言父母則不信未見故里則取以爲證而反杖其父童若死
以長則終可定其親也天清若不無知也豈不深可畏也不報

〈별첨 2〉 순천박씨 분파도

順天朴氏分派圖(순천박씨 분파도)

始 英 規 以下八 九世失傳 蘭 鳳 以下數世失傳



〈별첨 3〉 전의 안동김씨 외손 이상의 입향과정

박안생의 장인 안동김씨 김휴(金休)는 김방경(金方慶, 1212~1300)의 5대손으로, 한성부 윤(尹)을 역임하였던 인물이다.⁵⁾ 아들 김익정(金益精, ?~1436)은 태조 5년(1396)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참판에 올랐고, 효행으로 정려를 받았다. 또한 그의 현손 김사준(金師俊, 1439~1520) 또한 효행으로 정려를 받았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김익정과 그 아우 김익렴(金益濂)이 모두 3년 간 여묘(廬墓)를 살았다’고 되어 있다. 이미 조선 초에 여묘살이를 할 정도로 유교적 실천에 힘을 썼던 집안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서 일찍이 사족으로 변신을 꾀한 가계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⁶⁾

이러한 배경 하에서 김휴의 가계는 순천박씨, 우봉이씨 등과 중첩되는 혼인을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중립과 박팽년의 가문은 거의 멸문지화를 입었다고 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으나, 외가인 안동김씨 김휴의 가계는 당대에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듯하다. 형조참판을 지냈으나 단종 복위운동이 발생하기 20년 전에 사망한 김휴의 아들 김익정은 차치하고라도, 그의 둘째 아들 김수녕(金壽寧, 1436~1473)은 1456년 19살 연상인 고종사촌 박팽년이 죽임을 당한 이듬해에 신숙주 등과 함께 『국조보감』 찬술에 참여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벼슬길이 순탄하여 1471년 복창군(福昌君) 봉해지기까지 하였다. 김익정의 둘째 아들 형(洞)도 순조로운 일생을 살았다.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으나, 그의 사위 최한원(崔漢源)은 1480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출사한 후에 1501년 도승지에 오르고, 다시 종2품으로 승차하여 전라도 관찰사를 거쳐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전기는 후기와는 달리 가문적 배경보다는 개인적 연망이 중요했다는 점은 학계의 통설이기도 하다. 물론 왕조 개창 초기였던 탓에 인적 자원 자체가 빈약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후기 종법이 확립되면서 사회적 결속과 신분적 지위는 거의 부계로 이어지는 종족(宗族)에 의하여 일단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외손은 다만 종중의 일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띤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문집이나 족보 등의 편찬, 비문의 찬집 등과 같은 일에 참여하는 정도이다. 전의의 안동김씨의 경우에는 외손으로 현재까지 전의현에 세거하는

5)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김휴가 공주목과 전의현의 형상을 읍은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전의현과 관련하여, “세 봉우리가 높이 솟아 평야를 에웠고, 두 강이 흘러서 옛성을 돌렸네.” 하였다. 그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 봉우리는 고을 서북쪽 5리에 있는 진산(鎭山)인 증산(甞山, 『한국지명총람』의 月照山에서 뺀 시루성), 동쪽 8리에 있는 고산(高山, 현재의 운주산), 남쪽 7리에 있는 운주산(雲住山, 『한국지명총람』의 李城山)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참고로 세조 때와 명종 때에 명정(銘旌)을 받은 두 사람의 정려는 향토유적 16호로 지정되어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에 남아 있다.

우봉이씨 가계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김익렴의 손녀 사위 이승건(李承健, 1452~1502)⁷⁾의 5대손 타우 이상(李翔, 1620~1690)은 1654년 35세의 나이로 전의현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이를 계기로 그 후손, 엄격하게 말하면 계후자(繼後子)의 후손들이 전의현 일원에 세거하게 된다.⁸⁾ 선대에 안동김씨의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다만 전의현에 선대 묘역을 정하고, 다만 수시로 출입하다가,⁹⁾ 거의 10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상이 스승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전의현을 우거지를 정했던 것이다.¹⁰⁾ 그리고 17세기 이후 안동김씨 가계가 종종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외손인 우봉이씨의 후손들이 참여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도암 이재의 손자 이채(李采, 1745~1820)¹¹⁾가 쓴 안동김씨의 김휴의 유허비[學堂金公遺墟碑] 후록이다.

한편 이상이 전의현으로 입향하던 시기는 스승 송시열 등이 사육신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던 때였고, 또한 이상이 우거지로 택한 마을은 공교롭게도 순천박씨 박안생이 안동김씨의 사위로 입향하여 손자 (또는 증손) 때까지 세거했던 곳이다. 그런데 막상 우봉이씨 가계의 후손들의 문집,

7) 이승건은 1474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480년 식년문과에 급제한 인물로, 『성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1501년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에 1502년 호조판서 겸 동지승정부가 되었으나 병으로 사망하였던 인물이다. 1504년 갑자사화 때 관직을 추탈당하였다가 중종반정으로 복관되어 예조판서에 추증되었다.

8) 그 배경은 이승건의 7대손 도암 이재(李緯, 1680~1746)가 지은 5대조 이지신(李之信)의 처 진주 유씨의 묘지(墓誌)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전의현 서쪽 몇 리에 우봉이씨 세장지[族葬地]에 정부인 진주 유씨의 묘소가 있다. 그 몇 발자국 위에 예조판서 승건(承健)의 묘소가 있는데, 시할아버지가 되는 분이요. 언덕 오른 편에는 사의(司議) 심(諶)의 묘소가 있는데, 시아버지 되는 분이요. 사의공(諶)의 막내 아드님이 이름[諱]이 지신(之信)은 홍문관 부제학을 지냈는데, 고양군의 향동(香洞)에 별도로 모셔져 있다. … 2남 1녀를 두었는데, 큰 아드님 소(劬)는 참봉(參奉)을 지내셨고, 둘째 할(勛)은 찬성(贊成)을 증직받으셨다. … 찬성공은 5분의 아드님을 두셨는데, 막내 아드님 유겸(有謙)이 참의(參議)를 지내셨고, 학행(學行)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셨다. 큰 아드님이 도정(都正)을 역임한 핵(翮)이시고, 둘째는 지평(持平)을 증직받은 흠(翊), 셋째가 대사헌 상(翔), 넷째가 우의정 숙(翽), 다섯째가 (병조)판서 익(翊)이다. (우)의정을 지낸 (翽)의 아들 만창(晩昌)께서는 참판(參判)을 증직 받으셨는데, 나[李緯]의 선친이시요. 만성(晩成)은 판서를 역임하셨고, 만견(晩堅)은 관찰사를 역임하셨다.” (『陶菴集』 卷46 五代祖妣貞夫人晉州柳氏墓誌：全義縣西數里 有牛峰李氏族葬地 貞夫人晉州柳氏位焉 上而幾步 禮曹判書諱承健爲男之父 岡之右司議諱諶其舅 司議公季子諱之信 弘文館副提學 別葬高陽香洞 … 舉二男一女 男劬參奉 次勛贈贊成 … 贊成五男 季有謙參議 學行名世 其男都正翮 贈持平翊 大司憲翔 右議政翽 判書翊 議政之男晩昌贈參判 於緯先君 晩成判書 晩堅觀察使 …)

9) 이상 선대의 전의현 출입이나 일시적으로 우거했던 여러 사실은 김연미의 논문에 정리되어 있다. 김연미, 2005, 『타우 이상의 정치활동과 당파적 성격 고찰』,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9쪽.

10) 사위인 홍우전(洪禹傳)이 1721년에 지은 행장에는 생부인 이우겸(李有謙)이 사계 김장생으로부터 배웠으며, 그 또한 신독재 김집에게 배우다가 다시 우암 송시열과 동춘 송준길 두 선생에게 배웠다는 사실과 함께, 갑오년(1654)에 전의현 북쪽 선영(先墓)과 가까운 곳에 조용한 서재를 지어 학문에 몰두한 사실이 실려 있다. 참고로 이상의 묘소는 양근현 경기도 양평에 조성되었다가 1년 만인 1691년 전의현의 머물던 곳 뒤면으로 이장하였다.

11) 이채(李采, 1745~1820). 호는 화천(華泉), 할아버지는 재(緯), 아버지는 대사간 재원(濟遠)이다. 1774년(영조 50)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이듬해 휘령전(徽寧殿) 참봉에 제수되었으며, 그 뒤에도 여러 벼슬을 역임하다가 호조참판, 한성좌우윤 및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시호는 문경(文敬), 저서로는 『화천집』이 있다.

예컨대 이상의 『타우유고』와 그의 족손 이재의 『도암집』, 그리고 이재의 손자 이재의 『화천집』에서는 순천박씨 또는 박팽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김휴의 유희비 전문(前文)을 쓴 송치규(宋稔圭, 1759~1838)¹²⁾는 ‘안동김씨 외손으로 가운데 순천박씨 박팽년은 충절로, 우봉이씨에서는 타우 이상과 도암 이재가 학문[道學]으로 이름을 떨쳤다’ 고 하였다.¹³⁾ 송치규는 송시열의 6대손이다.

12) 송치규(宋稔圭, 1759~1838), 호는 강재(剛齋)이며, 송시열(宋時烈)의 6대손으로 김정묵(金正默)의 문인이다. 대사헌 등 많은 벼슬을 내렸음에도 모두 사양하였고, 다만 당대의 거유로서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벼슬을 사양한 것은 스승 김정묵이 뜻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유적(儒籍)에서 제적되었기 때문으로 전한다. 그러나 72세가 되던 1830년 왕의 간곡한 부름을 받아 세손의 시강원찬선을 거쳐 대사헌을 지냈고, 이듬해 이조참판이 되었다가 1838년(헌종 4) 80세의 수직(壽職)으로 정헌대부(正憲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저서로는 『강재집(剛齋集)』이 있다.

13) 『剛齋集』 권8 學堂金公遺墟碑. 全義縣東雲住山下學堂洞者 高麗檢校金公屏居而自靖之地也 公名休 字鍊夫 安東人 公以京華世族 登第仕于朝 圃隱鄭先生死 與崔晚六瀆 出國門 痛哭相別 各退隱于鄉 蓋二公同受學於先生之門 公既絕當世之念 惟以養親講學爲務 我朝受命 太宗屢徵以官 終不出 沒而葬于是 世傳洞之名肇自公時 而因公實蹟云 嗚呼 文獻無徵 公之始終 固不能得其詳 而考諸譜牒及邑誌所載 有以見大節之偉然者 則餘可略也 抑公師事大賢 嘗以卓節至行見許 而畢竟所成就如此 其所講之學之正 從可知也 惜乎 其泯泯無傳 然公之後承 多以忠孝 蒙旋褒之典 若外裔 則平陽朴先生彭年 精忠黃日 打愚李文穆公翔 陶菴李文正公緯 道學名世 夫孰曰靈芝無根 醴泉無源也哉 公之諸後孫 將立石以表其遺墟 來請余識其陰者 曰奎漢·仁基也 余以陋拙 辭不獲 略書此 俾歸刻焉.

〈별첨 4〉 박일산 출생 관련 기록

1) 『홍재전서』

(박팽년의) 아들 생원 헌(憲)·순(珣)·분(奮) 등도 함께 죽었다. 순의 아내 이씨(李氏)는 막 임신을 하였는데, 아들을 낳을 경우 연좌되게 되어 있었다. 여종 역시 임신을 하였는데, 여종이 이씨에게 말하기를, “마님께서 딸을 낳으시면 다행이겠으나, 아들이라면 원네가 낳은 아기로 죽음을 대신하겠습니다.” 하였다. 출산을 하니 과연 아들이어서 여종이 맞바꿔 기르며, 이름을 박비(朴婢)라 하였는데, 성장한 뒤 자수하자 성종이 특별히 용서하고 일산(壹珊)으로 이름을 고쳤다.

子生員憲珣奮等 竝死 珣之妻李氏 方有身 生子當坐 婢亦有身 語李氏曰 主生女幸矣 苟男 當以婢產代其死 及產 果男 婢易而子之 名曰朴婢 既長 自首 成宗特宥之 改名壹珊

| | | | | |
|------|------|----|---|-----------------------|
| 弘齋全書 | 卷六十一 | 雜著 | 山 | 年等當世之亂臣。後世之忠臣。子生員憲珣奮等 |
| | | | | 竝死珣之妻李氏方有身生子當坐婢亦有身語 |
| | | | | 李氏曰主生女幸矣苟男當以婢產代其死及產 |
| | | | | 果男婢易而子之名曰朴婢既長自首成宗特宥 |
| | | | | 之改名壹珊肅宗辛未復官英宗戊寅贈吏曹判 |

2) 『연려실기술』

공이 죽을 때에 아들 순(珣)의 아내 이씨(李氏)가 임신 중이었다. 대구(大邱)에 사는 교동(喬桐) 현감 이일근(李軼根)의 딸인데, 자청하여 대구로 갔다. 조정에서 명하기를, “아들을 낳거든 죽이라.” 하였다. 박팽년의 여종 또한 임신 중이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딸을 낳으면 다행이요, 나와 똑같이 아들을 낳더라도 종이 낳은 자식으로 대신 죽게 하리라.” 하였는데, 해산을 하니, 주인은 아들을 낳고 종은 딸을 낳았다. 바꾸어 자기 자식을 삼고, 이름을 박비(朴婢)라 하였다. 장성한 뒤 성종조 때에 박순의 동서 이극균(李克均)이 본 도 감사로 와서 불러 보고 눈물을 씻으며 말하기를, “네가 이미 장성하였는데, 왜 자수하지 않고 끝내 조정에 숨기는가.” 하며, 곧 자수시켰다. 임금이 특별히 용서하고 이름을 일산(壹珊)으로 고쳤다. 지금 박 동지(同知) 충후(忠後)가 그 자손이다. ○ 『장빈호찬(長貧胡撰)』 『노릉지(魯陵誌)』 ○ 부인 이씨(李氏)는 관비가 되어서 수절하며 평생을 마쳤다. 『추강집』

○公臨刑顧謂人曰爾母以我爲亂臣我輩之死非若癸酉之人禁府郎金命重私謂彭年曰公何不孝於君父致有此禍公嘆曰中心不平不得不爾 秋江集

○公死時子珣妻李氏方有娠 大丘居雷桐縣監李軼根女分配時自求屬大丘 朝命生男則殺之朴之婢亦有身自言主生女則幸矣雖或俱生男當以婢產代其死也及產主男婢女易而子之名曰朴婢及長 成廟朝珣之友婿李克均按本道招見拭淚曰汝既長矣何不自首而終諱於朝廷乎即使自首 上特有之改名曰壹珊 即今朴同知忠後乃其後也○長貧胡撰魯陵志

○夫人李氏爲官婢守節終身 秋江集

3) 『청장관전서』

취금현(翠琴軒)의 유사(遺事)를 보았다. 박팽년(朴彭年)의 자는 인수(仁叟)로, 천성이 침착하고 말이 적었으며 《소학(小學)》으로써 몸을 규제하였고, 천순(天順)명 영종(明英宗)의 연호(年號) 황제가 오랑캐에게 함락되었을 적에는 정침(正寢)을 떠나 문 밖에 풀방석을 깔고 거처하면서 “천왕(天王)이 지금 오랑캐 땅에 계시니, 내가 비록 외방(外邦)의 배신(陪臣)이지만 차마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하다가 황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야 정침으로 돌아왔으니 참다운 학사(學士)이며, 마침내 죽음으로써 임금에게 보답하였다.

그가 죽을 무렵에 그 자부(子婦)가 임신중에 있었다. 만일 사내아이를 낳는다면 율법에 의하여 당연히 죽게 되었는데, 마침 그 여종[婢女]도 임신중이었다. 그 여종이 “다 같이 사내아이를 낳으면 저의 자식으로 대신 죽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분만하기에 이르러 그의 자부는 사내아이를 낳고 비녀는 계집아이를 낳았으므로 여종이 바뀌쳐서 자기 아들로 삼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박비(朴婢)라 하였는데, 그 아들이 장성함에 이르러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아뢰자, 세조(世祖)가 특별히 상을 내리고 이름을 일산(壹珊)으로 고쳐 주었다 참으로 인수(仁叟)의 여종이다. 평소 긴 수염을 늘어뜨리며 높은 관(冠)을 쓰고 대장부로 자처하다가도 어려움에 다다라서는 이 여종만도 못한 자가 그 얼마나 많았던가? 내가 여기에 절실히 느껴지는 바가 있어 그녀의 알려지지 않은 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등백도(鄧伯道)의 일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하늘이 일부러 그 사내아리와 계집아리로 바꾸어 다 같이 목숨을 보존하도록 유의함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등백도는 그 의(義)를 사후에 단행하였지만, 이 여종은 그 정성이 사전부터 부각되어 그러한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觀翠琴軒遺事 朴彭年字仁叟 性沉潛寡默 以小學律身 天順皇帝陷虜時 不宿正寢 藉草薦于戶外曰 天王在虜 我雖陪臣 不忍安心 聞帝還 乃復寢云 眞學士哉 竟以死報君 死時子婦方有身 生男法當殺 其婢亦有身 言曰俱生男 當以婢生代死 及媿 婦男而婢女 易而子之 名曰朴婢 及長 自告 上特宥之 改名壹珊 眞仁叟之婢哉 平日奮修髯 撐巍冠 自處以丈夫者 臨患難 不及此婢者 幾何 余感焉 發其幽光 此與鄧伯道事大同小異 而天之或有心 易其男女 俱得保全 意伯道決義於已然 而此則孚誠於未然而然歟

丙子。不陰。○午省家。夕還。○觀翠琴軒遺事。朴彭年
 字仁叟。性沉潛寡默。以小學律身。天順皇帝陷
 虜時。不宿正寢。藉草薦于戶外曰。天王在虜。我
 雖陪臣。不忍安心。聞帝還。乃復寢云。眞學士哉。
 竟以死報君。死時子婦方有身。生男法當殺。其婢
 亦有身。言曰俱生男。當以婢生代死。及媿。婦男而
 婢女。易而子之。名曰朴婢。及長。自告。眞仁叟之婢
 哉。平日奮修髯。撐巍冠。自處以丈夫者。臨患難。不
 及此婢者。幾何。余感焉。發其幽光。此與鄧伯道事
 大同小異。而天之或有心。易其男女。俱得保全。意
 伯道決義於已然。而此則孚誠於未然而然歟。

〈별첨 5〉 노량진 전(傳)사육신 묘 관련 자료

1) 김집(金集)이 박승고에게 보낸 답신 (『신독재유고』 1639년 11월 16일)

세상에서는 사육신(死六臣)의 묘가 동작(銅雀)의 서쪽 언덕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누가 묘를 쓴 것인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를 기억하고 한 말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 네 개의 묘가 산기슭에 줄지어 있고 묘 앞에는 짧은 비가 세워져 있는데, 맨 남쪽이 박씨(朴氏)의 묘이고 그 다음이 유씨(兪氏)의 묘이고 또 그 다음이 이씨(李氏)의 묘이고 또 그 다음이 성씨(成氏)의 묘여서, 성씨들이 마침 사육신의 성씨와 같습니다. …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에 허엽(許曄, 1517~1580) 공이 우리王大부(王大父, 金鎬)에게 말하기를, “시속의 전하는 말에 따라 내가 육신의 묘를 동작 서쪽 언덕에서 보았다.”고 하시기에,王大부께서 그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으며 그 비가 세워진 곳을 가 보았더니 네 비의 글자들이 완연하게 매우 선명했고, 그 후 또 우리 아버지[金長生]께서 관례를 치르던 해에 발자취를 더듬어 가 보았더니 역시 네 비의 모양과 크고 작은 규모도 서로 비슷했으며, 네 묘가 나란히 있는 곳에는 다른 무덤이 끼여 있지도 않았고, 또 상석도 있었는데, 마치 한 솥씨로 만든 것처럼 크기가 똑같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근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만 하공(河緯地)과 유공(柳誠源)은 묘도 없고 비도 없었으므로, 그게 어찌된 일일까 했습니다. … 다만 이 일에는 오래전부터 사대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견을 달리하는자들 주장은 이러합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사람의 씨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화가 참혹하였으니 흙으로 덮어 주는 일조차도 어려웠을 것인데, 누가 그렇게 물어 주고 턱 자 높이로 묘까지 썼단 말인가? 그게 첫 번째 의심 나는 일이다. 가령 묘는 썼다고 치더라도 어느 겨를에 네 개의 비까지 세웠단 말인가? 그게 두 번째의 의문이고, 설사 묘를 쓰고 비까지 세웠다고 치더라도 어느 겨를에 상석까지 마련해서 마치 앞으로 향화(香火)를 받들 자가 있을 것처럼 했단 말인가? 그게 세 번째 의심나는 점이다. ‘공(公)’이라고 하지 않고 부인을 말한 것처럼 ‘씨(氏)’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네 번째의 의문이다. 그때 만약 집안의 종들이 숨어 있다가 의분이 복받쳐서 법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남몰래 시체를 등에 짊어지고 구영(舊塋)으로 가지 않고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 상전과 일을 함께 했던 분들의 묘와 비까지 이렇게 한곳에다 쓰고 세웠겠는가? 그게 다섯 번째 의심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러한 것 같다고 전해지는 자리를 틀림없는 자리라고 결론짓고 거기에다 개축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만 년 또 만 년이 가더라도 의심은 없어지고 그 자리가 진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들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치가 서로
 가깝고, 묘가 서로 같고, 비석 모양도 같고, 상석도 크기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성씨도 그렇게들 서로 같은 데다 옛날부터 장부의 묘에도 '씨' 라고 쓴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 유공[柳誠源]이 집에서 죽은 데 대하여는 본전(本傳)에 기록이
 있고, 또 하공[河緯地]의 묘는 일선부(一善府)의 방산(方山) 둔덕에 있으니 동작의
 서쪽에다 묘를 쓰지 아니한 증거가 있으며, 또 비록 박씨와 이씨는 우리나라에
 많은 성씨이기 때문에 우연히 맞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성씨와 유씨는 드문데도
 네 묘가 줄지어 있는 것을 보면 원래 분명한 사실을 더더욱 분명하게 해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의문나는 점을 상고할 길이 없다 하여 긴가민가 하면서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후일에 가서는 의문나는 점까지도 아울러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니, 그리 되면 그 자손들의 끝없는 슬픔은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세상의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헌 장 선생[張顯光]이 살아 계실 때
 갔더니 개축을 하라고 권유하셨고, 우리 선인께서도 관리의 명부에 오르신 지
 이미 몇십 년이 되었으며, 나라의 금제(禁制) 역시 지난 시절과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서 말없이 그의 자손들을 거두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헌
 선생이 하 참판[河緯地]의 묘비문을 쓴 것만 봐도 그들의 절의를 유럽 쪽에서 이미
 포양(褒揚)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묘가 그 묘인 것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개축하는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 교외에 살고 있다는 최씨라는 이를 지난해에 우연히
 만났었는데, 자기가 성공(成公)의 외손이라고 하면서 동작에 있는 묘에는 사육신의
 머리만 묻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어디서 듣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권반(權盼) 공이 경기 관찰사로 있을 때 상이 친히 장릉(章陵)을 행행하면서
 어로(御路)를 묘 옆으로 지나게 하였으므로 일부러 편비(偏裨)를 보내어 묘 곁의
 통행을 금지하는 역졸(役卒)들로 하여금 묘 가까이는 가지 말도록 했다 하니,
 이것도 그 묘에 대해 신빙성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내오신 내용들은
 모두 인정과 예의에 맞는 일입니다. ... 그렇기는 하나 그 좋은 뜻을 그냥 욱되게
 할 수는 없겠기에 혼자 생각나는 대로 적어 그 일을 결정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조상을 숭배하는 뜻에서 의문점을 푸다는 일보다 더
 큰일은 없을 것이니, ... 차라리 그냥 그대로 둔 채 이미 헐어진 봉분이나 수축하고
 또 누워 있는 비나 일으켜 세워서 그전의 모양대로 해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세대가 점점 멀어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사람도 없어져서
 결국에는 어느 산 어느 둔덕인지조차 모르게 될까 염려된다면, 별도로 짧은 비를
 마련해서 그러한 뜻을 그 비에다 대강 새겨 둬으로써 후인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잊을 수 없는 나의 염원도 거기에다 담아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개의 묘에 ‘씨(氏)’자를 쓴 것이 과연 깊은 뜻에서 나왔다면, 묘를 쓸 그 당시에 혹 영원히 전할 수 있는 신표를 남겨 두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개축하는 날 각 묘마다 남쪽으로 한 걸음쯤 되는 곳을 한번 파보시면 큰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

世傳六臣之墓 在銅雀西岸云 未知孰墓而封之 孰記而言之 銅雀是國初用法之地 其西岸有巖 俗傳曰碎骨巖 越一壟西南一二里許 有四墓列於山麓 樹以短碑 其南曰朴氏之墓 其次曰俞氏之墓 又其次曰李氏之墓 又其次曰成氏之墓 姓字適與六臣相符 豈世傳者其真是而無疑者耶 曩在四五十年前 許公曄謂余王大父曰 六臣之墓 余因其俗傳而得見於銅雀西岸云 始聞世傳之說 且尋豎碑之所 則宛然四碑 字畫甚詳 逮余先人既冠之年 又踵尋往 則四碑體樣 大小尺數 大略相同矣 列封四墓之處 則不聞以他墳矣 且有床石 亦同尺寸 如出一手矣 此其近似無疑之一端 而河公柳公 獨不墓而不碑 抑何意歟 因循數十年 墓之高者幾夷焉 碑之欹者或傾焉 或折焉 其幸豎而立者 字畫又缺 日就剝落 將自此又數十年 則并與片石而俱泯焉 余小子以是爲懼 忘其寢食 揣摩晝夜 將卜日而改築之 召匠石而豎碑焉 第此議岐於士夫間久矣 難之者曰 當時酷禍 噍類不遺 則掩之以土 猶且其難 孰瘞而墓 崇封四尺之高歟 此其疑一也 假令封之以墓 又何暇豎之四碑乎 此其疑二也 假令既墓而碑 又何暇置之以床石 若將缺之以香火者歟 此其疑三也 不曰公而曰氏 如婦人然 此其疑四也 若曰家僮或潛形藏跡 惟義所激 不畏憲章 則胡不竊負歸於舊塋 而用何物力 遍墓遍碑於厥主同事之人哉 此其疑五也 將其世傳疑似之迹 歸之於真的之所而改築之 則將自此疑者 眞於萬萬世矣 無奈不思之甚乎 一則曰地相近也 墓相似也 短碑之相同也 床石之尺寸廣狹 又不差毫髮也 姓相符如此也 而古之稱氏 亦行於丈夫墓者多矣 安知非當世志士又有如南秋江列傳之心 舉以墓之碑之床石之 以期不朽於來世者也 又況世傳之有其說也 用刑之適其所也 豎碑之標 尤明於唐林冬青之樹也 柳公之死在於家 語在本傳 河公之墓 又在於一善府之方山原 不墓於此 其有證也 縱曰朴李 則我國姓氏之多 適相符矣 成俞之罕焉 而猶記於四墓之列 此又彰明較著處也 若曰無所稽疑 歸之於眞贗之間 則并與疑似之跡 而湮滅於他日矣 不唯子孫無涯之痛也 其亦斯世之不幸也大矣 蓋嘗往旅軒張先生在世之日 則勸其改築 況余先人既通仕版 今數十餘年 邦禁之嚴 有間曩時 而國家收錄之典 自行於不言之中矣 旅軒先生亦撰河參判墓碑 則褒揚節義之文 已經於儒林矣 苟知墓道之真的 則孰遏封築之舉也 唯我先生長者 哀余先祖之忠靈 不遺小子之無識 取舍於逕庭之議 參酌於情禮之間 或示以古事之可倣 或教以禮文之可證 毋使忠魂義魄 昧沒於荒阿 而使

余小子一脈雲來 得免罪戾於千秋 其亦仁人君子惻隱論辨者也 往年 適遇郊居崔氏子 自云成公之外裔 而仍言銅雀之墓 只葬其首云 此亦何所聞而言也 章陵親幸時 當除御路於墓側 權公盼適校畿節 委遣偏裨 使墓傍呵禁役卒 勿犯近墓之地云 其亦信其墓者也 示喻兩項說話 俱合情禮 而彼此衡決 雖使古之君子當之 亦難容易處斷 況以謾聞淺見 其敢妄有所折衷乎 左右求處變之宜 而不於其人 是何異借聽於聾而求道於盲也 雖然 盛意不可以虛辱 聊記臆說 以備商確之一端 夫尊祖辨疑 事無大於此者 必灼見明知 無一毫之疑 然後吾心安焉 先祖慰焉 彼或者所謂志士葬之 諱不稱公者 皆是揣度之說也 既無文籍之據 徒執揣度之說 其可以安吾之心而慰先祖之靈乎 以左右反本之孝而不能自定 有問於人 若是之勤 則其不能灼見明知 無一毫之疑者可想 有疑於其心而強定於一時 其可乎 後吾千百世 將信吾而不疑 果得其真則善矣 如或不然 則其爲未安 豈適爲欺心欺後人也哉 然則固不可斷以爲是也 亦不可必謂之非也 不如置之疑信之間 只修築其已毀之墳 植立其已仆之表 一如前日 似或可也 但念世代漸遠 口碑無傳 則將不能記某丘某原 并疑信而泯泯也 若別具短石 略記疑信之意 俾爲後觀 以寓不忘之懷 則如何如何 抑有一焉 四墓書氏 果是深意 則當時掩幽 亦豈無圖不朽之舉乎 幸於改築之日 試掘各墓近南一步地 必不無大據爾 事既不經 又無古據 率意妄陳 難免汰哉之誚也 來書移出一通 謹以還上 更質諸知禮君子 幸甚幸甚

答朴金山 崇古○巳卯十一月十六日

世傳六臣之墓在銅雀西岸云未知孰墓而封之 孰記而言之銅雀是國初用法之地其西岸有嚴 俗傳曰碎骨嚴越一龍西南一二里許有四墓列 於山麓樹以短碑其南曰朴氏之墓其次曰俞氏 之墓又其次曰李氏之墓又其次曰成氏之墓姓 字適與六臣相符豈世傳者其真是而無疑者耶 覆在四五十年前許公確謂余王大父曰六臣之 墓余因其俗傳而得見於銅雀西岸云始聞世傳 之說且尋堅碑之所則宛然四碑字畫甚詳逮余 先人既冠之年又踵尋往則四碑體樣大小尺數 大略相同矣到封四墓之處則不聞以他墳矣且 有床石亦同尺寸如出一手矣此其近似無疑之 一端而河公柳公獨不墓而不碑抑何意歟因循 數十年墓之高者幾夷焉碑之缺者或傾焉或折 焉其幸豎而立者字畫又皎日就剝落將自此又 數十年則并與片石而俱泯焉余小子以是爲懼 念其寢食揣摩晝夜將卜日而改築之召匠石而 堅碑焉第此議歧於士夫間久矣難之者曰當時 醜禍噍類不遺則掩之以土猶且其難孰壓而墓 崇封四尺之高歟此其疑一也假令封之以墓又 何暇置之以床石若將奉之以香火者歟此其疑 三也不曰公而曰氏如婦人然此其疑四也若曰 家僮或潛形藏跡樵義所激不覺憲章則胡不竊 負歸於舊坐而用何物力過墓遍碑於厥主同事 之人哉此其疑五也將其世傳疑似之迹歸之於 真的之所而改築之則將自此疑者眞於萬萬世 矣無奈不愚之甚乎一則曰地相近也墓相似也

短碑之相同也。床石之尺寸廣狹又不差毫髮也。姓相符如此也。而古之稱氏亦行於丈夫墓者多矣。安知非當世志士。又有如南秋江列傳之心。舉以墓之碑之床石之以期不朽於來世者也。又况世傳之有其說也。用刑之適其所也。豎碑之標。尤明於唐林冬青之樹也。柳公之死在於家。語在木傳。河公之墓。又在於一善府之方山。原不墓於此。其有證也。縱曰朴李則我國姓氏之多。適相符矣。成俞之罕。房而猶記於四墓之列。此又彰明較著處也。若曰無所稽疑。歸之於真。屬之間。則并與疑。

慎獨齋書卷四 十四

似之跡而隱滅於他日矣。不惟子孫無涯之痛也。其亦斯世之不幸也。大矣。蓋嘗往校軒張先生在世之日。則勸其改築。况余先人既通仕版。今數十餘年。邦禁之嚴。有間曩時。而國家收錄之典。自行於不言之中矣。旅軒先生亦撰河家判墓碑。則褒揚節義之文。已經於儒林矣。苟知墓道之真的。則孰過封築之舉也。惟我先生長者。莫余先祖之忠靈。不遺小子之無識。取舍於逕庭之議。爰酌於情禮之間。或示以古事之可做。或敬以禮文之可證。母使忠魂義魄。昧沒於荒阿。而使余小子一服雲。

來得免罪。展於千秋。其亦仁人君子。惻隱論辨者也。往年適過郊居崔氏子。自云成公之外裔。而仍言銅雀之墓。只葬其首云。此亦何所聞而言也。章陵親幸時。嘗除御路於墓側。權公盼適按轡歸。亦遣偏裨。使墓傍呵禁。役卒勿犯近墓之地云。其亦信其墓者也。

示喻兩項說。詰俱合情禮。而彼此衝凌。雖使古之君子當之。亦難容易處斷。况以謾聞淺見。其敢妄有所折衷乎。左右求處變之空。而不於其人。是何異借聽於護。而求道於首也。雖然。感意不可以虛辱。聊記臆說。以備商確之一端。夫尊祖辨疑。事無大於此者。必灼見明知。無一毫之疑。然後吾心安。勇先祖慰。後復或者所謂志士葬之。諱不稱公者。皆是揣度之說也。既無文籍之據。徒執揣度之說。其可以安吾之心。而慰先祖之靈乎。以左右反本之孝。而不能自定有問於人。若是之勤。則其不能灼見明知。無一毫之疑者。可想有幾於其心。而強定於一時。其可乎。復吾千百世將信吾而不疑。果得其真。則善矣。如或不然。則其為未安。豈適為欺心欺後人也哉。然則固不可斷以為是也。亦不可必謂之非也。不如置之疑信之間。只修築其已毀之境。植立其已仆之表。一如前日。似或可也。但念世代漸遠。口碑無傳。則將不能記某在某。原并疑信而泯泯也。若別具短石。略記疑信之意。俾為後觀。以寓不忘之懷。則如何如何。抑有一張四墓書。果是澆意。則當時掩幽。亦豈無圖不朽之舉乎。幸於改築之日。試掘各墓。近南一步地。必不無大據。爾事既不經。又無古據。率意妄陳。難免汰哉之誚也。來書移出一通。謹以還上。更廣稽知禮君子。幸甚幸甚。

慎獨齋書卷四 十五

2) 허목(許穆)이 박승고에게 보낸 답신 (『기언』)

박 익찬(朴翊贊)에게 답한 편지 : 서호(西湖)의 육신총 서쪽에 고목이 서 있는 해묵은 누대는 우리 선대의 이우정(二憂亭)이네. 이른바 육신총은 그것을 알고 지목하며 전해 온 지가 나까지 4대째인데, 어릴 적에 선친[許喬]을 따라 그 묘역의 옛 모습을 직접 보았다네. 박씨·유씨·이씨와 성씨 부자의 위아래 두 무덤까지 모두 다섯이었고 모두 작은 비석이 서 있었는데, 새긴 것이 깎이고 떨어져 나가 글자가 많이 마멸되었지만 그나마 새긴 흔적은 식별할 수가 있었네. 이전에 어떤 세도가가 서호에 별장을 지었었는데, 그 사람은 방자하여 꺼리는 것이 없어서 강가에 있던 많은 명인들의 무덤에 세워진 크고 작은 비석들을 어떤 것은 넘어뜨리고 어떤 것은 깨 버렸네. 이른바 육신총도 전해지지 않게 될 뻔하다가 다행히도 넘어진 것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깨진 것도 본래 자리를 잃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모두 우리 선친께서 하신 일이었네. 그 뒤 그 세도가가 패망하자, 강변에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서 여러 무덤들이 총총 들어앉아 성씨의 두 무덤 중에 하나는 여러 무덤에 섞여 버렸고 비석마저 잃어버렸다네. ... 예전에 장릉(章陵)을 이장할 때 육신총 아래로 길을 닦게 되었는데, 그때 내 아우가 마침 강변에 살았고 또 선친께서도 살아 계셨으므로 아우에게 그곳에 지켜 서서 그 묘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경기 감사가 뒤따라 사람을 시켜서 엄중히 단속하게 하였다네. 내가 늘 한스럽게 여기는 것은 하씨와 유씨의 장지를 모르는 것이네. 유씨가 목을 찢러 자살하자 관리가 추후에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찢었다 하는데, 처형된 시기가 같지 않아서 장지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불행하게도 끝내 장지가 없는 것인지 그 당시의 일을 알 수가 없네. 그러나 이것은 애당초 강변 사람들의 전설일 뿐 증거를 댈 만한 다른 고사가 없으니 후세의 의심이 어찌 꼭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의심되고 의심되지 않는 문제는 논할 것이 없네. 우선 죽은 자를 위하여 묘를 수축하고 비석을 세워서 의심나는 점과 믿을 수 있는 점을 다 드러내어 영구히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하네. 이렇게 하면 비록 천년 뒤에라도 그 의리를 비통하게 여기는 자가 당시의 일을 상상해 보고는 더욱 이에 대해 느끼는 점이 있을 것이니, 또 자손을 위해서 이 일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 뿐만은 아니네. 이만 줄이네. 4월 19일 허목은 돈수(頓首)한다.

吾子不辱 以僕雖衰鈍 尙有所聞知 問六臣塚事 僕安敢不盡所聞 以負左右古人之行也 西湖六臣塚 直西古木荒臺 吾前代二憂亭也 所謂六臣塚者 指而相傳 至吾身且四世矣 僕童子時 從先人 亦親見其封域不變 朴氏俞氏李氏成氏上下二塚 共五墳 皆有短碣 而石刻剝落 字多漫滅 然猶識其刻跡可見 前時 有權貴人築別業西湖 其人無忌憚 江上多有名人塚墓 於是其大小碑碣 或踏或碎 所謂六臣之

塚 幾失其傳 幸而其碣踏者立之 碎者亦不失故處 此皆吾先人事 後其權貴人敗
 江上葬人日多 群塚纍纍 成氏二墓 其一雜於群塚 而其碣亦失之 嗟乎 先人已下
 世 僕遭亂 流落且千里 追思前日事 已三十年 愴懷良多 昔時章陵之遷 除道於
 六臣塚下 時僕有一弟適在江上 且先人在世 使之立守之 令毋犯其瑩域 復有畿
 伯 追使人嚴立禁戒云 僕常恨之 河氏柳氏不知葬處 柳氏到自殺 吏追取屍磔之
 施刑先後不同 收葬處異耶 抑不幸而終無葬處耶 當時事不可知也 然此其初江上
 人傳說而已 無他古事可徵 後世之疑 又惡可謂必無也 然其疑不疑 不須言也 爲
 之修墓刻石 疑信俱著 令不沒於久遠 則雖千載之後 有悲其義者 亦想見當時事
 尤有感於斯者矣 又不特爲子孫傳此事而已也 不宣 四月十九日 穆 頓首

荅朴翊贊書

吾子不辱。以僕雖衰鈍尚有所聞。聞六臣塚
 事。僕安敢不盡所聞。以貢左右古人之行也。西
 湖六臣塚。貞西古木荒臺。吾前代二憂亭也。所
 謂六臣塚者。指而相俾。至吾身且四世矣。僕童
 子時。從先人。亦親見其封域不變。朴氏俞氏李
 氏成氏上下二塚。共五墳。皆有短碣。而石刻則
 落字多漫滅。然猶識其刻跡。可見前時有權貴
 人等別業西湖。其人無忌憚。江上多有名人塚
 墓。於是其大小碑碣。或踏或碎。所謂六臣之塚
 幾失其傳。幸而其碣踏者立之。碎者亦不失故
 處。此皆吾先人事。後其權貴人敗。江上葬人日
 多。群塚纍纍。成氏二墓。其一雜於群塚。而其碣
 亦失之。嗟乎。先人已下世。僕遭亂。流落且千里。
 追思前日事。已三十年。愴懷良多。昔時 章陵
 之遷。除道於六臣塚下。時僕有一弟適在江上。
 且先人在世。使之立守之。令毋犯其瑩域。復有
 畿伯。追使人嚴立禁戒云。僕常恨之。河氏柳氏
 不知葬處。柳氏到自殺。吏追取屍磔之。施刑先
 後不同。收葬處異耶。抑不幸而終無葬處耶。當
 時事不可知也。然此其初江上人傳說而已。無
 他古事可徵。後世之疑。又惡可謂必無也。然其
 疑不疑。不須言也。爲之修墓刻石。疑信俱著。令
 不沒於久遠。則雖千載之後。有悲其義者。亦想
 見當時事。尤有感於斯者矣。又不特爲子孫傳
 此事而已也。不宣。四月十九日。穆。頓首。

3) 1645년 김상헌이 박승고에게 보낸 답신

박승고가 선묘(先墓)를 수리하는 일을 물어 온 데 대해 답하는 편지 을유년(1645)

보내온 편지에서 한 말이 간절하고 측달하여 지극한 정에서 발하였는바, 현자(賢者)가 인륜(人倫)에 대해 독실하고 두텁게 하는 성의를 잘 알 수가 있었네. 무릇 의심스러운 점을 판별하고 미심쩍은 일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문이 넓고 기억력이 뛰어난 자도 사양하는 바이네. 그런데 더구나 나와 같이 늙어서 혼모한 자이겠는가. 그러나 정성스러운 질문에 대해서는 회답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나의 억견을 가지고 답하고자 하네.

물어 온 양단(兩端)의 설은 양쪽 다 모두 소견이 있기에 우선은 곤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대충 판별해 보겠네. 병자년(1456, 세조2)의 화는 참으로 참혹하였다고 할 만하네. 그러나 영락(永樂) 연간의 일에 비해 본다면, 이미 너그럽다고 할 수가 있네. 그런데도 방정학(方正學)의 아들은 오히려 능히 문집(文集)을 잘 보존하여 비장(秘藏)하였으므로 지금에 이르러서는 널리 유포되어 있네. 더구나 소릉(昭陵)의 재궁(梓宮)은 끝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고, 노산(魯山)이 왕위를 사양한 시종(始終)에 대해서는 엄흥도(嚴興道)가 직서(直書)하여 숨기지 않았네. 그러니 당시에 의사(義士)가 많았음을 대략 알 수가 있네. 그런데 네 묘에 봉분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어찌 유독 깊이 의심을 할 것이 있겠는가.

성씨(姓氏)가 우연히 같다는 논의는, 또 어찌하여 그리 천착을 하는가. “우리 할아버지로 하여금 편안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심스럽고 미더운 사이에다가 두는 것이 허물을 적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한 데에 이르러서는, 더욱 크게 편안치 못한 바가 있네. 군자는 일이 의심스러워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반드시 마음에서 구해 보는 법이네. 마음이 편안한 것은 곧 이치가 들어 있는 것이네.

지금 만약 징험할 만한 공언(公言)을 내쳐 버리고 의심스러움을 고집하는 초설(剿說)에 견제를 당하여 뒷날 길거리나 시궁창에 버려짐을 면치 못하게 한다면, 작은 허물이어서 능히 나의 마음에 편안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삼가 생각건대, 이 일은 제대로 잘하면 착한 후손이 되고, 잘못되더라도 역시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성인께서 이른바 “표지(表識)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네. 그러니 어찌 오래도록 충분히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밝은 그대가 잘 살펴보기 바라네. 이만 줄이네.

答朴生崇古問修治先墓書 乙酉

來示懇懇惻怛 發於至情 足見賢者篤厚人倫之盛誼也 夫辨疑惑定憂豫 博聞強記者之所辭讓 況如僕之老耄昏憤者哉 然敦問不可不復 請對以臆 所叩兩端之說 皆有所見 姑就以爲難者略辨焉 丙子之禍 固可謂慘矣 若比於永樂之事則已寬 方正學遺孤 尚能保全文集而祕藏之 至今流布 況昭陵梓宮 終不流入於海 魯山遜位終始 嚴興道直書不諱 當時義士之多 槩可知也 四墓之封樹 獨何深疑乎 姓氏偶同之論 又何鑿也 至於無寧使吾祖而存於疑信 爲小過者 尤有所大不安 君子於疑事之難處者 必永諸心 心之所安 卽理之所存 今若揮斥可徵之公言 牽制執疑之勦說 使他日道路溝池之不免 則其可謂之小過而能安於吾心乎 竊以爲此舉 得則爲慈孫 失亦爲義士 聖人所謂不可以弗識者 寧可不深長思也 惟明者財察 不宣

答白軒李相乙酉

伏承台下札 仰慰無量 每欲奉快起居 先通相府 書 古人所戒 瞻望東閣 笏切冲過 眷渥鼎新 貴備適深 此正閭下 益展辰猷 以副輿誦之日 區區條摺之私 實倍他人 無由拜會 千萬不盡 統希台 下察。

答朴生崇古問修治先墓書乙酉

來示懇懇惻怛 發於至情 足見賢者篤厚人倫之盛誼也 夫辨疑惑定憂豫 博聞強記者之所辭讓 況如僕之老耄昏憤者哉 然敦問不可不復 請對

清陰先生集卷中

十九

以臆所叩兩端之說 皆有兩見 姑就以爲難者略辨焉 丙子之禍 固可謂慘矣 若比於永樂之事則已寬 方正學遺孤 尚能保全文集而祕藏之 至今流布 況昭陵梓宮 終不流入於海 魯山遜位終始 嚴興道直書不諱 當時義士之多 槩可知也 四墓之封樹 獨何深疑乎 姓氏偶同之論 又何鑿也 至於無寧使吾祖而存於疑信 爲小過者 尤有所大不安 君子於疑事之難處者 必永諸心 心之所安 卽理之所存 今若揮斥可徵之公言 牽制執疑之勦說 使他日道路溝池之不免 則其可謂之小過而能安於吾心乎 竊以爲此舉 得則爲慈孫 失亦爲義士 聖人所謂不可以弗識者 寧可不深長思也 惟明者財察 不宣

4) 이식이 박승고에게 보낸 답신

박생 승고(朴生崇古)가 물어 온 일에 답하다.

이 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반신반의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다만,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삼을 만한 점이 또 많다고 하겠다. 당시에 이미 계책을 내어 몰래 장례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했다면, 비록 비석을 세워서 표지(標識)를 해 놓지 않았더라도 애석하게 여기거나 꺼림칙하게 생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표지를 해 놓지는 못했더라도, 반드시 후세 사람들이 미루어 알게 하려고는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지문(誌文)을 묻어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 것이니, 그 주위를 파 보면 뭔가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모르겠다만, 선세(先世)에서 어찌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을 리가 있겠는가.

요즈음 들건대, 오래된 무덤에 다행히 지석(誌石)이 있었기 때문에 후손에게 알려진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니 지금의 계책으로는, 우선 땅속의 지석을 찾아볼 것이요, 그래도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봉분(封墳)을 쌓은 다음에, 다시 뒤에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땅 위로 드러난 백골(白骨)을 묻어 주고 무너진 무덤을 단장해 주는 일에 대해서, 옛사람들은 어두운 땅속에 있는 이들에게 어진 마음을 베푸는 것이라고 스스로 여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더구나 의심과 확신이 뒤섞인 상태에서 봉분을 쌓아 주는 일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것은 곽승도(郭崇道)가 무턱대고 자기 선조의 묘라고 인정한 것과는 같지 않으니, 예법(禮法)에 비추어 볼 때 해가 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정 서천(鄭西川 정곤수(鄭崑壽))이 항상 어떤 고을을 지날 적마다 선세(先世)의 묘소라고 오인(誤認)하고는 한 무덤에 잔디와 흙을 입히고서 제사를 올리곤 하였는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정장(呈狀)하기를, “이것은 우리 선조의 묘소라서 감히 와서 스스로 고한다.” 고 하자, 서천이 크게 부끄러워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봉분을 단장해 주었기 때문에 그 무덤의 자손을 찾게 되었으니, 이는 그야말로 오인했던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다. 지금 이 무덤 역시 보호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 들리고 보면, 무덤을 단장한 뒤에 찾아와서 살펴보는 자가 혹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를 통해서 곡절을 들어 본다면 또한 확실히 알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의 생각은 이와 같다.

答朴生崇古疑問

詳此書意 疑信相參 而信應證據為多 當時既設計潛瘞 不使人知 則雖立石為表 無所惜無所憚也 既微其表識 必欲後人之推認也 則必有埋誌而致詳焉 環掘之可得也 不知先世何以慮不及此耶 近聞古冢因有誌石 而見知於後孫者多矣 為今計先尋幽誌而不得 則仍加封築 更以竢後之人可也 掩暴骼修毀冢 古人自以仁心施於冥冥者有之 況有所疑信者 從而修之 非若郭崇韜之冒認也 於禮何傷 鄭西川常於某郡 誤認先世之墳 加莎土致祭 其後有人呈狀 此是吾祖墳 敢來自告 西川大慙 然因其修而得其子孫 乃卞誤之一助也 此墳亦聞有人防護之者 於其修墓之後 或有來見者 從而聞見 亦必一驗也 愚見如此

答朴生崇古疑問

詳此書意。疑信相參。而信應證據為多。當時既設計潛瘞。不使人知。則雖立石為表。無所惜無所憚也。既微其表識。必欲後人之推認也。則必有埋誌而致詳焉。環掘之可得也。不知先世何以慮不及此耶。近聞古塚自有誌石。而見知於後孫者多矣。為今計先尋幽誌而不得。則仍加封築。更以竢後之人可也。掩暴骼修毀塚。古人自以仁心施於冥冥者有之。況有所疑信者。從而修之。非若郭崇韜之冒認也。於禮何傷。鄭西川常於某郡。誤認先世之墳。加莎土致祭。其後有人呈狀。此是吾祖墳。敢來自告。西川大慙。然因其修而得其子孫。乃卞誤之一助也。此墳亦聞有人防護之者。於其修墓之後。或有來見者。從而聞見。亦必一驗也。愚見如此。

澤堂別集卷之十八 十八

5) 이경석이 박승고에게 보낸 답신

疑墓說：余以一禿翁 閉門而居 忽有一秀才 袖一紙書來訪 朴其姓 崇古其名 其書則卽爲其七代祖醉琴軒之墓疑信未定 欲聞折衷之論也 此事於文籍無可徵 於禮家無可據 如余涼識謏聞 奚足以斷之 然而其事悲矣 其誠切矣 其志勤矣 若是而無一言以答之 則不亦孤思孝者之望乎 茲余以嘗所粗得於方策者 爲秀才誦之 余聞事有疑則折諸聖 聖人人倫之至而禮法之宗主也 後之人無志則已 如使有志則以之爲己 以之爲先祖也 宜何所取則焉 非聖人之道乎 記曰 孔子旣得合葬於防 曰吾聞之 古也墓而不墳 今丘也東西南北之人也 不可以弗識也 於是封之崇四尺 孔子先反 門人後 雨甚至 孔子問焉曰 爾來何遲也 曰防墓崩 孔子不應 三 孔子泫然流涕曰 吾聞之 古不修墓 夫慎終之心 人所同有 況以孔子之大聖 其所以慎之也 宜如何哉 墓而不墳古也 而其崇四尺 則封植之亦已至矣 然旋聞其崩而不爲之修 則大聖人之意 亦有攸在矣 推是而言之 則年所已久 世代已遠之後 祖見其墓表之髣髴而未敢斷而定之 父繼而尋見之 亦未敢以爲信 然祖與父之所未定者 乃欲定之於子之身而修其墓 未知於證有乎 無有乎 於禮可乎 不可乎 孔子問於耶曼父之母之事 君子謂之必不然 今此所謂許草堂之聞諸人者 與夫權巡察時士人來護者 又非耶曼父之母之爲證之比 其不足據以爲信也亦明矣 大抵孝子慈孫追遠之誠 雖無窮 已得如聖人則亦足矣 孔子爲其父母所不爲之事 今乃欲行之於久遠難辨之墓 果合於禮乎 就使其墓實爲先祖之墓 疑之而不敢封植 猶不失爲古不易墓之義 祖與父之所嘗疑而未敢定者 子忽起而追定之 則是以衆人疑惑之言 而定其先祖之墓也 其爲封植之未安 不亦甚於不封植之未安乎 噫 祖先遭大戮之變者 不幸之甚者也 子孫不知祖先之墓者 亦不幸之甚者 悼其不幸之甚而強取其疑似難辨之墓 以爲其墓 則是不亦爲不幸中尤不幸者乎 或曰 子之言然矣 然而子之說行 則爲子孫而不修其先墓者 皆以爲口實矣 余曰否否 此指其疑似者言之也 今古異俗 如知其眞爲祖先之墓 力可以封植而不爲之修 則是子孫之不肖者也 不肖者烏足與言哉 且孔子云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此爲強其所不知 以爲知者戒之也 凡事尙然 況於祖先之墓乎 孔子曰 多聞闕疑 慎言其餘 則寡尤 多見闕殆 慎行其餘 則寡悔 先祖之稱 言孰大焉 追遠之誠 行孰大焉 尋常言行 尙不可不慎 況於定先祖之墓 敢行其疑且殆者乎 以此而斷之 則其於處今日之變庶矣 故作此說以貽之 覽者無曰忝哉 蓋將以就正也

疑墓說

余以一禿翁閉門而居。忽有一秀才袖一紙書來訪。朴其姓。崇古其名。其書則即為其七代祖醉琴軒之墓。疑信未定。欲開折衷之論也。此事於文籍無可徵。

白野先生集卷三十二

三十一

於禮家無可據。如余涼識謾聞。奚足以斷之。然而其事悲矣。其誠切矣。其志勤矣。若是而無一言以答之。則不亦孤思孝者之望乎。茲余以嘗所粗得於方策者。為秀才誦之。余聞事有疑。則折諸聖。聖人人倫之至。而禮法之宗主也。後之人無志則已。如使有志則以之為已。以之為先祖也。宜何所取則焉。非聖人之道乎。記曰。孔子既得合葬於防。曰。吾聞之古也。墓而不墳。今丘也東西南北之人也。不可以弗識也。於是封之崇四尺。孔子先反。門人後。雨甚至。孔子問焉。曰。爾來何遲也。曰。防墓崩。孔子不應。三。孔子泫然流涕。曰。吾聞之古不修墓。夫慎終之心。人所同有。况以孔子之大聖。其所以慎之也。宜如何哉。墓而不墳。古也。而其崇四尺。則封植之亦已至矣。然旋聞其崩而不為之修。則大聖人之意。亦有攸在矣。推是而言之。則年所已久。世代已遠。之後。祖見其墓表之髣髴而未敢斷而定之。父繼而尋見之。亦未敢以為信。然祖與父之所未定者。乃欲定之於子之身。而修其墓。未知於證有乎。無有乎。於禮可乎。不可乎。孔子問於鄭曼父之母之事。君子謂之必不然。今此所謂許草堂之聞諸人者。與夫權巡察時士人來讓者。又非聊曼父

白野先生集卷三十二

三十二

之母之為證之比。其不足據以為信也亦明矣。大抵孝子慈孫追遠之誠。雖無窮。已得如聖人則亦足矣。孔子為其父母所不為之事。今乃欲行之於久遠難辨之墓。果合於禮乎。就使其墓實為先祖之墓。疑之而不取封植。猶不失為古不易墓之義。祖與父之所嘗疑而未敢定者。子忽起而追定之。則是以眾人疑惑之言。而定其先祖之墓也。其為封植之未安。不亦甚於不封植之未安乎。噫。祖先遭大戮之變者。不幸之甚者也。子孫不知祖先之墓者。亦不幸之甚者。悼其不幸之甚。而強取其疑似難辨之墓。以為其墓。則是不亦為不幸中尤不幸者乎。或曰。子之言然矣。然而子之說行。則為子孫而不修其先墓者。皆以為口實矣。余曰。否。否。此指其疑似者言之也。今古異俗。如知其真為祖先之墓。力可以封植而不為之修。則是子孫之不肖者也。不肖者烏足與言哉。且孔子云。知之為知之。不知為不知。是知也。此為強其所不知。以為知者戒之也。凡事尚然。况於祖先之墓乎。孔子曰。多聞闕疑。慎言其餘。則寡尤。多見闕殆。慎行其餘。則寡悔。先祖之墓。言說大焉。追遠之誠。行孰大焉。尋常言行。尚不可不慎。况於定先祖之墓。敢行其疑。且殆者乎。以此而斷之。則其於處今日之變庶矣。故作此說以貽之。覽者無曰休哉。蓋將以就正也。

白野先生集卷三十二

三十三

6) 허목(許穆)의 육신의총비문(六臣疑塚碑文)

세종 때 명신 중에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성삼문(成三問), 유응부(兪應孚), 이개(李塏), 유성원(柳誠源)이 있는데 이들을 육신이라 부르며 그 사적이 육신본전(六臣本傳)에 실려 있다. 육신총(六臣塚)은 서호(西湖)의 노량진(露梁津) 아래 강 언덕 위에 있는데, 세상에서는 옛날에 이곳에서 죄인을 죽였다고 한다. 비석에 모두 박씨(朴氏)·유씨(兪氏)·이씨(李氏)·성씨(成氏)의 무덤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박씨의 무덤이 가장 남쪽에 있고 조금 더 북쪽에 유씨의 무덤, 더 북쪽에 이씨의 무덤, 더 북쪽에 성씨의 무덤이 있다. 그 뒤 10여 보쯤 떨어진 지점에 또 성씨의 무덤이 있는데, 옛날부터 전해 오는 말에 성씨 부자가 묻힌 곳으로 그 뒤에 있는 것이 성승(成勝)의 무덤이라 하였다. 아, 육신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낸 자는 누구이며, 비석을 세워 그 장지를 표시한 자는 누구인가? 행적이 모두 없어져 후세에서는 알 길이 없다. 육신은 친척이 모두 죽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필시 그들의 빈객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의리를 사모한 나머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저버리지 않고 남몰래 그 시신에 각각 표시하고 이처럼 나열하여 묻고는 비석을 세워 매장한 곳을 표시하되, 일부러 그들의 이름을 숨겨서 마치 부인네의 비석인양 모씨(某氏) 모씨라고 한 것이리라. … 영남의 일선부[善山]에 하씨[하위지]의 무덤이 있고 유독 유씨[유성원]는 장지가 없다. 그의 전기(傳記)에 “모의가 누설되었다는 말을 듣고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고는 스스로 목을 찢러 죽었는데, 관리가 추후에 그 시신을 가져다가 사지를 찢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처형한 시기가 같지 않고 시신을 찢은 사람도 장소도 같지 않아서 장사 지낸 곳이 다른 것인가, 아니면 혹 불행하게도 끝내 장지가 없는 것인가. 아, 모두 알 수가 없다. 호서 홍주(洪州)에 성씨의 장지가 있고, 충주(忠州) 덕면리(德面里)에 박씨의 장지가 있다. 성씨의 외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른바 성씨의 무덤은 사지 중 하나만을 매장한 것이라 하니, 박씨의 무덤 역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어떤 이는 “종적이 이미 사라져 민간에서 전하는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다.”하니, 그 말이 사실 옳다. 이는 강가의 부로들이 전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에 불과할 뿐, 처음에 누가 보고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이미 증거로 삼을 만한 옛일이 남아 있지 않으니, 꼭 믿을 수 있다고 고집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천백 년이 흐른 뒤에 세대가 멀어질수록 민간의 이야기가 더욱 전해지지 않게 되고 그 무덤도 오랜 세월에 의해 변해 버려 반신반의하던 것까지 사라지게 된다면 지사(志士)의 뒤늦은 한탄이 무궁할 것인데, 더구나 어진 사람과 효자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박씨의 6세손은 현 동궁(東宮)의

좌익찬(左翊贊) 송고(崇古)이다. 그가 무덤을 봉분하고 장지를 표시하고는 나에게 부탁하여 그 의심스러운 점과 믿을 수 있는 사실을 모두 기록해 줄 것을 부탁하여 후세에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였으니, 아, 또한 어진 사람이다. … 금상 3년¹⁵⁾신묘년(1651, 효종3) 중하(仲夏) 하지(夏至)에 후학(後學) 양천(陽川) 허목은 쓰다.

世宗名臣 有朴彭年河緯地成三問俞應孚李塏柳誠源 號爲六臣 事在六臣本傳 所謂六臣塚者 在西湖露梁下江岸上 世傳古時 僂人於此云 皆刻石曰朴氏俞氏李氏成氏之墓 蓋朴氏之墓最在南 次北曰俞氏之墓 又次北曰李氏之墓 又次北曰成氏之墓 而又有成氏之墓 在其後十許步間 自古以爲成氏父子之葬 而其在後者 成勝墓云 嗟乎六臣之死 不知其收葬者爲誰 刻石表其葬者又爲誰 蓋皆沒其跡 後世莫知也 六臣者 親戚皆死 噍類不遺 必有賓客慕義 不以禍故相負 竊各識其屍列葬之如此 因刻石表其處 而故匿其名 爲某氏某氏 如婦人之表耶 其心良苦 有秋江處士 作六臣列傳 又著書時之賢人節士之行 頗記之詳矣 然而不言六臣之葬 何也 此皆當時事 不可知者也 嶺南一善府 有河氏之墓 獨柳氏無葬處 其傳曰 聞謀泄知事不濟 自剄死之 吏追取屍磔之云 然則施刑先後不同 磔死人 其地又不同 其收葬處異耶 或不幸而終無葬處耶 嗟乎 皆不可知也 湖西洪州 有成氏之葬 忠州德面里 有朴氏之葬 成氏有外子孫相傳 所謂成氏之墓 藏其一體云 朴氏之墓 亦如此 未可知也 或曰 蹤跡已泯 氓俗相傳 不可盡信 其言固然 此不過江上父老相傳至今 不知其初孰見而孰識之也 於今既無古事可徵 不可執以爲必信 又不可拒以爲必不信 但恐自此千百年後 世益遠 氓俗益不傳 墟墓久變 并其疑信而泯沒 則志士之追恨無窮 況仁人孝子之心乎 朴氏有六世孫 今東宮左翊贊 崇古 封其墓 表其處 屬余俱記其疑信 欲不沒於後世 嗟乎 亦仁也 因銘曰 忠臣之埋 志士之悲 氓俗之傳 百代之疑 西之人深目而髯 得其實者伊誰 上之三年辛卯仲夏日長至 後學陽川許穆 著

15) 금상 2년의 오기로 보인다.

六臣疑塚碑

世宗名臣有朴彭年河緯地成三間俞應孚李
愷柳誠源號為六臣事在六臣本傳所謂六臣
塚者在西湖露梁下江岸上世傳古時僇人於
此云皆刻石曰朴氏俞氏李氏成氏之墓蓋朴
氏之墓最在南次北曰俞氏之墓又次北曰李
氏之墓又次北曰成氏之墓而又有成氏之墓
在其後十許步間自古以為成氏父子之墓而
其在後者成勝墓云嗟乎六臣之死不知其收
葬者為誰刻石表其葬者又為誰蓋皆沒其跡
後世莫知也六臣者觀戚皆死噫類不遺必有
賓容慕義不以禍故相負各識其屍到葬之
如此因刻石表其處而故置其名為某氏某氏
如婦人之表耶其心良苦有秋江慶士作六臣
列傳又著書時之賢人節士之行頗記之詳矣
然而不言六臣之葬何也此皆當時事不可知

者也嶺南一善府有河氏之墓獨柳氏無墓
其傳曰聞謀賊知事不濟自剄死之吏追取屍
磔之云然則施刑先後不同磔死人其地又不
同其收葬處異耶或不幸而終無葬處耶嗟乎
皆不可知也湖西洪州有成氏之墓忠州德面
里有朴氏之墓成氏有外子孫相傳所謂成氏
之墓歲其一體云朴氏之墓亦如此未可知也
或曰蹤跡已泯氓俗相傳不可盡信其言固然
此不過江上父老相傳至今不知其初孰見而
孰識之也於今既無古事可徵不可執以為必
信又不可拒以為必不信但恐自此千百年後
世益遠氓俗益不傳墟墓又變并其疑信而泯
沒則志士之追恨無窮况仁人孝子之心乎朴
氏有六世孫今東宮左翊贊崇古封其墓表其
處屬余俱記其疑信欲不沒於後世嗟乎亦仁
也因銘曰
忠臣之埋志士之悲氓俗之傳百代之疑西之
人深目而髯得其實者伊誰

上之三年辛卯仲夏日長至後學陽川許穆著

7) 남구만(南九萬)의 육신묘비문(六臣墓碑文)

… 경성(京城)에서 남쪽으로 10리쯤 되는 한강 너머 노량진 강가에 다섯 기(基)의 묘소가 있으니, 각각 짧은 비갈에 박씨지묘(朴氏之墓), 유씨지묘(兪氏之墓), 이씨지묘(李氏之墓), 성씨지묘(成氏之墓), 성씨지묘(成氏之墓)라고만 표시하고 그 이름을 쓰지 않았다. 이는 여섯 성씨 중에 네 개만 있고 두 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육신의 묘라고 전해온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성씨(成氏)의 묘가 둘이 있는 것은 총관(摠管)과 승지(承旨) 부자가 함께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다. 하씨(河氏)의 묘는 영남(嶺南)의 선산(善山)에 있고 유씨(柳氏)의 묘만 유독 소재지가 전해지지 않는다. … 또 듣자하니 총관의 묘소가 또 홍주(洪州)의 고향에 있다고 하는데, 혹자가 말하기를 “형벌을 받은 뒤에 지체(肢體)를 각각 하나씩 묻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한다. 만일 이 말이 과연 맞는다면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천추에 눈물을 자아내게 할 만하다. 또 이곳에 성씨의 묘가 둘이 있는 것은 근래 노인들이 귀와 눈으로 실제 접한 것이고 전해 오는 말을 근거할 수 있으나, 어느 해인가 권세 있는 귀인이 강가에 별장을 지으면서 부근의 묘소에 있는 비갈을 모두 제거하였다. 권세 있는 귀인이 실세한 뒤에 어떤 사람이 예전의 비갈이 쓰러지고 부서진 것을 다시 수습하여 세웠으나 미처 다시 세우기 전에 나중에 쓴 무덤들이 그 사이에 많이 섞여 있어서 성씨의 한 묘소를 혼동하여 분별할 수가 없었고, 또 그 비갈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성씨의 묘소인 줄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가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당초에 네 성의 신하를 장례할 적에 하씨와 유씨의 묘소도 이 가운데에 있었는데 연도가 오래되어 혹 성씨의 한 묘소처럼 장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

6세손 익찬(翊贊) 숭고(崇古)에 이르러 생각하기를 “노량진의 묘소는 비록 근거할 만한 문적이 없어 의심하고 있으나 다섯 비갈에 네 성씨가 있으니, 이것이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어찌 성씨만 있고 이름이 없다 하여 믿지 않고 돌보지 않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옛 봉분을 더 쌓고 새 비갈을 세웠으며, 또 상공(相公) 허목(許穆)에게 비문을 요청하니, 이름하기를 ‘육신의총비문(六臣疑塚碑文)’이라 하였으나 미처 비석에 새기지 못하였다.

금상(今上) 5년 기미에 성상이 노량진에서 열무하실 적에 여러 공경(公卿)들의 아뢰를 따라 강 건너에서 묘를 바라보시고는 한탄하고 감회를 일으키시어 묘역에 봉분을 쌓고 나무를 심도록 명하였다. 중외의 많은 선비들이 이에 분발되어서 묘소 곁에 사우를 창건하고 육신을 나란히 제향하였다. 17년 신미에 상이 장릉(章陵)에 전알(展謁)하러 가실 적에 연(輦)이 묘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성상은 또다시

관직을 회복하고 치제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민절(愍節)’이라는 편액을 내렸다. …

승고의 손자인 청안 현감(淸安縣監) 경여(慶餘)가 이를 깊이 염려하고 여러 어른들과 상의하여 이 일의 시말을 자세히 기록해서 신도(神道)에 비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나에게 와서 명문(銘文)을 부탁하므로 나는 늙고 혼몽하다는 이유로 사양할 수가 없었다. 이에 나는 생각하기를, “그렇다. 노량의 묘소가 육신의 무덤이 됨은 믿을 만하고 의심할 수 없음이 참으로 그대 조고의 유의(遺意)와 같다. 저 옛날 장릉의 지위와 칭호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기휘(忌諱)하는 바가 있어서 감히 끝까지 말하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조정에서 육신에 대하여 혼쾌히 권장해 주어서 풍성(風聲)을 길이 세울 뿐만 아니라 장릉을 복위한 지도 여러 해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노량의 묘소에 있어서만 유독 의심스러워 신빙할 수 없다 해서 단단한 돌을 깎아 사실을 기록하여 옛날에 어두운 것을 제거하고 새로 드러냄을 이루어 지금에 밝혀서 장구한 후세에 분명히 보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고 마침내 그 일을 차례로 쓰고 명한다. …

惟昔端宗大王之遜國也 忠臣烈士爲之效死前後者多 而南秋江孝溫作丙子六臣傳行世 故有言及遜國時事 人必以六臣稱焉 自京城迤南十里 越露梁津岸上 有五墓 各有短碣 表曰朴氏之墓俞氏之墓李氏之墓成氏之墓 而不書其名 此於六氏 有其四而無其二 然其居民相傳爲六臣墓者 其來已遠云 成墓之有二者 以摠管承旨父子併命 河墓則在嶺南善山 柳墓則獨不聞所在 意者六臣之死也 其族夷矣 義故收以瘞之 冒禁周旋 勢不無難易之或異 是以或能歸骸於故鄉 亦或終不得掩土耶 且聞摠管墓又在洪州故鄉 或者曰刑禍之後 各藏其一體而然 如果信也 亦足令人釀淚於千秋矣 且此地成墓之有二 近古耆舊耳目相接 傳說可据 而不知何年有權貴人築莊江上 其近丘墓之有碑碣者悉去之 權貴人敗後 有人收拾舊碣於踏碎之餘 復豎之 然其未及復豎也 多有追瘞之塚間於其間 成氏一墓 混不可辨 且失其碣 故今之可認爲成墓者 只存其一 以此推之 當初四氏之葬也 河柳之墓 亦安知不在此中 而歲遠失處 或如成氏之一墓耶 嗚呼悲哉 六臣死時 子姓無遺類 唯朴氏有遺腹孫 混名隸人 得免收司 數世之後 朝廷始愍忠錄用 至六世孫翊贊崇古 以爲露梁之墓 雖以其無籍可攷爲疑 然而五碣四氏 此足爲徵 又豈可以有氏而無名 不信而不省也 遂增其舊封 易以新碣 且乞文於許相公穆 名之曰六臣疑塚碑文 而未及鑿石 今上之五年己未 上閱武露梁 因諸公卿陳白 隔江望墓 喟然有感 命封植其塋域 中外多士 作興於斯 就其墓旁 扞建祠宇 並享六臣 十七年辛未 上展謁章陵 輦過墓前 又命復官致祭 仍賜祠額曰愍節 嗚呼 前乎此則所謂六臣墓者 只是陂陲之抔土 剝蝕之片石 江翁津吏往來指點相

傳之私說 至于今則事登於公卿之敷奏 禮隆於天矚之再及 既有封植之恩命矣 又有祠宇之賸食矣 又有爵秩之復復矣 又有禋祀之特降矣 又有華扁之昭揭矣 朝家所以表章者光顯如此 而乃於其興哀之遺墟 猶置之疑信之間 使忠魂毅魄 長受其黜闇於荒草寒煙群憐衆啾之中 則不幾孤當時義士封土樹碣之苦心 又不幾虛今日聖朝表忠伸鬱之曠典耶 朴公之靈 亦豈肯曰余幸而有遺紹之血屬耶 崇古之孫清安縣監慶餘 深以此爲懼 謀于諸長者 欲備紀茲事之始末 建碑于神道 來請銘于余 余以耄昏辭不獲 乃曰然 露梁墓之爲六臣藏 可信而不可疑 誠如而祖之遺意 而其在昔莊陵位號之未復也 猶有所忌諱 不敢索言 今則不但朝家於六臣 快賜獎勵 永樹風聲 莊陵之復 亦既有年 今於露梁墓 獨不可以疑爲信 鑿堅紀實 祛舊晦而成新顯 暫當今而昭久遠乎 於是乎遂序其事而系之銘曰 西湖南岸 有墓纍纍 各有其表 五碣四氏 傳道自古 六臣所闕 其氏有六 此具其四 禍發之際 事出慕義 不書其名 知有所以 云何後人 有疑于是 雖緣無籍 實慮有忌 幸會聖朝 有感天意 褒忠獎節 靡有不至 白日之光 洞徹九地 曠度大德 不可擬議 昔者所諱 今悉無避 言念列表 不泐如彼 又加封植 其盛若此 人之然疑 汔可已已 醉琴有後 並主六祀 傳至六世 曾修墓圯 且述碑文 猶斬直致 爰及頃年 莊陵復位 崇岡若新 象設咸備 一體君臣 事豈有異 奉茲降魄 尤宜無貳 明言顯刻 用眎千禩 庶幾英靈 終焉此萃

露梁六臣墓碑 戊子
 惟昔 端宗大王之遜國也 忠臣烈士爲之效死 前後者多 而南秋江孝溫作丙子六臣傳行世 故有言及遜國時事 人必以六臣稱焉 自京城迤南十里 越露梁津岸上 有五墓 各有短碣 表曰朴氏之墓 俞氏之墓 李氏之墓 成氏之墓 成氏之墓 而不書其名 此於六氏 有其四而無其二 然其居民相傳爲六臣墓者 其來已遠 云成墓之有二 者以揔管承旨父子併命 河墓則在嶺南善山 柳墓則獨不聞所在 意者六臣之死也 其族夷矣 義故收以瘞之 冒禁周旋 勢不無難易之 或異是以 或能歸骸於故鄉 亦或終不得掩土耶 且聞揔管墓又在洪州故鄉 或者曰刑禍之後 各藏其一 體而然 如果信也 亦足令人釀淚於干 藥果集 十九 六碑 八

秋矣 且此地成墓之有二 近古者舊耳目相接 傳說可據 而不知何年有權貴人築莊江上 其近丘墓之有碑碣者 悉去之 權貴人敗後 有人收拾舊碣於路 碎之餘 復豎之 然其未及復豎也 多有追瘞之塚 間於其間 成氏一墓 混不可辨 且失其碣 故今之可認爲成墓者 只存其一 以此推之 當初四氏之葬也 河柳之墓 亦安知不在此中 而歲遠失處 或如成氏之一墓耶 嗚呼 悲哉 六臣死時 子姓無遺類 唯朴氏有遺腹孫 混名隸人 得免收司 數世之後 朝廷始愍 忠錄用 至六世孫翊贊崇古 以爲露梁之墓 雖以其無

籍可致爲疑。然而五碣四氏。此足爲徵。又豈可以有氏而無名。不信而不省也。遂增其舊封。易以新碣。且乞文於許相公穆。名之曰六臣疑塚碑文。而未及鐫石。今上之五年已未。上閱武露梁。因諸公卿陳白。隔江望墓。喟然有感。命封植其塋域。中外多士。作興於斯。就其墓。躬建祠宇。並享六臣。十七年辛未。上展謁。章陵輦過墓前。又命復官致祭。仍賜祠額。曰愍節。嗚呼。前乎此。則所謂六臣墓者。只是陂陁之杯土。剝蝕之片石。江翁津吏。往來指點。相傳之私說。至于今。則事登於公卿之敷奏。禮隆於天賜之再。藥泉集 十九 禪 九

疑。誠如而祖之遺意。而其在昔。莊陵位號之未復也。猶有所忌諱。不敢索言。今則不但朝家於六臣。快賜獎勵。永樹風聲。莊陵之復。亦既有年。今於露梁墓。獨不可以疑爲信。鑿堅紀實。祛舊晦而成新顯。晰當今而昭久遠乎。於是乎遂序其事。而系之銘曰。西湖南岸。有墓纍纍。各有其表。五碣四氏。傳道自古。六臣所闕。其氏有六。此具其四。禍發之際。事出慕義。不書其名。知有所以。云何後人。有疑于是。雖緣無籍。實慮有忌。幸會聖朝。有感天意。褒忠獎節。靡有不至。白日之光。洞徹九地。曠度大德。不可擬議。昔者所講。今悉無避。言念列表。不泐如彼。又加封植。其盛若此。人之然疑。况可己已。醉琴有後。並至六祀。傳至六世。曾修墓圯。且述碑文。猶斬直致。爰及頃年。莊陵復位。崇闕若新。象設咸備。一體君臣。事豈有異。奉茲降魄。尤宜無貳。明言顯刻。用眎千禩。庶幾英靈。終焉此萃。

藥泉集 十九 禪 十

〈별첨 6〉 순천박씨 족보 서문

1) 1670년 순천박씨 족보 서문

평양박씨족보(平陽朴氏族譜) 서 : … 그 가운데 다만 평양박씨가 세상에서 이름을 떨친 것은,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원종(元宗)과 참판공(參判公) 휘(諱) 팽년(彭年) 때문이다. 평성부원군은 혼주(昏主) 연산군(燕山君)을 가리킴)를 폐(廢)하고 중종(中宗)을 보필해서 기묘년(己卯年)의 문명(文明) 시대를 열었으니 그 공로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어찌 문장(文章)과 절의(節義)가 우주(宇宙)에서 빛나서 조선(祖先)과 종척(宗戚)들이 모두가 그 광휘(光輝)를 입게 한 참판공만이야 하겠는가. 그러므로 평양 박씨는 관작(官爵)의 융성함과 자손(子孫)의 번창함은 비록 타족(他族)만 못할지라도 남들이 사모하고 존송하는 것은 도리어 타족들이 미칠 바가 아닌 것이다. … 다행히 유복자(遺腹子)가 있어 신명(神明)이 보호해 줌으로써 수대[數世]를 이어내려왔다. 지금은 조정(朝廷)에서 비록 드러내서 숭보(崇報) 융숭하게 보답함)해 주는 일은 없어도 공의 자손(子孫)들을 관직에 등용한 지가 벌써 양세(兩世)가 되었다. 이제 (대구 못골에 세거하는) 금산군수(金山郡守) 송고(崇古)가 종인(宗人, 회덕현에 사는 易生에서 분파한 인의공파의 후손으로 서로 형제 사이)인 세진(世振)·세휘(世輝) 등과 함께 자료들을 수습(收拾) 찬집(纂輯)하여 세보(世譜)를 만들고 나에게 서문을 청하였다. … 승정 경술년(1670, 현종11) 중추일(仲秋日)에 은진 송시열은 쓴다.¹⁶⁾

16) 『宋子大全』 권 138 平陽朴氏族譜序 : … 獨平陽之朴 有名於世者 以平城府院君元宗 參判公諱彭年也 平城廢昏翊聖 以啓己卯之文明 則其功大矣 然亦豈如參判公之文章節義 震耀宇宙 祖先宗戚 竝被其光輝耶 故平陽之朴 其官位之隆 子孫之盛 雖遜於他族 而人之慕而尚之者 反非他族之所及矣 … 幸有遺腹 鬼葆神護 綿歷數世矣 今則朝廷雖不敢顯言崇報 而子孫收在朝籍者已兩世矣 今金山郡守崇古 與宗人世振·世輝等 收拾纂輯 以爲世譜 而請序於余 … 崇禎上章閏茂(1670) 仲秋日恩津宋時烈書.

古族姓書 無所謂朴氏者 獨我東以新羅王三姓 其一爲朴 故其子孫散處 皆爲大族 平陽卽其一也 密陽忠原 其世代浸遠 興替不常 亦有降爲編戶者 獨平陽之朴 有名於世者 以平城府院君元宗 參判公諱彭年也 平城廢昏翊聖 以啓己卯之文明 則其功大矣 然亦豈如參判公之文章節義 震耀宇宙 祖先宗戚 竝被其光輝耶 故平陽之朴 其官位之隆 子孫之盛 雖遜於他族 而人之慕而尙之者 反非他族之所及矣 參判公罹丹書族夷 其夫人亦孥執而全節 幸有遺腹 鬼葆神護 綿歷數世矣 今則朝廷雖不敢顯言崇報 而子孫收在朝籍者已兩世矣 今金山郡守崇古 與宗人世振世輝等 收拾纂輯 以爲世譜 而請序於余 夫譜所以傳於世而徵於後者也 今平陽之朴 旣曰非他族之所及 則所謂譜者 亦不須有矣 而況於序乎 皆曰雖然必序之 遂書此以遺焉 崇禎上章闈茂仲秋日 恩津宋時烈書

古族姓書無所謂朴氏者獨我東以新羅王三姓其一爲朴故其子孫散處皆爲大族平陽卽其一也密陽忠原其世代浸遠興替不常亦有降爲編戶者獨平陽之朴有名於世者以平城府院君元宗參判公諱彭年也平城廢昏翊聖以啓己卯之文明則其功大矣然亦豈如參判公之文章節義震耀宇宙祖先宗戚竝被其光輝耶故平陽之朴其官位之隆子孫之盛雖遜於他族而人之慕而尙之者反非他族之所及矣參判公罹丹書族夷其夫人亦孥執而全節幸有遺腹鬼葆神護綿歷數世矣今則朝廷雖不敢顯言崇報而子孫收在朝籍者已兩世矣今金山郡守崇古與宗人世振世輝等收拾纂輯以爲世譜而請序於余夫譜所以傳於世而徵於後者也今平陽之朴旣曰非他族之所及則所謂譜者亦不須有矣而況於序乎皆曰雖然必序之遂書此以遺焉崇禎上章闈茂仲秋日恩津宋時烈書

宋子大全

卷一百三十八

序 六

敢顯言崇報而子孫收在朝籍者已兩世矣今金山郡守崇古與宗人世振世輝等收拾纂輯以爲世譜而請序於余夫譜所以傳於世而徵於後者也今平陽之朴旣曰非他族之所及則所謂譜者亦不須有矣而況於序乎皆曰雖然必序之遂書此以遺焉崇禎上章闈茂仲秋日恩津宋時烈書

2) 1677년 순천박씨 『경신보』 서문 (『송자대전』)

『송자대전』 권138, 「평양박씨족보(平陽朴氏族譜)」: 내가 회덕(懷德)에 있으면서 매양 참판(參判) 박 선생(朴先生, 朴彭年)의 유허(遺墟)를 지날 때마다 반드시 그 당시의 자취를 더듬으며 감회에 젖곤 하였다. 지난 정해년에 도산(陶山)에 가서 석실(石室) 김 선생[金尙憲]을 찾아뵙고, 이어 산곡(山谷)을 탐방(探訪)하면서, 박중선(朴仲善) 및 그의 아들인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박원종(朴元宗)의 묘각(墓刻)을 보고 그 연속된 훌륭한 훈업(勳業)을 감탄하였다. 이제 박광후(朴光後)가 편집한 보첩(譜牒)을 보니, 이상에서 말한 두어 분[數公]은 모두 그 가운데 실려 있고, 또 양촌 권근(權近)의 문집 안에 실렸던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박가흥(朴可興)의 부인 정씨(鄭氏)의 묘지(墓誌)를 보니, 박가흥의 아들인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의 훈업(勳業)도 아울러 밝게 드러나 있다. 대체로 평양 박씨는 모두 고려(高麗) 시대에 좌승(左丞)을 지낸 박영규(朴英規)의 후손인데, 그 맨 시초는 실로 신라왕(新羅王) 혁거세(赫居世)에서 나온 것이다. 대체로 대수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윗대는 많이 실전(失傳)되어 보첩의 기록 정도로는 분명하게 고증될 만한 것이 없으니, 이는 형편이 그렇게 된 것이요, 평양 박씨의 보첩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남의 집안 족보를 많이 살펴보았는데, 현달(顯達)하고 번성한 집안이 진실로 적지 않았지만, 참판 선생[박팽년]만큼 훌륭한 어른이 계신 집안은 대개 몇 집 안 되었다. … 무릇 조상을 받들어 후손을 번창하게 하고 종족을 보호하고 집안을 화락하게 다스릴 사부(士夫)들로서는 모두가 의당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박)사술(士述, 박광후의 자)이 또 정씨(鄭氏)의 묘지문(墓誌文)에 의거하여 양릉(陽陵)에서 그 묘를 찾으려 하는데, 그의 효성을 신명이 감동하여 반드시 염수(驛叟)로 말미암아 묵은 덩불밭 속에서 그 묘를 찾게 될 것을 나는 알겠다. 승정 정사년(1677) 10월에 은진 송시열은 쓴다.

(박)사술(士述, 박광후의 자)이 양릉(陽陵)을 미처 못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 아, 사술은 자기 종족을 위해 족보를 만들었지만, 그 누가 사술의 행적을 기록하여 드러낼 자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략 이렇게 기록하노라. 경신년(1680) 윤8월에 쓴다.¹⁷⁾

余居在懷德 每過參判朴先生之遺墟 未嘗不撫迹興懷 歲在丁亥 往謁石室金先生於陶山 仍窮探山谷 見朴公仲善及其子平城府院君元宗墓刻 歎其蟬聯勳業之盛也 今見朴公光後士述所編譜牒 蓋已上數公 皆載錄其中 又權陽村集中載參贊議政府事諱可興夫人鄭氏墓誌 而其子知申事錫命勳業竝亦昭著 大抵皆祖於高麗左丞英規 而其本初實出於新羅王赫居世 夫其來也杳茫 故上世多亡失不見譜圖之例 斷自可徵者 其理勢然也 此不獨平陽譜爲然也 然余觀人家譜族系者多矣 其貴顯蕃茂者固不少 而有如參判先生者蓋無幾矣 世祖大王朝先生權丹書家覆 然世祖大王嘗教曰朴某萬世之忠臣 此則又未必貴顯蕃茂者之所可易也 況此譜能兼有之乎 余以先生之鄉人 而猶被其餘徽 則其祖先宗族之榮耀 又當如何也 是知此譜源委 因先生而益顯 先生始末 由此譜而愈詳 此尤可尙也已 凡譜于此者 蓋多聞人勝流 而其在光州者甚夥 又多好學有立 豈將益大而末艾也耶 竊惟程張夫子皆論明譜收宗之義 以爲朝廷自尊而大有所益 歐陽氏則又書其譜曰傳於其家者 以忠事君 以孝事親 以廉爲吏 而以學立身 此則非但朴氏 而凡士夫之承先裕後 保族宜家者 皆所當知也 今士述又將据鄭氏誌文 尋其墓於陽陵 吾知神感其孝 誠必付髻叟 而蕤之於荒榛崩薄之間矣 時崇禎強圉大荒落陽月日 恩津宋時烈敍 ○ 士述陽陵之行未成而奄先朝露 文谷金相公以書來曰 南州失此人矣 噫 時運之不佳 好物之難久 乃如是耶 士述曩在玄黃之日 雖被桁楊之酷 而志氣愈健 又能辨證松江之誣 以羽翼文元公老先生之論議 眞所謂劫火洞然 不燼惟玉者 此文谷所以爲世道悼惜如是夫 噫 士述能譜其族 而孰有能譜士述者耶 茲用略記于此云 庚申閏八月

17) 余居在懷德 每過參判朴先生之遺墟 未嘗不撫迹興懷 歲在丁亥 往謁石室金先生於陶山 仍窮探山谷 見朴公仲善及其子平城府院君元宗墓刻 歎其蟬聯勳業之盛也 今見朴公光後士述所編譜牒 蓋已上數公 皆載錄其中 又權陽村集中載參贊議政府事諱可興夫人鄭氏墓誌 而其子知申事錫命勳業竝亦昭著 大抵皆祖於高麗左丞英規 而其本初實出於新羅王赫居世 夫其來也杳茫 故上世多亡失不見譜圖之例 斷自可徵者 其理勢然也 此不獨平陽譜爲然也 然余觀人家譜族系者多矣 其貴顯蕃茂者固不少 而有如參判先生者蓋無幾矣 … 而凡士夫之承先裕後 保族宜家者 皆所當知也 今士述又將据鄭氏誌文 尋其墓於陽陵 吾知神感其孝 誠必付髻叟 而蕤之於荒榛崩薄之間矣 時崇禎強圉大荒落陽月日 恩津宋時烈敍 ○ 士述陽陵之行未成而奄先朝露 … 噫 士述能譜其族 而孰有能譜士述者耶 茲用略記于此云 庚申閏八月。

平陽朴氏族譜序

余居在懷德每過參判朴先生之遺墟未嘗不撫迹
興懷歲在丁亥往謁石室金先生於陶山仍窮揆山
谷見朴公仲善及其子平城府院君元宗墓刻歎其
輝聯勳業之盛也今見朴公光後士述所編譜牒蓋
已上數公皆載錄其中又權陽村集中載參贊議政
府事諱可興夫人鄭氏墓誌而其子知印事錫命勳
業並亦昭著大抵皆祖於高麗左丞英規而其本初
宋子大全 卷一百三十八 三十二

實出於新羅王赫居世夫其來也杳茫故上世多亡
失不見譜圖之例斷自可徵者其理勢然也此不獨
平陽譜為然也朕余觀人家譜族系者多矣其實顯
蕃茂者固不少而有如參判先生者蓋無幾矣世
祖大王朝先生罹丹書家覆厥世祖大王嘗教曰
朴某萬世之忠臣此則又未必貴顯蕃茂者之所可
易也况此譜能兼有之乎余以先生之鄉人而猶被
其餘徵則其祖先宗族之榮耀又當如何也是知此
譜源委因先生而益顯先生始末由此譜而愈詳此
尤可尚也已凡譜于此者蓋多聞人勝流而其在本

州者甚夥又多於學有立豈將益大而夫艾也耶竊
惟程張夫子皆論明譜收宗之義以為朝廷自尊而
大有所益歐陽氏則又書其譜曰傳於其家者以忠
事君以孝事親以廉為吏而以學立身此則非但朴
氏而凡士夫之承先裕後保族宜家者皆所當知也
今士述又將據鄭氏誌文尋其墓於陽陵吾知神感
其孝誠必付鬢髮而絕之於荒榛崩薄之間矣時
崇禎強圉大荒落陽月日恩津宋時烈敘

宋子大全 卷一百三十八 三十三
書來曰南州失此人矣噫時運之不佳好物之難
久乃如是耶士述曩在玄黃之日雖被桁楊之酷
而志氣愈健又能辨證松江之誣以羽翼文元公
若先生之論議真所謂劫火洞然不燼惟玉者此
文谷所以為世道悼惜如是夫噫士述能譜其族
而孰有能譜士述者耶茲用略記于此云庚申閏
八月

3) 1713년 순천박씨 『계사보』 발문

계사보 발문(癸巳譜跋文) : … 조선조에는 한석당(閑碩堂) 중림(仲林)과 취금헌(醉琴軒) 팽년(彭年)이 문학으로 명성이 있었으며, 평양군(平陽君) 석명(錫命, 박원종의 증조)과 충렬공(忠烈公, 武烈公의 오류?) (박)원종(朴元宗)은 훈업(勳業)으로 현저하였다. … 우암 송(시열) 선생이 순천박씨의 족보를 모으고 또 서문을 지어 종척(宗戚)인 광후(光後)에게 맡겼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간행하지 못하였고 또 우리 종조부 상진(相震)¹⁸⁾이 여러 해 동안 수보(修譜)에 뜻을 두어 제종들의 원파(源派)를 모아 대략 초본을 이루었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작고하였으니 지하의 영혼도 아마 여기에 권권(眷眷)하실 것이다. 광주(光州)의 종인(宗人)인 생원 광원(光元, 1659~1741)¹⁹⁾이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이 되어 녹봉의 빈약함을 따지지 않고 연출(捐出)하여 수보(修補)해서 전세(傳世)할 것을 결의한 다음, 대략 문족(門族)에게 도움을 받아 목판과 종이를 사서 완산(完山)의 시골집에서 개인(開印)하였다. 그리하여 구보(舊譜)로 인하여 자손을 기재하여 한권의 보첩을 이루었다. … 승정후 계사(癸巳, 1713) 12월, 종말(宗末) 유학민창(敏昌)은 쓰다.²⁰⁾

18) 『갑오식년사마방목(甲午式年司馬榜目)』 (규장각한국학연구원[想自古 351.306-B224s-1714])에 숙종 41년(1715) 진사시에 55세로 입격한 박세렴(朴世廉)의 아버지로 확인된다. 박상진의 품계는 통덕랑이며, 박세렴의 거주지는 청주(淸州)이다.

19) 박광원(朴光元), 호는 백야당(白野堂), 우헌(寓軒) 박상헌(朴尙玄, 1629~1693)의 둘째 아들로 송시열에게 서문을 청했던 박광일(朴光一)의 아우인데, 서문을 청할 때 동행했던 송시열의 문인 박광후와는 6촌간이다. 1699년(숙종25) 생원 1등으로 합격하여 벼슬이 형조정랑에 이르렀다. 시문집 『백야당집(白野堂集)』이 전해진다.

20) … 逮至我朝 有若閑碩堂仲林醉琴軒彭年 以文學鳴 有若平陽君錫命忠烈公元宗 以勳業顯 … 尤菴宋先生略聚順天朴氏族譜 又作序文 而屬於光州宗戚光後甫 而家貧資乏未及刊行 又我從祖父相震甫 積年留意於脩譜 求聚諸宗之源派 而略成草本 未就而歿 地下之靈 想必眷眷於此也 光州宗人生員光元甫 今爲慶基殿參奉 不計其祿薄 資綿決意於脩譜傳世 剩分其月俸略聚於門族 買板鳩楮 開印于完山村邸 而因其舊譜添系子孫 合成一卷譜牒 … 崧 崇禎後癸巳十二月 宗末幼學敏昌謹跋.

〈별첨 7〉 고려 전서 박공 묘표(高麗典書朴公墓表)(『송자대전』)

취금현 박팽년의 묘가 공주 유성현 대별리(大別里) 둔이동(遯頤洞)에 있다고 하는데 ... 이는 사실 취금현의 증조의 묘이다. ... 공의 이름[諱]는 원상(元象)이고 벼슬은 전서(典書)에 이르렀다. ... 아버지 숙정(叔貞)은 (보문각) 대제학[大提]을 역임하였고, 어머니는 대언(代言) 민씨(閔氏)의 따님이다. 부인은 남양 홍씨 언유(彦猷)의 따님으로 (장인은) 높은 벼슬을 지냈으며, 남양군(南陽君)에 봉해졌다. 아들 4형제를 두었는데, 큰 아들은 군수[郡事]를 지낸 수생(首生)이고, 둘째는 부사(府使)를 지낸 장생(長生)이며, 셋째는 의영고사(義盈庫使)를 지낸 안생(安生)이고, 넷째는 판관(判官)을 지낸 이생(易生)이다. 손자로는 근(根),²¹⁾ 추(樞), 즈(楫), 중림(仲林), 영림(榮林)이 있고, 증손자로는 취금현이 맏이고, 정언(正言)을 지낸 인년(引年), 정자(正字)를 지낸 기년(耆年), 박사(博士)를 지낸 대년(大年), 득금(得琴), 성금(成琴)이 있다. ... 근근이 이어오다가 6대손 생원 응신(應臣)이 감목관[監牧] 섬(暹)²²⁾이 의논하여 묘를 수호하기 위한 토지[墓田]를 장만하여 매년 10월에 가례(家禮)에 따라 제사를 지냈다. 지금에 10대손에 이르러 그 후손들이 번창하게 되었고, (회덕현에 사는 易生-榮林-得琴으로 이어지는 인의공파의 후손으로 서로 형제 사이인) 세진(世振)·세휘(世輝) 등이 (대구에 거주하는 박팽년의 直孫인) 숭고(崇古)·숭장(崇章)과 더불어 선대의 글들을 모으고 또한 묘소에 석물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서 표식으로 삼았다. ... 송정 을사년(1665) 12월 은진 송시열이 짓다.²³⁾

21) 『세종실록』과 『寅齋集』에 1431년 6월 13일 대사헌 신개(申概) 등이 평양 백성들의 억울한 옥사를 풀어 주기를 청하는 상소의 내용 중에서 정랑(正郎) 박근(朴根)이 확인된다.

22) 『송정원일기』 인조 15년(1637) 8월 13일 기사에는 수문장, 인조 19년(1641) 6월 24일 기사에는 영건만호(永建萬戶), 같은 해 7월 24일 기사에는 영달만호(永達萬戶)로 부임한 기록이 확인된다.

23) ... 醉琴有墓在公州儒城縣大別里遯頤洞 ... 此醉琴之曾祖 ... 公諱元象 官至典書 ... 考叔貞官大提 母閔氏 代言峇之女 公娶南陽洪氏 其考彥猷亦大官封南陽君 有四男 郡事首生 府使長生 義盈庫使安生 判官易生 孫曰根 樞 楫 仲林 榮林 曾孫則醉琴爲長 正言引年 正字耆年 博士大年 得琴 成琴 ... 其遺粵僅有存者 至公六世 生員應臣 監牧還議置墓田 每歲十月 依家禮一祭之 至今十餘世 則稍頗蕃衍 世振·世輝等與崇古·崇章就文等 合謀樹石墓前以表之 ... 崇禎乙巳十二月日 恩津宋時烈述.

我世宗朝名臣朴彭年號醉琴 或曰非也 醉琴罹丹書家以覆 然人必稱曰醉琴 醉琴有墓在公州儒城縣大別里遯頤洞 則人又尙而識之曰 此醉琴之曾祖 余一不知何以得此也 朴氏出平陽縣 高麗有平陽君蘭鳳 平陽今爲順天府 朴氏固班班可譜 然子孫徵其墓而其祀不絕 自遯頤公始 公諱元象 官至典書 其字行履歷 皆不可詳 惟時序則自醉琴遯之 當在勝國之末也 考叔貞官大提 母閔氏 代言岾之女 公娶南陽洪氏 其考彥猷亦大官封南陽君 有四男 郡事首生府使長生義盈庫使安生判官易生 孫曰根樞楫仲林榮林 曾孫則醉琴爲長 正言引年正字耆年博士大年得琴成琴 其兄弟子姪 坐醉琴禍死殆盡 世祖旋命公州東學寺僧徒設飯以食之 其名竝家僮皆載寺籍 其遺粵僅有存者 至公六世 生員應臣監牧暹議置墓田 每歲十月依家禮一祭之 至今十餘世 則稍頗蕃衍 世振世輝等與崇古崇章就文等 合謀樹石墓前以表之 公之事實 雖不可知 然莫爲之源 曷有其流哉 公固以醉琴而顯 亦豈公所積之報耶 嘗聞露梁之南有墓 題曰朴氏 與俞氏成氏者相比 世傳醉琴與同死 臣皆瘞於此 仁祖嘗幸金浦 有一士人立于其前 謂治道官曰 此忠臣墓地 不可夷而爲道 治道官遂不敢剗削云 嗚呼 其傳疑者猶且敬之如此 況其祖先耶 況其所嘗香火者耶 古人曰 愛其人 愛其屋上烏 後之人以此義推焉可也 崇禎乙巳十二月日 恩津宋時烈述

高麗典書朴公墓表
 我世宗朝名臣朴彭年號醉琴或曰非也醉琴罹丹書家以覆庶人必稱曰醉琴醉琴有墓在公州儒城縣大別里遯頤洞則人又尙而識之曰此醉琴之曾祖余一不知何以得此也朴氏出平陽縣高麗有平陽君蘭鳳平陽今爲順天府朴氏固班班可譜然子孫徵其墓而其祀不絕自遯頤公始公諱元象官至典書其字行履歷皆不可詳惟時序則自醉琴遯之當在勝國之末也考叔貞官大提母閔氏代言岾之女公娶南陽洪氏其考彥猷亦大官封南陽君有四男郡事首生府使長生義盈庫使安生判官易生孫曰根樞楫仲林榮林曾孫則醉琴爲長正言引年正字耆年博士大年得琴成琴其兄弟子姪坐醉琴禍死殆盡世祖旋命公州東學寺僧徒設飯以食之其名竝家僮皆載寺籍其遺粵僅有存者至公六世生員應臣監牧暹議置墓田每歲十月依家禮一祭之至今十餘世則稍頗蕃衍世振世輝等與崇古崇章就文等合謀樹石墓前以表之公之事實雖不可知然莫爲之源曷有其流哉公固以醉琴而顯亦豈公所積之報耶嘗聞露梁之南有墓題曰朴氏與俞氏成氏者相比世傳醉琴與同死臣皆瘞於此仁祖嘗幸金浦有一士人立于其前謂治道官曰此忠臣墓地不可夷而爲道治道官遂不敢剗削云嗚呼其傳疑者猶且敬之如此況其祖先耶況其所嘗香火者耶古人曰愛其人愛其屋上烏後之人以此義推焉可也崇禎乙巳十二月日恩津宋時烈述

〈별첨 8〉 우암 송시열의 성삼문 현양사업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계 인사들은 사육신의 신원을 주도하였다. 『송자대전』(142권 記, 이하 성삼문의 신주에 대해서 전거를 달지 않은 논의는 모두 『송자대전』의 여러 내용을 정리한 것임)에 의하면, 1672년 인왕산에서 성삼문의 신주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한 글에 “대개 세조대왕이 일찍이 ‘성모(成某)는 만세 충신(萬世忠臣)이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하(위지) 선생의 사당을 선산(善山)에 세웠고, 박 선생의 비석을 회덕에 세웠으나, 조정에서 금하지 않았다. 민(유중) 감사가 마련했던 비석은 이미 고택 앞에 가져왔으나 미처 다듬어서 글을 새기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사당과 비석 두 가지 일을 고을 이목사(牧使)와 면천 민 군수(郡守)가 끝까지 경영할 것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조경(趙綱, 1586~1669)의 『용주유고』에는 이 보다 앞선 1652년(효종 3) 성삼문의 옛 집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²⁴⁾ 그리고 송준길의 사위인 민유중(閔維重, 1630~1687)이 1668~1669년에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성삼문의 옛 집을 보수하였고, 비석으로 쓸 돌을 준비한 후에 스승인 송시열에게 비문을 청한 것이다. 또한 『성근보선생집』(권4, 「홍주성선생유허비」)를 보면, 송시열이 1668년 노은동에 와서 직접 살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와중에 1672년(현종 13) 호조의 서리 엄의룡에 의하여 인왕산에서 암벽이 허물어지면서 성삼문과 그의 외손 박호(朴壕, 1466~1533) 내외의 신주가 발견된 것이다. 당시 송시열이 직접 충청도 이산 고을에 사는 박호의 종현손을 만나서, 성삼문의 부인이 관비로 끌려가면서도 신주를 만들어서 제사를 모시다가 외손인 박호에게 넘겼는데, 사손(嗣孫)이 끊겨서 매안했던 것을 확인한다. 발견된 신주는 우선 박호의 외손 엄찬(또는 기록에 따라서는 동생인 엄집)의 집에 임시 봉안하게

24) 『龍洲遺稿』 권9 「응지소(應旨疏)」: 伏以七十垂死老臣 … 惟我國家於忠臣烈士褒美旌異之典 靡所不舉 前朝死節之臣如鄭夢周輩 咸加美諡 子孫收錄 斯豈非天地無私之量 不以本朝異代異視哉 獨臣耿耿於愚衷者 朴彭年·成三問·李埏·河緯池·柳誠源·俞應孚六臣等雖不識天命所歸 而死於所事之大節 彰彰明矣 旌閭之典 尙未及焉 豈其未遑歟 … 我宣祖大王亦下教錄用六臣之後 曠蕩之德 與神宗皇帝同一揆也 只恨當時廷臣不以祠慕表忠 推廣聖意而行之也 臣昔寓洪州地 審聞成三問本洪州人 其舊廬猶不壞云 … 이러한 인연으로 조경은 뒤에 『육신유고』의 서문을 쓰게 된다. 한편 조경의 본관은 한양, 호는 용주(龍洲), 주봉(柱峯)이다. 윤근수(尹根壽)의 문인으로, 1612년(광해군 4)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했으나 광해군의 난정(亂政)으로 대과를 단념하고, 거창에 은거하였다가, 1623년 인조반정 후 유일(遺逸)로 천거되었으나, 모두 사양하다가 이듬해 형조좌랑·목천현감 등을 지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 인조가 강화도에 파천하였을 때 강화론을 주장하는 대신들을 강경하게 논박하였다. 1650년 청나라의 척화신에 대한 처벌 요구로 영의정 이경석(李景奭)과 함께 의주 백마산성(白馬山城)에 안치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와, 1653년 회양부사를 지내고 포천에 은퇴하였다. 저서로 『용주집』과 『동사록(東槎錄)』이 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된다.²⁵⁾ 1803년 간행된 무안박씨 계해보(癸亥譜)에는 박호의 형인 박증(朴增, 1461~1517)의 3자 박대덕(朴大德, 1503~1553)이 박호의 양자로 수록되어 있다. 왕조실록의 기록으로 보아, 박호(1466~1533)는 친아들인 박대유(朴大有, ?~1521)가 자신보다 먼저 사망하자 곧바로 형에게서 아들을 입후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대덕과 그 후손의 묘역이 모두 박증 가계가 세거하는 현 논산시 상월면 인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박대덕이 박호의 우거지였던 경기도 양주로 이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한다면, 성삼문에 대한 제사는 관비가 된 부인이 직접 신주를 만들어 제사를 받들다가, 외손인 박호에게로 넘겨졌고, 그의 사후 박증의 아들을 입양하면서 노성에 세거하던 박증의 가계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송시열의 서간문을 보면, 신주를 매안한 인물은 박호의 친자 대유(大有)의 열자이며, 송시열에게 성삼문의 신주를 매안하였다는 사실을 제보한 인물은 박겸(朴謙, 1611~1679)이다. 그 서간에는 신주를 매안한 후에는, 지방(紙榜)을 써서 단지 박호 내외에 대한 제사만을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발견된 신주는 송시열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관심 속에 홍주 노은동의 성삼문이 태어났던 외조부 박첨(朴瞻, 생물 미상)²⁶⁾의 집으로 옮겨 봉안하였다. 신주가 발견된 후 송시열에게 이 사실을 알린 남택하(南宅夏) 등에게 보낸 답신의 별지를 보면, 신주의 봉안은 이산 고을에 세거하면서 제사를 받들었던 박증의 후손들, 무안 박씨 노성파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주를 봉안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위치한 부모님인 성승 장군 내외의 묘역에 잠시 들렀던 것으로 되어 있다.²⁷⁾ 신주를 모시는 제사에는 홍주 목사가 초헌을 담당하였다.

25) 엄찬은 박호의 외손 엄흔(嚴昕, 1508~1553)의 현손이다. 『중종실록』(중종 33년(1538) 1월 29일)에 따르면, 엄흔은 “박호의 손녀 사위[孫女婿]로서 박호에게 양자(養子)가 있음에도 지방에 있으면서 상사(喪事)를 주관하였고 반환(返魂)할 때에 비록 반환하지 않아야 할 처지로 반환하였다.”던 인물이다.

26) 『만성대동보』 등 일부 사료에는 朴瞻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최근 세워진 묘비에 朴瞻으로 표기되었다. 이에 따라 표기를 朴瞻으로 통일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7) 참고로 성삼문 선생의 부인 묘역 또한 노은동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하위지의 유희비를 여헌 장현광(1554~1637)²⁸⁾이 세웠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런데 막상 그의 문집인 『여헌집』에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장현광의 사후 문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배제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신독재집』에는 선산에 있는 단계 하위지의 묘비를 여헌 장현광이 썼다고 적시하였고, 『송자대전』 등에는 만력 44년(1616) 사당을 건립한 사실까지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서 송시열의 연보에는 박팽년의 후손 박송고와 만난 사실까지 기록하고 있다. 김집-송시열로 이어지는 율곡학파의 사육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위지의 유희비각 또한 송시열의 스승인 김장생의 증손 김만증(金萬增, 1635~1720)이 건립하였다.²⁹⁾

28) 장현광(1554~1637)은 한강 정구에게 수학한 적이 있어 퇴계학파로 분류되지만, 이기론·심성론 등에서는 이황(李滉)의 학설과 상이한 점이 많으며, 이러한 그의 견해는 명나라의 나흥순(羅欽順)과 율곡 이이의 이기심성론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남인계열의 학자들 중에서는 매우 이색적이고 독창적인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서로는 『여헌집』·『성리설(性理說)』·『역학도설(易學圖說)』·『용사일기(龍蛇日記)』 등이 있다.

29) 현재 선산의 단계하위지선생유희비(丹溪河緯地先生遺墟碑)에 대한 조사는 미진한 듯하다. 일부 자료에는 후대 비각을 건립한 김만증(金萬增, 1635~1720)이 선산부사로 재임하던 1694~1697년간에 유희비를 세웠다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별첨 9〉 박팽년의 외숙 김익정과 김종서의 관계(『단종실록』)

『단종실록』 권2, 즉위년(1452) 7월 4일 : 그때 『세종실록』을 편찬하였는데, 지춘추관사 정인지가 사신(史臣) 이호문(李好問)이 기록한 황희(黃喜)의 일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듣지 못한 것이다. 감정에 지나치고 근거가 없는 것 같으니, 마땅히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여 정하여야겠다.” 하였다. 영관사 황보인(皇甫仁), 감관사(監館事) 김종서(金宗瑞), 지관사(知館事) 허후(許誦), 동지관사 김조(金鈔)·이계전(李季甸)·정창손(鄭昌孫), 편서관 신석조(辛碩祖)·최항(崔恒)과 더불어 이호문이 쓴 것을 가지고 조목에 따라서 의논하기를, “그가 이르기를, ‘황희는 황군서(黃君瑞)의 열자(孽子)라.’ 고 한 것은 일찍이 이러한 말이 있었다. 황희도 또한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정실(正室)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그 밖의 일은 전에 듣지 못하였다.” 하였다. 허후가 말하기를, “우리 아홉 사람이 이미 모두 듣지 못하였으니 이호문이 어찌 능히 홀로 알 수 있었겠는가? 나의 선인(先人, 許稠)께서 매양 황상(黃相, 황희)을 칭찬하고 흠모하면서 존경하여 마지 아니하였다. 사람됨이 도량이 매우 넓으며 희로(喜怒哀)를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수상(首相)이 된 지 거의 30년에 진실로 탐오(貪汚)한 이름이 없었는데, 어찌 남몰래 사람을 중상하고 관작을 팔아먹고 옥사에 뇌물을 받아서 재물이 거만(鉅萬)이었겠는가? 그가 친구의 안부를 묻고 선물을 선사한 적은 간혹 있으나, 만약 자녀의 수양(收養)한 일 같은 것은 곧 세상 이목이 함께 들어서 아는 바이다. 황치신(黃致身)과 황수신(黃守身)은 모두 수양(收養)이 없고, 오로지 황보신의 처(妻)만이 양모에게서 자라나서 노비와 재물을 많이 얻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황희에게 관계되는 것이겠는가? 그가 말하기를, ‘본래 중[蒼赤]이 없었고 장인[妻父]에게서 얻은 것은 겨우 1, 2구뿐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부리는 자는 그 수를 알지 못한다.’ 하였으나, 아내 양씨(楊氏)는 세족(世族)이기 때문이니, 그가 ‘노비가 없었다.’ 고 말한 것은 망언이다. 더구나 황희의 자녀가 노비를 부리는 것은 사람이 모두 아는데 어찌 그 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그가 ‘김익정(金益精)이 황희와 더불어 서로 잇달아서 대사헌이 되어서, 모두 중[僧] 설우(雪牛)의 금(金)을 받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황금 대사헌(黃金大司憲)」이라고 일컬었다.’ 하였으나, 이것도 또한 알 수가 없다. 이미 말하기를, ‘당시 사람들이 이를 일컬었다.’ 하였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8, 9인은 어찌 한 사람도 들은 적이 없는가? 이호문은 나의 친속(親屬)이나, 사람됨이 조급하고 망령되고 단정치 못하는데, 그 말을 취하여 믿을 수 없으니, 이를 삭제함이 어떠한가?” 하였다.

김종서가 말하기를, “박포(朴苞)의 아내 사건은 규문(閨門) 안의 은밀한 일이니, 진실로 쉽게 알 수 없다. 그 밖의 일은 마땅히 사람의 이목(耳目)에 전파되었으므로 숨겨둘 수가 없는데 어찌 이와 같은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을까? 김익정은 나의 재종형(再從兄)인데, 내가 자세히 그 사람됨을 안다. 청렴결백함을 스스로 지키고 말에 신용이 있고 행동에 과감하기를 스스로 기필(期必)하는데, 이를 국량(局量)이 좁다고 일컫는 것은 가하지마는, 헌장(憲長)이 되어서 남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단연코 그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하였다.

모두가 말하기를,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필(史筆)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만일 한 사람이 사정(私情)에 따라서 쓰면 천만세(千萬世)를 지난들 능히 고칠 수 있겠는가?”하였다. 정인지가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세종의 교지를 친봉(親奉)하였는데, 말씀하시기를, ‘경들은 또한 사신(史臣)이니, 자세히 알고 있는 일은 추록(追錄)하는 것이 옳다.’ 하셨다. 일개 한림(翰林)이 쓴 것도 또한 ‘사초(史草)’라고 하니, 대신에게 감수 시키는데 흰하게 아는 일을 홀로 쓰지 않는 것이 가하겠는가? 우리도 또한 사신(史臣)이다. 이미 그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다면 어찌 이를 직필(直筆)이라고 하겠는가?”하고, 황보인은 말하기를, “이것은 큰 일이니, 마땅히 중의(衆議)를 채택해야 한다.”하고, 최항·정창손은 말하기를, “이것은 명백한 일이니 삭제하여도 무방하지만, 다만 한 번 그 실마리를 열어 놓으면 말류(末流)의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경솔히 고칠 수 없다.”하였다.

정인지가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이를 수정이라고 하겠는가?”하니, 황보인 등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큰일은 하나라도 불가함이 있으면 마땅히 정법(正法)을 따라서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 찬성(贊成) 권제(權躋)가 졸(卒)하였을 적에 사신(史臣)이 쓰기를, ‘대체(大體)를 알고 대신의 풍도(風度)가 있었다.’고 하였다.”하였다. 김종서가 말하기를, “권제는 가정이 바르지 못하여 정실과 소실의 자리가 뒤바뀌고 규문(閨門) 안에 자못 실덕(失德)한 일이 있었으니, 어찌 대체를 알고 대신의 풍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하니, 드디어 모두 의논하여 이를 삭제했다.

기주관(記注官) 등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법을 들어서 논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하니, 성삼문(成三問)·이예(李芮)가 곧 말하기를, “사신(史臣)이 쓴 것이 만일 정론(正論)이라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지마는, 만일 사정(私情)에서 나왔다면 정 판서(鄭判書)의 말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그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사서(史書)에 써서 두고, 그 좋은 일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삭제하여 버리니, 어찌 그리 상반되는가? 어찌 이것이 좋은 장점을 기리고, 악한 단점을 미워하는 의리(義理)이겠는가?”하고, 성삼문이

또 말하기를, “이호문의 사초(史草)를 살펴보건대, 오랫동안 연진(烟塵)에 묻히어 종이 빛이 다 누렇게 오직 이 한 장만이 깨끗하고 희어서 같지 아니한데,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와서 추서(追書)한 것이 분명하니, 삭제한들 무엇이 나쁘겠는가?” 하니, 김맹헌(金孟獻)이 말하기를, “내가 이호문과 한때 한림에 있었는데, 사람됨이 광망(狂妄) 하여 족히 따질 것이 못된다.” 하였다.

時 撰世宗實錄 知春秋館事鄭麟趾 見史臣李好問所記黃喜之事 以爲 此非吾所聞 似過情不根 當僉議乃定 與領館事皇甫仁 監館事金宗瑞 知館事許誦 同知館事金銚李季旬鄭昌孫 編修官辛碩祖崔恒 將好問所書 逐條議之曰 其云 喜爲君瑞之孽子 則曾有是言 喜亦嘗自言曰 予 非正室之子也 自餘他事 則前所未聞 誦曰 予九人 既皆不得聞 則好問安能獨知 吾先人每稱慕黃相 尊敬不已 爲人度量廣大 喜怒不形 爲首相幾三十年 固無貪污之名矣 安有陰中傷人 賣官鬻獄 財賄鉅萬乎 其通親舊之間遺 則或有之矣 若子女收養 則乃耳目所共聞知 致身守身 皆無收養 惟保身之妻 長于養母 多得僕貨 然此豈干於喜 其曰 本無蒼赤 得於妻父者 纔一二口 而身之所使者 不知其數 則妻楊氏 乃世族 其曰無奴婢者 妄也 況喜之子女 使喚奴婢 人皆知之 何至於不知其數乎 其曰 金益精與喜 相繼爲大司憲 皆受僧雪牛金 故時人謂之黃金大司憲 此亦未可知也 既曰 時人謂之 則今之在坐八九人 何無一人得聞乎 好問 予之親屬也 爲人躁妄不端 其言不足取信 削之何如 宗瑞曰 朴苞妻之事 乃閨門之內 微密之事 固不易知 其他則當播人耳目 不可掩藏 安有如此 而人未之知乎 益精乃予再從兄也 吾詳知其爲人也 廉介自守 信果自期 謂之局量狹隘 則可矣 爲憲長受人賂 斷不爲矣 咸曰 古今一揆 史筆不可盡信 類此 苟一人循私書之 則歷千萬世 其能改之乎 麟趾曰 予嘗親奉世宗之教 若曰 卿等亦史臣也 悉知之事 則追錄之可也 一翰林所書 亦曰史草 則監修大臣 灼知之事 獨不書之 可乎 吾等亦史臣也 既知其不根而不改 則豈可謂之直筆哉 仁以爲此乃大事 當采衆議 恒昌孫以爲 此是明白之事 削之無妨 但一開其端 則末流難遏 不可輕改 麟趾曰 然則豈曰修之乎 仁等以爲 如此大事 一有不可 則當從正法 乃不削 又於贊成權隄之卒 史臣書曰 知大體 有大臣風度 宗瑞曰 權也 家政不正 黃綠易處 閨門之內 頗有失德 豈可謂之知大體 有大臣風度乎 遂僉議削之 記注官等聞之曰 舉法論之 則當如此矣 成三問李芮乃曰 史臣所書若正論 則如此可矣 苟出於私 則鄭判書之言 無乃當乎 況於其不善 則以爲史書而存之 於其善 則以爲不信而削之 何相反也 豈善善長惡惡短之義乎 三問又曰 審觀好問史草 久埋烟塵 紙色皆黃 而惟此一紙 潔白不類 則其出於私意而追書也 明矣 削之何傷 金孟獻曰 予與好問 一時翰林 爲人狂妄 不足算也

時探 世宗實錄知春秋節事
 鄭麟趾見史臣李好問時記黃書之事以為此非尋常聞似過
 情不報當余議乃定與領館事皇甫仁監館事金宗瑞知館事
 許訓同知館事金龜李季旬郭昌孫編修官李碩崔惟哲
 好問詳書孫啓瑞之曰其云喜為君瑞之孽子則曾有是言喜
 亦自白曰子誠正堂之子也自餘他實則前所未聞胡曰子
 九人皆不得聞則好問安能知吾先人每稱慈黃相事敢
 不已為人度是廢去喜怒不形為首胡與三十年固無貪污之
 名矣安有除中傷人實官醫財賄每萬乎其通親舊之間鑽
 則或有之矣若子女收養則乃耳目所共聞知致身守身皆非
 收養惟係身之妻長子養母妾得惟貨然與喜子於喜其曰本
 刺者亦得於妻父若繼一二口而身之好使者不知其則喜
 婦氏乃世族其心無奴婢者妾也喜之子女使使奴婢人皆
 知之何至於不知其故乎其曰金君精於喜相繼為大司憲皆
 交借雪牛金故時人謂之黃金大司憲此亦未可知也既曰時
 人謂之則今之在坐八九人何無一人得聞乎好問子之親屬
 也為人嫌妾子端其言不足為信胡之何如宗瑞曰朴世妻之
 事乃閨門之內微密之事固不易知其他則言婦人耳目不可
 掩藏安有如此而人未之知手甚精乃子孫從兄也吾詳知其

為人也廉介山守信果自期謂之高直狹隘則可委為慮長愛
 人路斷不為美咸曰古今一揆史筆不可盡信難此獨一人猶
 私書之則歷千萬世其能改之手麟趾曰予嘗讀奉 世宗之
 教若曰卿等亦史臣也悉知之事則退錄之可也一翰林所
 亦曰史草則監修大臣灼知之事猶不書之可乎吾等亦史臣
 也既知其不報而不改則豈可謂之直筆哉仁以為此乃大事
 當采衆議極昌孫以為此是明白之事刺之無妨但一開其端
 則求深難過不可輕改麟趾曰然則豈曰修之手仁等以為此
 此大事一有不可則當從正法乃不削又於贊成權跋之手史
 臣書曰知大體有大臣風度宗瑞曰權也家政不正黃錄易家
 閨門之內頗有失德豈可謂之知大體有大臣風度乎遂食詳
 削之記注官于聞之曰崇法論之則當如此矣成三問李芮乃
 曰史臣所書若正論則如此可矣苟出於私則非判書之言無
 乃當乎況於其不善則以為史書而存之於其善則以為不信
 而削之何相文也豈善善成惡惡短之長乎三問又曰審觀好
 問史草久埋烟塵紙色皆黃而惟此一紙猶白不願則其出於
 私意而追書也明矣削之何傷金玉獻曰子與好問一時翰林
 為人枉幸不足算也

〈별첨 10〉 전의 초수(全義椒水) 관련 기록

1) 『세종실록』 권103, 26년(1444) 1월 27일

어떤 사람이 와서 아뢰기를, “청주(淸州)에 물 맛이 호초(胡椒) 맛과 같은 것이 있어 이름하기를 초수(椒水)라 하는데,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고, 목천현(木川縣)과 전의현(全義縣)에도 또한 이러한 물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듣고 장차 거동하여 안질(眼疾)을 치료하고자 하여 내섬시 윤(內贍寺尹) 김흔지(金_上之)를 보내어 행궁(行宮)을 세우게 하고, 이 물을 얻어 가지고 와서 아뢴 자에게 목면(木綿) 10필을 하사하였다.

有人來啓 淸州有水味如椒 名爲椒水 可治諸疾 木川全義縣 又有此水 上聞之 將欲行幸治眼疾 遣內贍寺尹金僉之 使營行宮 得此水來啓者 賜木綿十匹

○有人來啓淸州有水味如椒名爲椒水可治
諸疾木川全義縣又有此水上聞之將欲行幸治眼疾遣內贍寺尹
金僉之使營行宮得此水來啓者賜木綿十匹

2) 『세종실록』 권104, 26년(1444) 4월 15일

병조에서 아뢰기를, “전의(全義) 초수(椒水) 네 곳과 목천(木川) 초수 두 곳을 모두 수치(修治)하여 표한 안에는 잡수(雜水)가 숨어 들지 않게 하고 표한 이외의 논[水田]은 모두 경작하도록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兵曹啓 全義椒水四處 木川椒水二處 皆令修治 於標內不使雜水漏入 其標外水田 皆令耕種 從之

○四處木川椒水二處皆令修治於標內不使雜水漏入其標外水田皆
令耕種從之 兵曹啓全義椒水

취금헌 박팽년의 학술발표회



취금현 박팽년의 학술발표회



향토사 위원의 대구 묘골 답사 프로필



향토사 위원의 대구 묘골 답사 프로필





박패년 연표

| | |
|---------------|---|
| 1417년 (태종 17) | 출생 |
| 1432년 (세종 14) | 사마시 합격 |
| 1434년 (세종 16) | 문과 급제 |
| 1447년 (세종 29) | 중시 합격, 호당(湖堂)에 선발 |
| 1453년 (단종 1) | 우승지 |
| 1453년 (단종 1) |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조정의 실권을 잡음 |
| 1454년 (단종 2) | 형조참판 |
| 1455년 (세조 1) |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선위 |
| 1455년 (세조 1) | 충청도관찰사 |
| 1456년 (세조 2) | 형조참판 |
| 1456년 (세조 2) | 성심문 · 성승 · 유응부 · 하위지 · 이개 · 유성원 · 김질 · 권자신 등과 단종복위를 모의, 김질의 발고로 실패, 사육신과 그 외 연루자 70여 명이 모두 처형 |
| 1479년 (성종 10) | 후손 박일산 대구 요골에 태고정 건립(보물 제554호) |
| 1660년 (효종 1) | 윤순거 <노릉지> 편찬 |
| 1676년 (숙종 2) | 홍성에 녹운서원(綠雲書院) 건립 |
| 1679년 (숙종 5) | 사육신에 대한 복권 및 현창사업의 분위기가 무르익음 육신묘에 흙을 북돋아 묘봉을 봉식하게 함 |
| 1684년 (숙종 10) | 회덕에 정절서원(靖節書院) 건립 |
| 1685년 (숙종 11) | 강원도 영월에 창절서원(彰節書院) 건립 |
| 1691년 (숙종 17) | 관작 회복, 민절서원(愍節書院: 현 의절사) 사액 낙빈서원(洛濱書院: 현 육신사) 건립 |
| 1692년 (숙종 18) | 연산에 육신서원(현 충곡서원)을 건립, 사육신 배향 |
| 1730년 (영조 6) | 경북 의성 학산서원(鶴山書院) 건립 |
| 1758년 (영조 34) | 이조판서 추증, 충정공의 시호를 받음 |
| 1775년 (영조 51) | 충신문 명정(충주시 신니면 소재) |
| 1791년 (정조 15) | 단종충신어정배식록(端宗忠臣御定配食錄)에 오름 |
| 1923년 | 송절사(현 창계송절사) 건립 |